

한라산 총서 V

한라산의 구비전승·지명·풍수

목차

제1장 한라산 의 구비전승

1. 신화 13

한라산 신 계열 신화의 특성 / 13

설문대 - 원초적 대모신 / 13

한라산계 남성신들 / 14

2. 전설 41

신화의 전설화 / 41

부족함과 모자람의 모티프 / 42

도가적 신선사상 / 43

백록담 / 44

영주산의 백록 / 46

영실기암 / 47

용진각과 탐라계곡 / 50

물장오리 / 51

아흔아홉골 / 55

개미목 명당자리 / 56

고려장 / 59

3. 민요 62

산 / 63

오름 / 79

한라산 / 83

곶 / 89

제2장 한라산과 지명

1. 한라산국립공원 지역의 지명 유래 93

한라산국립공원 지역의 지명 유래 / 93

오름 / 96

내와 계곡, 실, 굴·골, 폭포 / 124

굴, 궤 / 131

바위, 암자 / 136

소, 물과 새미·세미·샘, 저수지 / 137

목·도·어귀 / 141

밭·왓 / 143

기타 / 144

제3장 제주의 풍수지리와 오름

1. 머리말 149
2. 풍수지리의 본령 151
3. 제주 풍수의 관념적 특성 154
한라산과 오름에 의지한 지모관 / 154
지모관과 설화 / 155
제주의 풍수 전설에 나타난 윤리성 / 156
4. 제주 풍수의 내재성 160
동기감응론과 소음 / 160
제주 풍수의 소음의식 / 163
소음과 6대 명혈 / 164
금장지에 표출된 공동체적 의식 / 169
'산담'에 표출된 생사일여관 / 171
오름에 묻히려는 귀소본능 의식 / 172
5. 맥과 관련한 단혈 전설 175
호종단의 지압설 / 176
샘과 관련한 풍수 전설 / 181
6. 비보·압승의 풍수관 184
제주의 방사탑과 돌담 / 187
오름은 마을의 진산 / 187
돌과 관련한 풍수전설 / 190
7. 제주 풍수의 모체인 한라산과 오름 199
제주 생명의 상징 한라산 / 199
종산인 한라산의 역할 / 202
한라산의 산세 / 206
과영주산세지에 나타난 지세 / 209
8. 제주의 풍수적 지맥 214
지맥의 개념 / 214
지맥을 이어주는 용맥의 역할 / 216
9. 제주의 오름과 풍수 221
오름에 대한 옛 제주인의 시각 / 221

설화에 나타난 오름의 인격화 / 221

오름의 풍수적 상징성 / 222

오름의 풍수적 산형 / 223

오름의 풍수적 형상화 / 226

10. 제주 풍수와 관련된 주요 오름들 227

11. 형기론과 제주의 풍수 270

제주 곳곳의 풍수적 물형 / 270

지명과 풍수 / 274

12. 제주의 묘지 풍수 특징 278

명당의 개념 / 278

제주의 묘지 풍수 / 281

소장별 목장 안의 명혈처 / 282

13. 제주의 주요 명혈지 탐색 284

14. 제주 풍수의 자연환경 접근 296

오름의 '풍수적 생명관' 정립 / 296

자연환경의 풍수적 보전과 관리 / 297

15. 맺음말 300

참고문헌 303

사진 목차 306

그림 목차 309

표 목차 309

색인 310

제1장 한라산의 구비전승

1 신화

한라산 신 계열 신화의 특성

설문대 - 원초적 대모신

한라산 신화의 계열은 설문대계신화와 수렵적 성격을 지닌 한라산 태생의 남성신 들이다. 여성성을 지닌 설문대계와 남성신의 성격을 지닌 한라산계 신화 중 설문대계 신화인 여신 신화가 그 시대적인 면에서는 우선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역사적인 문헌상에 나타난 설문대에 대한 기록은 장한철(張漢喆)의 표해록을 들 수 있다. “백록선자(白鹿仙子)와 선마고(洗麻姑) 신에게 절하며 축원했다”(영조 46년)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기록으로 보면 당시 백록을 탄 신선이 한라산을 주름잡고 있다는, 도교적 신선 사상과 더불어 여신성을 가진 설문대 할망이 한라산의 산신으로 좌정했었음을 의미한다.

거녀인 설문대는, 창조행위와 관련하여, 치마에 흙을 담아서 봉우리를 만든다거나, 배설한 대소변으로 산천을 만든다는 등 여러 자료에서 희화화된 행동으로 서술되고 있음을 볼 때, 육지부의 마고할미와 닮아 있다. 이처럼 원초적인 신격으로, 세계창조행위와 자연물의 내부를 질서화한 여신으로 존재했다는 것은 대모신(the great mother)으로서의 특성을 암시한다.

신라의 산신제는 국행제인 경우 영산(靈山)에서 시작되고 있다. 신라의 산천제에서 산신은 민간에서는 호랑이를 신봉하는 호(虎)산신이나, 국행제에서는 남성신과 여성신으로 등장한다. 설문대 할망은 강원도의 마고할미, 북한산 노적봉의 미륵할미처럼 창조형 거인 여신이며 여산신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신앙의식은 영실 오백나한의 불교와 성모여산신의 도교적 성격과 관련되면서 호국신적 성모신 성격도 다분히 첨가되고 있다.

성모여산신에 대한 기록을 찾으면, 삼국유사 감통 제7에 나오는 선도성모는 중국의 제실지녀(帝室之女)가 남편없이 잉태하여 사람에게 의심을 받자, 배를 타고 진한(辰韓)에 와서 해동의 신라시조(新羅始祖)인 혁거세를 낳은 여산신이다. 신라 남해왕(南解王)의 비, 운제(雲帝)부인인 운제성모(雲梯聖母), 혹은 가야산성모(伽倻山 聖母), 지리산(智異山), 치술령(躋述嶺) 신모와 같은 존재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신라 초기의 여산신의 출현은 손진태의 “朝鮮 古代의 山神의 性에 就하여”(『조선민족문화의 연구』)에 따르면 “원시사회에 있어서 모권이 강했고, 원시 종교에서 여무(女巫)가 주제자였다는 데 기인한다.”고 했다.

곧, 선도산 성모신화는 혁거세 신화보다 앞선 것이므로 신적 속성은 고대국가 성립 이전의 신관념으로 표상 가능한데, 그 역할은 지모신, 생산신적 역할을 담당했다고 주장한다. (강진옥, 1993. “마고할미설화에 나타난 여성신 관념”, 『한국민속학』 25, 한국민속학회.) 성모의 오줌줄기가 힘이 세고 양이 많았다는 것은 생식력과 다산신을 의미하는것으로, 이는 성모신, 서구암의 마고할미, 설문대가 유사한 성격을 보여준다.

이러한 신격들은 세계창조의 대모신으로, 건국신화에는 편입되지 못한 채, 국가적인 체제가 형성되기 전부터 존재해 온 고유한 창조행위를 담당한 생산신으로 숭앙된 원초적인 신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라산계 남성신들

무속신화에서 구송되고 있는 당신 본풀이 속의 한라산계의 본풀이는 또 하나의 제주민과 관련된 한라산계 신화들이다.

한라산 서쪽 어깨에서 태어난 아홉 형제가 한라산 계의 당신이 된다. 한라산계 본풀이의 당신들은 ‘제석천황’, ‘하로백관’ 등의 신명을 지닌다. 제석천황은 천신적(天神的) 성격, 하로백관은 산신(山神) 혹은 수렵신 목축신의 성격을 지닌다. 또한 하로백관에서 하로는 ‘한라산’에 해당되고, ‘백관’은 특정한 영역을 관리하는 신이라는 뜻이다.(강정식, 2002. “濟州島 당신 본풀이의 傳承과 變異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 논문.) 이들의 출현은 한라산에서 ‘솟아났다’란 점에서 탐라국의 건국신화인 삼성신화의 삼을라가 모흥혈에서 솟아났다는 점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한라산계 당신 신화 계보는 강정식(정신문화연구원, 2002)에 따르면 창천리 고창학 심방에 의해서 구연된 자료에서 잘 나타난다고 한다. “한로 영주삼신산 상상 고고리 셋어깨 을축 삼월 열사흘날 유시 아홉형제 솟아나니, 아홉성제 각기 간분흙 때 큰성님은 정의 수산 울웨마루 하로산, 둘째 물미제석천왕 하로산, 殖차 예촌 고벙석도 하로산, 嶺차는 동서흥리 고산국 하로산, 다섯차는 중문이 동백자 하로산, 여섯차 하열리 동백자 하로산, 일곱차 날래 제석천왕 하로산, 여덟차 통천이 남판돌판고나무상태자 하로산, 아홉차 색달리 제석천왕 하로산, 각마을에 분거뒀었다…” 처럼 아홉이나 되는 형제들의 탄생을 종지용출과 서차를 제시하거나, 신의 출자나 특성을 정의하는 방식으로 제시한 후 전개하고 있다.

강정식은 한라산계 본풀이를 송당계 본풀이, 그리고 예래계 본풀이, 금악계 본풀이와 연관시켜 각 본풀이들의 연계성을 잘 제시하고 있다. 송당본풀이(진성기, 1991,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pp.509~510)와 한라산계 본풀이와의 연계성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신은 송당 본향당신 아들 중에서 다섯째 아들이 수산하로산인데, 이 수산하로산은 한라산계 아홉형제 중에서 첫째 아들이 되는 것이다. 곧, 송당계와 한라산계는 서로 유명신당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당신들의 명칭이 넘나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한라산계와 예래계와의 관계는 부너지간이 되어 여성신 계보를 형성한다. 아버지 하로 하로산과 족다리대서 부인 사이에서 딸 일곱을 낳았는데, 이 딸들은 창천, 통천, 감산 등의 당신으로 좌정하게 된다. 이는 이 지역 여성들의 혼인에 따른 전파와 마을 분리에 따른 신앙 분리에서 찾고 있다.

또 한라산계와 금악계의 관계는 한라산계의 하나인 ‘호근본향당 본풀이’에서 한라산신의 따님 아기가 부모로부터 쫓겨난 뒤 대정으로 이동하면서 곳곳마다 일웨당을 설립했다는 것에서 살펴 수 있는데, 당신들의 계보는 실제로 단골들의 혈연적 관계를 반영한 것이다.

한라산계 외에도 서귀본향당 신화의 남 주인공 ‘브름웃도’, 세화리 본향당 본풀이의 ‘천자또’, 송당본풀이의 미곡신인 ‘백주또’ 할망의 남편인 ‘소로소천국’, 금악리 본향당 본풀이의 ‘황서국서’ 등도 한라산 태생의 신들이다.

이들 신들의 본풀이인 신화에는 좌정 경위담, 혹은 제향 경위담이 들어 있다. 또한 무속에서는 한라산 태생의 남성신들이 있고 이러한 신들은 외방에서 온 여신들과 더불어 갈등을 일으켜 분가를 하며, 한라산을 떠돌며 수렵하던 수렵생활에서 농경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반영하기도 한다.

손진태에 의하면 고대국가 이전의 원초적 관념의 성격을 띤 거녀류의 여산신은 단군신화(檀君神話)에서 단군(檀君)이 남성성을 띤 남신(男神)이 된 것처럼 성이 바뀌게 된다. 이미 삼국시대 때부터 남성신이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신라 강성시대 이후부터 고려 통일시대에 이르기까지 당시의 지배계급 또는 지식계급 사이에 중국 전래의 부권(父權) 본위의 사상에 의하여, 혹은 필연적인 사회사상에 의하여 점차로 산신이 남성으로 화했던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이처럼 설문대 신화는 고려기를 거치면서 바로 남성신인 '부름웃도'와 같은 남신(男神)으로 대체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들은 악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한라산 신을 만들고 각 마을마다 가지를 뺏으면서 전도적으로 분포시켰다. 신들이 외부의 여성을 만나서 살아가기도 하고, 현실에 적응, 혹은 투쟁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바로 제주인의 삶의 모습 그대로이다.

설문대

옛날 제주도에 고, 양, 부 삼을라가 태어난 시대에 설문대 할망이라는 키 큰 할머니가 있었다. 설문대라는 이름 외에도 설명두할망 또는 세명뒤할망이라고 했다. 이 할머니는 한라산뿐만 아니라 제주도를 창조한 창조적 대모신으로 인식되고 있다.

얼마나 키가 컸던지, 한라산을 베개 삼고 누우면 다리는 제주시 앞 바다에 있는 관탈 섬에 걸쳐지고, 손은 한라산 꼭대기에 이르렀다.

빨래를 할 때는 왼쪽 발은 한라산에, 오른쪽 발은 산방산(山房山)을 딛고 서서 태평양 물에서 자신의 옷을 빨기도 하고, 한쪽 발은 한라산을 밟고 다른 한쪽은 소섬을 딛고 서서 바닷물에 빨래를 했다고도 하며, 또 왼쪽 발은 성산 일출봉(城山日出峰)에 딛고 오른쪽 발은 마라도(馬羅島)에, 옷은 남원읍 위미리 앞 쪽에 있는 지귀섬(남원읍 위미리)에 놓고 했다고도 한다. 또 북쪽 바다를 향해서 빨래를 하려고 하면, 추자도(楸子島)와 완도에 발을 딛고서 보길도(甫吉島)에 옷을 놓고 했다.

설문대 할망은 비록 여자지만 제주도를 통치할 야욕을 품고 제주 지형을 차례로 만들어 가기 시작했다. 제주도에 360여 개나 되는 산(오름)들은 할머니가 치마폭에 흙을 넣고 다니다가 생긴 것이 오름이 되었다고 하기도 하며, 또 할머니가 삼으로 흙을 날라 가면서 한 줍씩 집어넣은 것이라고도 한다. 구좌읍(舊左邑) 경에 있는 ㄷ랑쉬 오름은 움푹하게 패어 있는데, 이것은 할머니가 흙을 넣고 보니 너무 많아 보여 주먹으로 봉우리를 탁 쳐서 덜었더니 그러한 형상이 된 것이다.

성산리(城山邑) 앞바다에 있는 소섬(牛島)은 처음부터 지금처럼 따로 떨어진 섬이 아니었다. 설문대 할망이 외출을 했는데, 바짝 오즘이 마려웠다. 그래서 한쪽 발은 오조리(城山邑 呑照里)의 식산봉(食山峯)에 디디고, 한쪽 발은 일출봉에 놓아 앉아 오즘을 썼다. 그 오즘 줄기의 힘이 어떻게 세었던지 육지가 파이며 오즘은 장강수(長江水)가 되어 흘러 나갔고, 제주 섬 한 조각이 동강이 나서 떨어져 나갔다. 이 섬이 바로 소섬, 우도다. 그 때 흘러나간 오즘이 지금의 성산(城山)과 소섬 사이의 바닷물인데, 그 오즘 줄기의 힘이 워낙 세었기 때문에 깊이 패어서, 고래나 물개 따위도 살 수 있는 아주 깊은 바다가 되었고, 그 때 세차게 오즘이 흘러가던 흔적으로 지금도 이 바다는 조류가 세어서 배가 난파되는 일이 많다. 여기에서 배가 깨어지면, 조류에 휩쓸려 내려가 그 형체를 찾을 수가 없었다.

오즘뿐만 아니라 할망이 수수범벅을 먹고 짠 똥이 산이 된다. 한라산을 베개 삼으면, 발이 바닷가에 잠기며, 발을 잘못 뺏어 섯섬에 커다란 구멍을 만들었다. 오즘 놀 때, 포수에게 쫓기던 사슴들이 할망의 성기를 굴로 착각하여 그 속으로 들어가자, 할망이 간지러워 오즘을 싸서 오즘은 바로 내(川)가 되었다.

성산 일출봉에는 할미가 길쌈할 때 쓰던 접시 불인 등경 돌이 있다. 남의 옷은 해주면서도 거

인은 자신의 속옷조차 제대로 해 입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속옷을 만들어 주면, 제주도에서 진도까지 다리를 놓아주도록 하겠다고 사람들과 약속을 한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도민들은 부지런히 명주 100통을 모았고, 할머니는 부지런히 다리를 놓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속옷은 명주가 백 통이 필요하지만 제주 사람들은 아무리 모아도 99통 밖에 되지 않았다. 그래서 속옷은 만들지 못하고, 할머니는 다리를 놓아가다가 중단하여 버렸다. 조천면 조천리, 신촌리 바다로 뻗어나간 것이 그 흔적이라고 한다. 그래서 제주 땅은 영원한 섬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키가 큰 자신을 늘 자랑하던 할머니는 제주도에 있는 깊은 물들이 얼마나 깊은지를 확인하려고 했다. 용담동에 있는 용연에 들어가 보니 물이 발등에 찼고, 서귀포의 서흥리 홍리물은 무릎까지 왔다.

할망은 어느 날 너무 심심해서 한라산 중턱에 있는 물장오리의 물이 얼마나 깊은가 하고 알아보기 위하여 그 속에 몸을 담갔는데, 지금까지 나오지 못했다고도 한다. 물장오리가 밑이 터져 한없이 깊은 물인 줄을 몰랐던 것이다.

신화적 요소를 잘 간직한 각편이다. 자연적 다산신으로서 거녀적인 면모와 생산신으로서 모티프는 각처에 지형을 창조하기 위해 흙을 날랐다는가, 강한 오줌줄기로 인해 깊은 바다가 생겼다는 것에서 잘 반영된다. 그리고 여성성을 상징하는 할머니의 속옷을 지역민의 능력이 부족하여 만들지 못하자 육지와 다리를 놓아가다가 중단했다는 것은 세계 창조의 대모신적 한계를 통해서 화산섬으로서의 지형을 합리화하고 있다.

이러한 거녀의 성기가 너무 커서 사슴들이 굴인 줄 알고 들어가자, 간지러워 오줌을 뉘서 제주의 하천이 형성되었다는 것, 수수범벅을 먹고 짠 똥이 오름이 되었다는 것은 신화의 신성성이 약화되고 희화화되는 과정을 반영한다. 희화화되는 과정에서 섭지 코지에 사는 설문대 하르방과 할망의 이야기가 생겨나는데, 설문대 하르방이 고기잡이를 갔다가, 고기가 많이 있어 할망에게 다리를 벌리고 있으면 고기를 할망의 생식기로 몰아가겠다고 한다. 할망이 다리를 벌리자 고기들이 그 속으로 들어가 많이 잡혔다는 것이다. 이는 장르의 변이다. 곧, 구전되던 신화가 신성성은 사라지고 희화화되면서 민담 차원으로 장르 변이를 가져온 것이다.

브름웃도-서귀본향당신

배씨 영감인 브름웃도는 한라산에서 태어난 남신이다. 한라산의 바람을 안고 이 곳 저 곳을 다니는 것이 취미였다. 부인들과의 사랑이야기인 큰 부인 고산국과, 작은 부인 지산국과의 삼각관계가 유명하다. 어느 날은 브름웃도가 흥토나라 흥토철리 비오나라 비오철릴 다니다 보니, 한집에는 천하 미색 고운 딸아이가 있었다. 브름웃도는 그의 딸을 눈에 두어서 하룻밤을 그 집에 머물기로 작정했다.

딸아기는 앞태를 보아도 뒷태를 보아도 걸음걸이를 보아도 예쁘지 않은 곳이 없었다. 하루는 물 길러 가는 딸을 불러 물었다.

“너의 이름이 뭐냐?”

“지산국입니다.”

그래서 그는 며칠 더 그 집에서 머물기로 하고 지산국을 지켜보면서 연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하루는 용기를 내어서 주인에게 딸과 혼사를 맺도록 허락해달라고 간곡히 청하자 허락을 했다.

“정말 행운이야.”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예쁜 지산국과 결혼 약속을 했으나, 자신의 부인이 된 여자는 다름 아닌 그녀의 언니인 고산국이였다. 두 자매는 늘 착해서 온 동네에 소문이 자자했으며, 언니인 고산국은 얼굴이 추녀인 반면 마음씨는 아주 고왔다.

브름웃도가 제주도로 환고향을 하려고 할 때, 브름웃도는 온통 고민에 휩싸였다. 결국 지산국과 같이 도망가기로 한 것이다. 바닷물을 건너 한라산쯤에 이르렀을 때 고산국의 목소리가 들려 왔다.

“너희들 도망 못 간다.”

남편과 동생이 같이 제주 땅으로 도망간 것을 알고 쫓아온 것이다. 그런데 한라산에 어느새 안개가 자욱하여, 돌이 숨은 곳을 찾을 수가 없었다.

고산국은 허위허위 잡목을 헤치면서 한라산을 넘어서 서귀읍 상호리 움탕밭 돌무더기 앞, 찰리 굴, 서귀읍 동흥리의 옷배넛도, 알배넛도, 한라산 중허리의 개미목, 서귀읍 토평리와 동흥리 경계인 쌀오름까지 다달았다.

세 부처는 지쳐서 다리를 펴고 쉬면서 자신들 앞에 펼쳐진 서귀포 지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때 마침 아랫마을에 살던 김씨 영감이 지나가고 있었다. 고산국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어이 영감, 저기 보이는 지경이 어디쯤 되느냐.”

“예, 저기는 토평 지경입니다. 그 바로 앞은 동흥리 지경이고요, 바른 남쪽은 서귀포가 됩니다. 또 서쪽은 서흥리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길을 가르치면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느냐?”

“어렵지 않죠.”

김씨 영감이 앞을 서서 팔을 앞뒤로 휘저으며 갈 길을 인도하고 있었다. 산을 내려오다 보니 목장을 구획하기 위해 자그마한 돌들로 쌓아 놓은 잣성들이 있었다. 상잣을 훔쩍, 중잣을 훔쩍, 하잣성을 넘어서 김씨 영감은 앞으로 내달음질을 쳐 나갔다. 세 부처도 묵묵히 말없이 따라갔다.

막상 마을에 당도하였으나 어디 마땅히 머무를 곳이 없었다.

그래서 김씨 영감 집에서 머무르기로 했다. 그런데 김씨 영감집에 당도하자 인간의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먼지 냄새, 그을음 냄새, 불로 익힌 음식 냄새가 온통 진동하는 것이 아닌가. 도저히 인간 들과는 살수가 없음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셋은 가시물리웨들로 가려고 했다.

고산국은 서로 화이를 하고자 했다. 그래서 제안을 했다.

“우리는 서로 자매지간이었으나, 한 남자로 인해 완전한 원수가 되었으니 어쩔 도리가 없다. 땅과 국과 물을 가르는 수밖에…”

세 사람은 뽕개질로서 자신들의 영역을 정해서 좌정하기로 했다.

우선 고산국이 힘을 내어 한 발쯤이나 되는 노끈 가운데 사이에 한아름의 돌을 놓고서 돌리기 시작했다. 한참 돌리자, 돌은 몇 발이나 되는 서흥리 흙담에 떨어졌다. 다음은 브름웃도가 뽕개질을 했다. 그런데 돌은 바다를 건너 문섬에 가서 떨어졌다.

고산국은 분함을 참지 못해 하며 지경 가르고 물 가르며, 인연을 끊자고 하며 마지막으로 제의를 했다.

“자, 우리 이제는 뽕개질로 지경을 차지하게 됐다. 나는 서흥리 지경을 차지 할 것이다. 너네랑 상하 서귀로 가라. 배신한 남편은 이제 원수가 되고, 그러나 이 원수를 어찌할 수가 없구나. 그리고 동생 너도 나와 다른 ‘지’가 성으로 바뀌어서 땅과 물을 가르자. 너희 땅의 말이나 소 짐승도 우리 땅에 한발짝도 들여놓을 수가 없고, 인간의 혼인도 안 된다. 나도 동흥리, 우알 서귀 모든 것을 절대로 바라지 않겠다.”

그리고 김씨 영감에게 말을 했다.

“만약 나를 위해서 추물을 올리고 싶거든 종이 한 장도 가림을 해서 하라.”

김씨 영감은 곧, 원한을 지닌 고산국을 신앙하는 단골로 최초의 신앙민이 된 것이다.

한편, 동생은 성을 바꿔서 지산국으로 하고 북름웃도와 함께 우알서귀를 차지하여 본향당신이 되었다. 신앙민들은 한라산신인 북름웃도와 지산국에게 음력 정월 초하룻날에 신에 세배를 하는 ‘신과세제’를 올리고, 2월 14일 영등 할망을 송신하며, 7월 14일에는 마불림제, 11월(동짓달) 14일에는 본향생신일에 제를 올린다.

서귀 상하동의 신앙민들은 이 두 부부신을 마을을 지키는 본향신으로 의지하여 마을의 안녕과 가정의 복을 기원한다.

남 주인공 한라산 신 ‘북름웃도’의 서귀본향당 좌정담이다. 북름웃도 역시 한라산계 태생으로 ‘바람’인 자연을 인격화하여 붙여진 신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산신과 두 여인의 사랑의 삼각관계는 이 신화를 이끌어 가는 주요한 모티프가 된다. 곧, 서귀 본향당 신화는 한 남성과 두 자매인 고산국과 지산국에 얽힌 사랑과 증오, 그리고 복수에 관한, 이루지 못한 욕망(慾望)의 삼각관계를 형성한 문학적 가치가 크고, 상징성이 강하다.

한라산신인 ‘북름웃도’는 지산국의 미모에 반해 결혼을 하려고 했으나, 자신의 처가 된 사람은 그녀의 언니인 얼굴이 못생긴 추녀 고산국이였다. 그래서 남신은 부인의 동생인 지산국과 함께 도망하여 제주 땅으로 사랑의 도피를 하게 되는데, 이를 증오한 언니가 두 사람을 확인하고 분노한다. 그래서 자매는 연적(戀敵)이 된 것이다. 결국 다시는 서로 만나지 않기로 약속하고 ‘뽕개질’로 동흥리와 서흥리에 거처할 영역을 정해서 각각 좌정한다. 그 결과, 과거에는 실제적으로 두 마을 사이에 소나 말을 팔고 사거나 사람들의 혼인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전한다.

곧, 마을 중심의 당 신화는 가족이나 부락생활에 있어서 사회적 규범이며 생활의 헌장(憲章)이었다.(현용준, 1980,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pp.738~741)

서귀본향당 신화에서는 선과 악의 대립, 올바름과 부정, 남성과 여성들의 사랑과 욕망의 현실 대립과 갈등, 분노, 금기를 형성했다. 그러나 삼각관계로 빚어진 혼돈의 세계를 질서화하기 위해 지경(地境) 가르는 행위는 우주공간, 자연영역 형성과 당의 분파를 의미하며, 욕망으로 빚어낸 무질서한 지상계 정돈의 의미가 있다.

이처럼 신들의 이야기는 인간의 삶 못지않게 현실감이 있고 사실적인 것들이 많다. 그것은 신화를 창조하고 구연, 전승하는 민중 집단의 솔직한 삶의 고백이며 문학적 상상력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소로소천국 - 송당 본향당 백주여신의 남편

백주여신은 ‘백주또’ 혹은 ‘백주할망’이라고도 한다. 강남천자국에서 태어나 15~16세가 되자 천기를 짚어보고서 자신의 배필이 될 배우자를 찾아 송당으로 오게 되는데, 그가 바로 ‘소로소천국’이다.

두 내외는 자식을 낳으면서 잘 살다가, 백주또가 이렇게 놀아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며 소와 말을 가지고 가서 밭을 갈고 농사를 짓도록 종용한다.

그러자 소천국은 ‘오봉이굴왓’에 좁씨와 피의 씨앗 각각 아홉 말을 가지고 가서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백주는 남편이 먹을 점심으로 국도 아홉 동이, 밥도 아홉 동이를 해서 소길마가지로 덮고 내려왔다.

마침 지나가던 종이 배가 고파서 소천국에게 먹을 것을 청했다. 소천국이 소길마가지 아래 있는 점심을 주자 중은 전부 먹고 가버렸다. 소천국은 할 수 없어 밭 갈던 소를 잡아서 구워 먹었다. 그런데, 자신의 소 한 마리를 먹었으나 요기가 되지 않아 다시 들판에서 풀을 뜯는 남의 소를 잡아서 먹었다.

백주가 일이 끝났는가 싶어 밭에 가서 보니, 소천국은 일은 접어두고 밭 갈던 소를 잡아서 구워먹는 것이 아닌가.

백주는 너무 화가 났다

“자신의 소를 잡아먹는 것은 보통일일 수 있으나 남의 소를 잡아먹는다는 것은 소도둑 밭도둑놈이 아닙니까?”

백주는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고 서로 살림을 분산할 것을 권한다.

남편과 이혼하여 사는데, 뱃속에 임신한 아기가 태어나 세 살이 되자 자식은 아버지를 찾으려고 했다. 백주는 아이를 데리고 소천국이 살고 있는 ‘해낭곳굴왓’을 찾아가 보니 사냥을 하여 불에다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살고 있었다.

세 살이 된 아이를 내려놓자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를 반갑게 여겨 수염을 뜯으면서 아버지 무릎 위로 올라가며 무례하게 굴었다. 화가 난 아버지는 “네 놈 배었을 적에는 어미와 산림을 분산하더니 오늘은 아비에게 무례히 구는구나.” 하고 무쇠 상자에 넣어 동해바다로 띄워버렸다.

동해에 띄운 무쇠상자는 동해용왕국의 문 앞에 이르러 파도를 타고 용궁의 문을 치면서 용궁 안을 시끄럽게 했다. 용왕은 세 딸을 나가보도록 시키고 셋째 딸이 함을 열어, 용왕은 셋째 딸과 결혼을 시킨다.

그러나 육식을 너무 지나치게 해서 창고가 비어가므로 용왕은 두 부부를 쫓아낸다. 무쇠 함과 금동화리, 살찐 망아지를 용왕에게서 받고 용궁에서 쫓김을 당한 두 부부는 강남천자국에 이르러 대란을 평정하고 큰 공을 세운 뒤 다시 자신들의 고향인 제주 땅으로 오게 된다.

부모나 형들은 죽어버린 자식이 돌아온다고 겁을 먹었다. 어머니인 백주는 ‘당오름’에 가서 죽어 당신이 되고, 소천국은 ‘고부니머루’에 가서 죽어 좌정하고, 형제들은 제주 전역의 본향신이 된다.

그래서 아들은 용녀를 얻고 영웅이 되어 돌아와 김녕괘넬깃당의 당신이 되었다. 백주의 다른 아들들은 열여덟명(十八), 딸아기(女兒) 스물여덟(二十八), 손자아기(孫兒) 삼백이른 여덟명(三七八)이 제주 각처의 당신이 되었다. 그래서 송당은 무속신들의 고향이 되고 백주는 신들의 어머니가 되었다.

신화의 구조는 백주와 소천국, 곧 부모대의 신화와 아들 괘넬깃당 신화가 복합적으로 통합화되어 구성되고 있다. 특히 백주할망의 탄생과 외방 여신의 도래, 그리고 결혼담과 이혼, 신으로 좌정이라는 유형을 보인다.

주된 모티프는 아들의 탄생, 자식의 행동이 불손하다고 해서 버리는 기아(棄兒), 그리고 용왕국의 셋째 딸과의 결혼, 강남천자국의 세변을 막아 공을 세우고 영웅으로서 환고향(環故鄉), 그리고 버려진 자식이 돌아온다고 해서 도망쳐 당신으로 좌정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신화에 나타난 각 신들은 신화적인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데, 그 중 백주는 농경의 신으로 쌀을 상징하는 흰 미곡의 여신이며, 상대적으로 소천국은 농경문화에 아직 접어들지 않은 수렵문화적인 속성을 지닌 신이다. 남신 수렵의 신과 여신 농경의 신이 따로 좌정하는 별거형식을 이혼이라는 모티프로 사용하고 있다. 남성신은 수렵, 채취로 삶을 이끌어가며 소를 식용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반면, 여신은 소를 동력으로 이용하고자 하고 농지를 개간하는 두 사회적 성

격을 대표하는데, 사유 재산 형성과 마을 분리 과정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문무병, 1994, “제주도당신양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62)

한편 아들 궤넛깃당신 역시 상상치 못할 정도로 육식을 즐겨하는 대식가여서 결국은 셋째 딸과 함께 용왕국에서 쫓겨나게 된다.

백주신화는 궤넛깃당신에 관한 본풀이와 연결시켜 살필 가능성을 지니는데, 강남천자국의 세 변도원수를 물리쳐 영웅이 되고 신으로 좌정하는 영웅적인 일대기를 완성적 형태로 보여주고 있다.

이는 남성 수렵의 신과 어업의 신인 농경, 해전 경작의 여신이 따로 좌정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할 것이다.

곧, 송당 당본풀이에서는 수렵에서 농경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신화이고, 농경 정착 사회를 건설하여 가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도민의 이상과 사냥과 육식으로 배고픔을 당장 해결하려는 현실과의 갈등이 나타난다.

남판돌판고나무상태자하로산 - 상창(上倉) 하르방 당신(堂神)

한라 영주 삼신산 봉우리 서쪽 어깨 쪽에서 을축년 팔월 열사흘날 아홉시에 아홉 형제가 태어났다. 곧, 한라산의 산신들이 솟아난 것이다. 한라산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한라산’ 혹은 ‘한라산또’라고 부르는 아홉형제는 산을 돌아다니고 활을 들고 사슴의 뜨거운 피를 마시면서 생활하고 있었다.

신들 이름의 큰 뜻은 헤아리기가 어렵다. 가장 큰 형은 울뢰마루하로산이다. 온 천지를 울릴 정도로 큰 고함소리를 지르고 다니는 아주 용맹스런 신이다. 둘째는 제주도 전 지역에 농사의 풍요를 가져오는 신이라는 이름을 지닌 제석천왕하로산이고, 셋째는 그 뜻을 알 수 없는 고뱅석도하로산이고, 넷째는 동·서흥동에 좌정한 고산국 지산국 두 자매의 사랑의 삼각관계에서 해매는 고산국하로산이고, 다섯째는 동백자하로산 등이다.

어느 날 이들 아홉 형제는 부른 배를 이끌고 휴식을 취하려고 높은 곳에 이르러 쉬고 있었다. 그런데 높은 곳에 올라와서 그런지 마음속이 시원하고 후련한 느낌이 들었는데, 앞으로 널리 바라보니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다. 상서로운 구름이 앞을 가리던 것을 제치고 다시 눈을 비비고 쳐다보자 지금까지 알아 왔던 곳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다.

내려와서 보니 바다를 따라 쪽 인근 마을이 있었다. 형제는 갑자기 각각 눈이 커지고 휘둥그레지면서 서로를 쳐다보았다. 제일 큰 형이 우선 말을 시작했다.

“나는 다시 한라산으로 올라가고 싶지 않다. 우리 각자가 알아서 자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서 살기로 하자.”

다른 동생들도 마찬가지로 생각이었다. 그래서 형제는 다시 만날 날을 약속하고 헤어졌다. 산에서 내려온 아홉 형제들은 자신이 마음에 든 곳을 찾아 안식처를 정하고 자신들이 좌정할 땅을 차지하여 당신(堂神)이 된 것이다.

큰 형은 성산을 수산리 당신으로, 둘째는 애월읍 수산리로, 셋째는 남원읍 예촌으로, 넷째는 서귀포시 동·서흥동 당신으로, 다섯째는 대정읍 일과리로, 여덟째는 안덕면 상창리로, 아홉째 막내는 서귀포시 종달리에 좌정 했다.

아홉 형제의 신들은 8월 열사흘날에 각기 자기가 차지할 마을을 골라 내려가게 되었다. ‘남판돌판고나무상태자하로산’이라는 기다란 이름을 가진 여덟째 동생은, 형들은 다 떠나가는데 자기가 갈 곳은 막연했다. 어디로 갈까 망설이다가 서쪽으로 내려가기로 작정한 후 한라산 서쪽 등성을 어슬렁거리다가 절터였던 이 땅으로 내려섰다.

안수뭇, 밧수뭇을 거쳐 불그니오름에 오르고, 다시 단숨에 한세빅베기를 치달아 올랐다. 목이 어지간히 말랐다. 높은 데서 육소장을 휘 둘러보니 생새물이 있으므로 곧 내려가 그 물로 목을 축이고, 다시 내달아 당오름을 거쳐 밝은 오름에 당도했다.

이 때, 안덕면 동광리 당신 황서국서가 역만 군병을 거느려 나서는 길을 딱 버티고 서 있었다. 두 신은 서로 길다툼을 하고 자신의 영역을 차지하려고 언쟁이 벌어졌다.

남판돌판고나무상태자가 누가 힘이 세나 내기를 하자고 했다.

“너는 화살 하나로 백 명의 군사를 쏘아 놓히고, 그 누운 군사를 다시 화살 하나로 쏘아서 일으킬 수가 있겠느냐?”

“좋다. 그것은 문제없다. 백 명 군사를 놓히는 것은 어려움이 없어.”

두 신의 다툼은 화살로 군사를 놓히고 일으키기 기능 경쟁으로 바뀌어 벌어졌다.

우선 황서국서가 화살 하나를 힘껏 당겨 놓았다. 화살이 날아감과 동시에 백 명의 군사가 와르르 쓰러졌다. 다시 화살 하나를 힘껏 당겼다. 쓰러졌던 군사들이 벌떡 일어날 줄 알았는데, 꿈쩍 하지 않고 쓰러진 채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가.

다음은 남판 돌판고나무상태자하로산 차례다. 화살 하나를 당겨 놓았다. 백 명 군사가 와르르 쓰러졌다. 다시 화살 하나 당겨 터뜨리니 백 명 군사가 일시에 살아 벌떡 일어났다. 다시 화살을 놓으면 와르르 쓰러지고, 다시 화살을 놓으면 벌떡 일어나고,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결국 승부는 결판이 났다. 어쩔 수 없이 황서국서는 자신이 항복을 하고 시종(侍從)이 되어 남판돌판고나무상태자하로산을 대장으로 모시기로 약속했다.

그래서 황서국서의 안내를 받으면서 남판돌판고나무상태자하로산은 수백 군사를 거느리고 ‘논오름’으로 ‘팽풍그정’으로 하여 ‘척동산’에 다달았다.

“으음, 여기가 좌정할 만한 곳이군.”

그곳은 바로 당동산이었다.

당동산으로 행차하여 수백 군사를 복병해서 앉아 있되 어느 누구도 위해 주는 자가 없었다. 이변을 보여 주어야 하겠다고 생각한 고나무상태자하로산은 커다란 뱀으로 변신하여 꿈틀꿈틀 하고 있었다.

이 때 상창리 통천의 유포수, 김포수, 강포수가 사냥을 나가다가 큰 뱀이 길을 가로막아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뱀은 칠성으로 잘 우대하면 부를 가져다 주고 그렇지 않고 잘 모시지 않을 때는 흉험을 주는 신이라는 것을 세 포수는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 뱀이 신이며 이처럼 길을 막고 있는 것은 범상치 않은 일임을 곧 알아냈다. 세 포수는 뱀을 팽나무 아래로 인도하여 갔다.

“저희들이 위할 신이시거든 이 쪽으로 좌정하십시오. 정성껏 위하겠습니다.”

남판돌판고나무상태자하로산은 큰 팽나무 아래로 모셔졌다. 정월 열나흔날과 팔월 열나흔날을 대제일로 하여 신을 위하기로 하고, 유포수는 상단골, 김포수는 중단골, 강포수는 하단골이 되어 신앙민이 된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남판돌판고나무상태자하로산은 상창리의 본향당신이 되고 한라산 자락에 있는 상창리민들의 건강과 부, 안녕을 돌봐주는 신이 된 것이다.

상창하르방 당신인 남판돌판고나무상태자하로산과 황서국서와의 경합은 제주 신화에서 세력다툼으로 인한 좌정의 모티프 중 장수적인 남신들의 전쟁과도 같은 투쟁을 통하여 이긴 자가 좌정을 했던 대표적인 예이다. 서로의 능력에 대한 겨루기, 그리고 서로 경합하여 이긴 세력에 대한 당신 위력의 위용성을 인정하게 되는데, 무신적 성격을 띤 장수신의 능름한 모습이 눈에

흰하다.

활을 잘 부리는 것은 수렵사회에서 능력 있는 자로서 인정받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단계였다. 이 신화의 주인공은 고주몽과도 같은 존재이기도 하고, 수렵적 특성을 지닌 한라산계 남성신의 성격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경합을 통해 좌정은 했으나, 자신을 위해 신앙해 줄 신앙민이 없다면 아마 신들도 서러울 것이다. 그래서 뱀으로 둔갑하여 신앙민들을 끌어들이었다.

단골을 지정하기 위해 수명(壽命)과 부(富)를 관장하는 칠성신인 사신(蛇神)으로 둔갑하는 내용이 제주의 당신화에서 자주 등장한다. 뱀은 신화에서 가장 무속적 상징성이 강한 동물이다. 잘 우대하면 부를 가져다주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흉험을 주기 때문에, 신앙민들은 뱀이 두려운 존재이고 외경감을 지니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안찰성이라하여 고팡에 모실 때는 농사풍요를 기원하는 농신(農神)적 의미, 그리고 밧칠성은 부신으로서의 성격이 강한데, 고산리 차귀당이나 표선면 토산리처럼 마을 공동제의에서 신앙민들이 기원하거나, 유·김·강포수처럼 단골 신앙민을 지정하여 가정의례에서도 농경 혹은 수렵의 부를 관장하는 신으로 의례를 지내는 것이다.

굿 의례 중 본향당신들이 모든 신이 자리에 들었을 때 좌정할 자리를 정하는 것을 '정대우'라고 한다. "풀찌거리는 벗어다가 삼천병마기데레"하면서 무가를 창하고, '차사영기'와 '차사맹감기'를 가지고 춤을 추면서 자리를 고르는 모희는 바로 이 신화에서처럼 신들의 좌정과 신앙민들의 지정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황서국서 - 금악리 당신

한림읍 금악리에는 황서국서라는 당신이 좌정해 있다. 상창하르방 당신 남판돌판고나무상태자 하로산과 활쏘기로 밀려나 온 들판을 해매던 황서국서는 금악리로 좌정하게 된다.

황서국서는 정좌수와 오래 전부터 인연이 있었다. 둘은 서로 사냥을 같이 하러 다녔는데, 황서국서가 산 위에서 사슴을 몰면 정좌수가 쏘아서 맞히고, 아래쪽에서 맞이지 못하여 산위로 몰면 황서국서가 쏘아 맞히며 서로 사냥을 즐겨했다.

그런데 정좌수가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다. 어린 딸을 불러 놓고 말했다.

"나는 이제 갈 때가 되었는데, 내가 어제 잡은 각록의 간이라도 시원 석석하게 먹고 싶구나." 딸은 아차 하면서 "어제 횃감을 썰다가 간 한 점을 떨어뜨렸는데, 줍지 않아 아마도 다른 짐승들이 다 먹어 버렸을 것"이라고 말하자, 아버지 정좌수는 실망한 듯 알았다고 고개를 저으면서 "각록의 간은 영약이나 다름없는데, 그만 그 귀한 것을 버리고 말았구나. 눈 위에서 각록을 잡는 것은 산신이 주신 것이나 다름없어. 늙은 내가 잡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할 수 없구나."하면서 그만 눈을 감고 말았다.

정좌수 딸은 아버지의 시신을 감장한 후 사슴의 고기로라도 꼬지를 해서 제를 올리려고 정좌수가 사냥하던 곳을 찾아 사슴 발자국을 따라 산으로 올랐다. 얼마쯤 올랐을까. 흑심한 눈보라로 인한 추위와 며칠 간의 굶주림으로 앞은 보이지 않고 사경을 헤매게 되었다.

"내가 죽으면 안돼. 각록을 잡아서 아버지의 제상에 올려야 하는데..."

딸은 곧 쓰러질 것만 같았다. 그런데 어디선가 연기가 나는 곳이 있어서 바라보니 그곳은 황서국서가 거처하는 바위굴인 것이다. 자신이 누구라고 밝힐 여유도 없이 황서국서 바로 앞에 쓰러진 정좌수 딸은 몇 시간이 지나서 겨우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

자신이 정좌수의 딸이라는 것을 밝히자 황서국서는 흔쾌히 자신과 같이 살자고 하면서, 그동안 정좌수와 사냥하면서 쌓은 옛 정을 딸에게 온전히 쏟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딸과 황서국서는 혼인을 하고 산을 내려와 금악오름 쪽으로 향했다. 그런데 금악오름은 너무

높아서 자손들의 제물공연을 받기 어려울 것만 같았다. 그래서 조금 더 가까운 오름 아래로 좌정했다.

그런데 정좌수 딸은 언제부턴가 사냥을 하는 황서국서가 싫어지기 시작했다. 날땃내가 온천지를 진동하고, 짐승을 잡아서 육식을 하므로 곳곳마다 짐승의 뼈가 있어 상서롭지 못했다. 그래서 정좌수 딸은 남편을 두고 자신은 따뜻한 머들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해서 별거를 하며 축일 한집으로 좌정했다. 그동안 국서에게서 얻은 자식들은 아들 딸 송이송이 벌어져서 여러 곳에 좌정해 단골들을 보살피는 당신들이 된 것이다.

이 신화는 수렵과 농경, 두 문화적 속성을 잘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황서국서와 정좌수 딸은 결혼을 통해 '동당동좌형식'으로 마을의 당신이 되었으나, 식성이 달라 부부의 인연을 가르게 된다. 이는 바로 수렵이동생활에서 농경 정착생활로 전이되는 과정을 직접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좌수 딸은 원래는 수렵신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수렵으로 살아가려고 하나 '회 간 한 점'으로 부녀 사이의 갈등을 일으키면서 부친이 죽게 된다. 수렵신 황서국서를 만나 정착을 하게 되나, 피 냄새 때문에 수렵생활에 회의를 느끼자 헤어져서 농경신이 되어, 그 후손들이 각처에 뻗어나가게 된 것이다.

신화는 마치 송당 본풀이와 비슷한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여성 신은 농지를 개간하고, 소를 이용하여 농경과 목축을 하며 육식을 금기하고 있다. 특히 중산간 마을에서는 수렵 목축의 남신과 농경, 산육의 여신이 부부신으로 좌정하게 되는데, 이는 중산간 마을의 형성 단계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천자또 - 세화본향당신

북제주군 구좌읍 세화리의 수호신인 본향당신은 천자또, 백주또, 금상님이다. 천자또는 할로영산의 백록담에서 저절로 솟아난 신이고, 백주또는 서울 사대문 바깥에서 솟아난 임정국의 따님이기인데, 천자또의 외손녀가 되며, 용왕천자국의 황제는 백주또의 외삼촌이다. 곧, 용왕국 황제는 천자또의 아들이 되는 셈이다.

천자또는 백록담에서 부모 없이 저절로 솟아나, 일곱 살 때부터 글을 읽기 시작하여, 글을 모두 통달했다. 열다섯 살이 되자 흰 망건에 흰 장삼을 입고 흰 띠를 두른, 어엿한 선비모습의 신이 되었다. 그래서 한아름이 넘는 서책(書冊)을 받아 앉고, 일천장의 벼루에 삼천장의 먹을 갈고 한 줌이 넘는 붓을 들어 문부(文簿)를 정리한다. 이처럼 문장이 뛰어나니, 이 신은 하늘에 가면 옥황의 일을 다하고, 땅에 내려오면 지하의 소임을 맡아 척척 해냈다.

그러다가 옥황상제의 명을 받아 세화리의 손드랑마루라는 곳에 내려와서 당신으로 좌정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천자또는 세화리민의 출생, 사망, 생업 등 생활전반을 차지하여 수호해준다.

천자또의 외손녀인 백주또는 임정국의 따님으로 태어나 일곱 살이 되자, 부모님 눈에 거슬러 쫓겨났다. 갈 데가 없으므로 용왕천자국 대왕인 외삼촌한테 수청부인으로 들어가서 갖가지 주술을 배우고 돌아와 부모님께 사죄했으나 받아들여주지 않았다. 할 수 없이 그녀는 세화리에 당신으로 계신 외할아버지를 찾아 와 같이 좌정하게 되었다.

한편, 금상님은 서울 남산에서 솟아나 천하명장인데, 역적으로 몰려 위태롭게 되자, 조정에 뜻을 버리고 천정배필을 찾았다. 천정배필이 제주도 세화리에 좌정해 있는 백주또임을 알고 멀리 제주도까지 찾아 왔다. 그는 천자또의 허락을 받고 백주또와 부부가 되어 같이 좌정해 당신이 되었다.

세화본향당신의 이야기에서 한라산신의 위용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하게 된다. 한라산의 수렵신으로 봉(鳳)의 눈을 부릅뜨고 삼각수(三角鬚)를 거스른 무장(武將)의 얼굴을 하고 직량포를 입은 늙은 모습이다. 수렵 생활로서 노루, 사슴, 산돼지들을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돌아다니며 잡아 시원석석하게 간회를 내어 먹는 것으로 그려지기도 한다.(제주도, 『제주도전설지』, pp.42~43.)

애비국하로산또 - 호근본향당

서귀포시 호근동의 본향당신은 애비국하로산또다. 한라산에서 솟아났기 때문에 하로산또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고, ‘애비국’이라는 것은 특정한 의미는 없이 높은 신의 호칭으로 불려진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라산계 신들처럼 할로영산에서 을축삼월(乙丑 三月) 열사흘날(十三日) 자시(子時)에 솟아났다. 부모 없이 저절로 솟아난 것이다. 솟아나고 보니, 그 시간이 자시인지라 천지는 철쭉 같이 캄캄하여 동서남북을 가늠할 수가 없었다. 어둠이 걷히기 시작하자, 하늘을 향해 천황닭(天皇鷄)이 울어대고 땅을 향해 지황닭(地皇鷄)이 울어가니 먼동이 트기 시작하고 밤과 낮이 구분되어 방위를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

애비국하로산또는 한라산을 출발하여 내려오기 시작했다. 중문면 도순리 경에 있는 시오름 상봉에 내려와 좌정하여 여기저기를 둘러보니 마침 사슴 떼가 줄을 지어 달리는 것이 보였다.

애비국하로산또는 어느 한 놈이라도 잡아서 요기하기로 작정하여, 앞에 달리는 놈은 놓아두고 맨 뒤엎 놈을 하나 쏘았다. 쓰러진 놈을 등에다 지고 다시 내려오다 서귀포시 호근동 시냇가에 물흐르는 ‘둘레넷도’에 이르렀다. 물이 너무 맑아서 목욕을 한 후 사슴을 잡아 간회를 시원석석하게 먹었다. 다시 길을 나선 애비국하로산또는 서호동에 있는 고공산에 치달아보니, 세 신선이 앉아 바둑을 한가롭게 두고 있었다.

애비국하로산또는 신선들에게 물었다.

“이 앞에 보이는 마을이 어디가 됩니까?”

“호근리가 되어진다.”

“나는 한라산에서 내려오는 신인데, 여기에 좌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이 지경을 차지한 신이 없으니 괜찮다.”

애비국하로산또는 이미 좌정한 신이 없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끼면서 좌정할 자리를 고르기 시작했다. ‘둘레넷도’라는 곳이 산수(山水)가 가장 좋아 보였다. 바로 거기 좌정하여 호근동을 차지하고 당신이 되었다.

한라산에서 태어난 애비국하로산또의 좌정담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천지왕 본풀이에서 보이는 밤과 낮의 구분이 지황닭과 천황닭의 울음소리로 분간 할 수가 있었다. 산신이어서 먹이는 사슴의 간과 내장이다. 신선들과의 만남에서도 어떠한 장애도 나타나지 않는다.

한라산 산신의 수렵생활을 영위하던 산간마을 주민들이 중산간 마을을 거쳐 해안에 마을을 설촌하는 과정을 신화라는 형식을 빌려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백자하로산 - 중문본향당신

서귀포시 중문동의 본향당신은 동백자하로산이다. 이 신 역시 한라산 봉우리 서쪽 어깨에서 을축삼월(乙丑 三月) 열사흘날(十三日) 유시(酉時)에 솟아난, 아홉 형제의 신 중 다섯째이다.

이 신은 한라산을 떠나 차츰 차츰 내려오다가 중문동에 이르러 당신으로 좌정한 후 ‘진궁하늘 진궁부인’이란 신을 부인으로 맞이하였다.

두 부부 사이에는 아들이 하나 태어났다. 아들은 때때로 어린지라 어머니 젖가슴을 뜯고, 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수염을 뽑고 가슴팍을 치곤 했다. 이것이 부모의 눈에 거슬렸다.

두 부부는 아들의 행동을 나무라고 “불효의 자식을 그냥 둘 수 없다.”고 하고, 죽이려고 하다가 돌함 속에 아들을 넣어 자물쇠로 잠그고는 곧 바다로 띄워 버렸다.

돌함은 밀물에도 둥둥, 썰물에도 둥둥 떠돌아다니다가 동해 용왕국 대문 앞의 산호나무 가지에 걸렸다. 파도가 칠 때마다 쿵쿵하고 문을 치자, 동해 용왕국의 개가 쿵쿵 내달아 짚어대었다.

동해용왕이 이상히 생각하여 세 딸들에게 지시했다.

“큰딸아기 나가 보아라.”

“별만 송송하여 아무것도 없습니다.”

“둘째딸아기 나가 보아라.”

둘째딸은 나가 보고서,

“보이는 게 없습니다”

다음 셋째딸이 나가자,

“산호나무 윗가지에 어떤 돌함이 걸려 있습니다.”

“큰딸아기 내리워라.”

“한쪽 귀도 달짝 못하겠습니다.”

“둘째딸아기 내리워라.”

“한쪽 귀도 달짝 못하겠습니다.”

“막내딸아기 내리워라.”

막내딸은 꽃당혜 신은 발로 산호나무를 툭툭 차니 돌함이 저절로 설설 내려왔다.

“큰딸아기 열어 보아라.”

“둘째딸아기 열어 보아라.”

큰딸과 둘째딸은 돌함 뚜껑을 열어 낼 방법이 없었다.

“막내딸아기 열어 보아라.”

막내딸은 꽃당혜 신은 발로 돌함을 툭툭 차니 자물쇠가 저절로 설강 열려졌다. 돌함 속에는 셋별 같은 동자가 앉아 있었다.

“너는 귀신이나? 생인이나?”

“귀신이 이런 곳에 올 리가 있습니까. 저는 인간세상 사람으로, 아버지는 하로백관이고 어머니는 진궁하늘 진궁부인인데, 부모님 눈에 거슬리어 바다에 띄워 버리기에 여기 왔습니다.”

동해용왕은 천하명장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큰딸 방으로 들라.”

눈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둘째딸 방으로 들라.”

역시 마찬가지로.

“막내딸 방으로 들라.”

이 말을 들은 아들은 서른여덟 이빨을 허우덩씩 열어 웃으며 들어간다. 곧 동해용왕의 막내딸 사위로 삼고, 용왕국에서는 사위손님을 대접하느라고 별별 음식을 차려 올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위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러자 부인이 될 셋째딸은 걱정이 되어 물어보았다.

“조선국 장수님아, 음식이 좋지 못하여 잡수지 않는 겁니까?”

“너희들 용왕국은 대국이라면서도 우리 소국만도 못하구나.”

“조선국에서는 무엇을 잡수었습니까?”

“내 국은 소국이라도 밥도 장군, 술도 장군으로 먹었다.”

이 말을 들은 용왕은 “내 기세를 가지고 사위 손 하나 못 대접하겠느냐?” 하고, 그 날부터 풍악을 치면서, 술이니 안주니 대접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석달 열흘 백일이 되어 가자, 동창고, 서창고가 다 비어 갔다. 용왕이 생각해 보니, 사위를 그대로 두었다가는 용왕국이 망할 듯했다.

“여자라 한 것은 출가외인이니, 어서 남편 따라 나가거라.”

이들 부부는 물으로 올라와 부모님을 찾아갔다. 부모님은 자초지종을 듣고서, 일곱 살에 죽으라고 바다에 띄워버린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을 보니 한편 놀랍기도 하고, 당황스러움을 금치 못했다. 아름다운 며느리까지 맞이하게 되니 반갑기가 이를 데 없었다.

부모는 아들 부부를 맞아들이고 같이 살게 되었다. 시부모의 시중드는 생활은 한두 달이 좋지, 오래가면 괴로운 법이다. 동백자하로산은 며느리가 불쌍히 생각되어 탄살림을 내 주기로 했다. 중문동에 ‘불목당’이라는 다른 당을 마련토록 하고 거기에 좌정하여 신앙민들의 제의를 받아먹도록 해 주었다.

이래서 중문동에는 <도람지귀>라는 본향당과 불목당인 두 개의 당이 생기게 된 것이다.

이 본풀이에 나타나는 상주표류담(箱舟漂流譚)의 화소는 신라의 ‘석탈해신화’나 가야의 ‘허왕후신화’와 맥을 같이 한다. 또 송당신 백주도의 아들인 ‘귀네킷당 신화’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용궁의 공주와 결혼하는 화소는 반농 반어업의 생활을 하였다는 어촌생활을 반영하는데, 이 때 요왕은 바다의 신, 그리고 요왕의 막내딸은 해전수호신(海田守護神)으로 이 둘의 만남은 어촌 마을의 형성과 반농, 반어의 어촌의 생산형태를 반영한 것으로 본다.

문무병은 원래 한라산계 수렵신이 쫓김을 당하고, 해신계의 여신과 만나 어촌에 정착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고 했다. 이 여신은 ‘요왕국의 말젓딸’로, 물으로 올라오면서 7일에 제를 지내는 ‘일뤼할망’계열로 바뀌어서 그 여신의 직능도 해안마을에서는 해전수호신(海田守護神), 피부병신(皮膚病神), 산간이나 중산간 마을에서는 농경(農耕), 산육(産育), 치병(治病)신으로 바뀐다.

2 전설

신화의 전설화

한라산은 사철 내내 아름다운 풍광과 더불어 안정되어 있다. 그리고 가운데 분화구에는 항상 맑은 물이 고이고 신선이 탄 흰 사슴들이 물을 먹으러 오는 곳이라고 전한다. 불로장생의 신선사상과 영주산의 평화로운 모습과는 달리 백록담의 전설이나 아흔아홉계곡에 얽힌 전설은 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실수와 모자람의 모티프를 끌어내고 있다.

구체적인 증거물과 연결되어 신화가 전설화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오백나한’과의 관련에서 찾을 수 있다. 또 구전되는 과정에 창작에 의해서 다시 신성성을 부가해서 신화적 요소를 첨가하기도 한다. 이러한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설문대와 오백나한에 대한 전설이다. 이 전설은 신화적 속성을 감추고 상징물과 연결되는 과정을 추정할 수 있는 대표적 이야기이다.

이 오백나한 전설은 설문대 할망에 대한 신화에 불교적 요소가 첨가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불교 및 산천 숭배의 신앙은 고려시대에도 계속 되었다.(金榮振, 1985, 『韓國自然信仰研究』, 청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73.) 고려가 불교를 숭상해서 국가 종교로 삼고, 태조 개국 원년 천신(天神)과 산신(山神), 용신(龍神)을 합해서 재를 올리는 팔관회를 국행제로 시작했다. 불신과 산천의 음조(陰助)로 고려를 개국할 수 있었다고 믿었던 것이다.

곧, 설문대 할망신화는 할망의 아들들을 영실기암인 오백나한과 연결시키면서 창조적 여신의 성격은 사라지고 전설화된다. 한편 설문대 할망을 희화한 민담에서도 신화에 나타난 신성성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신화가 전설이나 민담으로 구전되는 과정에서 장르적 전이가 일어나, 신성성은 사라지고 속세화되거나 희화(戲化)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신성성을 지닌 할망의 모습보다, 민담으로 구전되던 할망에게 내포된 잠재력이 제주민들에게는 더욱 삶의 활력소가 되었으리라는 것이다. 불모지의 땅에 대한 합리화를 웃음으로 극복하려고 했던 서민적 사고가 훨씬 역동적인 삶을 가져오게 했던 것이다.

부족함과 모자람의 모티프

화산회토의 척박한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또 바다로 둘러싸인 좁은 땅, 자연적, 지리적 조건에서 ‘모자람’의 연속이었다. 사람들은 이 ‘모자람’을 합리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설문대 할망인 거녀의 창조신화를 탄생시키기도 하고, 한편 신선이 사는 땅이 온전한 수 100이 아닌 99계곡으로, 한 개가 부족하다는 이미지를 통해 못사는 사람들의 삶을 변명했다.

이것은 자신들의 삶을 합리화하는 방법이었다. 태초부터 생긴 부족과 가난을 제주 사람들인들 어떻게 하겠는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고보다는 불모지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염세적이며 수동적일 수 밖에 없었다.

또 지형의 형성과정을 전설로 나타낸 제주인의 문학적 감수성은 뛰어나다.

전설이 있는 지형지물의 형상에 대한 인식으로 백록담의 분화구와 산방산의 모습이 유사한 것을 유추하면서 새로운 유형을 만들기도 하고, 구전과정에서 변이된 형태를 묘사하기도 한다.

인간의 실수로 신의 노여움을 받았고, 자연과 인간과의 조화가 인간들의 보잘 것 없는 욕망에 의해 부질없이 잘려나가는 모습을 교훈으로 담기도 하며, 자연의 질서는 하늘의 소관이지 인간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출한 것이다.

영실을 둘러싼 기암괴석은 499개로 하나를 채우면 500개가 된다고 하여 오백장군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백이나 되는 부처라고 해서 오백나한이라고도 한다. 지형물에 대한 인식은 인간의 실수, 신의 노여움에 따라서 넉넉하고 흡족한 지형이 아닌 부족함의 모티프들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다.

한 사냥꾼이 사슴을 잡으려고 활을 메고 돌아다니다가 한라산 정상에 도달했다. 마침 사슴을 발견해서, 급히 활시위를 당겼다. 그러나 화살은 빗나가서 하늘에 앉아 있는 옥황상제의 엉덩이를 쏘고 말았다. 상제는 분해서 한라산 꼭대기를 한 손으로 뽑아 던진다. 떨어져 나간 것은 남제주군 안덕면에 떨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한라산에는 분화구가 생겨나 백록담이 되고, 산방산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아흔아홉 계곡 역시 온전한 수를 못 채웠기 때문에, 장군이나 임금과 같은 인물도 나지 않게 되었다. 한편 다른 이본(異本)에서는 원래 100개의 계곡에 많은 맹수가 날뛰자 한 스님이 맹수를 없애기 위해 '대국동물입도(入島)'라고 큰 소리를 쳤다. 불경을 한참 외고 나자 호랑이, 사자, 곰이 있던 골짜기가 사라지고 사나운 동물은 살지 않게 되었다.

도가적 신선사상

신선사상은 전국시대 때 해도선향(海島仙鄉), 곧 신선의 고향인 바다섬을 찾아 나서게 했고, 진나라 때 시황제는 오백의 동남동녀를 이 곳에 보내어 불사약을 구하려 하였으며, 후한(後漢)대에는 인생무상의 염세적인 인생관과 더불어 더욱 진전을 보게된다. 또 도가자(道家者)들의 출현과 함께 문학 속에도 등장하게도 된다.

사기에 있는 설화로, 해도선향의 오신산설 중 삼신산은 발해(渤海)의 봉래(蓬萊), 방장(方丈), 영주(瀛州)를 삼신산으로 여겼다.(이은상의 한라산 등반기 중) 그리고 산은 신선이 살아야 명산이라고 했다. 영주산을 오르는 방선문은 한라산을 오르는 첫 관문의 역할을 하고 신선의 경지 속에서 예술적인 차원에 이를 수 있는 곳이다.

백록담에는 신들이 살고 있다. 모든 범인들도 백록담에 오르면 바로 신이 되고 백록을 탄 신선이 된다. 아름다운 진달래의 향기에 취하고, 나이든 백양나무의 자태에 놀라기도 한다. 그 때 바로 저쪽에서 사슴 한 마리라도 뛰어 온다면 바로 그 곁에서 하얀 나래 옷을 입은 선녀라도 서 있을 것만 같다.

무속의 산신사상에 기초하여, 거기에 신선의 도교사상이 습합된 형식의 전설들은 조선조에 와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백록담에서 백록을 탄 신선들이 살고 있던 평화스러운 이미지의 전설이 구성된 후, 전국적으로 광포되어 전해지는 나무꾼과 선녀의 전설을 차용, 다른 유형을 재생산하거나, 동화적인 이미지의 전설을 만들어 전승하기도 한다.

백록담

옛날 한 사냥꾼이 한라산에 사슴을 잡으러 갔다. 활을 메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사슴은 잡히지 않고 한라산 정상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한라산은 너무 높아서 하늘에 닿을 만큼 했다. 사냥꾼은 사슴을 발견하여 급히 활을 치켜들고 쫓았다. 그 때, 아차 실수하여 사냥꾼은 활 끝으로 옥황상제의 엉덩이를 맞히고 말았다.

옥황상제는 화가 벌컥 났다. 그래서 곧 한라산 봉우리를 잡히는 대로 잡아 뽑고는 서쪽으로

내던져 버렸다. 그 봉우리는 날아와서 남제주군 안덕면 화순리에 떨어지니 산방산이 되고, 봉우리를 뽑아 버린 자국은 움푹 패어 지금의 백록담이 되었다고 한다.

산방산은 기암괴석의 둥그스름한 바위산이어서 그 모습이 마치 한라산 봉우리를 옮겨다 놓은 듯한 기괴한 산이다. 그러니, 이러한 설명이 제격이 아닐 수 없다. 옥황상제가 그 봉우리를 뽑아 던짐으로써 백록담이 이루어지자, 경승은 점차 갖추어져 갔다.

한라산의 절경을 맨 먼저 즐긴 이는 신선들이었다. 의식주 걱정 없이 불로장생하는 신선들이 한라산을 무대로 생을 즐겼다.

한라산 가운데서도 특히 신선들이 즐겨 산 곳은 백록담이다. 여기의 신선들은 백록을 타 다니며 백록을 기른다. 백록들은 그저 놓아두면 한라산의 풀을 뜯어먹어 살이 찐다. 물은 그 정상의 못에 와서 먹는데, 백록이 먹는 물이라 하여 백록담이라 이름이 붙게 되었다.

전설은 유사한 지형지물을 차용하여 만들어졌다. 백록담 분화구의 크기와 맛먹음직한 산방산의 규모는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자아냈을 것이다. 주로 수렵생활을 바탕으로 생활하던 원토속인의 실수는 그만 옥황상제의 노여움을 사게 된다. 옥황상제는 도교적인 신이면서 무속에서도 가장 높은 직위의 신이다. 이 각편은 백록담의 자연 지형과 더불어, 그 명칭 유래를 설명하고 있는데, 신선들이 타고 다니는 하얀 사슴인 백록은 평화스러운 이미지를 연상케 한다.

옛날에 힘이 세고 활을 잘 쏘는 사냥꾼이 있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사냥이 실통치 않았다. 온종일 산을 뒤져도 새 한 마리 잡지 못했다. 그래서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마침 새 한 마리가 바로 머리 위로 지나가 맞은편 바위 위에 앉는 것이었다. 그는 재빨리 활의 시위를 당겼다. 그러나 새는 맞지 않고 포르르 날아가더니 좀 떨어진 바위 위에 앉아 버렸다. 사냥꾼은 다시 한 발의 활을 더 쏘았다. 그러나 허탕이었다. 화가 난 사냥꾼은 다시 세 번째 시위를 당겼다. 그런데 그 화살은 새를 맞지 못하고 낮잠 자는 해님의 배를 맞히고 말았다. 화가 난 해님은 벌떡 일어나면서 사냥꾼이 서 있는 한라산 정상에 걸어들었다. 그 바람에 산꼭대기가 획 잘려나가 앞 바닷가에 떨어졌다. 그것이 안덕면 사계리 지경 바닷가에 있는 산방산이 되었고 한라산 정상은 움푹 들어가 버렸다. (현길언, 2001, 『제주문화론』, 탐라목석원, p. 91)

이 이야기에서는 화살을 맞은 대상이 가장 높은 신격으로 추앙되던 옥황상제가 해님으로 바뀌어 전해지는데, 자연물의 형성에 대한 신앙적 요소보다는 동화적인 성격이 더욱 짙다.

영주산의 백록

옛날에 한라산에는 신선만 살고 있었다.

사람이 올라가면 안개가 자욱히 내려서, 길을 분간할 수가 없고, 특히 고성(高聲)을 지르거나 하면 지척을 분간할 수 없게 풍우가 몰아치기 마련이었다. 이런 기상 변화는 선경(仙境)에 속세의 인간이 올라갈 수 없도록 신선이 조화를 부린 때문이라 한다.

한 사냥꾼이 사냥을 하러 갔다가 백록담까지 올라갔다. 신비한 절경에 취하여 서 있었더니, 안개가 자욱하게 몰아닥쳐 지척을 분간할 수가 없었다.

사냥꾼은 어쩔 수 없이 백록담가에 조용히 엎디어 있었다. 운무(雲霧)가 자욱한 못가에 우수수 소리가 나더니, 몇 천 몇 백의 사슴 떼가 숲 속에서 한가히 모여오는 것이었다. 그 중에 한 사슴은 백설같이 흰 놈이었는데, 그 등엔 백발노인이 타고 있었다.

활을 겨누고 있던 사냥꾼은 차마 범할 용기가 나지 않아, 멍하니 바라보다가 제 정신이 났다. 백록에 탔던 노인과 사슴 떼는 홀연히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버렸다. 백록에 탄 노인은 신선이 있음에 틀림없다.

백록은 신선이 타는 것이어서 사냥꾼이 잡지 아니한다. 만일 백록을 쏘았다고 하면 그 사냥꾼은 천벌을 받아 그 자리에서 바로 죽게 된다고 전해진다.

옛날 조천면 교래리에 살던 한 포수가 이런 백록을 쏜 일이 있었다. 그는 짐승이 보였다 하면 백발백중 맞혀 잡았다.

어느 날 한라산 속을 돌며 짐승을 찾는데, 저쪽 숲에서 사슴 한 마리가 내닫는 것을 얼른 볼 수 있었다. 그것을 본 포수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팡하고 총을 놓았다. 적중이 됐는지를 확인할 필요도 없이 여느 때처럼 달려가서 사슴 위를 덮치며 순간 칼을 빼어 사슴의 배를 찔렀다. “이젠 한 놈 잡았다.”

이렇게 의식하는 순간에야 정신이 들어 짐승을 보니 이건 백록이 아닌가. 포수는 정신이 아찔했다. 자신도 모르게 칼을 뽑으며 한 10보 물러나 엎드렸다.

“과연 몰라 뵈었습니다. 잘못 보아서 이런 대죄를 범했습니다.”

머리를 땅에 대고 극진히 빌었다. 그래서 겨우 목숨이 살아났다. 그는 104세까지 살았는데, 일생을 경건하게 포수로서 살았다.

영실기암

설문대 할머니에게는 500명이나 되는 아들들이 있었다.

할머니는 외출한 아들들이 먹을 죽을 열심히 끓이고 있었다. 가루에 나물을 잔뜩 넣은 죽을 끓이기는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다. 긴 주걱으로 오백이나 되는 아들들을 먹일 죽을 짓다가 그만 발을 헛디뎠다. 가마솥에 빠져 죽게 된다.

저녁이 되어 형제들이 돌아와서 죽을 먹었다. 유난히도 죽이 맛이 있었다. 막내아들은 솥 밑에 가라앉은 어머니의 뼈를 발견하고 울었다.

“어머니의 고기를 먹은 형들과는 살 수가 없어.”

형들도 마찬가지로 동생에게 연유를 묻고서 같이 따라서 울다가 죽어 바위가 되었다. 막내는 울며 따라가다 보니, 고산리 차귀섬에 이르렀다. 그래서 지금 영실에 솟아오른 499개의 바위들은 영실을 경승지로 만들었는데, 그 이면에는 바로 어머니의 자식사랑과 함께 구슬픈 일화를 전하는 것이다.

아득한 옛날이다. 한 어머니가 아들 5백을 낳아 한라산에서 살고 있었다. 식구는 많은데다 집이 가난하고 마침 흉년까지 겹치니 끼니를 이어가기가 힘들게 되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아들들에게 “어디 가서 양식을 구해 와야 죽이라도 끓여 먹고 살게 아니냐.”고 타일렀다. 오백 형제가 모두 양식을 구하러 나갔다.

어머니는 아들들이 돌아와 먹을 죽을 끓이기 시작했다. 큰 가마솥에다 불을 때고 솥 전위를 돌아다니며 죽을 저었다. 그러다가 그만 발을 잘못 디디어 죽솥에 빠져 죽어 버렸다.

그런 줄도 모르고 오백 형제는 돌아와서 죽을 먹기 시작했다. 여느 때보다 맛이 좋았다.

맨 마지막에 돌아온 막내동생이 죽을 뜨려고 솥을 젓다가 이상한 뼈다귀를 발견했다. 다시 잘 저으며 살펴보니 사람의 뼈다귀임이 틀림없었다.

막내동생은 어머니가 빠져 죽었음을 예감했다. 그래서 “어머니의 고기를 먹은 불효의 형들과

같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멀리 한경면 고산리 차귀섬으로 달려가 한없이 울다가 그만 바위가 되어 버렸다.

이것을 본 형들도 그제야 사실을 알고 여기저기 늘어서서 한없이 통곡하다가 모두 바위로 굳어 버렸다. 그래서 영실에는 499장군이, 차귀섬에 막내동생 하나가 떨어져 나와 있는 셈이다. 차귀섬의 오백장군은 대정읍의 바굼지오름에서 환히 보인다. 어느 해 어떤 지관이 바굼지오름에서 뗏자리를 보게 되었다. 지관은 뗏자리를 하나 고르고서 “이 뗏자리는 좋긴 좋은데 차귀섬 오백 장군이 보이는 게 하나 흠이다.” 고 했다. 이 말을 들은 상제는 “뗏자리만 좋으면 그것 썸 없애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고 차귀섬으로 건너갔다. 그래서 곧 도끼로 그 바위를 찍기 시작했으나 워낙 큰 바위라 없애 버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차귀섬의 오백장군에는 도끼로 찍어 턱이 진 자국이 지금도 남아 있다는 것이다.

유사한 지형물을 차용하여 모자람의 모티프를 만들어 내고 있다. 499개의 영실기암과 함께 차귀섬에 있는 유사한 바위를 연결시키고 있다. 완전한 수를 채우지 못하고 이탈된 그 형상물에 대한 인식으로, 가난한 제주민의 삶의 한계를 합리화했다.

그리고 설문대 할망은 거녀이므로, 오백 명의 아들을 낳을 수 있다. 그러나 가마솥에 발을 잘 못 디뎌서 빠져 죽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용진각과 탐라계곡

한라산 백록담에는 아름답고 이상한 향기를 지닌 꽃들이 여기저기 피어 있었다. 꽃이 피는 봄이면 진달래 발은 마치 붉은 비단과 푸른 비단을 깔아 놓은 것 같으며 그 사이를 하얀 사슴이 거닐고 있다. 하늘에서 살고 있던 신선들은 백록담과 그 아래 한라산 여기저기, 아름다운 곳을 찾아서 놀았다.

그런데 한라산 정상의 푸른 물이 있고, 그 깊이는 알 수가 없으나, 큰 물장오리라 하는 백록담에는 날개옷을 입은 아름다운 선녀들이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내려왔다. 그래서 신선들은 달 밝은 백록담에서 목욕하는 선녀들을 상상했고, 맑고 푸른 물에서 목욕하는 선녀의 아름다운 자태를 한번 보고 싶었다.

어느 보름날이었다. 신선들이 한라산 유람을 마치고 돌아갔을 때, 한 신선이 혼자 남아서 선녀들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기로 작정하고 선녀들이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바위틈에서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자, 이윽고 동편에서는 둥그런 달이 동실 떠올랐다. 분향기가 온 산에 나스가 싶더니, 하늘에서 상서로운 구름을 헤치고 선녀들이 내려오고 있었다.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들은 날개옷을 훨훨 벗고 나무 위에다 걸치고서 백록담의 맑은 물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한참 목욕을 하던 선녀가 사람의 거동과 인간의 냄새, 그리고 인기척에 놀라서 성급히 날개옷을 걸쳐 하늘로 서둘러 올라갔다.

“빨리 돌아가야만 해.”

한 선녀는 옷을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하늘로 올라가자 옥황상제가 큰 소리로 꾸짖으면서 자초지종을 물었다.

“신선이 목욕하는 모습을 훔쳐봐서 그만.”

하고 소리를 내어 흑흑 울었다. 이 사실을 보고 받은 옥황상제는 크게 화를 내어 소동이 불거졌다.

“당장 음탕한 생각을 가진 신선을 잡아오도록 해.”

이 사실을 안 신선은 겁을 먹고 산 아래쪽으로 도망쳐 뛰어 내려갔다. 힘찬 동작으로 달려가자 땅이 패이기 시작했다. 움푹 패인 곳이 바로 용진각이 된 것이다.

또 신선은 옥황상제의 노여움을 피하기 위해서 급히 산 아래로 마구 달음질쳤는데, 그 자리마다 깊게 패어 계곡이 되었고 그것이 바로 탐라계곡이다.(현길언, 앞의책)

지상의 필부인 나무꾼과 천상 선녀의 모티프를 차용하여 창작한 전설이다. 천상세계의 신인 옥황상제와 신선의 다툼을 극적으로 구성하여, 용진각과 탐라계곡을 설명하고 있다.

물장오리

물장오리는 한라산 북동쪽 중턱에 있는 못이다. 그 못은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다고 전한다. 설문대할망은 용연이 깊다고 해서 물에 발을 담갔더니 무릎까지밖에 오지 않았고, 물장오리가 얼마나 깊은가 시험하러 들어갔다가 영영 나오지 못하고 빠져 죽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설문대 할망이 이 물에 빠져죽어서, 언젠가 물이 넘치는 날이면, 제주도 온 섬이 물에 잠기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못 속에는 용이 살고 있어서 기우제를 지내면 효험이 나타나고, 가뭄에 제를 지내면 즉시 효험을 발휘해서 비가 오기도 했다. 한편, 그 속에 있는 용은 이무기가 변한 것으로, 언젠간 틈을 봐서 하늘로 올라갈 때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한라산 중턱 애월읍 어도리에 살고 있는 이찰방이 찰방 벼슬을 얻기 전에 목장 밭인 '번데왓'에 종종 사냥을 나가곤 했다.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다. 이찰방은 사냥을 하다가 우연히 한라산 중턱 봉우리에 있는 '물장오리'라는 큰 연못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물장오리의 물에 목을 축이고 더운 여름날의 땀 냄새를 물을 떠서 깨끗이 씻었다. 그리고 난 후에, 날은 따뜻하고 다리도 아파서 덩석 풀숲에 드러누워 쉬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비몽사몽간에 댕 자만 한 흰 수염을 늘어뜨리고 쇠지팡이를 짚은 백발 노인이 나타나 큰 소리로 호통을 치기 시작했다.

“너는 왜 여기서 잠만 자느냐. 내일 사시에 저 작은 물장오리에 가면 은 황룡과 흑룡이 싸우고 있는데, 그 흑룡을 쏘아서 죽이면 무슨 일이 생길 텐데…”

“참 기특한 꿈도 있군. 황룡 흑룡이 싸우다니. 꿈에 현몽을 주니 한번 보자.”

이찰방은 곧바로 물장오리로 올라갔다. 길은 멀어서 꼬박 하룻밤을 지내고 어느덧 날이 밝아 오고 있었다. 그런데 물장오리에서는 소식이 없었다.

“어, 이게 내가 꿈을 잘못 꾸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저녁 무렵이 되자 하얀 거품이 일면서 한 십 미터 길이의 흑룡이 한 고비를 틀면서 일어나고 황룡이 다시 한 고비를 틀었다. 마치 흑룡과 황룡이 빛나는 여의주를 다투는 것도 같았다.

이찰방은 겁이 나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다.

“아, 이게 용이라는 것이구나.”

그런데 갑자기 흑룡이 물 위로 올라와서 이찰방을 잡아먹을 기세였다.

‘쏘자.’

이찰방은 흑룡이 물 위로 올라 올 쯤해서 방아쇠를 탁 당겼다. 흑룡이 물 위로 오르면서 피를 토해내는 것이 마치 하늘을 향해 불을 뿜는 것과 같았다. 온 천지가 피로 범벅이 되고, 때마침 황룡이 물 위로 솟구쳐 올랐다. 마치 날개가 돌아 하늘로 올라갈 기세였다.

이찰방은 꿈을 꾸었던 장소인 번데왓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데, 날이 저물어 배가 고파왔

다.

“허, 배가 고프고 괴롭고, 우선 여기 누웠다가 가야겠다.”

다시 백발 노인이 나타나

“흑룡을 죽이노라고 수고했다. 여기서 죽 내려가다 보면, ‘말팻’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삼십 년 부자가 있다. 그 곁에다 꼭 30년만 집을 짓고 살아라.”

“예.”

“삼십 년 후에는 꼭 다른 데 가서 살아야 한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말팻이라면 마전동(馬田洞)인데, 아무래도 내가 알 수 없는 일이 있는 것 같아.”

이찰방은 명월에 있는 풍수를 보는 지관을 찾아가기로 했다.

“삼십 년 부잔지라 그건 알 수 없는데, 위로 내려오는 내는 원체 급하게 살(煞)이 먹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 땅이 야무치니까 한 대가 살 수 있을지, 앓을는지, 아, 생각이 나.”

지관은 손바닥으로 자신의 무릎을 툭 치면서 일어났다.

“정혈을 찾아 집자리나 밋자리의 위치와 방위를 전해 주십시오.”

이찰방은 지관이 정해진 자리에 집을 지어 살기 시작했다. 홍수가 나던 곳에 콩과 팥 등의 곡식을 뿌렸더니 풍년이 되어 곡식을 관가에 바쳐서, 찰방의 벼슬을 얻었다.

그런데 이렇게 부자로 살다 보니, 30년이 지나는 것도 모르고 그냥 머물게 된 것이다. 30년이 지나자 찰방의 화살에 맞은 흑룡의 운이 당도한 것이다. 찰방은 여느 해처럼 오백 바리의 보리를 베어다, 타작한 곡식을 창고에 쌓아두고 있었다. 때마침 하얀 강아지가 환히 비친 달빛에 어른거리면서 산 쪽으로 도망을 갔다.

노복이 말했다.

“주인님, 괴이한 일도 다 있습니다. 백 강아지가 산 쪽으로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잡아라.”

그러나 하얀 강아지는 명월지경의 만호네 창고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었다. 마치 닭 쫓던 강아지 격이었다. 그런데 그 날 밤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서, 홍수가 터지기 시작했다. 찰방의 집이 며 밭이며 모든 것이 다 쓸어가고 하나도 남은 것이 없었다. 그것은 물장오리 흑룡의 조화였던 것이다.

풍수전설과 함께 용신에 대한 인식을 잘 살필 수 있는 전설이다. 흑룡과 황룡의 싸움은 흑백 혹은 악과 선적인 존재의 싸움이다. 용은 물과 관련이 깊고, 물을 부릴 수 있는 힘을 가진다. 흑룡은 악의 존재로 물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괴롭혔다. 산신의 도움으로 흑룡을 물리쳐 세상의 평화를 갈구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금기를 지키지 못함으로써 인간은 한계를 드러내게 마련이다. 이무기가 용이 되어 승천하기 위해서는 선과 악의 논리에 의해, 선함이 쌓여서 가능하다는 전승민의 인식이 드러난다.

물장오리는 거녀인 설문대 할망이 빠질 만큼 심연을 알지 못할 정도로 수심이 깊다. 충분히 잠재된 용이 승천할 수 있을 만큼 배경으로 설정할 만한 논리를 지녔다.

백두산 천지의 백장수와 흑룡이야기와 견줄 만한 전설이다.

아흔아홉골

아득한 옛날, 한라산 골짜기는 본래 백골이었다. 그 때에는 많은 맹수가 나와 날뛰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때 중국에서 스님 한 분이 건너와서 백성들을 모아 놓고 너희들을 괴롭히는 맹수를 없애 줄 터이니 “대국 동물대왕 입도(入島)”라고 큰 소리로 외치도록 했다. 호랑이니 사자 따위 무서운 짐승을 없애 준다고 하니, 백성들은 좋아해서 모두 모여들어 큰소리로 외쳤다. 그랬더니, 기이하게도 모든 맹수들이 이 백골에 모여들었다.

스님은 불경을 한참 외고 나서,

“너희들은 모두 살기 좋은 곳으로 가라. 이제 너희들이 나온 골짜기는 없어지리니, 만일 너희들이 또 오면 너희 종족이 멸하리라.”

맹수를 향해 소리치자, 호랑이·사자·곰 할 것 없이 골짜기로 사라지고, 순간 그 골짜기도 없어져 버렸다. 그 후 이 산은 아흔아홉골의 골짜기밖에 되지 않았고, 따라서 제주에는 맹수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호랑이·사자와 같은 맹수가 아니 나게 되자, 제주에는 왕도 큰 인물도 나오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원래는 온전한 수, 백 개의 골짜기라야 하는데 한 골이 모자라 아흔아홉골밖에 안 되어 맹수도 나지 않고, 훌륭한 인물도 나지 않는 것이다.

단혈에 의해 인물이 나지 않고, 스님이 불경을 외어서 맹수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유사한 인식에 의해 설정된 것이다.

왕후지지의 땅의 단혈은 제주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운명이었을 것이다. 맹수가 나지 않게 했다는 것은 평화적인 모티프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맹수로 상징되는 위대한 인물들이 날 곳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표현한다고도 볼 수 있다. 축복 받은 땅이지만 현실적, 사회적으로 불가능한 한계성에 대한 인식이다. 자연의 불모성을 강조하면서도, 영웅과 같은 훌륭한 인물의 부재를 이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개미목 명당자리

한라산 정북쪽 1,500m 고지는 가파른 경사지인데, 옆으로는 탐라계곡, 개미계곡 등을 끼고 있다. 보통 여기를 통과하여 한라산 백록담으로 오르게 된다. 개미목이라는 이름은 개미의 목처럼 가늘게 되어 있으므로 ‘개미목’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이 곳을 후손들이 장사가 날 명당자리라고 했다.

이 개미목에 부친의 무덤을 써서 장수가 된 문사령이라는 인물 전설이 있다.

풍수 지리에 능한 제주목사가 부임하였다. 당시 제주 목사의 사령 중에는 문사령이라는 자가 있었다. 목사는 늘 한라산을 오르면서 개미목에 가서 “어, 참 좋은 곳이로고.”하고 감탄을 했다. 문사령은 목사가 감탄하는 곳을 보니 지기(地氣)가 아주 좋고 장군형이었다.

그래서 문사령은 목사에게 하소연을 하였다.

“목사님, 저 땅을 제게 주시면 그 은혜는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 된다. 땅이라는 것은 다 임자가 있는 법이다. 상놈은 그 곳에 산을 쓸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하였으나, 너무도 간절하게 아버지의 구산을 원했으므로 목사는 그렇게 하도록 했다.

“명심해야 될 것이 있으니, 산을 쓴 후 삼 년 안에는 절대로 움직이거나 이장하지 않도록 해라.”

“예, 알겠습니다.”

문사령 부친의 묘를 쓰고 사람들 모두가 나오자마자 엄청나게 큰 비가 내려 홍수가 터졌다. 물이 불어 산 위에서 막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 때 문사령은 아버지의 무덤을 치산하면서 이상한 징후를 느꼈다. 온 몸에서 엄청난 힘이 막 나오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은 냇물이 불어서 건널 수가 없었다. 문사령은 사람들 손을 잡고서 냇가 두둑으로 핏퐁 던지기 시작했다. 몸에는 힘이 불끈 솟을 뿐만 아니라 날개가 돋기 시작한 것이다.

땅의 기운이 솟아올라 거드랑이에는 날개가 생기고 날아다니게 된 것이다. 문사령은 날개를 펴고 힘을 주체하지 못하면서, 그 남아도는 힘을 쓰기 위해서 서울로 가려고 작정했다. 몇 차례 퍼덕거린 날갯짓으로 문사령은 경복궁에 도달했다. 나막신을 신은 사람이 경복궁 위를 가로로 세로로 날아다니게 되자 신하들은 어쩔 줄을 몰라했다.

“임금님, 도적이 나타났습니다.”

임금이 자세히 살펴보니 날개가 돋아 궁궐 위를 가로 세로 훌쩍 훌쩍 날아다니는 모습이 마치 늑은 황새가 날갯짓을 하며 무거운 몸을 겨누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분명 날개가 돋았으나, 나막신을 신은 인간 도적임이 틀림이 없었다.

“이 도적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서울 안에는 이상한 도적을 잡는 자에게 큰상을 내리겠다는 방이 붙었다. 이 때 한 신하가 다가와서 임금님에게 아뢰었다.

“도서관에 불을 넣어서 불을 끄는 자에게 천금상(千金賞) 만호(萬戶)를 주겠다고 방을 붙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 것도 모른 바보스런 문사령은 바닷물을 떠다 도서관에 난 화재를 진압했다. 도서관 지붕만 타고 나머지 장성들은 날개 돋힌 문사령이 이리저리 날아다니면서 전부 밖으로 이동해 임금은 문사령의 공력에 크게 칭찬을 하였다.

문사령이 임금 앞에 무릎을 꿇자 모여든 사람들이 큰 그물을 들고 와서, 에워싸고 덮쳐 문사령은 그만 잡히고 말았다.

“너의 힘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너의 아버지의 무덤이 어디에 있지?”

임금은 큰소리로 물었다. 아기 장수가 나타나서 아버지를 죽이고 임금을 죽이는 역적은 바로 산천 정기가 센 한라산이 있는 탐라에서 나온다고 늘 들어왔던 처지였기 때문에, 임금은 그 사실을 알고 싶었던 것이다.

“한라산 개미목 밭입니다.”

문사령이 포승을 차고 제주도로 와서 개미목 밭으로 여러 신하들과 함께 갔다.

“여기를 파라.”

곡괭이를 든 신하들은 땅을 파기 시작했는데, 큰 소가 거기에 무릎을 굽히고 땅 밖으로 나오려고 막 버둥치고 있었다.

거기에는 원래 용이 나와 하늘로 올라갈 비룡상천(飛龍上天)의 땅이었다. 그런 장군지(將軍地)가 3년을 기다리지 못하는 바람에 그만 용이 못 되고 소가 되어 버린 것이다. 신하들이 칼로 그 소의 머리를 참수하자, 문사령에게 솟아나던 그 힘이 완전히 빠져나가서 그 자리에 쓰러져 버린 것이다.(김영돈·현용준·현길연, 1985,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풍수전설 유형과 아기장수 유형이 합쳐서 이루어진 각편이다. 명당 발복은 사람의 역량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는 교훈을 전해 주고 있다. 풍수가 사람의 흥망결정에 절대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외부적인 요소, 즉 관이나 인간에 의해 운명이 파기되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

아기장수 역시 장수로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 힘을 써보지 못하는 제주에서 전해지는 전형적인 유형이다. 이는 바로 제주민의 삶의 반영이다. 고난을 신비적인 힘에 의해 극복

하려고 하나, 결국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절대성과 순응적인 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고려장

나이 든 노인을 한라산에 가서 버리고 오는 고려장 풍습은 조선조 때까지 내려왔다 한다. 세종 때 기건(奇虔) 목사(牧使) 시절이었다.

어느 날 이방이 목사에게 아뢰었다.

“내일은 아버님이 신선이 되는 날이어서 일을 보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신선이 된다는 말이고?”

70세가 된 사람은 신선이 될 사람이라, 여러 맛있는 음식을 차리고, 아버님을 한라산의 정상, 백록담에 모셔갔다 와야 하겠다는 이야기를 자세히 고했다.

목사는 이 말을 듣고 한참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음, 그러면 내가 옥황상제에게 편지를 한 장 써 보낼 터이니, 아버님께 전달해 주시도록 할 수 있을까?”

“예, 어렵지 않습니다.”

목사는 자그마한 봉투 하나를 넘기며 아버님의 가슴에 꼭 품게 해서 소중히 가져 가 넘기도록 했다.

이방은 아버지를 모시고 한라산에 올라가 작별했다.

이튿날 이방이 등청하자, 목사는 옥황상제에게 보내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있는가를 확인했다.

“그러면 다시 한라산으로 올라가 보게. 아버님이 신선이 되어 잘 오르셨는지.”

이번엔 이방을 따라 목사도 같이 올라갔다. 신선이 되도록 아버지를 앉혀 둔 자리에 가 보니, 거기엔 커다란 뱀이 한 마리 죽어 넘어져 있었다.

목사는 그 뱀을 잡아 배를 갈라 보도록 했다. 배속에는 이방의 아버지가 고스란히 들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방, 잘 보게. 내 옥황상제에게 보낸다는 편지는 편지가 아니라 독약이었네. 이래도 신선이 되어 올라간다는 말을 믿을 건가?”

그 후로부터 70세가 된 노인을 한라산에 버리는 풍속이 없어졌다고 한다.

이 전설은 탐라인들의 장례풍습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조선조 기건 목사 이후부터는 사람이 죽으면 분묘를 만들어 묻고 치산을 했음을 말해 주고 있다.

기건 목사의 현명함과 뱀에게 바치는 인신공희(人身公犧)설화인 만장굴, 차귀당 전설과 같은 설화가 합쳐져 이루어졌으며, 또한 조선조 관리의 현명함을 통해 국가에 대한 충과 부모에 대한 효 등 유교이데올로기를 더욱 부각시킬 수 있었던 전설이라고 할 수 있다.

3 민요

한라산과 360여 개의 오름을 품고 그 자락에 자리하고 살아가는 제주사람들의 노래에는 종종 산이 소재로 등장하거나 혹은 비유적 표현으로 나타나기도 한다.(여기 인용된 자료는 김영돈, 1960, 『제주도민요연구』(상), 일조각에 한함.)

특히 한라산은 신성한 장소로서 정신적인 지주나 다름없고 풍요로운 장소이며, 인간의 삶과 연결시킨 자연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노래 속에서는 일반적인 산, 오름, 한라산, 고유명사와 연결시켜 지역성을 드러내는 경우, 그리고 꽃, 물 등의 소재가 산과 연결되면서 나타나기도 한다.

각 편에 나타나는 산의 의미를 보면 제주민의 산에 대한 사고와, 다양한 인식의 세계를 들여다 볼 수 있다.

산은 비유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나 소재화 되어 나타나는데, 한라산의 상징적 의미로는 ‘크다’, ‘넓다’ 혹은 넘어서기 힘든 대상, 신선의 땅인 낙원, 자원공급처로 나타난다.

특히 고유명사로서의 한라산은 일반적인 산을 대신하거나, 총칭하는 의미로 나타난다.

또한 산, 오름들이 노래 속에 나타나는데, 차귀당산, 녹남봉, 산방산, 영주산, 서울의 삼각산, 중국의 태산, 망오름, 체오름, 성산망, 지미망 등 고유명사로 지정된 채 나타나고 있다. 이외에도 꽃자왈로 선홍곶, 물로는 가락곶물, 산짓물, 물장오리, 지장새미 등이 나타난다.

산

산 솥희도 사름이 살곡	산 속에도 사람이 살고
물 솥희도 사름이 산다	물 속에도 사람이 산다
사름 못살 어느 섬 서니	사람 못 살 어느 섬 있더냐

노래 속의 산은 물과 대응된 소재로서, 아주 깊숙하고 먼 장소로 지역적으로 소외된 장소를 가리킨다.

본디 전熄 곶어랜 몸은	본디 전생 곶다는 몸은
산 넘어도 즈들메 난다	산 넘어도 걱정거리 난다
물 넘어도 즈들메 난다	물 넘어도 걱정거리 난다
산도 물도 넘지나 말라	산도 물도 넘지나 말라

애초에 겪은 곶은 운명과 같은 험한 것으로 산과 물을 설정했다. 비록 아주 높고 험한 곶통을 견디면서 운명의 곶개를 넘더라도, 넘어서기가 어렵기 때문에 체념하라는 뜻이다.

이 산 저 산 양 산 중에	이 산 저 산 양 산 중에
울곡 가는 건 울곡산이여	울고 가는 건 곡산이네

집안에 상(喪)이 나서 슬퍼서 우는 것을 ‘곡하다’라고 한다. 울면서 살아가는 자신의 신세를 ‘곡산’이라 표현했다. 불쑥불쑥 솟아있는 많은 산봉우리만큼이나 시련은 다가오고, 마치 자신도 한 봉우리와 같은 신세인 것이다. 그리고 이 산, 저 산은 이승과 저승이며 자신은 곡하며 상여의 뒤를 쫓는 신세처럼 가련한 존재인지도 모른다.

청산에랑 집을 짓엉	청산일랑 집을 지어
녹산에도 집을 짓엉	녹산에도 집을 지어
청산 녹산 서녹산 새에	청산 녹산 서녹산 새에
불리는 건 내 눈물이라라	불리는 건 내 눈물이더라

청산에랑 어멍을 문곡	청산일랑 어머니를 문고
녹산에랑 아방을 문곡	녹산에는 아버지질 문고
청산 녹산 서녹산 새에	청산 녹산 서녹산 새에
불리는 건 눈물이라라	불리는 건 눈물이더라
두 오름 새에 댕이멍	두 오름 새에 다니며
흐르는 건 눈물이라라	흐르는 건 눈물이더라
흔백상을 가운데 놓곡	흔백상을 가운데 놓고
불리는 건 나 눈물이여	불리는 건 내 눈물이네

여기저기 솟아 있는 산은 자신들의 삶의 배경이나 다름 아니다. 한스럽고 고통스런 삶 속에서 흘리는 눈물은 산 사이를 흐르는 하천의 물과 같은 것으로 상상했다.

저 산으로 일어난 불은	저 산으로 일어난 불은
산지거나 끼와나 준다	산지거나 꺼나 준다
저 바다에 일어난 절은	저 바다에 일어난 물결은
여로나 재와나 준다	여로나 재워나 준다
나 가슴에 일어난 불은	내 가슴에 일어난 불은
어느 누가 끼와나 주리	어느 누가 꺼주리

가슴에서 일어나는 불, 곧 화병이 든 자신을 한탄스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산에 타오르는 불과, 바다에 이는 파도를 객관적 상관물로 끌어들이 표현했다. 자신의 가슴에 타는 불을 잠재우지 못하는 심정을 한탄했다.

나 설룬 말 들을 이 시믄	내 삶은 말 들을 이 있으면
돌아 오는 들을 만났	돌아 오는 달을 만나
고단고단 다 굴아 두엉	차근차근 다 말해 두어
저 산 고지 얼음석?찌	저 산수풀 얼음덩이 같이
소르릉이 나녹아가마	소르르 내 녹아 가마
나 가슴의 얼음광 쟁피	내 가슴의 얼음과 선혈
어느 벳디 녹아나 지리	어느 별에 녹아나 지리

꽃, 고지는 대체적으로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이어서 기온이 낮은 편이다. 더욱이 잡목이 우거져 있어서 더욱 시원하다. 그러나 자신의 가슴속에 맺힌 한스러움은 녹아갈 수가 없다.

산엔 가민 개 울림 소리	산엔 가면 개 짖는 소리
꽃 밧待 가민 봄 비둘기 소리	꽃 밧엔 가면 봄 비둘기 소리

아방 죽국 어멍 죽국	아버지 죽고 어머니 죽고
지집 죽국 즈식 죽국	계집 죽고 자식 죽고
죽국 죽국 소리한다	죽국 죽국 소리한다

비둘기의 소리를 희화한 노래다. 친근한 대상으로 다시 ‘산’을 끌어들었다.

저 산 둘러 난 지젠 ㅎ난	저 산 둘러 난 지려 하니
짐배 란 못 지듯	짐배 짧아 못 지듯
부뫼 공은 가프젠 ㅎ난	부모 공은 갓으려 하니
맹이 란 못 가파라	명이 짧아 못 갓더라

공든 이로 세아려 보라	공든 이로 헤아려 보라
어멍만이 공들어서랴	어머니만큼 공들었으랴
동지설달 진 진 밤의도	동지 설달 긴 긴 밤에도
젓인 자리 여에여 주곡	젓은 자리 갈아내어 주고
여이단 목 즈늘와 주영	마르던 목 축이어 주어
산에 ㄴ는 가마귀덜토	산에 나는 까마귀 들도
부뫼 은공 지극ㅎ는디	부모 은공 지극하는데
우리 ㄱ똥 귀ㅎ 인熄	우리 같은 귀한 인생
부뫼 은공 어기호랴	부모 은공 어기오랴

어마어마한 크기의 대상으로, 산을 설정하였다. 짐배의 길이가 짧아서 산을 등에 지고 옮길 수 없듯이, 부모의 은공을 갓으려 했으나 부모님이 오래 살지 않아서 갓지 못한다고 노래한다. 골산이 넓고 큰 것을 부모의 은공에 비교하였다. 시경(詩經)에도 부모 은공을 갓으려 했으나, 명(命)이 짧아서 못 갓더라는 내용이 나온다.

신국 신산 아여산 고개	신국 신산 아여산 고개
히곡 간덜 나 부뫼 시라	헤엄쳐간들 내부모 있으랴

“신국(神國), 신산(神山) 아여산”은 화자가 산을 신성시해서 설정해 놓은 이상향으로, 바다를 건너서 이 곳으로 헤엄쳐 간들 돌아간 부모는 만날 수 없다고 한탄한다.

저 산이랑 가운데 들영	저 산 가운데 들어
ㄱ랑 좁쌀 양식을 쌍	자잘한 좁쌀 양식을 싸서
평주 삼 읍 다 돌멍 봐도	제주 삼 읍 다 돌며 봐도
날만 전熄 궂인 이 셔냐	나 만큼 전생 궂은 이 있더냐
좋은 전熄 골리단 날에	좋은 전생 가리던 날에
어멍 어디 가 오라서니	어머니 어디 갔다 왔더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이곳 저곳을 헤매었다. 산이 중첩되어 있는 곳, 숨이 막힐 것만 같은 공간적인 배경을 ‘산 가운데 들었다’라고 표현했다. 비참한 운명을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에

계로 돌리고 있다.

부몬 죽으난 청산이 뉘곡 부몬 죽으니 청산이 되고
아긴 죽으난 황산이 滌다 아긴 죽으니 황산이 된다

나이가 들도록 자식들을 키우며, 힘들게 살아온 부모의 공덕은 지대하다. 그리고 부모가 거는 자식들에 대한 기대는, 언제나 푸르고 의미가 있다. 그러나 태어나 얼마 되지 않고 죽은 어린 아이의 무덤은 큰 의미가 없다.

산도 설곡 물도 선 요 질	산도 설고 물도 선 요길
누겔 보아 온 질이라니	누굴 보아 온 길이더냐
임을 보아 온 질이라라	임을 보아 온 길이더라
임아 임아 정든 임아	임아 임아 정든 임아
저 들 지도록 놀당 가마	저 달 지도록 놀다가마

자연적인 지역단위를 산과 내를 통해서 그 지역적 특성을 규명하기도 한다. 님을 찾아왔으나 모든 것이 낯설고 어설프기만 하다.

인간에 귀물은 각씨광 서방	인간의 귀물은 마누라와 서방
산중에 귀물은 멀뤼광 드레	산중에 귀물은 머루와 다래
나를 브리영 가시는 님은	나를 버리고 가시는 임은
마의정당 쉼정당 줄에	마의정당 쉼정당 줄기에
발을 걸런 유을엄서라	발을 걸려 이울고 있더라

산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물건은 머루와 다래이다. 그리고 인륜(人倫)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지간(夫婦之間)이다. 그러나 자신을 버리고 가는 님에 대해서는 원한이 사무친다. 이러한 님은 산기슭에 얽혀있는 땡땡이덩굴에 걸려서 꼼짝없이 한치도 움직이지 못해 말라비틀어졌으면 하는 증오의 노래이다.

울명 들룰 애기도 웃다	울며 따를 아기도 없다
노피 받줄 부모도 웃다	높이 받들 부모도 없다
저 산 뒤에 할배로 가도	저 산 뒤에 활개치며 가고
가시 웨에 걸릴 배 웃다	가시외에 걸릴 바 없다

홀로된 자신의 고독감을 이기기 위한 노래로 볼 수 있다. 부모와 자식이 인연 없이 흥가분하게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그것은 어쩌면 인간사의 이치인지도 모를 일이다.

간지나다 초나다 말라	알망굿다 별나다 말라
상산 고개 중산고개	상산 고개 중산 고개
노닐당도 지서명 滌다	노닐다가도 지서명 된다
간지나다 초나다 말라	알망굿다 별나다 말라
즈른적삼 진 치메 입언	짧은 적삼 긴 치마 입어

한질 구둑 썰리 배 웃다

한길 먼지 쓴 바 없다

상산, 중산이란 산의 크기와 높이를 상, 중으로 구분해서 지정해 놓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산에 올라 놀았다고 해서 착실한 아내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리고 자신은 남보다 별나게 성장(盛裝)해서 한길에 나가 논 적도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씨앗이엔 튼으렌 가난

시앗이라고 싸우러 가니

산을 넘어 튼으렌 가난

산을 넘어 싸우러가니

동산 밧디 메마꽃 7찌

동산 밧에 메꽃같이

휘번 듯이 나燕아시난

번듯이 내앗았으니

나 눈에도 저만한 각시

내 눈에도 저만한 색시

임의 눈에서 아니 들리야 임의 눈에야 아니 들랴

한락산의 고지 단풍

한라산의 수풀 단풍

무정한 남즈야 브레여 보라

무정한 남자야 쳐다보라

남편은 산을 건너 다른 마을에 첩을 만들어 놓고, 시종 다녔다. 첩을 찾아갔으나, 그녀의 미모가 뛰어남에 자신이 체념을 하게 된다. 그러나 동산에 핀 꽃보다는 오히려 한라산의 단풍이 완숙미와 아름다움이 더하지 않느냐고 자위한다.

서월 각신 씨앗이 굿영

서울 마누란 시앗이 굿어

물을 넘어 튼으레 간다

물을 넘어 싸우러 간다

평주 각신 씨앗이 좋앙

제주 마누란 시앗이 좋아

산을 넘어 살리레 온다

산을 넘어 살리러 온다

처첩에 대한 관념과 첩살이의 풍속이 육지부와 제주사회에서 서로 다름을 나타낸다. 육지부에서는 처와 첩의 신분 차가 현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에서는 서로 공존하는 관계였다. 제주의 속담에 “씨앗은 고팡 맡겨 다니고 동서는 못 맡겨 다닌다.”라는 말이 있다. 한 남자를 중심으로 처와 첩이 경제적인 이해 관계를 같이 했음을 짐작하게 하는 말이다.

미운 사름 꼴 보기 싫언

미운 사람 꼴 보기 싫어

산성에 간 집 짓언 사난

산성에 가 집 지어사니

들어오는 이 하나히 웃고 들어오는 이 하나가 없고

노리 사슴 밧어름 소리

노루 사슴 밧자국 소리

사름 하나 살 집이 웃언

사람 하나 살 집이 없어

산 속희 간 집일랑 짓언

산 속에 가 집일랑 지어

노리 사슴 소리만 난다

노루 사슴 소리만 난다

이런 고단 뉘 들어오리

이런 곳에 뉘 들어오리

인가가 없는 산촌에 외롭게 혼자서 집을 지어 사니, 벗이라고는 노루와 사슴뿐이다. 자연과 동화된 화자의 모습이 더욱 고독감을 자아내고 있다.

산 솥희도 사름이 산다	산 속에도 사람이 산다
물 솥희도 사름이 산다	물 속에도 사람이 산다
나무 돌 꿈 사름이 사는데	나무 돌 틈 사람이 사는데
이내몸은 의지할 곳 없구나	이 내 몸은 의지할 곳 없구나

산과 나무, 물 등의 자연을 의지해서 사람들이 서로 살고 있는데, 의지할 사람이 없는 자신의 신세와 고독한 처지는 이에 비하면 더욱 힘들다.

낭도 늙영 노목이 됴민	나무도 늙어 고목이 되면
놀단 생이 환고향곡	놀던 새가 환고향하고
산도 늙영 곡산이 됴민	산도 늙어 곡산이 되면
놀단 꿩도 환고향곡	날던 꿩도 환고향하고
꽃이 늙영 낙화가 됴민	꽃이 늙어 낙화가 되면
놀단 나비 환고향곡	놀던 나비 환고향하고
이내몸이 영 늙어지난	이 내 몸이 영 늙어지니
오단 님도 돌아나 가네	오던 임도 돌아나 가네

자연물의 일부로서 산과 나무, 꽃이 세월이 지나 노쇠해지면 자신과 같은 신세가 된다. 몸이 늙어서 초라해진 모습을 자연을 끌어들여서 표현했다. 산에서 늘 놀던 꿩이 사라지고 꽃이 지고, 늙은 사람에게는 오던 님도 돌아가게 된다.

산도 설고 물도 선 디	산도 설고 물도 선 데
어디란 일로 와시니	어디라고 이리로 왔나
돈일러라 돈일러라	돈일러라 돈일러라
말 모른 돈일러라	말 모른 돈일러라
돈의 전체곳 아니민	돈의 까닭 아니면
내가 요디 무사 오리	내가 여기 어째 오리

산과 물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공간적 요소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물질로 돈을 벌기 위해 육지부로 출가를 떠난 해녀들이 낯선 장소에 적응하는 것은 힘들기만 하다.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자신이 왜 이렇게 멀고 먼 타향까지 오겠느냐고 한탄한다.

산도 차지 물도 차지	산도 차지 물도 차지
우리 조선 총독부 차지	우리 조선 총독부 차지
저레 가는 저 총각은	저리 가는 저 총각은
내 차지여 내 차지여	내 차지네 내 차지네

산과 물은 국토의 일부분이다.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 불려진 노래로 볼 수 있다. 비록 나라는 빼앗겼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마음 속에 둔 사랑하는 남성이야 뺏기겠느냐는 것이다.

노픈 산에 눈 날리듯	높은 산에 눈 날리듯
-------------	-------------

아픈 산에 재 놀리듯	얇은 산에 재 날리듯
억수장마 비 북춤치듯	억수장마 비바람 치듯
대천바당 물결 놀 듯	대천바다 물결 놀듯
흔저흔저 매여 가게	어서어서 매어 가자

김매는 노래의 일절이다. 산 정상에 하얗게 쌓인 눈과, 낮은 산에 날리는 먼지, 그리고 장맛비와 비바람치는 모습, 큰 바다에 파도가 치는 것처럼 아주 빠른 속도로 강하게 매고 가라는 뜻이다.

산엔 가민 살장귀 소리	산엔 가면 살장구 소리
고진 가민 우김새 소리	수풀엔 가면 새우는 소리
저 드르헨 푸습새 소리	저 들에는 풀잎 소리
밭待 들민 굴강쇄 소리	밭엔 들면 호미 소리
집인 들민 정 7레 소리	집엔 들면 맷돌 소리
배엔 가민 뱃방귀 소리	배엔 가면 뱃고동 소리
물엔 들민 솜비질 소리	물엔 들면 솜비 질소리

어희요적인 성격을 띤 노래다. 산과 들, 그리고 집, 바다 등 제주의 정서가 물씬 풍긴다. 산에 가면 장구소리가 들리는 것은 야유(野遊), 혹은 한라산 화유(花遊)의 모티프를 상상한 것인가.

하영 먹젠 산전에 올라	많이 먹으려 산전에 올라
마의정당 췌정당 줄에	마의정당 췌정당 줄기에
발을 걸런 유울엄서라	발이 걸려 이울고 있더라
덥곡 더운 이 오늘이여	덥고 더운 이 오늘이네
어느 때민 저 지경 가리	어느 때면 저 지경 가리
얼른똥땅 매어나 놓게	얼른 매어나 놓자

욕심을 내어서 산전 밭을 개간하였으나, 막상 그 작업은 쉽지가 않다. 굶고 가는 땀이땀굴은 온통 밭에 얽혀 있고, 작업하는 사람의 발을 묶을 것만 같은 모습이다.

저 산 앞의 놀단 무시덜	저 산 앞에 놀던 마소들
어느제 보쟁 峇 주맹기나	언제 보려 쇠주머니나
한부종 때 보쟁 峇 주맹기다	한부종 때 보려 쇠주머니다
요 무시덜 흔저 불르라	이 마소들 어서 밟아라

제주 10소장에 목마장을 설치하고 소나 말을 방목했다. 방목했던 마소들을 음력 6월절 경에 좁씨 파종시기인 부종 때가 되면 마을로 내려다가 밭밭기에 이용했다. 쇠로 된 주머니, 곧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밭밭기임을 노래하고 있다.

요 낭 저 낭 팔제 좋은 낭 이 나무	저 나무 팔자 좋은 나무
요 산중에 태어나근	이 산중에 태어나선
풍우대작 적관 ㅎ단	풍우대작 겪어 오다가

이내 어깨 맛을 보난
좋은 좋은 방안으로
만년 부귀 ㅎ실로구나
대국땅에 태어나시민
아방궁을 짓일 적의
대들포나 매어지컬
핑주산에 낮기따문
이내 어깨 맛을 본다.

이내 어깨 맛을 보니
좋고 좋은 방안으로
만년 부귀 하시겠구나
중국땅에 태어났으면
아방궁을 지을 적에
대들보나 매어질걸
제주산에 낮기 때문
이 내 어깨 맛을 본다

소나 말, 짐승이나 혹은 사람의 힘을 이용해서 벤 나무를 내리면서 부르는 노래 일부다. 나무 이용도와 함께 목재의 이용적 가치, 자신의 노동에 대한 애정도 각별하다.

이 산 앞인 당 오백 못곡 이 산 앞엔 당 오백 베풀고
저 산 앞인 절 오백 못곡 저 산 앞엔 절 오백 베풀고
절 오백광 당 오백 새에 절 오백과 당 오백 새에
오백장군 절 귀경 간다 오백장군 절 구경 간다

‘당오백, 절오백’이라는 말이 있다. 곳곳에 무속신앙인 ‘당’을 설연하고, 불사를 창건했다. 그 중에서 한라산 영실에 있는 오백장군은 그 바위 모양이 기이하고 색색의 형태를 간직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 불사 중에서 한라산의 존자암은 유명하다.

저 산 뒤에 난 굽언 보난 저 산 뒤쪽을 굽어 보니
아흔 아홉 골이라라 아흔 아홉 골이더라
 흔 골 시민 백 골이컬 한 골 있으면 백 골일걸
백 골이민 범도 나컬 백 골이면 범도 날걸
이몸 지체 어려워라 이 몸 처리 어렵더라

‘아흔아홉계곡’에 대한 전설을 차용하여 노래하고 있다. 온전한 수 백을 채우지 못해서, 제주에는 맹수가 살지 않는다는 모티프이다. 부족함의 모티프를 통해서 못사는 사람들의 삶을 전설 속에서는 표현했는데, 원래 한라산에는 100개의 계곡에 맹수가 날뛰어 중국의 스님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대국동물대왕입도’라고 외치도록 했다. 그러자 맹수들이 모이고, 스님이 살기 좋은 곳으로 가라고 하자, 그 순간 한 개의 골짜기가 사라지고 맹수들도 사라진 것이다. 노래 속에서는 불행한 삶을 사는 자신의 신세를 전설모티프를 차용해서 자아화 했다.

산엔 가민 멀뤼광 ㄷ레 산엔 가면 머루와 다래
연ㄷ레로 해 지암서라 연다래로 해 지우더라

한라산의 명물인 머루와 다래를 따서 먹는 즐거움을 노래했다.

산 뛰는 건 웅매로다 산 뛰는 건 웅마로다
여 뛰는 건 배로구나 여 뛰는 건 배로구나

요 바당에 은광 금이 요 바다에 은과 금이
번질번질 려서도 번질번질 깔렸어도
노끈 낭긋 올매로다 높은 나무의 열매로다

산에 달리는 말과, 섬 사이를 달리는 배를 동일시해서 나타냈다. 그리고 바다 속에 있는 은과 금처럼 귀한 전복, 소라와 같은 해산물을 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에 비유하였다.

태산마농아 매운 양 말라 마늘아 매운 양 말라
늪어 가민 세우리 濼다 늪어가면 부추 된다
꽃이라도 시들어지난 꽃이라도 시들어지니
燕단 나뵤도 다 돌아간다 앓던 나비도 다 돌아간다
낭이라도 노목이 뵤난 나무라도 노목이 되니
놀단 생이도 아니나 燕나 놀던 새도 아니나 앓는다
산도 보난 고렷적 산이여 산도 보니 고려적 산이네
물도 보난 고렷적 물이여 물도 보니 고려적 물이네

늪고 초라하게 된 자신의 모습을 중국 태산의 마늘, 그리고 꽃, 나무인 생물에 비유하였다. 산 천은 의구하나 인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습을 달리하게 된다. 여기서 산은 단순히 소재로 등장한 것을 알 수 있다.

삼각산에 치돌안 보난 삼각산에 치달아 보니
늦이 같은 모뭇광 산뒤 늦게 같은 메밀과 발벼
선 때 비연 애들암서라 설익은 때 베어 애달파하네

삼각산은 노래 속에 자주 등장하는 관용구로, 특별히 지정되어 있는 곳보다는 일반화된 일정 지역을 일컫는다. 어떤 일을 너무 서둘러 행해서 실패 한 다음 후회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었다.

산방산 굴절이 썬난 산방산 굴절이 세어서
못내 높은 송악산이라라 못 높은 송악산이더라

산방산과 송악산은 대정현에 있다. 특히 산방산은 종상(鐘狀)화산으로, 산허리에는 산방굴사가 전설을 간직한 채 묵묵히 바다를 향하고 있다. 산방산 사찰의 영력이 강하기 때문에, 곁에 있는 송악산은 자신의 존재를 발하지 못했다. 강력한 힘을 가진 것 곁에 위치하면, 그보다 못한 작은 힘은 전혀 발휘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두 개의 산을 끌어들여서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산은 첩첩 곤륜산아 산은 첩첩 곤륜산아
물은 출랑 황해수라 물은 출령 황해수라

제주민요에서 곤륜산과 황해수는 관용적 표현으로 나타난다.

영주산에 즈랜 나무
오늘날은 지와 간다
금도치로 지와 간다
버국이랑 놀고 가라
천리만리 놀고 가라
함박만씩 놀고 가라
물박만씩 놀고 가라
산도 물도 넘어 가라

영주산에 자란 나무
오늘날은 눅혀 간다
금도끼로 눅혀 간다
지저깨빌랑 날고 가라
천리만리 날고 가라
함박만큼씩 날고 가라
물박만큼씩 날고 가라
산도 물도 넘어 가라

영주산은 표선면 성읍리에도 있고, 한라산도 영주산이라 일컬었다. 노래 속에서는 특별히 지정된 곳은 아니고, 나무가 많은 산을 지칭한다. 이 노래는 나무를 베어다가 집 혹은 배를 만들기 위해서 목재를 모으면서 부르는 노래다. 특히 귀자귀를 이용하여 나무를 다듬는 장면이 잘 나타난다.

콩 입 닦은 우리 성님
속입 닦은 나를 두영
복성귀낭 배를 탄에
핑주 섬을 돌단 보난
허궁산에 지는 비는
우리 성제 눈물이여

콩 잎 닦은 우리 형님
속 잎 닦은 나를 두어
복숭아 나무 배를 타선
제주 섬을 돌다 보면
허궁산에 내리는 비는
우리 형제 눈물이네

석 섬 짚은 서 말에 능경 석 섬 짚은 서말에 능거
서 말 짚은 석 뒤에 능경 서 말 짚은 서 뒤에 능거
석 뒤 짚은 서 홉에 능경 서 뒤 짚은 세 홉에 능거
차귀 당산 당산메 지영 차귀 당산 당산메 지어
느네 상전 눈에나 들라 너의 상전 눈에나 들어라

차귀당산은 한경면 고산리에 있는 고산악(높이 148m)의 별명으로 이렇게 부른다. 고산 지역은 과거로부터 논농사가 가능했다. 고산악 부근에 펼쳐진 넓은 평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벼농사는 제주도에서는 강정지역과 더불어 몇 안 되는 벼가 생산되는 지역이다. 당산메는 신에 올리는 밥으로 <서천노기 당산메>·<서천강노기메>·<노기메>라고도 하는데, 중요한 곳을 할 때는, 메가 한 그릇이 되도록 늦그릇에 물과 쌀을 알맞게 맞추어서 넣은 후 이를 솥 안에 담그고 정성껏 짓는다.

산아 산아 수영도산아
어서 상산 질이나 나라
산중 귀물 오미즈 중의
드레만이 맛좋아서나

산아 산아 수영도산아
어서 상산 길이나 나라
산중 귀물 오미자 중에
다래만큼 맛 좋았더나

오미자는 한라산의 명물로, 따서 술에 담가 오미자술을 만든다. 오미자와 더불어 아주 귀중한 것으로 다래가 있다. 화자는 오미자보다 다래가 더 맛이 있다고 강변하는 것인가? 수영도산은 ‘수양산’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며, 중국 산서성(山西省)과 황해도 해주에도 있다.

백이숙제의 수양산 고사리가 유명하다.

오름

오름에 돌광 지세어명은 오름에 돌과 지세어명은
둥글어 댕기당도 살을메 난다 굴러 다니다도 살 바가 있다
놈의 첩광 소낭끼 브름은 남의 첩과 소나무 바람은
소린 나도 살을메 웃다 소린 나도 살 도리 없다
버룩버룩 살마꽃은 번듯번듯 반하꽃은
흐를피영 웃어나 진다 하루 피고 없어나 진다

모진 풍파에도 견뎌낸 지세어명, 곧 조강지처를 산에 굴러다니고 발길에 채이는 돌에 비유했다. 그리고 소나무에 이는 바람과 한순간의 첩과의 덧없는 사랑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한다. 또 산에 피는 반하(半夏) 꽃 역시 그렇다.

이 오름 넘어 저 오름 가난 이 오름 넘어 저 오름가니
더욱 노픈 천칭 오름 더욱 높은 천중 오름
하영 먹젠 상상봉 가난 많이 먹으려고 상상봉 가니
가시덤불에 발을 비연 가시덤불에 발을 베어
가기 오기 곤란이여 가기 오기 곤란이네
설롭다 벗님네야 서럽다 벗님네야
꺾늘이 먹곡 꺾늘이 썩 가늘게 먹고 가늘게 써서
심신 편안 지일이여 심신 편안 제일이네

오름을 인간의 욕망에 비유했다. 채울 수 없는 욕망을 위해 상상 속의 다른 오름 '상상봉'으로 치달았으나, 그 곳에는 가시덤불이 무성하여 발목걸린 자신을 발견하고 세상사람들에게 교훈적인 어조로 경세(警世)의 노래를 하게 된 것이다.

큰 오름은 아방을 삼곡 큰 오름은 아버질 삼고
족은 오름은 어명을 삼안 작은 오름은 어머닐 삼아
선계 먹을 근심 안혹곡 현씨 먹을 근심 앓고
이내몸 살을 근심이라라 이 내 몸 살 근심이더라

해녀들이 오름과 더불어 삶을 영위해 가는 모습을 노래했다. 결국은 삶의 어려움을 노래한다.

드리 손당 큰애기덜은 교래 송당 큰아기들은
피 방에 훑기 일수로다 피 방아 찼기 일수로다
가시오름 큰애기덜은 가시리 큰아기들은
담배 피기 일수이곡 담배피기 일수이곡
정꿀에 큰애기덜은 성읍리의 큰아기들은

화토 치기 일수로다

화투치기 일수로다

중산간 지역의 특산물과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성격을 잘 나타낸 노래다. 두리는 교래마을로 중산간 지대여서 산물은 조나, 피, 메밀 등이다.

가시오름 강당장 칩의	가시리 강당장 집에
柴 콜 방에 새 글럼서라	세콜방아 새 안 맞더라
요내몸은 비 잡아 사난	요내몸은 비 잡아 서니
다섯 콜도 새 맞암서라	다섯콜도 새 맞고 있더라
우리 성제 삼 성제 드난	우리 형제 삼 형제 드니
다섯 콜도 새 맞암서라	다섯콜도 새 맞고 있더라
각단밭디 우리통 박 듯	각단 밭에 우리통 박 듯
팔제 굿인 요내몸 가난	팔자 굿은 이 내 몸 가니
함는 방에 들음을 돈나	짚는 방아가 달려나간다

가시오름은 가시리에 있다. 이 곳에는 부호라고 일컬어지는 강당장이 살고 있었는데, 보통 세 사람이 들어서서 짚는 세콜방아로 작업하곤 했다. 방아를 짚을 때 박자가 맞지 않는 경우를 ‘새글룬다’라고 한다. 그러나 며느리는 다섯 사람이 짚는 다섯콜도 잘 맞추어 작업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팔자가 굿은 화자는 박자가 맞지 않아 작업의 진척이 어려운 것이다.

두리 손당 큰애기덜은	교래 송당 큰애기들은
피 방에 집에 다 나가고	피 방아 짚기에 다 나가고
청수 닥무를 큰애기덜은	청수 저지 큰애기들은
지름 장시 다 나가고	기름 장사 다 나가고
죽성 7다시 큰애기덜은	<죽성><7다시>큰애기들은
틀 드레 타레 다 나가고	산딸 다래 따러 다 나가고
조수 낙천 큰애기덜은	조수 낙천 큰애기들은
석은 멜 풀래 다 나가고	씩은 멀치 팔러 다 나가고

한라산 자락에 위치한 산촌지역인 교래, 청수와 저지, 죽성, 조수 낙천의 큰애기 풀이이다.

망오름만이 피라	망오름만큼 피어라
체오름만이 피라	체오름만큼 피어라

성산망에 불싸라	성산망에 불켜라
지미망에 불싸라	지미망에 불켜라

원당오름 불싸라	원당봉 불켜라
망오름 불싸라	망오름 불켜라

위의 세 각편은 아이들이 쇠비름 뿌리를 가지고 손바닥을 치면서 붉어지는 모습을 오름 정상에 있는 봉수대에 불이 켜지는 것과 비유하여 부른 노래다. 자신들과 이웃해 있는 오름을 일

큰고 노래를 했다. 산과 오름은 자신들과 이웃해있는 벗이었으며 가장 친근한 대상이었다.

녹남봉에 녹낭끼 방에	녹남봉에 녹나무 방아
노광 7튼 나 어깨 들렁	녹각 같은 내 어깨 들여
뜨려 드난 핑지가 濼다	때려 놓으니 핑지가 된다

녹남봉은 약 100m나 되는 산으로, 대정읍 신도리에 위치해 있다. 여기서 나는 녹나무를 이용하여 주변지역 사람들은 방아를 만들었다. 사슴의 마른 뿔인 녹각처럼 단단한 자신의 어깨로 방아질을 하면 어떠한 곡물도 다 뺨을 수 있다고 자부한다.

한라산

산댕 허나 못 산댕 허나	산다 하든 못 산다 하든
저 양지에 지미나 보라	저 얼굴에 기미나 보라
한락산의 전 섬잇 브름	한라산의 온 섬엿 바람
아저문사 나 섬의 두라	가져다가 내 섬에 뒤라

바람에 의해 얼굴이 굵혀서 생겼다고 여겨지는 기미, 바람은 온 섬을 휩쓸고 지나간다. 아마도 그 바람을 모아 일정한 지역에 가두었다면, 이렇게 섬에 바람이 많지는 않았을 것이라라고 노래한다.

할로산으로 ㄴ리는 물은	한라산으로 내리는 물은
베릿내로나 ㄴ리는건마는	별도천으로나 내리건만
나 눈으로 ㄴ리는 물은	내 눈으로 내리는 물은
어딜로나 다 흘러 가리	어디로나 다 흘러 가리

‘베릿내’는 제주시 화북동의 ‘화북천’을 뜻한다. 한라산의 물이 시내를 따라 흐르는 것을 자신의 눈에서 내리는 물과 동일시했다. 자연의 이치를 빌려 자아화함으로써 서정의 시상을 획득했다.

한락산으로 ㄴ리는 물에	한라산으로 내리는 물에
곤쌀 씻언 밥을 허난	흰쌀 씻어 밥을 하니
닉도 하곡 돌도 하곡	늬도 많고 돌도 많고
님이 웃인 탓이로고나	임이 없는 탓이로구나

한라산의 지하수가 바닷가 근처로 와서 샘을 형성한 곳에 마을 촌락들이 구성되었다. 이 맑은 물에 쌀을 씻고서 밥을 했으나, 님이 없는 까닭으로 밥맛이 좋을 리가 없다.

한로산에 썩인 눈은	한라산에 쌓인 눈은
봄철 나민 쳐지쥬만	봄철 나면 쳐지지만

요내 가슴에 쌓인 시름
쳐질 날도 시리아 한다

요내 가슴에 쌓인 시름
쳐질 날도 있으랴 한다

늘 바라보는 한라산에 쌓인 눈과 자신의 가슴 속에 쌓인 시름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다. 인간사를 표현하기 위해 자연물을 끌어들이는 수법은 민요에서는 일반화된 방법이다.

우리 배는 잦도 재다
놈의 배는 뜬도 뜨다
썩은 냇의 덕더린가
요 몽고지 부러지민
한라산에 가시나미
엇일 말가

우리 배는 재기도 재다
남의 배는 뜨기도 뜨다
썩은 나무 덕더리가
요 노손 부러지면
한라산의 가시나무가
없을 말이나

해녀노래의 일부분이다. 한라산의 가시나무를 이용하여 배를 만들었다. 한라산은 제주민들에게 많은 자원을 공급해주는 중요한 장소였다.

나 놀레랑 산 넘어 가라
나 놀레랑 물 넘어 가라
물도 산도 지넘지 말앙
이디서 도놀당 가라
저 산 뒤에 나 어멍 싯당
설룬 아기 소리舖 헝게
헝헤원 불르당 봐도
불를 놀레 수하영 싯저
한락산이 내 집이 뉘민
부를 놀레 다 불러 보카

내 노래랑 산 넘어 가라
내 노래랑 물 넘어 가라
물도 산도 넘지를 말아
여기서 도닐다 가라
저 산 뒤에 내 어머니 있다가
젊은 아기 소리라 하계
하루종일 부르다 봐도
부를 노래 수많이 있다
한라산이 내 집이 되면
부를 노래 다 불러 볼까

공간 구분으로 산과 물이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자신의 고단한 삶을 노래하며 부르는 노래는 이 세상 끝이 없다. 때로는 노래가 넘쳐서 저쪽에서 들리면, 친정 어머니는 자신의 딸이 부르는 설움이라 여긴다.

그렇지 않으려면 달힌 공간으로 한라산처럼 큰 집이 있다면, 외부세계로 나가지 않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쥐주산은 악산이여
보리 밥을 밥이舖 먹영
쥐주 난 일이 칭원하다

제주 산은 악산이네
보리 밥을 밥이라 먹어
제주 난 일이 원통하다

제주산은 곧 한라산을 의미한다. 풍수적으로 한라산이 악산이므로, 사람들 삶이 어렵다고들 한다. 여기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하고 한탄하는 것이다.

한로산을 등에 지곡

한라산을 등에 지고

대천바당을 집을 삼양
부모 동熄 이별할 적인
손수건인덜 아니 젓이라

대천 바다를 집을 삼아
부모 동생 이별할 적엔
손수건인들 아니 젓으랴

해녀들이 물질을 하면서 바라보는 한라산과 오름은 자신들의 위치를 가늠하는 잣대로 이용되기도 했다. 그리고 출가 물질을 앞두고 부모, 형제와 이별하는 모습을 노래로 표현했다.

한로산 허리엔
시러미 익은숭 만송
서귀포 해녀는
바당에 든송 만송

한라산 허리엔
시로미 익은 듯 만 듯
서귀포 해녀는
바다에 든 듯 만 듯

제주야 한로산
고사리 맛도 좋고 좋고
산지야 축항 곳
벧고동 소리도 좋고 좋고

제주야 한라산
고사리 맛도 좋고 좋고
산지야 항구 끝
벧고동 소리도 좋고 좋고

한로산 상상봉
노프곡 노픈 봉
백록담이라 하는 곳이어

한라산 상상봉
높고 높은 봉
백록담이라 하는 곳이네

구실엔 감줄 빛
한로산 새 소리
신선의 나라여

가을엔 감굴 빛
한라산 새 소리
신선의 나라네

산에를 가문은
목동의 노래곡
바당에 오문은
좀네의 노래여
한로산 들판엔
말들이 솔치고
뜨뜻한 나라여

산에를 가면은
목동의 노래요
바다에 오면은
해녀의 노래네
한라산 들판엔
말들이 살찌고
따뜻한 나라네

오돌또기, 이야흥, 너녕나녕 등 창민요에는 산과 한라산이 자주 등장한다. 제주의 풍광을 묘사하고 노래하는 데에 이용하였다. 신선의 땅, 아름다움을 찬미하고 자신들이 태어나 자라서 살고있는 향토에 대한 애정이 노래 속에 듬뿍 담겨 있다.

돛박꽃은 피었는디
흰 눈은 왜 내리나
한로산 선녀들이
춤을 추며 내려 온다

동백꽃은 피었는데
흰 눈은 왜 내리나
한라산 선녀들이
춤을 추며 내려 온다

고량부 삼성혈 훑아 가난
가마귀 까옥까옥
소낭만 푸르고나

고량부 삼성혈 찾아 가니
까마귀는 까옥까옥
소나무만 푸르구나

동양화의 한 쪽을 연상시킨다. 하얀 눈을 배경으로 핀 빨간 동백꽃, 거기에 한라산의 선녀들이 춤추고 내려온다. 삼성혈에는 푸른 소나무 위에 까만 까마귀만 까옥까옥 울고 있다. 빨갛고, 하얀, 푸르고, 검은 색상이 대조적으로 펼쳐진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정경이 어디에 또 있을까 싶다.

저 산 둘러 난 지쟁 짐패 란 못 질로고나 한라산이 돈이라도 상속자 웃언 못 쓸로다 바당물이 술이라도 부량자 웃언 못 먹을로다	허난 저 산 둘러 난 지려 하니 짐배 째아 못 지겠구나 한라산이 돈이라도 상속자 없어 못 쓰겠구나 바닷물이 술이라도 부량자 없어 못 먹겠구나
---	---

인간의 한계를 인식한 노래인가. 산과 한라산은 크고 많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암뽕은 앞의 사곡
장뽕은 뒤에 사곡
이침저침 걸어가난
백 멍지 저고리에
흰 비단 동전에
얼룩배기 관디에
울통절통 둘러 입곡
머들만이 앉아서난
널매꺾은 도적놈은
곳곳마다 여삼더라
이만허민 어땡허리
저만허민 어땡허리
수풀앗디 기여들언
어기야똥똥 주워 먹언
한라산에 간 보난
아들아긴 장기 두곡
딸아긴 노뽕험더라

암뽕은 앞에 서고
수뽕은 뒤에 서고
주춤주춤 걸어가니
백 명주 저고리에
흰 비단 동정에
얼룩배기 관디에
울통불통 둘러 입고
돌무더기만큼 앉았더니
널매같은 도적놈은
곳곳마다 야수고 있더라
이만하면 어땡허리
저만하면 어땡허리
수풀밭에 기여들어
얼렁똥똥 주워먹어
한라산에 가 보니
아들아긴 장기 두고
딸아긴 놀이하고 있더라.

뽕노래의 일부분이다. 한라산이 마치 낙원처럼 보인다. 남편을 '총쟁이(사냥꾼)'에게 잃은 까투리가, 자신의 종족인 장끼와 결혼하고 도적놈이 있는 현실을 피해서 도피한 곳은 바로 한라산이었다.

곶

요 네 상착 부러지라
고지 낭괴 엇일 말가
서늘곶 서낭은 애기씨 서낭
때밋곶 서낭은 영감의 서낭

요 노 상책 부러져라
수풀 나무가 없을 말인가
서늘곶 서낭은 아기씨 서낭
때밋곶 서낭은 영감의 서낭

조천읍 선흘곶과 남원면 위미곶에 있는 나무를 이용하여 배와 노를 만들었다. 배에는 선왕에 대한 신앙이 있으므로, 모시는 신의 특성과 관련하여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모관 이방 영리방 각시
무싱것이 상덕이라니
서늘곶디 도아낭 마깨
손에 이가 상덕이라라

모관 이방 영리방 부인
무엇이 상덕이더냐
선흘곶에 복숭아나무 방망이
손에 못이 상덕이더라

서늘곶디 낭지레 가난
짐패 란 못 지엄서라

선흘곶에 나무지러 가니
짐배 째아 못 지고 있더라

서늘곶은 조천면 선흘리에 있는 곶자왈을 말한다. 이 곶자왈을 고지, 곶밭이라고도 하며, 한라산을 기준으로 동서로 길게 뻗어 있어, 교래, 선흘, 송당 등 조천읍과 구좌읍 일대를 비롯하여 화순, 저지 등 한경면 일대에 광범위하게 숲과 초지를 이룬다. 희귀식물인 개가시나무, 녹나무, 육박나무, 백서향 등의 나무와 제주고사리삼, 천량금, 큰개관중, 창일엽 등 미기록 식물이 자라고 있다.

제2장 한라산과 지명

1 한라산국립공원 지역의 지명 유래

한라산국립공원 지역의 지명 유래

이 글은 주로 한라산과 주변 지역의 지명에 대하여 정리한 것이다.

우선 이 글에서 사용하는 ‘한라산’이라는 용어를 한정해야 할 것 같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과 『두산세계대백과 엔사이버』(두산동아, 2004), 『파스칼백과사전』(동서문화사, 2004) 등에서 ‘한라산’ 항목을 찾으면, 우선 눈에 띄는 것이 ‘한라산’, ‘한라산국립공원’,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등 3항목이다.

‘한라산’ 항목에서는, 한라산은 “제주도의 중앙에 솟아있는 화산”이라 하고, “한라산은 제주도의 전역을 지배하며, 동심원상의 등고선을 나타내어 순상화산(楯狀火山)에 속한다. 한라산에는 약 360개의 측화산(側火山)과 정상부의 백록담, 해안지대의 폭포와 주상절리(柱狀節理) 등의 화산지형과 난대성기후의 희귀식물 및 고도에 따른 식생대(植生帶)의 변화 등 남국적(南國的)인 정취를 짙게 풍”긴다고 했다. 특히 지질·지형과 생태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한라산은 곧 제주도(濟州島)이고, 제주도가 곧 한라산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글에서도 기본적으로 한라산은 곧 제주도라는 인식에서 글을 쓰려고 한다.

한편 ‘한라산국립공원’ 항목을 보면, “제주도 한라산을 중심으로 하는 국립공원. 면적 약 149 km². 동서 길이 약 17km로 제주시 57.50km², 남제주군 20.1km², 북제주군 21.2km², 서귀포시 34.2 km²에 걸쳐 있다.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는 자원을 갖추고 있어 1970년 국립공원 제 7호로 지정되었다.”고 하여, 해발 1,800m 이상을 중심으로 하는 종상화산체(鐘狀火山體)는 물론이고, 해발 600m 이상의 산악지대 대부분을 포함시켜 ‘한라산국립공원’으로 지정했다.

‘한라산천연보호구역’ 항목을 보면, “제주도 일원의 천연보호구역. 면적 83km². 천연기념물 제 182-1호. 이 구역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하는 해발 800~1,300m 이상의 구역을 비롯하여, 일부 계곡 및 특수 식물상을 보유하고 있는 몇 개의 지역을 포함한다.”고 했다.

이 글에서는 「한라산 총서」의 ‘한라산’이라는 말이 제주도(濟州島) 전체를 뜻하는 말로 이해하고 전개한다. 그렇게 되면 논의의 편의상 크게 ‘한라산국립공원 지역’과 ‘한라산국립공원 이외의 지역(한라산천연보호구역과 기타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한라산국립공원 지역’은 다시 ‘오름[山·岳·峰], 내[川], 굴(窟), 굴·골[谷·洞], 계곡(溪谷), 기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한라산국립공원 이외의 지역’은 다시 ‘한라산국립공원 지역’을 제외한 ‘한라산천연보호구역’과 ‘기타 지역’으로 나누고, 각각은 다시 ‘오름[山·岳·峰], 내[川], 굴(窟), 마을[洞里], 개[浦口], 섬[島], 물[水·세미[泉], 굴·골[谷·洞], 당[堂], 무르[旨]·동산, 밭·왓[田], 논[畚], 기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주어진 분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라산국립공원 지역’의 지명만 다루고 ‘한라산국립공원 이외의 지역’ 지명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한라산국립공원 지역의 지명 목록을 국립지리원 발행의 5,000분의 1 지도(1998)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발행한 「한라산국립공원」(2003) 지도를 중심으로 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이 두 지도를 인용할 때, 국립지리원의 5,000분의 1 지도(1998)는 ‘5,000분의 1 지도’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의 「한라산국립공원」(2003) 지도는 ‘한라산국립공원 지도’로 쓰

도록 한다.) 두 지도의 지명 표기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명은 가급적 민간에서 부르는 고유어를 내세우고, 부득이한 경우에 두 지도와 옛 지도 등의 표기를 밝히도록 한다. 고유어 이름은 가급적 오창명(1998)을 기준으로 하고, 여기에 누락되거나 잘못된 것은 옛 지도와 문헌의 표기, 민간의 고로들의 음성형을 바탕으로 새로 재구하여 제시한다. 경우에 따라서 김종철(1995)의 『오름나그네』와 제주도(1997)의 『제주의 오름』의 표기도 인용한다.

어스熄이오름(御乘生, 어승생오름), 족은두레왓, 큰두레왓, 능하오름, 장구목오름, 삼각봉, 흙불은오름, 돌오름, 쌀손장오리, 불칸디오름, 물장오리, 굴오리오름, 어후오름, 성널오름, 이스령오름(이슬령오름), 사제비동산, 만세동산, 망체오름, 촛대봉(민대가리오름), 방에오름, 윗방에오름, 알방에오름, 왕관릉, 윗세오름(큰오름, 셋오름, 작은오름), 붉은오름, 살핀오름, 세성제오름(삼형제오름, 큰오름, 셋오름, 작은오름).

아흔아홉골, 서탐라골(개미목계곡, 개미계곡), 동탐라골(용진굴/용진골), 탐라계곡.

어리목, 개미목, 장구목, 약다리목.

산짓내(산지천), 벨돗내(화북천), 무수내(무수천), 광령천(외도천), 산벌른내(영천천).

구린굴, 평굴, 수행굴, 평귀(평지귀), 탑귀, 옷상귀.

백록담, 소백록담, 사제비동산물(사제비동산 약수), 사라오름물(사라샘), 노루샘, 오름샘(오름약수), 어리목샘, 방에샘, 한뼘저수지(어리목저수지), 어리목습지, 1000고지 습지.

오백나한(오백장군, 영실기암), 병풍바위, 왕관바위.

선작지왓, 진달래왓(진달래밭), 속밭, 음텅밭.

존자암, 석굴암.

선녀폭포(천녀폭포).

기타 개미등, 용진각.

오름[山·岳·峰]

한라산국립공원 안에는 40여 개의 오름(산과 봉 등을 포함)이 있다. ‘오름’은 제주도 한라산 주변에 흩어져 있는 산이나 봉우리 따위를 이르는 제주방언으로, ‘오롬’이라고도 한다. 한라산도 일찍부터 釜岳(부악) 또는 頭無岳(두무악), 頭毛岳(두모악) 따위로 표기된 것으로 보아 오름으로 불리다가 나중에 한라산(漢拏山)으로 이름이 굳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표기의 경우 山(산) 또는 岳(악), 봉(峰·峯), 메·미, 오름·오롬 등으로 쓰이는데, 이들 간의 뜻의 차이는 거의 없다. 곧, 산이나 메·미라 부르고 표기하거나, 악이나 봉이라 부르고 표기하거나, 오름·오롬으로 부르고 표기하거나 뜻의 차이가 없다는 말이다.

한라산(漢拏山)

한라산은 제주도 중앙부에 높이 솟아 있는 산을 이른다. 높이는 1,950m이다. 『고려사』를 비롯한 고문헌에는 한라산(漢拏山), 두무악(頭無岳), 두모악(頭毛岳), 원산(圓山), 부악(釜岳) 등이라 하고, 한편 삼신산(三神山)의 하나로 영주산(瀛洲山)이라고도 하였다.

한라산이라 한 것은 운한(雲漢 : 은하수 또는 하늘)을 붙잡아 끌 수 있다는 데서 붙인 것이라고 한다. 활 모양으로 구부러져서 가운데가 높고 사방은 차차 낮은 형상을 하여 둥글다는 데서 ‘원산(圓山 : 두리메)’이라 했다고 한다. 산봉우리에 백록담이라는 못이 있어서 마치 물을 저장하는 그릇인 두멍 또는 가마솥과 비슷하여 두무악(頭無岳)·두모악(頭毛岳)·부악(釜岳)이라

고도 했다. 두무악(頭無岳)·두모악(頭毛岳)·부악(釜岳) 등은 모두 ‘두魄오름’을 한자 차용 표기로 쓴 것으로, 표기만 다를 뿐 소리와 뜻은 같은 것이다. 이를 잘못 이해하여 두무악(頭無岳)을 머리가 없는 산이라는 데서 그렇게 불렀다고 해서는 안 된다.

산꼭대기는 조면암으로 된 종상화산(鐘狀火山)으로 이루어지고, 주변은 대부분 현무암으로 구성되어, 경사가 완만하게 된 순상화산(楯狀火山)이다. 꼭대기에 지름이 500m 정도 되는 화구호(火口湖)인 백록담(白鹿潭)이 있다. 한라산을 중심으로 한 제주도 전역에는 360여 개의 오름이 널려 있다.

방애오름(윗방애오름, 셋방애오름, 알방애오름)

한라산 백록담의 서남벽 아래쪽에 있는 세 개의 오름을 이른다. 행정구역상 서귀포시 동홍동이 된다. 백록담 쪽에서 남서쪽으로 세 개의 오름이 연이어 솟아 있는데, 위 오름을 ‘윗방애오름(표고 1,748m)’, 가운데 오름을 ‘셋방애오름(표고 1,699m)’, 아래 오름을 ‘알방애오름(표고 1,585m)’이라고 부른다. 이 오름은 「탐라지도」(1709년)와 「제주삼읍전도」(1872년), 「대정군지도」(1872년) 등에 ‘砧岳(침악 : 방애오름)’으로 표기되었다. 국립지리원 발행 5,000분의 1 지도에는 ‘방애오름’과 ‘윗방애오름’, ‘알방애오름’으로 표기되었고, 민간에서는 ‘방애오름·방애오름’이라 하고 있다. 한자 표기 砧(침)은 ‘방하(砧 방하돌 침<유합-칠장사본>, 방하돌 침<신합, 상:24>>방아’의 제주도방언 ‘방애·방애’의 훈독자 표기이고, 岳(악)은 ‘오름>오름’의 훈독자 표기이다. 세 개의 오름 중 가운데에 있는 오름이 ‘방아(제주방언은 방애)’와 같이 야트막하게 패 있다는 데서 ‘방애오름’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5,000분의 1 지도에는 ‘방애오름, 윗방애오름, 알방애오름’, 「한라산국립공원지도」에는 ‘윗방애오름, 上岳(상년악) / 방애오름, 中岳(중년악) / 알방애오름, 下岳(하년악)’으로 표기되어 있다. 5,000분의 1 지도에 ‘방애오름’으로 표기된 오름은 「한라산국립공원지도」에 ‘윗방애오름’으로, 5,000분의 1 지도에 ‘윗방애오름’으로 표기된 오름은 「한라산국립공원지도」에 ‘방애오름’으로, 5,000분의 1 지도에 ‘알방애오름’으로 표기된 오름은 「한라산국립공원지도」에 ‘알방애오름’으로 표기되어 있다. 오름 이름이 다르게 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은 ‘방아오름’, 어떤 것은 ‘방애오름’으로 표기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편 ‘방하오름’이라고도 부르는데, ‘방하’는 ‘방아’의 옛말이므로 ‘방애오름’과 같은 말이 된다.

윗세오름

한라산 서북벽 서남쪽으로 연이어 서 있는 세 개의 오름을 이른다. 북제주군 애월읍 광령리에 있는 해발 1,740m, 1,711.2m, 1,698.9m의 세 개의 오름을 이른다. 구체적으로 일컬을 때는 ‘큰오름, 셋오름, 작은오름’ 등으로 부른다. ‘큰오름’과 ‘셋오름’ 사이에 ‘윗세오름 대피소’가 있다. ‘윗세오름’ 또는 ‘윗세오름’ 등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5,000분의 1 지도에는 ‘윗세오름, 윗세오름’으로 표기되고, 한라산국립공원 지도에는 한글로 ‘윗세오름’으로 쓰고, 한자나 중국어로 ‘威勢山岳/威勢山岳’으로 표기해 있다. ‘윗세오름’으로 통일하는 것이 좋을 듯하고, 한자 표기나 중국어 표기는 문제가 있으므로 논의를 통하여 통일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왕관릉·왕관바위

한라산 북벽 바로 북동쪽에 있는 바위를 이른다.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해발 1,666.3m의 오름이다. 용진각대피소 바로 동남쪽에 있다. 오늘날 지도에는 지도에 따라 ‘왕관릉, 왕관능’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 오름은 1709년의 「탐라지도」와 1899년의 『제주군읍지』(「제주지도」) 등

에 ‘九峯岩(구봉암 : 아홉봉바위)’으로 표기하였는데, 九峯(구봉)은 ‘아홉봉’ 또는 ‘아홉봉우리’의 훈독자 결합 표기로 보인다. 岩(암)은 ‘바위’의 훈독자 표기이다. 바위 봉우리 아홉 개가 솟아 있는데 그 형상이 왕관과 같아서 나중에 ‘왕관바위’라 불렀던 것이고, 그 일대의 능선이 마치 왕관(王冠)과 같이 솟아 있다는 데서 王冠稜(왕관릉)이라 한 것이다. 한편 옛 지도(「제주삼읍전도」와 「제주지도」 등)에는 ‘九峯岩(구봉암 : 아홉봉바위)’ 아래쪽에 入先岩(입선암 : 또는 入先石, 「제주삼읍도총지도」) 또는 入先(입선), 서쪽에 靑莊岩(청장암) 등의 표기가 나타나는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 다만 ‘왕관릉’ 가까이에 있는 오름을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장고목오름·장구목오름·장구목

한라산 북벽 바로 북서쪽에 있는 오름을 이른다.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해발 1,696m의 오름이다. 용진각대피소 바로 서쪽에 있다. ‘장구목오름’은 북쪽에 있는 ‘큰두레왓오름’ 사이가 마치 ‘장고>장구’의 ‘목’과 같이 가늘고 잘록하게 되어 있는 목이라는 데서 ‘장고목>장구목’이라 부르게 되고, 그 ‘장고목>장구목’을 끼고 있는 오름이라는 데서 ‘장고목오름>장구목오름’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1709년의 「탐라지도」에는 ‘장고목’을 長鼓項(장고항 : 장고목의 한자 차용 표기)으로 표기했다. 이런 까닭으로 지금도 ‘장구목오름’을 그냥 ‘장구목’으로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장구목’과 ‘장구목오름’은 지리적 위치가 약간 다르다.

큰두레왓오름·큰두레왓

장구목오름 바로 북쪽에 있는 오름을 이른다.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해발 1,612.4m의 오름이다. 이 오름 바로 남서쪽에는 ‘민대가리동산’이 있고, 동남쪽에는 ‘삼각봉’이 있다. 보통 ‘큰두레왓’으로 부르는데, 현대 지도에도 ‘큰두레왓, 큰두레밭, 大斗里峰(대두리봉)’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1703년의 『탐라순력도』와 1709년의 「탐라지도」에는 斗里磯(두리여 : 두리여의 한자 차용 표기)로 표기되었으나, 「제주삼읍도총지도」에는 ‘大斗里(대두리 : 큰두리의 한자 차용 표기)’, 1899년의 「제주지도」에는 斗里峯(두리봉 : 두리오름)으로 표기된 것으로 보아, ‘족은두레왓’과 아울러서 ‘두리오름’이라 부르거나 구분해서 ‘큰두리’ 또는 ‘큰두리오름’ 정도로 불렸음을 알 수 있다. 시간이 흘러 ‘두리’는 소리가 ‘두레’로 변하고, ‘여’는 ‘밭’이라는 어휘로 대체되어, 오늘날은 ‘큰두레’ 또는 ‘큰두레왓’이라 부르고 있다.

족은두레왓오름·족은두레왓

‘큰두레왓오름’ 바로 서북쪽에 있는 오름을 이른다. 제주시 해안동과 노형동 경계에 있는 해발 1,339.2m의 오름이다. 현대 지도에는 ‘작은두레왓, 작은두레밭, 小豆里峰(소두리봉)’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19세기 중반의 「제주삼읍전도」에 小斗里(소두리 : 족은두리의 한자 차용 표기)로 표기되고, 1899년의 『제주군읍지』(「제주지도」)에 小斗里峯(소두리봉 : 족은두리오름)으로 표기된 것으로 보아, 원래는 크게 ‘두리오름’에 속하고, 구분할 때는 ‘족은두리’ 또는 ‘족은두리오름’으로 불렸음을 추정할 수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소리가 변하여 ‘족은두레’가 되고, 여기에 ‘왓’이라는 어휘를 덧붙여 ‘족은두레왓’ 또는 ‘족은두레왓오름’이라 하고 있다. 어차피 오름 이름을 제주방언으로 쓸 것이면 ‘작은두레왓’보다 ‘족은두레왓’ 또는 ‘족은두레왓오름’으로 쓰는 것이 좋을 듯하다.

삼각봉(三角峰)

장구목오름 바로 북동쪽에 있는 오름을 이른다.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해발 1,509.9m의 오름

이다. 1703년의 『탐라순력도』(「한라장축」)와 1709년의 「탐라지도」 등을 보면 이 오름에 烟臺(연대)라 표기하고, 1872년의 「제주지도」에는 古烟臺(고연대), 1899년의 『제주군읍지』(「제주지도」)에는 烟臺(연대)로 표기되어 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이은상이 쓴 『탐라기행 한라산』에는 鳶頭峰(연두봉), 大鳶頭峰(대연두봉), 小鳶頭峰(소연두봉)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로 볼 때 18세기 초반까지 이 곳에 연대(烟臺)를 설치하여 망보는 곳으로 이용했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연디오름>연대오름’으로 불렸음을 알 수 있다. 이 오름에는 큰 봉우리(해발 1,503m)와 작은 봉우리(해발 1,495m)가 있는데, 각각을 ‘큰연디오름’, ‘작은연디오름’이라 불렀음을 추정할 수 있다. 오늘날은 주로 ‘삼각봉’이라 한다. 오름 모양이 삼각형 모양이라는 데서 ‘삼각봉’이라 한 것이다.

촛대봉(一峰)·민대가리동산

북제주군 애월읍 광령리에 있는 해발 1,600.5m의 오름을 이른다. 만세동산 북동쪽에 있다. 5,000분의 1 지도에는 ‘촛대봉’이라 했는데, 「한라산국립공원」 지도(2002)에는 ‘민오름, 敏岳(민약)’이라 하고, 「한라산국립공원」 지도(2003)에는 ‘민대가리동산, 亥頭明(해두명)’으로 표기되어 있다.

만수동산·만세동산

북제주군 애월읍 광령리에 있는 해발 1,606.2m의 오름을 이른다. 한라산 어리목 등산로를 따라 오르다 보면 ‘사제비동산’이 나타나는데, 이 ‘사제비동산’ 위쪽에 있는 것이다. 이 오름은 「탐라지도」(1709)와 「제주삼읍전도」(1872), 「제주지도」(1899) 등에 晩水同山(만수동산)으로 표기되고, 「제주삼읍도총지도」(18세기 중반)에는 萬水同山(만수동산)으로 표기되어 있다. 민간에서는 ‘만수동산, 만세동산’이라고 하는데, ‘만세’는 ‘만수’의 잘못으로 보인다. 晩水(만수)와 萬水(만수)는 ‘만수’의 음가자 결합 표기로, 그 뜻은 확실하지 않다. 同山(동산)은 ‘동산’의 음가자 결합 표기로, 나지막한 언덕을 뜻하는 말인데, 이 오름에 걸맞는 말인지 의문이다. 한편 ‘망동산’이라고도 부르는데, 마소를 모는 테우리들이 여기에 올라 망을 보았다는 데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5,000분의 1 지도에는 ‘만세동산’으로 표기하고, 「한라산국립공원지도」에는 ‘만세동산, 만수동산, 萬水童山, 萬歲同山/萬水童山, 萬歲同山’ 등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하나로 통일하여 표기할 필요가 있다.

망체오름·첻망오름

북제주군 애월읍 광령리에 있는 해발 1,354.9m의 오름을 이른다. ‘사제비동산’ 서남쪽에 있는 오름이다. 이 오름은 「탐라지도」(1709)에 蓋山岳(개산약), 「제주삼읍도총지도」(18세기 중반)에 乾松岳(건송약 : 무른소낭오름)으로 표기했다. 5,000분의 1 지도에는 ‘망체오름’으로 표기하고, 「한라산국립공원지도」에는 ‘망체오름, 첻망오름, 川望岳(천망약 : 첻망오름)’으로 표기하였다. 민간에서는 주로 ‘첻망오름’이라 한다. ‘첻망’과 ‘망체’는 소리를 앞뒤로 바꾼 것일 뿐이다. ‘첻망’은 ‘체의 테두리’라는 뜻이라고 한다. 하나로 통일하여 표기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특히 한자로 川望岳(천망약)을 쓴다면 한글의 경우 ‘망체오름’보다 ‘첻망오름’으로 쓰는 것이 좋을 듯하다.

사제비동산·사제비오름

북제주군 애월읍 광령리에 있는 해발 1,425.8m의 오름을 이른다. 주변의 묘 비석에 표기된

‘鳥接(조접)은 ‘새접이·새접이’는 ‘새저비’ 또는 ‘새재비’ 정도의 음성형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김종철(1995:2권, p.232)에서는 ‘새접이(새매)’를 닮은 형상인 데서 붙인 것이라고 하나 확실하지 않다. 5,000분의 1 지도에는 ‘사제비동산’으로 표기되고, 한라산국립공원 지도에는 ‘사제비동산, 寺祭碑岳(사제비악), 鳥接岳(조접악)’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한글로는 ‘사제비동산’으로 쓰는 것이 좋을 듯하나, 한자 표기는 문제가 있다.

이스렁오름·이스랑오름

북제주군 애월읍 광령리에 있는 해발 1,352.6m의 오름을 이른다. 이 오름은 「제주삼읍도총지도」(18세기 중반)에 伊士郎岳(이사랑악 : 이스랑오름)으로 표기하고, 「제주삼읍전도」(1872)에 伊士良岳(이사랑악 : 이스랑오름)으로 표기하였다. 5,000분의 1 지도에는 ‘어스렁오름’으로 표기하고, 「한라산국립공원지도」에는 ‘이스렁오름, 어슬렁오름, 伊士良岳(이사랑악)’으로 표기하였다. 민간에서는 주로 ‘이스렁오름’이라고 한다. 伊士郎(이사랑)은 옛말 ‘이스랑’의 음가자 결합 표기이다. 伊는 ‘이’의 음가자, 士는 ‘스(士 豆스 사, 선비 스<신합, 상:17>)>사’의 음가자 표기, 郎은 ‘랑’의 음가자 표기다. 伊士良(이사랑)의 良도 음이 ‘랑’이지만 유사음 ‘랑’의 음가자 표기이다. (필자는 良이 郎을 옮기는 과정에서 잡를 빼 것으로 본다.) ‘이스랑’의 뜻은 확실하지 않으나, 특별한 뜻을 가진 어휘로 보인다. ‘이스렁’은 ‘이스랑’의 변음으로 보이며, ‘어슬랑’은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제주도(1997)의 ‘애월읍’ 오름 분포 현황에, ‘이스렁오름’과 ‘어스렁오름’은 인접해 있는 다른 오름으로 분류해 놓았다.) ‘이스랑’ 또는 ‘이스렁’은 좀 더 연구해 보아야 할 이름이다. 지도마다 ‘이스렁오름, 이슬렁오름, 어슬렁오름, 어스렁오름’ 등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통일된 하나의 표기가 필요하다. 옛 표기를 고려하고, 한자로 쓸 때 伊士良岳(이사랑악)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스렁오름’으로 쓰는 것이 좋을 듯하다.

볼레오름·볼래오름

서귀포시 하원동에 있는 해발 1,774m의 오름을 이른다. 이원진의 『탐라지』(제영)에 ‘浦涯嶽(포애악 : 볼레오름)’, 「탐라지도」와 「제주삼읍도총지도」에 ‘虜羅岳(볼라악 : 볼레오름)’, 「제주삼읍전도」에 ‘甫羅岳(보라악 : 볼레오름)’, 『제주군읍지』(「제주지도」)에 ‘鋪羅岳(포라악 : 볼레오름)’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한자 표기 浦涯嶽·虜羅岳·甫羅岳·鋪羅岳 등은 우리말 ‘볼레오름·볼래오름’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5,000분의 1 지도에는 ‘볼래오름’으로 표기되었는데, 한라산국립공원 지도에는 ‘볼래오름, 佛來岳(볼래악)’으로 표기되어 있다. 원래 ‘볼레오름·볼래오름’으로 불렀는데, 오름 가까이에 있는 존자암(尊子庵)을 고려하여 ‘볼래오름’을 ‘볼래오름’으로 인식하고 이를 한자인 佛來岳(볼래악)으로 쓴 것이다. 그러므로 소리가 ‘볼래오름’으로 바뀔 수가 있고 음가자 결합 표기로 佛來岳(볼래악)으로 쓸 수는 있으나, 이를 부처가 와서 정좌한 오름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다. ‘볼레오름’이나 ‘볼래오름’으로 통일하여 쓰는 것이 좋을 듯하다.

드레오름·도래오름

서귀포시 대포동에 있는 해발 938.8m의 오름을 이른다. 99번의 1100도로에서 영실 휴게소로 들어가는 입구 위쪽에 있다. 옛 지도는 물론 5,000분의 1 지도에는 표기되어 있지 않고, 「한라산국립공원지도」에 ‘다래오름, 月羅峰(월라봉)’으로 표기되어 있다. 민간에서는 ‘드레오름·드래오름’이라 한다. ‘드레·드래’는 ‘다래’의 제주방언으로, 이 오름에 ‘드레낭·드래낭(다래나무)’이 많다는 데서 이렇게 불렀다고 한다. 오늘날의 글자를 고려하여 ‘도레오름’이나 ‘도래오름’

정도로 쓰는 것이 좋을 듯하다.

세성제오름·삼형제오름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해발 1,053.1m, 1,112.8m, 1,142.5m의 세 오름을 이른다. 1100도로 인 99번 도로 가에 있는 1,100고지 휴게소 바로 뒤쪽(방위상으로는 서쪽)에 나란히 있는 오름을 이른다. 5,000분의 1 지도에는 가운데 오름에 ‘삼형제오름’이라 표기했고, 한라산국립공원 지도에는 가운데 오름에 ‘삼형제오름, 三兄弟岳(삼형제악)’으로 표기하거나 ‘삼형제족은오름, 下三兄弟岳(하삼형제악)’, ‘삼형제셋오름, 中三兄弟岳(중삼형제악)’, ‘삼형제큰오름, 上三兄弟岳(상삼형제악)’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민간에서는 보통 ‘세성제오름’이라 하고, 구분할 때는 ‘세성제큰오름’, ‘세성제셋오름’, ‘세성제족은오름’ 등으로 구분한다. 특히 ‘윗세오름’과 대비해서 ‘알세오름’이라고도 하는데, ‘알세오름’이라고는 거의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세 오름을 ‘세성제오름’이라 하고, 위쪽에 있는 세 오름을 ‘윗세오름’이라 구분할 뿐이다. ‘세성제큰오름’ 바로 동쪽이 1,000고지이고 1100도로가 지나간다. 이 곳에 1,100고지 휴게소와 탐라각, 그리고 고상돈기념비, 백록담기념비, 백록의 전설비 등이 세워져 있다. ‘세성제오름’ 정상은 기점으로 해서 한라산국립공원 지역 경계가 지나간다. 그러므로 ‘세성제큰오름’과 ‘세성제셋오름’ 일부는 한라산국립공원에 속하고 ‘세성제셋오름’ 일부와 ‘세성제족은오름’ 일부는 한라산국립공원에 속하지 않는다. ‘족은오름’, ‘셋오름’과 같이 제주방언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삼형제’도 제주방언으로 써서 ‘세성제오름’ 또는 ‘세성제큰오름, 세성제셋오름, 세성제족은오름’ 등으로 통일해서 쓰는 것이 좋을 듯하다.

살핀오름

북제주군 애월읍 광령리에 있는 해발 1,076.3m의 오름을 이른다. ‘붉은오름’ 아래쪽(방위상 남동쪽), ‘세성제큰오름’ 위쪽(방위상 북쪽)에 있다. 「한라산국립공원」 지도(2003)에는 ‘살핀오름, 薩品岳(살품악)’으로 표기하였다. ‘살핀’의 뜻은 확실하지 않다. 민간에서는 삼별초 항쟁 당시에 김통정 장군 휘하의 병사들이 이 오름에 올라 주변 지역의 동정을 살폈다고 하여 붙여진 것이라고 하나 믿을 수가 없어 보인다. 한글 표기가 ‘살핀오름’이라면 한자 표기 薩品岳/甞品岳(살품악)은 문제가 있다.

붉은오름

북제주군 애월읍 광령리에 있는 해발 1,061m의 오름을 이른다. 1100도로 휴게소 뒤쪽에 있는 ‘세성제오름’ 위쪽(방위상 북쪽)에 있는 오름이다. 5,000분의 1 지도에는 ‘붉은오름’으로, 「한라산국립공원 지도」에는 ‘붉은오름, 赤岳(적악)’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원진 『탐라지』(제주목, 산천)와 「탐라지도」, 「제주삼읍도총지도」와 「대정군지도」 등에는 ‘벗近岳(붉은악 : 蓐은오름)’으로, 「제주삼읍전도」에는 ‘佛近岳(불근악 : 蓐은오름)’으로, 『제주군읍지』(「제주지도」)에 ‘赤岳(적악 : 蓐은오름)’으로, 『증보 탐라지』에는 ‘赤岳(적악), 붉은오름’으로 표기되어 있다. 赤(적)은 ‘불근(赤 불글 遼<신합, 상:5>)>붉은’의 훈독자 표기이다. 佛近(불근)과 벗近(불근)은 ‘불근>붉은’의 현실음 ‘불근’의 음가자 표기이다. 岳(악)은 ‘오름>오름’의 훈독자 표기이다. 그러므로 한자 표기 赤岳(적악)·佛近岳·벗近岳(불근악)은 모두 ‘蓐은오름>붉은오름’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오름의 흙이 유난히 붉다는 데서 붙인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화산 폭발의 흔적을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것이다.

넷새오름

북제주군 애월읍 광령리에 있는 해발 804m의 오름을 이른다. ‘츠나오름(천아오름)’ 동남쪽에 있는 나지막한 오름이다. 다른 지도에서는 표기를 확인할 수 없고 한라산국립공원 지도에 ‘넛새오름, 納蕡岳/納蕡岳(납새악)’으로 표기되어 있다. 내와 내 사이에 있는 오름이라는 데서 ‘넛새오름’이라 한 것이다. ‘어스熄이오름(어승생악)’ 위쪽에서 발원한 ‘외도천’ 줄기와 ‘붉은오름’ 쪽에서 발원한 ‘외도천’ 줄기가 ‘넛새오름’ 바로 북서쪽에서 합류하는데, 이 오름은 두 줄기 사이에 있다. 한자 표기 納蕡岳/納蕡岳(납새악)은 문제가 있다.

어스熄이오름·어승생악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해발 1,169m의 오름을 이른다. 지도에 따라 ‘御乘生(어승생), 어승생악, 御乘生岳(어승생악), 어승생오름’ 등으로 표기되고 있다. 이 오름은 『탐라지』(제주목, 산천)와 「탐라도」, 「탐라지도」,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御乘生岳(어승생악 : 어스熄이오름)’, 『지영록』에 ‘御乘生(어승생 : 어熄이)’, 『탐라순력도』에 ‘御乘生(어승생 : 어스熄이)’, 御乘岳(어승악 : 어스熄이오름)’, 『제주군읍지』(「제주지도」)에 ‘御乘峯(어승봉 : 어스熄이오름)’, 일제강점기 지도에 ‘御乘岳(어승악 : 어스熄이오름)’, 『증보 탐라지』(산천)에 ‘御乘生峰(어승생봉 : 어스熄이오름)’ 등으로 표기하였다. 민간에서는 ‘어스승이, 어스熄이’라고 한다. 御乘生(어승생)은 이원진 『탐라지』(제주목, 산천)의 “어스熄이오름’은 제주 남쪽 25리에 있다. 그 봉우리에 못이 있는데, 둘레가 백 보나 된다. 민간에서 전하기를, 이 오름 아래에서 임금이 타는 말이 낡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붙인 것이라 한다(御乘生岳, 在州南二十五里. 其嶺有池, 周百步. 諺傳 此岳之下, 出御乘馬, 故名)”는 설명과 같이 한자의 뜻 그대로 임금이 타는 말[御乘馬]이 낡기 때문에 붙인 것이라면 음독자로 ‘어승생’의 표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에서 부르는 ‘어스승이, 어스熄이’ 등을 고려하면 음가자의 결합 표기라 할 수 있다. 석주명(1947)은 ‘어스솨’의 몽골식 지명으로, 이은상(1936)은 ‘울시심’(神聖의 뜻)의 뜻으로 보았다. 필자도 음가자 결합 표기로 보지만, 그 뜻은 확실하지 않으므로 과제로 남겨 둔다. 다만 ‘어스熄이·어스승이’라는 음성과 ‘어리목’의 ‘어리(얼음이라는 뜻)’라는 음성은 현재 확실하지 밝힐 수는 없지만 어원이 같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御乘生岳(어승생악)이라는 표기가 어승마가 난 곳이라는 데서 붙인 것이라는 설명은 믿기 어려워진다. 더욱이 ‘御乘生’이라는 표기가 ‘어스熄이’의 음가자 결합 표기라면 나중에 한자 차용 표기에 이끌려 어승마가 난 곳이라는 설명이 생겼을 수도 있다. 표기는 주로 어승생악(御乘生岳)으로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골머리·골머리오름

제주시 연동 ‘어스熄이오름(어승생악)’ 동쪽 ‘아흔아홉골[九九谷]’에 있는 오름을 이른다. ‘골머리’는 ‘아흔아홉골’의 첫머리에 해당하는 제일 서북쪽 부분으로 표고 704m이고, ‘골머리오름’은 ‘아흔아홉골’의 위쪽 머리에 있는 오름으로 표고 850m이다. ‘골머리오름’바로 서쪽 능선 아래쪽에 석굴암(石窟庵)이라는 암자가 있는데, 등반객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이다. 이 오름은 이원진 『탐라지』(제주목, 산천)와 김정호 『대동지지』(권12, 제주, 산수), 담수계 『증보 탐라지』(산천) 등에 洞山(동산 : 골미), 「탐라지도」(1709)에 谷頭(곡두 : 골머리), 「제주삼읍도총지도」(18세기 중반)에 髑頭(골두 : 골머리) 등으로 표기하였다. 洞과 谷은 ‘골’(洞 골 <백련-동경, 21>, 冢 冢골 俗稱山冢通作洞<훈몽-초, 상:2>/谷 골 곡<훈몽-초, 상:2>)의 훈독자 표기로, ‘아흔아홉골’[九九洞/九九谷]을 이른다. 髑은 ‘골’의 음가자 표기이다. 山은 ‘뫼’의 제주도방언 ‘미’ 또는 ‘메’의 훈독자 표기이다. 頭는 ‘마리(頭 마리<훈몽-초, 상:13>)>머리’의 훈독자 표기이다. 谷頭(곡두)와 髑頭(골두)는 ‘골머리’의 한자 차용 표기이고, ‘洞山(동산)’은 ‘골미’ 또는

‘골머리오름’의 한자 차용표기이다. ‘골머리’는 이원진 『탐라지』(제주목, 산천)의 “‘골미’는 제주 남쪽 25리에 있다. 무릇 아흔아홉골이다(洞山, 在州南二十五里, 凡九十九洞).”라는 설명이나 김정호 『대동지지』(권12, 제주, 산수)의 “‘골미’는 제주 남쪽 25리에 있다. 무릇 아흔아홉골이다(洞山, 在州南二十五里, 凡九十九谷).”는 설명과 같이 ‘골[谷]의 머리’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아흔아홉골’은 『지영록』에서 ‘御乘生後洞(어승생후동 : 어스싱이 뒷골)’으로 표기되기도 하였다. 「한라산국립공원지도」에는 ‘아흔아홉골/九九谷’으로 표기되어 있다.

걸쇄오름·걸시오름

제주시 연동 ‘노루손이오름’ 남동쪽, ‘골머리오름’ 북동쪽에 있는 표고 733m의 오름을 이른다. 이 오름 서쪽에는 충혼묘지와 충혼담이 있고 북쪽에는 제주시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 이 오름은 「제주삼읍전도」(1872)에 傑始岳(걸시악 : 걸시오름), 「제주지도」(1872)에 傑始岳(걸시악 : 걸시오름), 『제주군읍지』(1899)의 「제주지도」에 傑時岳(걸시악 : 걸시오름), 주변의 묘비에 傑豺岳(걸시악 : 걸시오름) 등으로 표기되었다. 5,000분 1 지도에는 표기되어 있지 않고 「한라산국립공원지도」에는 ‘걸쇠오름, 걸시오름, 傑豕岳(걸시악), 杰豕岳(걸시악)’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傑始·傑時·傑始·傑豺·傑豕·杰豕(걸시) 등은 모두 ‘걸시’의 음가자 결합 표기로 ‘걸쇄(걸쇠·걸쇄)’이고, 岳은 ‘오름>오름’의 훈독자 표기이다. ‘걸시’는 ‘걸쇠’의 옛말 ‘걸쇄>걸쇄>걸새(쇠 걸쇄는 門關을 열오져 ㅎ눯다(鐵鎖欲開關)<두해-초, 11:50>. 쇠 걸쇄는 門關을 열오져 ㅎ눯다(鐵鎖欲開關)<두해-중, 11:50>. 洺錦 걸새<동해, 상:35>. 洺 걸새 료<왜해, 상:32>.)’의 제주도방언이다. 傑始岳·傑時岳·岬始岳·傑豺岳(걸시악) 등은 모두 ‘걸시오름’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오름의 형태가 ‘걸쇠’와 같다는 데서 붙인 것이다. 제주방언으로 ‘걸쇄오름’으로 쓰는 것이 좋을 듯하다.

능하오름·능화오름

제주시 오등동 남쪽에 있는 표고 973m의 오름을 이른다. 관음사 등산로의 탐라계곡대피소 서쪽 언덕에 있다. 이 오름은 『제주군읍지』(1899)의 「제주지도」에 菱花峯(능화봉 : 능화오름)으로 표기하였다. 오늘날 지도에는 ‘능하오름, 능화오름, 菱花岳(능화악)’으로 표기하였다. 민간에서는 ‘능하오름, 능하름’이라고도 한다. 5,000분의 1 지도에는 ‘능하오름’으로, 한라산국립공원 지도에는 능하오름, 菱花岳(능화악)으로 표기하고 있다. 한자 표기 菱花(능화)는 ‘능화’의 음독자 결합 표기로 보인다. 菱花(능화)는 ‘마름꽃’을 이르는데, 제주도방언으로는 ‘물망쉬’라 한다. 지형이 菱花(능화)처럼 생겼다는 데서 붙인 것이라고 하나 확실하지 않다. ‘능하오름’은 ‘능화오름’의 변음이며, 다시 ‘능하름’으로 줄어서 실현되기도 한다.

흙붉은오름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해발 1,380.7m의 오름을 이른다. 이 오름은 『탐라지』(제주목, 산천)와 『대동지지』(권12, 제주, 산수), 「제주삼읍전도」 등에 ‘赤岳(적악 : 蓐은오름)’, 『탐라순력도』(「산장구마」)와 「탐라지도」, 「제주삼읍도총지도」, 일제강점기의 지도 등에 ‘土赤岳(토적악 : 흙蓐은오름)’, 『증보 탐라지』(산천)에 ‘土赤岳(토적악 : 흙蓐은오름), 주붉은오름’ 등으로 표기하였다. 土는 ‘흙’의 훈독자 표기, 赤은 ‘蓐-’에 관형사형어미가 붙은 ‘蓐은>붉은’의 훈독자 표기, 岳은 ‘오름>오름’의 훈독자 표기이다. 土赤岳은 ‘흙蓐은오름>흙붉은오름’, 赤岳은 ‘蓐은오름>붉은오름’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흙이 붉다는 데서 붙인 것이다. 『증보 탐라지』(산천)에 나오는 ‘주붉은오름’의 ‘주’는 잘못 쓴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5,000분의 1 지도에는 ‘흙붉은

오름'으로, 「한라산국립공원지도」에는 '흙붉은오름, 赤岳(적악)'으로 표기되어 있다.

돌오름

제주시 월평동에 있는 해발 1,278.5m의 오름을 이른다. 한라산 기슭의 '흙붉은오름' 동쪽에 있다. 이 오름은 이형상 『탐라순력도』의 「산장구마」와 「탐라지도」(1709), 「제주삼읍전도」(1872), 「제주지도」(1872) 등에 申山岳(신산악 : 신산오름), 일제강점기의 지도에 石岳(석악 : 돌오름) 등으로 표기하였다. 오늘날의 지도에는 '돌오름, 石岳(석악)'으로 표기하였고, 민간에서는 '신선오름, 돌오름'이라고 한다. 申은 '신'의 음가자 표기인데, 神의 뜻으로 보인다. 山은 '산'의 음가자 표기인데, '서다'[立]의 관형사형 '선' 또는 제주도방언 '사다'[立]의 관형사형 '산'으로 보인다. 岳은 '오름>오름'의 훈독자 표기이다. '신산오름'이나 '신선오름'은 모두 '신이 선[立] 오름'이라는 뜻이다. 오름 정상에 큰 바위가 서 있어서 마치 신이 서 있는 것과 같다는 데서 '신산오름, 신선오름'이라 하였고, 그 자체가 돌이기 때문에 '돌오름'이라고도 하였다. 申山岳(신산악 : 신산오름) 위쪽은 舊香木田(구향목전 : 「제주지도」)인데, 舊香木田(구향목전)은 제주방언 '구상남밭·구상남밭'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舊(구)는 '구'의 음가자 표기, 香(향)은 '향'의 제주도방언 '상'의 음가자 표기, 木(목)은 '나무'의 제주도방언 '남·냥'의 훈독자 표기, 田은 '밭'의 제주도방언 '밭'의 훈독자 표기이다. '구상남·구상냥'은 '구상나무'의 제주도방언이다.

사라오름

남제주군 하례리에 있는 해발 1,323.3m의 오름을 이른다. 지도에 따라 '사라오름, 사라악'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 오름은 『탐라순력도』(「산장구마」)와 「제주삼읍도총지도」, 「제주삼읍전도」 등에 '舍羅岳(사라악 : 사라오름)', 『제주군읍지』(「제주지도」)에 '紗羅峰(사라봉 : 사라오름)', 일제강점기의 지도에 '沙羅岳(사라악 : 사라오름)'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오늘날 지도에는 '사라오름'으로 표기하였다. 舍羅·紗羅·沙羅(사라)는 모두 '사라'의 음가자 결합 표기이다. '사라'의 뜻은 확실하지 않다. 이은상(1937:144)은 '사라'를 神域(신역)의 뜻인 '술'의 표기라 하였으나, 좀 더 연구해 보아야 할 어휘이다. '사라오름' 정상에는 호수가 있다. 한라산 성판악등반로에서 사라오름으로 들어가는 어귀에 '사라오름약수'가 있다.

성널오름

북제주군 조천읍 교래리와 남제주군 남원읍 신례리 경계에 있는 해발 1,215.2m의 오름을 이른다. 이 오름은 『신증동국여지승람』(권38, 정의현, 산천)과 『탐라지』(정의현, 산천), 『제주군읍지』(「제주지도」) 등에 '城板岳(성판악 : 성널오름)', 『탐라순력도』(「산장구마」)와 「탐라지도」, 「제주삼읍전도」 등에 '成板岳(성판악 : 성널오름)' 등으로 표기하였다. 오늘날 지도에는 '성널오름, 城板岳(성판악)'으로 표기하였다. 城(성)은 '성>성'의 음독자 표기, 成(성)은 '성'의 음가자 표기, 板(판)은 '널'의 훈독자 표기이다. 산의 지세가 성에 널을 세워놓은 것과 같다는 데서 붙인 것(石壁 如城板 故名, 『신증동국여지승람』)이라고 한다. '성널오름' 동쪽에서 발원하여 의귀리를 거쳐 남원으로 흘러가는 내 상류를 '松木堂川(송목당천 : 솔남당내)', 하류를 '義貴川(의귀천 : 옷귀내)'(이상 『탐라순력도』 「산장구마」)이라 하였다. 한편 하류는 '火等枝川(부등지천 : 브등짓내)'(『신증동국여지승람』), 火等川(부등천 : 브등짓내)(「제주삼읍도총지도」), 不等之川(부등지천 : 부등짓내)(「대동여지도」)으로도 표기되었다.

어후오름

북제주군 교래리 남서쪽 한라산 기슭에 있는 표고 1,014m의 오름이다. ‘불칸데오름·불칸디오름’ 바로 남쪽에 있다. 이 오름은 『제주군읍지』(「제주지도」)에 ‘魚岳(어악 : 어후름·어후름)’, 『증보 탐라지』에 ‘御後岳(어후악 : 어후오름, 어후리오름)’ 등으로 표기하였다. 민간에서는 ‘어후름, 어후오름’이라 한다. 魚와 御는 ‘어’의 음가자 표기, 後는 ‘후’의 음가자 표기이다. 魚岳(어악)은 ‘어후름’의 한자 차용 표기이고, 御候岳(어후악)은 ‘어후오름’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어후’의 뜻은 확실하지 않다. 5,000분의 1 지도에는 ‘어후오름’으로, 한라산국립공원 지도에는 ‘어후오름, 御后岳·御後岳(어후악)’으로 표기되어 있다.

불칸디오름·불칸장오리오름

제주시 봉개동 명도암 마을 남서쪽 한라산 기슭에 있는 표고 994m의 오름을 이른다. 봉개동과 아라동 월평 마을의 경계에 있다. 이 오름은 김상헌 『남사록』(권4)과 김성구 『남천록』 등에 ‘長兀岳(장울악 : 장오리오름), 火長兀(화장울 : 불튼장오리·불칸장오리)’, 이형상 『탐라순력도』(「산장구마」)에 ‘佛呑大岳(불탄대악 : 불탄데오름·불칸데오름)’, 「제주삼읍전도」에 ‘火燒竹(화소죽 : 불탄데·불칸데)’, 『제주군읍지』(「제주지도」)에 ‘燒垸(소대 : 불탄데·불칸데)’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5,000분의 1 지도에는 ‘불칸디오름’으로, 한라산국립공원 지도에는 ‘불칸디오름, 火長兀(화장울)’로 표기되어 있다. 佛은 ‘불>불’의 음가자 표기, 火는 ‘불(火 불 화<훈몽초, 하:15>)>불’의 훈독자 표기, 呑은 ‘튼>탄’의 음가자 표기, 燒는 ‘불튼-(尿간도 ㅌ디 아니하며=膾不焚燒며<능엄, 9:108>. 불에 ㅌ 죽은 거시라(火燒死)<증무원, 3:42>’의 관형사형 ‘불>불’ 또는 이의 제주도방언 ‘불칸>불칸’의 훈독자 표기, 大는 ‘대’의 유사음 ‘데·디’의 음가자 표기, 竹은 ‘대’의 유사음 ‘데’의 훈가자 표기, 長兀은 ‘장오리’의 음가자 결합 표기, 岳은 ‘오름>오름’의 훈독자 표기이다. ‘불튼장오리·불칸장오리’는 ‘불에 탄 장오리·불탄 장오리’의 뜻이고, ‘불탄데>불탄데’ 또는 ‘불칸디>불칸디’는 ‘불에 탄 곳·불탄 곳’(불이 나서 탄 곳)의 제주도방언이다. 예전에 큰 화재가 나서 오름 전체가 타버린 곳이라는 데서 붙인 것이라고 한다. 이로 볼 때 후대에 붙인 이름인지 이른 시기부터 유래한 이름인지 확실하지 않다. 다만 조선 중기에도 이 이름으로 불렸다.

물장오리오름

제주시 봉개동 남서쪽 한라산 기슭에 있는 해발 937.2m의 오름을 이른다. 이 오름은 『신증동국여지승람』(권38, 제주목, 산천)과 김정의 『충암선생문집』(권4, 長兀岳祈雨文), 이원진 『탐라지』(제주목, 산천), 김성구 『남천록』, 『신조선전지』(하편, 전남도읍과 명소) 등에 長兀岳(장울악 : 장오리오름), 김상헌의 『남사록』(권4)에 長兀龍湫(장울용추 : 장오리용소), 長兀岳(장울악 : 장오리오름), 水長兀(수장울 : 물장오리), 이형상 『탐라순력도』에 長兀里岳(장울리악 : 장오리오름), 長兀湫(장울추 : 장오리소), 「제주삼읍총지도」(18세기 중반)에 水長兀岳(수장울악 : 물장오리오름), 「제주삼읍전도」와 「제주지도」, 『제주군읍지』(「제주지도」) 등에 水罨兀(수장울 : 물장오리), 일제강점기 지도에 水長兀(수장울 : 물장오리), 『증보 탐라지』(산천)에 水長兀(수장울 : 물장오리), 물장오리, 주변 비석에 水罨兀伊(수장울이 : 물장오리) 등으로 표기되었다. 水는 ‘물>물’의 훈독자 표기, 兀里와 兀伊는 ‘오리’의 음가자 결합 표기이고, 兀과 兀은 ‘이’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長兀(장울)·長兀里(장울리)·罨兀(장울)·罨兀伊(장울이) 등은 모두 ‘장오리’의 음가자 결합 표기이다. ‘장오리’의 뜻은 확실하지 않다. ‘장오리’가 ‘둘러서 있는 오름’(김종철, 1995:3권.63), ‘울·오리’가 ‘비탈·高地’(배우리, 1994:1권.215)의 뜻이라 하기도 한다. ‘물#장오리’, ‘테역#장오리’, ‘살#손#장오리’의 구성으로 보면 ‘장오리’는 특별한 뜻을 가

진 말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복합명사인지 단일명사인지도 밝혀야 한다. 현재로서는 쉽게 구명할 수 없는 어휘이다. ‘물이 있는 장오리’라는 데서 붙인 것으로 보인다. ‘龍池(용지 : 용못)’가 있는데, ‘長兀龍湫(장울용추 : 장오리용소)’라고도 한다. “‘장오리오름’은 한라산 허리에 있다. 제주에서 36리의 거리에 있다. 오름 정상에 못이 있다(長兀岳, 在漢拏山腰, 距州三十六里, 岳頭有池).” 『신증동국여지승람』(권38, 제주목, 산천). “‘장오리오름’은 제주 동남쪽 45리에 있다. ‘물장오리, 테역장오리, 불튼장오리, 험흔장오리’가 있는데, 네 봉우리 중 평평하고 넓은 ‘물장오리’가 가장 높고 크다. 봉우리에는 용못이 있다. 지름이 50보 정도 되고, 깊이는 알 수 없다. 사람이 시끄럽게 떠들면 구름과 안개가 사방에서 일어나고 비바람이 사납게 몰아친다. 가뭄이 들었을 때 비를 빌면 효험이 있다. 그 주변에 바닷조개 껍질이 쌓여 있는데, 세속에서 전하기를, 바닷새가 물어다 두면서 ‘공공’ 하면서 울어서, 그 새를 ‘공조’라고 한다는 것이다. 내가 여러 현지인에게 듣기를, ‘큰 비가 내려도 늘지 않고, 크게 가물어도 줄지 않는다.’고 한다. …(長兀岳, 在州東南四十五里, 有水長兀, 草長兀, 火長兀, 險長兀, 凡四峯 其中平廣水長兀 最高大. 嶺上有龍池, 徑可五十步, 深不可測. 人喧 則雲霧 四起, 風雨暴作. 旱則禱雨有驗. 其邊積海蛤殼. 俗傳 海鳥啣置 其鳴貢貢, 謂之貢鳥. 余聞諸土人大雨不增, 大旱不減…)” 『남사록』(권4). 5,000분의 1 지도에는 ‘물장울’로, 「한라산국립공원」 지도(2002)에는 ‘물장울, 水長兀(수장울)’로, 「한라산국립공원」 지도(2003)에는 ‘물장오리, 水長兀(수장울)’로 표기되어 있다. 가까이에 있는 오름을 ‘테역장오리’와 ‘쌀손장오리’라 쓴다면, 당연히 ‘물장오리’라 쓰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으나 이른 시기의 고지도에 長兀岳(장울악 : 장오리오름)으로 표기된 것으로 보아 ‘물장오리오름’이라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테역장오리오름

제주시 봉개동 남서쪽 한라산 기슭에 있는 해발 846.3m의 오름을 이른다. 이 오름은 『남사록』(권4)과 『남천록』 등에 ‘長兀岳(장울악 : 장오리오름), 草長兀(초장울 : 테역장오리)’로 표기하였다. 민간에서는 ‘테역장오리’라 한다. 草는 ‘떼’의 제주도방언 ‘테역’의 훈독자 표기, 長兀은 ‘장오리’의 음가자 결합 표기이다. ‘넓은 테역밭(떼밭)이 있는 장오리’라는 데서 붙인 것이다. 5,000분의 1 지도에는 표기되어 있지 않고 「한라산국립공원」 지도(2002)에는 ‘테역장오리, 草長兀(초장울)’로, 「한라산국립공원」 지도(2003)에는 ‘테역장오리, 草長兀(초장울)’로 표기되어 있다. ‘떼’의 제주방언이 ‘테역’이라 표기되기 때문에 ‘테역장오리’로 쓰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일부 지도에는 ‘테역오름’(테역오름의 잘못)으로 잘못 쓰는 경우도 있다.

쌀손장오리오름·쌀손장오리오름

제주시 봉개동 남서쪽 한라산 기슭에 있는 해발 912.5m의 오름을 이른다. 그 가까이에 ‘물장오리오름’과 ‘테역장오리오름’ 등이 있다. 이 오름은 김상헌의 『남사록』(권4)과 김성구 『남천록』 등에 ‘長兀岳(장울악 : 장오리오름), 險長兀(험장울 : 험흔장오리)’, 『탐라순력도』(「산장구마」)와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沙孫長兀岳(사손장울악 : 쌀손장오리오름)’, 「제주삼읍전도」에 ‘沙孫長兀(사손장울 : 쌀손장오리)’, 『제주군읍지』(「제주지도」)에 ‘莎罍兀(사장울 : 쌀손장오리)’ 등으로 표기하였다. 沙·莎(사)는 ‘화살’을 뜻하는 ‘살’ 또는 이의 된소리인 ‘쌀’의 음가자 표기로 말음 ‘ㄹ’이 생략된 표기, 孫(손)은 ‘쏟’의 중세국어인 ‘손’ 또는 제주방언 ‘쏟’의 음가자 표기, 險(험)은 ‘험흔>험한’의 음독자 표기로 보인다. 長兀·罍兀(장울) 등은 ‘장오리’의 음가자 결합 표기이다. 오름이 험하다는 데서 ‘험흔장오리’ 또는 ‘살(화살)을 쏘던 장오리’라는 데서 ‘쌀손장오리>쌀손장오리’라 하였다고 한다. 5,000분의 1 지도에는 ‘쌀손장오리’, 「한라산국

립공원」 지도(2003)에는 ‘쌀손장오리, 沙孫長兀(사손장울)’로 표기되어 있다. 옛 표기와 소리를 고려하면 ‘살손장오리오름’이라 해야 할 것이나 현대 발음이 ‘쌀손장오리’로 실현되기 때문에 ‘쌀손장오리오름’으로 쓰는 것이 좋을 듯하다.

성진이오름

제주시 봉개동 명도암 마을 남서쪽에 있는 표고 701m의 오름을 이른다. ‘굴오리오름(개워리오름)’ 바로 위쪽(방위상으로 서남쪽)에 있는 오름이다. 이 오름은 「제주삼읍도총지도」와 「제주삼읍전도」 등에 ‘星珍岳(성진악 : 성진이오름)’으로 표기하였고, 민간에서는 ‘성진이오름, 성진이톡’이라고 한다. 5,000분의 1 지도에는 이름이 표기되어 있지 않고, 한라산국립공원 지도에는 ‘성진이오름, 星辰岳(성진악)’으로 표기되어 있다. 星珍과 成辰은 ‘성진이톡’의 음가자 결합 표기로 보이는데, 그 뜻은 확실하지 않다. 혹자는 사람 이름이라고 하나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星을 훈독자로 보아 ‘별진오름’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나, 민간에서 그런 음성형을 확인할 수 없다.

굴오리오름·갯오리오름·개워리오름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해발 743m의 오름을 이른다. 제주절물자연휴양림 서남쪽에 있는 오름으로, 세 개의 봉우리(표고 740m의 ‘큰굴오리’와 표고 661m의 ‘셋굴오리’, 표고 650m의 ‘죽은굴오리’)로 이루어져 있다. 정상에는 KBS 제주방송총국과 MBC 제주문화방송의 방송중계탑이 세워져 있다. 이 오름은 이원진 『탐라지』(제주목, 산천)와 김정호 『대동여지도』(제주) 등에 表岳(표악 : 굴워리오름), 이형상 『탐라순력도』(「한라장축」과 「산장구마」)에 竝五里·竝五里岳(병오리·병오리악 : 굴오리·굴오리오름), 「제주삼읍전도」(1872)에 竝岳·왕岳(병악 : 굴오리오름), 일제강점기의 지도에 犬月岳(견월악), 『증보 탐라지』(산천)에 ‘犬月岳(견월악)/개월오름, 개월오름’, 주변의 묘비에 ‘秋月峰(추월봉 : 굴워리오름), 犬月岳(견월악 : 개워리오름), 大開月伊(대개월이 : 큰개월이), 開月伊峰(개월이봉 : 개월이오름)’ 등으로 표기되었다. 「한라산국립공원지도」 지도에는 ‘개월오름, 犬月岳(견월악)’으로 표기되었다. 민간에서는 ‘개오리오름, 가오리오름, 개워리오름, 개월오름’ 등으로 부르고 있다. 表(표)는 ‘굴워리’의 훈가자 표기, 竝·并·왕(병)은 ‘꺠[竝]의 훈독자 표기, 五리는 ‘오리’ 또는 ‘올이’의 음가자 결합 표기이다. ‘꺠’은 모음 ‘오’와 결합하여 ‘굴오>갯오(王羲之之後엔 百代옛 法을 뉘 굴올고(王後誰竝百代則)<두해초, 16:21>’로 변한다. 秋(추)는 ‘갯올>갯올’의 훈가자 표기, 月(월)은 둘째 음절 ‘올’의 유사음 ‘월’의 음가자 표기, 犬은 ‘개’의 훈가자 표기, 月은 ‘월’의 음가자 표기, 岳(악)은 ‘오름’의 훈독자 표기이다. 이른 시기 표기인 竝五里(병오리) 또는 竝五里岳(병오리악)을 고려하면 ‘굴오리오름>갯오리오름’이 원래 이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并岳·왕岳·竝岳(병악)은 모두 竝五里岳에서 五리를 표기에서 생략한 것이다. ‘갯오리오름’이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고 말하는 사람에 따라 약간의 음운변동을 초래하여 ‘개워리오름’으로 부르게 되고 이것을 한자 차용 표기로 바꾸는 과정에서 秋月岳(추월악)·犬月岳(견월악)·開月岳(개월악) 등으로까지 표기되면서 원래의 이름과 멀어져 버렸다. 竝岳·并岳(병악) 등의 표기를 중시한다면 竝(병)을 훈독자로 보고, ‘굴오리오름’, 즉 ‘골른·고른’[竝] 오름, 곧 두 오름이 나란히 누워 있는 쌍둥이 오름으로 볼 수도 있다. 주봉은 가오리 머리, 나머지 두 봉우리는 가오리 꼬리와 닮았다는 데서 ‘가오리오름’이라고도 한다(한글학회, 1986:513 ; 김종철, 1995:3권.11)는 것은 소리와 지형을 대비시킨 억지 해석으로 보인다. ‘갯오리>가오리’는 제주도방언에서 ‘개오리’라고도 한다. 개가 달을 보고 짖는다는 데서 ‘개월오름’이라고 한다(진성기, 1960:40 ; 오성찬, 1992:184)는 것도 억지 해석 또는 잘못된 한자 표기인 犬月岳(견월악)에서 비롯된 민간어원설이다. 5,000분의 1 지도와 한

라산국립공원 지도 등에 ‘개월오름, 犬月岳(견월악)’으로 쓰고 있는데, 우리말로 ‘7오리오름’ 또는 ‘개워리오름’으로 쓰는 것이 좋을 듯하다.

논궤오름·눈궤오름

남제주군 남원읍 신례리[시네리]에 있는, 표고 841m(북봉)와 838m(남봉), 750m(동봉)의 세 개의 봉우리와, 세 봉우리 사이에 표고 785m의 분화구를 거느리고 있는 오름이다. 수악계곡(水岳溪谷)과 수악교(水岳橋) 위쪽에 있다. 이 오름은 「탐라지도」(1709)와 「제주삼읍전도」(1872), 일제강점기의 지도 등에 論古岳(논고악 : 논궤오름), 「정의군지도」(1872)에 論古里(논고리 : 논궤(-오름)), 『제주군읍지』(1899)의 「제주지도」에 臥櫃岳(와궤악 : 눈궤오름) 등으로 표기되었다. 「한라산국립공원지도」에는 ‘논고악, 論古岳(논고악)’으로 표기하였다. 論古岳(논고악)은 ‘논궤오름’, 論古里(논고리)는 ‘논궤’, 臥櫃岳(와궤악)은 ‘눈궤오름’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論(논)은 ‘논’의 음가자 표기로, ‘누운’의 제주도방언 ‘눈’의 변음이다. 臥(와)는 ‘누운’의 제주도방언 ‘눈’의 훈독자 표기이다. 古(고)는 바위굴의 뜻을 가진 제주도방언 ‘궤’를 ‘괴’로 인식하고 그 ‘괴’의 일부분인 ‘고’를 음가자로 표기한 것이다. 古里(고리)는 ‘궤’의 음가자 표기로, 古(고)는 ‘고’, 里(리)는 ‘궤’의 이중모음 ‘궤’의 부음 ‘ㅣ’의 음가자 표기이다. 櫃(궤)는 ‘궤’의 음가자 표기이다. ‘궤’는 땅속으로 들어간 바위굴 따위를 뜻하는 제주도방언이다. 岳(악)은 ‘오름>오름’의 훈독자 표기이다. ‘논궤오름’ 또는 ‘눈궤오름’의 ‘논궤’ 또는 ‘눈궤’는 누워있는 ‘궤’(바위 굴)라는 뜻이다.

보리오름

남제주군 남원읍 신례리에 있는 표고 740m의 오름을 일컫는다. ‘논궤오름·눈궤오름’ 바로 남서쪽에 있는 오름이다. 이 오름은 『제주군읍지』(「제주지도」)에 牟岳(모악 : 보리오름), 주변의 묘 비석에 ‘保狸岳(보리악 : 보리오름)’ 등으로 표기하였다. 5,000분의 1 지도에는 ‘保狸岳(보리악)’으로, 한라산국립공원 지도에는 ‘보리오름, 保狸岳(보리악)’으로 표기되어 있다. 牟岳(모악)·保狸岳(보리악)은 모두 ‘보리오름’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牟는 ‘보리’(麥來 보리 리 보리 모 俗呼大麥<훈몽-초, 상:12ㄴ> / 牟 보리 모(大麥))의 훈가자 표기, 保狸는 ‘보리’의 음가자 결합 표기, 岳은 ‘오름>오름’의 훈독자 표기이다. ‘보리’가 麥·牟[보리]의 뜻으로 쓰인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이른 시기부터 ‘보리오름’으로 불렸다.

물오름

남제주군 남원읍 수망리에 있는 해발 820m의 오름을 이른다. 성판악 휴게소 바로 동쪽에 있는 오름이다. 이 오름은 『남사록』(권3)과 이원진 『탐라지』(정의현, 산천), 『정의읍지』(「정의지도」) 등에 水頂岳(수정악 : 물이땡이오름?), 「제주삼읍전도」와 「정의군지도」 등에 水岳(수악 : 물오름), 「제주군읍지」(「제주지도」)에 水峯(수봉 : 물오름) 등으로 표기하였다. 水는 ‘물>물’의 훈독자 표기, 岳(악)과 峰(봉)은 ‘오름>오름’의 훈독자 표기이다. 水頂(수정)은 ‘물바기’(頂 바기 頭上顛<훈몽-초, 상:13>)의 제주도방언 ‘물이땡이’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이땡이’는 ‘이마’의 제주도방언이다. ‘물이땡이>물이땡이’는 ‘물오름’의 옛 이름으로 보인다. 水岳(수악)·水峰(수봉)은 모두 ‘물오름’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물오름’이라고는 하지만 물이 고이는 화구호도 없고 물도 없다. 일종의 ‘물이 없는 오름’[無水岳]인 셈이다. 지금 오름 정상에 중계탑 등이 들어서 있다. 5,000분의 1 지도에는 ‘물오름’으로, 한라산국립공원 지도에는 ‘물오름, 水岳(수악)’으로 표기하였다.

오백장군(五百將軍)

서귀포시 하원동 ‘영실’ 위에 있는 바위군이다. 이 일대는 임제 「남명소승」에 ‘五百將軍洞(오백장군동 : 오백장군골), 靈谷(영곡 : 영실), 千佛洞(천불동 : 천백골), 靈谷洞(영곡동 : 영실골)’, 『남사록』(권2, 戊午)에 ‘千佛峰(천불봉 : 천불오름), 行道洞(행도동 : 행도골), 瀛谷(영곡 : 영실)’, 『탐라지』(제영)에 ‘瀛室(영실)’, 『남사일록』에 靄谷·瀛谷(영곡)·五百將軍洞(오백장군동)·千佛峰(천불동), 「제주삼읍도총지도」에 ‘靄室(영실)’, 「제주삼읍전도」에 ‘五百將軍(오백장군)’, 「제주지도」에 ‘千佛岩(천불암 : 천불바위), 靄室(영실)’ 등으로 표기하였다. 五百將軍은 ‘오백장군’의 음독자 결합 표기로, 서 있는 기암괴석들이 500이나 되는 장군과 같다는 데서 붙인 것이다. 이외에도 五百羅漢(오백나한) 또는 千佛岩(천불암) 등으로도 부르는데, 이는 尊者菴(존자암)과 같이 불교와 관련된 이름이다. 靈谷·瀛谷(영곡)·靄室(영실)·瀛室(영실) 등은 ‘영실’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靈과 瀛, 靄는 뜻 그대로 신선이 사는 곳 또는 신령스러운 곳이란 뜻이다. 室은 고유어 ‘실’의 음가자 표기, 谷은 ‘실’의 훈독자 표기, 洞은 ‘실’의 훈독자 표기이다. 靈谷洞(영곡동)은 ‘영실골’, 五百將軍洞(오백장군동)은 ‘오백장군골’의 한자 차용 표기로 ‘영실’을 달리 이르는 말이다. “오백장군골’을 거쳐갔다. 골은 달리 ‘영실’이라고도 한다(往遊五百將軍洞, 洞一名靈谷).” 「남명소승」(11일). “천불봉’은 달리 ‘행도골’이라 하고, 세속에서는 ‘영실’이라 한다(千佛峰, 一名行道洞, 俗稱靈谷).” 『남사록』(권2). “‘영실골’은 한라산 서남쪽에 있다. 산기슭에 매우 높고 가파른 암벽이 병풍과 장지처럼 둘러 있다. 오백이나 되는 기이한 바위가 나한과 같다(靈室洞, 在漢拏西南. 山腰千尋蒼壁環如屏障. 五百怪石如羅漢).” 『제주대정정의읍지』(제주목, 형승). “‘영실’은 한라산 서남쪽에 있다. 산기슭은 가파르고 천 길이나 되는 기이한 바위가 열지어 서 있어서 오백장군이라고도 하고 돌나한이라고도 한다(靈室, 漢拏西南. 山腰削壁千淫怪石列立 號五百將軍 或稱石羅漢).” 『탐라지초본』(제주목, 형승).

내[川]와 계곡(溪谷), 실[谷], 굴·골[谷·洞], 폭포(瀑布)

‘내’는 대개 ‘시내보다는 크지만 강보다는 작은 물줄기’를 이르는데, 제주 지역에서는 ‘-내’가 일반적으로 실현된다. 고유어로 부를 때는 ‘-내’라고 하지만 최근에는 한자어식 이름이 우세하여 ‘-川(-천)’으로 바꾸어 부르는 경우가 많다.

계곡의 경우, 최근에 임의로 붙인 이름의 경우는 대개 ‘-계곡(-溪谷)’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으나, 일부 고유어는 여전히 ‘-실’ 또는 ‘-골·-굴’ 등으로 부르고 있다. ‘-실’은 물이 흐르는 골짜기를 이르거나 ‘우묵한 곳’을 이룰 때 쓴다. ‘-실’을 한자로 표현할 때는 대개 ‘-谷(곡)’으로 쓰는데, 간혹 소리나는 대로 표현하여 ‘-室(실)’로 쓰기도 한다.

‘골’과 ‘굴’도 ‘우묵한 곳’을 일컬을 때 쓰는 말인데, 한자로 쓸 때는 대개 ‘洞(동)’으로 표현되고 있다. 고유어로 ‘굴’이라 했을 때 ‘굴[穴·窟]’의 뜻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심해야 한다.

폭포(瀑布)는 일찍부터 ‘폭포(瀑布)’로 실현되었다.

동탐라골(東耽羅一)

백록담 북쪽 계곡에서 발원하여 용진각 대피소, 장구목과 삼각봉·개미등 동쪽을 흘러서 능하오름 동북쪽의 탐라계곡에서 합쳐지는 골을 이른다. 지도에 따라 동탐라골, 탐라계곡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서탐랏골(西耽羅一)·개미목계곡

장구목·삼각봉 아래쪽에서 발원하여 개미등 서쪽을 흘러서 능하오름 동북쪽의 탐라계곡에서 합쳐지는 골을 이른다. 지도에 따라 서탐라골, 개미목계곡, 개미계곡, 蟻項溪谷(의항계곡)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아흔아홉골[-꼴]

어스熄이오름(어승생악) 동북쪽 일대의 골을 이른다. 지도에 따라 ‘아흔아홉골, 구구곡(九九谷)’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 일대가 수많은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데서 붙인 것이다.

용진굴·용진골

한라산 왕관바위 가까이에 음쑥 팬 골짜기를 이른다. 옛 지도인 「제주삼읍도총지도」에 龍眞洞(용진동 : 용진굴)으로 표기된 것으로 ‘용진굴’이라 하다가 나중에 ‘용진굴’이라 했음을 알 수 있다. 이 골에 용진각이라는 이름의 건물이 있는데 이것이 용진각대피소이다. 이 대피소 가까이 있는 물을 ‘용진굴물’이라 한다.

영실(靑一·靈一·瀛?)

‘오백장군’은 서귀포시 하원동 ‘영실’ 위에 있는 바위군이다. 이 일대는 「남명소승」에 ‘五百將軍洞(오백장군동 : 오백장군굴), 靈谷(영곡 : 영실), 千百洞(천백동 : 천백골), 靈谷洞(영곡동 : 영실골)’, 『남사록』(권2, 戊午)에 ‘千佛峰(천불봉 : 천불오름), 行道洞(행도동 : 행도골), 靈谷(영곡 : 영실)’, 『탐라지』(제영)에 ‘瀛室(영실)’, 『남사일록』에 靑谷(영곡)·瀛室(영실), 「제주삼읍도총지도」에 ‘靑室(영실)’, 「제주삼읍전도」에 ‘五百將軍(오백장군)’, 「제주지도」에 ‘千佛岩(천불암 : 천불바위), 靑室(영실)’ 등으로 표기하였다. “‘오백장군굴’을 거쳐 갔다. 골은 달리 ‘영실’이라고도 한다(往遊五百將軍洞, 洞一名靈谷).” 「남명소승」(11일). “‘천불봉’은 달리 ‘행도골’이라 하고, 세속에서는 ‘영실’이라 한다(千佛峰, 一名行道洞, 俗稱靈谷).” 『남사록』(권2).

수악계곡(水岳溪谷)

사라오름 남쪽과 동남쪽에서 발원하여 ‘보리오름’ 서쪽에서 합류하여 5·16도로의 수악교(水岳橋)를 지나서 ‘물오름[水岳]’ 동쪽으로 흘러가는 내에 있는 계곡이다. ‘물오름’ 곧 ‘水岳(수악 : 해발 474.3m) 북쪽에 있는 계곡을 이른다. 水岳(수악)은 ‘물오름’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어리목계곡

쫓대봉 남동쪽에서 발원하여 큰두레왓과 작은두레왓 남쪽을 지나 어리목으로 흘러가는 계곡을 이른다. 지도에 따라 어리목계곡, 무수천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국립지리원 발행의 5,000분의 1 지도에는 어리목계곡과 함께 光旆川(광령천), 外都川(외도천), 무수천(-川)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어리목’은 ‘어림’(‘어름[氷]의 변음)에 ‘목’이 덧붙은 말로 보인다. 19세기 말의 『증보 탐라지』를 보면, 氷潭(빙담 : 어름소)의 표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탐라계곡(耽羅溪谷)

백록담 북쪽 계곡에서 발원하여 용진각 대피소, 장구목과 삼각봉·개미등 동쪽을 흐르는 동탐

라골과 장구목·삼각봉 아래쪽에서 발원하여 개미등 서쪽을 흐르는 서탐라골이 능하오름 동북쪽에서 합쳐지는데, 여기서부터 탐라계곡이라 한다.

무수내(-川)

‘윗세오름’ 일대와 ‘큰두레왓’ 뒤쪽 일대에서 발원하여 ‘작은두레왓’ 일대에서 합류하여 어리목을 지나 광령리를 거쳐 외도동으로 흘러가는 내를 이른다. 제주시와 북제주군의 경계를 이루는 내이기도 하다. 이 내는 크게 두 가지 이름이 있다. 하나는 ‘무수내’이고, 하나는 ‘밧도그내’이다. 모두 예로부터 불려오는 이름이다. 대개 상류는 ‘무수내’라 하고, 중·하류는 ‘밧도그내’라 한다. 한자 차용 표기도 제각각이다. 1530년에 만들어진 『신증동국여지승람』(권38, 제주목, 산천)에는 都近川(도근천 : 도그내)이라 쓰고, 일명 水精川(수정천 : 수정내), 朝貢川(조공내)이라 하고, 하류는 都近浦(도근포 : 도그냇개)라 한다고 했다. 이원진의 『탐라지』(제주목, 산천)에는 朝貢川(조공천 : 조공내)이라 쓰고 일명 水精川(수정천, 수정내), 都近川(도근천 : 도그내)이라 하고 하류는 朝貢浦(조공포 : 조공개)라 한다고 했다. 한편 같은 책에 無愁川(무수천 : 무수내)을 들고, 朝貢川(조공천 : 조공내)의 상류라 했다. 결국 모두 하나의 내인데, 별칭이 여러 개 있는 셈이다. 그런데 都近川(도근천)으로 표기된 것이나 朝貢川(조공천)으로 표기된 것은 하나의 소리가 변한 것을 차자표기로 쓴 것으로 보인다. 水精川(수정천)은 고려시대에 외도동에 있었던 水精寺(수정사)라는 절과 이 절 일대에 있었던 ‘수정마을’과 관련되어 붙여진 것이다. 그러니까 水精川은 ‘도그내’의 별칭이라 할 수 있다. 외도동을 흐르는 내는 일찍부터 ‘도그내’라 불려왔고, 이것을 한자차용표기로 나타낸 것이 都近川이다. 이 ‘도그내’는 하류에서 두 갈래로 흐르는데, 제주성 안에서 볼 때 바깥쪽에 있는 것을 ‘밧도그내’라 하고, 안쪽에 있는 것을 ‘안도그내’라 했다. ‘밧도그내’는 한자 차용 표기로 外都近川(외도근천)이라 썼고, ‘안도그내’는 內都近川(내도근천)이라 썼다. 나중에 세 번째 글자인 近을 생략하여 쓴 것이 外都川(외도천)과 內都川(내도천)이다. 이 내의 상류는 일찍부터 ‘무수내’라 불렀고, 이를 한자 차용표기로 쓴 것이 無愁川(무수천)이다. 그런데 1709년의 「탐라지도」에는 無愁川(무수천)과 到骨川(도골천)이 나오는데, 到骨川은 都近川(도근천), 朝貢川(조공천)과 같은 이표기이다. 18세기 중반에 만들어진 「제주삼읍도총지도」에는 到骨川과 水鐵川(수철천)으로 표기되었는데, 水鐵川(수철천: 무쇠내)은 無愁川과 같은 이표기이다. 10년 전의 5,000분의 1 지도에도 이 내의 중·하류는 外都川과 都近川으로 표기되고, 외도천 상류의 일부는 ‘어리목계곡’, 일부는 ‘무수천’으로 표기해 놓았다. 이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곧, 광령리 일대의 내도 ‘무수천’이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라산국립공원지도」에는 어리목계곡을 타고 내려가는 내의 상류는 ‘어리목계곡’이라 하고, 중류를 ‘광령천, 光令川’이라 했다. 이는 광령리를 지나고 있다는 데서 새로 붙인 것으로 보인다. 5년 전에 만들어진 5,000분의 1 지도에도 ‘광령천’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외도천’으로 표기되었던 것이 이제는 ‘광령천’으로 표기되고 있다.

산벌른내(-川)

한라산 ‘웃방에오름’ 서쪽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흘러 영천천(靈泉川)으로 흘러가는 내를 이른다. 5,000분의 1 지도에는 ‘신벌계곡, 영천천(靈泉川)’ 등으로 표기했는데, ‘신벌계곡’은 ‘산벌른계곡(-溪谷)’의 잘못으로 보인다. ‘산벌른내’는 ‘한라산을 쪼개 내’라는 뜻의 제주방언으로, ‘산[山]+벌른[分]+내[川]’이다. 곧 ‘산’은 한라산을 이르고, ‘벌른’은 ‘쪼개다, 나누다’의 뜻을 가진 제주방언 ‘벌르다’의 관형사형이다. 지도에 따라 ‘산벌른내, 山開川(산개천)’ 등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고유어인 '산벌른내'로 쓰는 것이 좋을 듯하다.

신례천(新禮川)

한라산 '사라오름' 남동쪽에서 발원하여 '보리오름' 서쪽에서 합류하고 5·16도로의 수악교(水岳橋)와 수악계곡(水岳溪谷)을 거쳐 남원을 신례리로 흘러가는 내를 이른다. 5,000분의 1 지도에는 이 내의 상류에 '新禮川(신례천)', 중류에 '하효돈내(下孝敦-), 새기내, 만지내', 하류에 '新禮川(신례천)'으로 표기되어 있다. 옛 문헌과 지도에는 狐村川(호촌천)으로 표기되었는데, 오늘날 지도는 '신례천' 또는 '하례천'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狐村川은 '여스믈내'의 한자 차용 표기로, 신례리와 하례리의 옛 이름인 狐村(호촌 : 여스믈 → 나중에는 禮村으로 바꿈.)을 지나는 내라는 데서 붙여진 것이다. 狐村川(호촌천) 하류는 狐村浦(호촌포)라 했는데, 지금은 '망쟁이개, 망쟁이개맞' 등으로 부른다.

하효돈내(下孝敦-)

신례천의 중류로, 하례2리 위쪽에서 흐르는 내를 이른다. ⇒ 신례천.

새기내

신례천의 중류로, 신례1리 만지동 위쪽에서 흐르는 내를 이른다. 신례천의 하류도 '새기내'라고 하는데, 이는 '새기내'와 변음 관계를 이루고 있다. ⇒ 신례천.

만지내

신례천의 중류로, 신례1리 만지동과 만지넷도 일대를 흐르는 내를 이른다. ⇒ 신례천.

영천천(靈泉川)

한라산 '웃방에오름' 동쪽과 서쪽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흐르다가 범호촌 제주학생야영장 북서쪽에서 두 내가 합류하여 상호동과 토평동 사이를 흐르는 내를 이른다. 서귀포시 상호동의 영천악(靈川岳)과 '척오름' 사이에서 효돈천으로 합류한다. 옛 지도와 문헌에도 靈泉川·굴泉川(영천천)으로 표기되어 있다.

효돈천(孝敦川)

서귀포시 상호동 선돌(立石, 立石洞) 북서쪽과 북동쪽에서 발원하여 선돌 남쪽에서 합류하고 상호동으로 흘러가면서 서귀포시와 남제주군 경계를 이루는 내를 이른다. 상호동 영천악과 '척오름' 사이에서 합류하여 바다로 흘러간다. 「탐라지도」(1709년)에는 靑泉川(영천천)으로 표기되었으나, 일제강점기 때 5만 분의 1 지도에서부터 孝敦川(효돈천)으로 표기되었다.

선녀폭포(仙女瀑布)·천녀폭포(天女瀑布)

선녀폭포는 천녀폭포라고도 하는데, 어스熄이오름(어승생악/御乘生岳) 동북쪽 골짜기에 있는 폭포를 이른다. 어스熄이오름 바로 동남쪽에 있는 '족은두레앗오름' 서북쪽에서 발원한 조그만 골짜기가 있는데, 이 골짜기는 어스熄이오름 동쪽과 아흔아홉골 서쪽 및 천왕사 서쪽을 지나 북쪽으로 흘러간다. 이 골짜기는 북쪽으로 흘러 '도그내(지도에는 도근천/都近川으로 표기됨.)'로 흘러든다. 그러니까 이 골짜기가 '도그내'의 발원지가 되는 셈이다.

굴(窟), 궤

자연적으로 생긴 깊고 넓은 큰 굴을 ‘동굴(洞窟, Cave)’이라 하는데, 제주에서는 이 동굴을 보통 ‘굴(窟)’이라 한다. 한편 제주에는 그렇게 넓거나 깊지 않으면서 바위로 이루어진 굴이 많은데, 이러한 굴을 보통 ‘궤’ 또는 ‘궤야’ 등으로 부른다. 그러니까 깊지 않은 ‘바위굴’을 보통 ‘궤’라 하는 것이다. 한라산국립공원 지역에는 굴로 부르는 ‘구린굴’, ‘평굴’, ‘수행굴’ 등이 있고, ‘궤’로 부르는 ‘평궤’, ‘탑궤’, ‘등터진궤’ 등이 있다.

구린굴(-窟)

한라산 등반로 중 하나인 관음사코스 가까이에 있는 굴이다. 국립공원 관음사 지구 안내소에서 관음사 코스를 따라 약 1시간 가량 걸어가면 볼 수 있다. 한라산 등반로인 관음사 등반로를 따라 약 1.2km를 걸어간 곳의 오른쪽 계곡 상류 쪽에 입구가 있다. 지금은 철망으로 함몰 입구를 둘러쳤기 때문에 등반로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제주시 오등동에 속한다. 평굴 위쪽에 있다. 입구가 5곳인데, 모두 천장이 함몰되어 형성된 것이다. 제1 입구에서 제5 입구까지의 구간은 영구 암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외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가장 위쪽에 있는 제5 입구 구간부터 얇은 동굴수가 흐르고 바닥에 점토와 구아노가 쌓여 있다. 일부 구간에는 석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예전에 이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 굴은 부분적으로 2층 구조로 되어 있고, 막장부 광장에는 얇은 연못이 있어, 동굴 생물이 서식하기에 좋은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범람할 우려가 있다. 동굴은 대개 샷갓형 천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분기공, 소규모 연못, 용암 선반, 용암 폭포, 아아 용암, 용암 주석 등이 발달해 있다. 제주도의 대형 천연 동굴 중 비교적 고지대에 위치한 것이어서 지형과 지질 연구에도 중요한 굴이다. 일찍부터 ‘구린굴’이라 불렀는데, ‘구린’은 동굴 따위가 험한 곳을 이를 때 사용하는 말이다. 곧, 울퉁불퉁하게 발달해 있는 데다 여러 곳이 함몰되어 있어서 험한 굴이라는 데서 ‘구린굴’이라 했다.

수행굴(修行窟)

한라산국립공원의 영실 제2교 남동쪽 주차장에서 동쪽으로 약 600m 지점의 숲 속에 있는 굴이다. 2개의 입구가 있으나, 제2 입구는 작아서 사람이 드나들기가 어렵다. 울창한 숲 속에 있기 때문에 동굴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 영구 암대는 형성되어 있지 않다. 예전에 수행자가 은거했던 굴이라는 데서 ‘수행굴(修行窟)’이라 이름 붙여졌다고 하나 실제로 예전에 수행자들이 수행했던 곳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바닥에 인위적으로 정비한 흔적이 있고 구아노가 쌓여 있다. 동굴 중앙부에 낙반이 쌓여 있고, 용암류의 흔적이 남아 있다. 특별한 동굴생성물은 없다. 행정구역상 서귀포시 하원동에 속한다. 이 굴을 ‘수행굴’이라 부르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다. 2002년 10월경에 ‘한라일보 한라산 대탐사 팀’이 이 동굴을 발견하여 보고하면서 학계에 처음 알려졌다. 당시 국내 동굴 중 최고 고지대에 위치한 천연동굴인 데다가 존자암과 관련된 수행굴일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권38, 대정현)에 ‘존자암’ 관련 기사 중 ‘수행동(修行洞)’이 나오는데, 이 곳이 이 기록과 관련된 것일 것이라 추정하면서 굴 이름도 ‘수행굴’이라 명명하게 된 것이다.

윗상궤·웃상궤

장구목오름(해발 1,696m) 남서사면의 구상나무 숲에 있는 바위굴을 이른다. ‘궤’는 그리 깊지

많은 ‘바위굴’ 따위를 이르는 제주방언이다. 위에 있는 구상나무 숲에 있는 ‘괘’(바위굴)라는 데서 ‘윗상괘’ 또는 ‘웃상괘’라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상’이 구상나무를 뜻한다는 데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예전에 마소를 먹이던 사람과 약초를 캐던 사람들이 머물렀던 곳이라고 한다.

평굴

한라산 등반로 중 하나인 관음사코스 가까이 있는 굴이다. 국립공원 관음사 지구 안내소에서 관음사 코스를 따라 약 50분 가량 걸어가면 볼 수 있다. 관음사 등반로를 따라 900여m를 간 지점에서 다시 서쪽으로 160m 정도 떨어진 숲 속에 입구가 있다. 주변 지형이 평탄하여 찾기가 쉽지 않다. 평평한 지형에 발달한 굴이라는 데서 보통 ‘평굴’이라 불려왔다. 행정구역 상으로는 제주시 오등동에 속한다. 구린굴 아래쪽에 있다. 동굴이 숲 속에 위치해 있는 데다 박명부의 형성 범위가 작아 동굴이 비교적 온전하게 유지되어 있다. 동굴 바닥은 점토가 쌓여 있고, 입구 오른쪽에는 구아노가 많이 쌓여 있다. 동굴 천장은 낮은 편이고, 가지굴이 발달해 있다. 동굴의 일부 구간은 매우 복잡하고 2~3층 구조를 가지고 있는 데다, 2곳에 동굴호수가 형성되어 있다. 용암 선반, 용암 폭포, 용암 주석, 용암 단구, 낙반 지형, 아아 용암 등이 산재해 있고, 동굴 산호, 용암 종유, 용암 유석, 규산 종유 등이 부분적으로 발달해 있다.

이외에 용암굴, 등터진괘, 탑괘(塔-) 등이 있다.

통괘

왕관릉(왕관바위) 동쪽에 있는 괘를 이른다.

평괘

한라산 등반로 중 지금 출입제한구역인 돈내코 등반로 중간에 있는 괘로, 이 괘 가까이에 대피소가 있다. 이 대피소를 ‘평괘대피소’라 한다. ‘평괘’는 지도에 따라 ‘평괘, 평괴, 平壤(평괴)’ 등으로 표기되고 있는데, ‘평괘’로 쓰는 것이 좋을 듯하다.

주홍굴(朱紅窟)

옛 지도인 「제주삼읍도총지도」를 보면 長鼓項(장고항 : 장고목) 바로 위에 朱紅窟(주홍굴)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굴을 이르는지 확실하지 않다.

바위[巖·岩], 암자(庵子)

‘바위’는 대개 ‘-바위’ 또는 ‘기암(奇巖)’ 등으로 표현되고, ‘암자(庵子)’는 대개 ‘-암’으로 표현되고 있다.

병풍바위(屏風-)

영실에 있는 병풍 모양의 바위를 이른다.

영실기암(靈室奇巖)·오백라한(五百羅漢)·오백장군(五百將軍)

‘오름’ 항목의 ‘오백장군’ 항목을 참고할 것.

선녀바위(仙女-)

장구목오름 서북쪽에 있는 바위를 이른다. 삼각봉 서쪽에 있다.

존자암(尊者庵)

불레오름 앞에 있는 옛 암자를 이른다.

석굴암(石窟庵)

아흔아홉골에 있는 암자를 이른다.

소[潭·淵], 물[水]과 새미·세미·샘[泉], 저수지

땅바닥이 우묵하게 멩멍 빠지고 늘 물이 괴어 있는 곳을 보통 ‘소’라고 한다. 호수보다는 물이 얇고 진흙이 많으며 침수(沈水) 식물이 무성한 곳도 있다. 한자로는 ‘-담(-潭)’이나 ‘-연(-淵)’으로 표현된다.

물이나 샘은 ‘-물’ 또는 ‘-새미·-세미’로 표현된다. 한자로 쓸 때는 ‘-水(-수)’ 또는 ‘-泉(-천)’으로 표현된다. 간혹 ‘-물’이라는 지명과 ‘-새미·-세미’라는 지명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곧 ‘샘[泉]’을 ‘-새미·세미’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냥 ‘-물’이라고도 표현한다.

저수지는 최근에 인위적으로 조성된 곳을 일컬을 때 붙인다.

백록담(白鹿潭)

한라산(漢拏山) 꼭대기에 있는 호수를 이른다. 신생대 제3기에서 제4기에 걸친 화산작용으로 이루어진 화구호(火口湖)로 알려져 있다. 호분(湖盆) 형태로 이루어진 한라산 화구는 동서의 길이 600m 정도, 남북의 길이가 500m 정도 되는 타원형 화구로 이루어져 있다. 화구벽의 서쪽 반은 초기에 분출한 조면암이고, 동쪽 반은 후기에 분출한 현무암으로, 동서가 서로 다른 지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백록담에는 고기도 살지 않고 풀이 살지 않는데, 요즘은 거의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물이 많이 줄어들었다. 예전에 흰 사슴[白鹿]이 이 곳에 떼를 지어서 놀면서 물을 마셨다는 데서 백록담(白鹿潭)이라 불렀다고 한다.

소백록담(小白鹿潭)

한라산 동릉 동북쪽 숲속인 해발 1,600고지에서 발견된 소를 이른다. 1997년 6월에 제민일보 취재팀의 일원이었던 서재철 사진 기자가 처음으로 확인하여 보고하면서 알려졌다. 처음 발견되었을 때 움푹 팬 분화구에 신비의 화구호수가 있는 형태로 발견되었다. 당시 제민일보 보고에 의하면, 분화구의 깊이는 남서쪽이 가장 깊어 약 500m나 되고, 동남쪽은 100m, 북벽은 약 60m로, 남북쪽이 길어 마치 계란처럼 형성됐다고 했다. 분화구 주변에는 구상나무, 고채목 등 비교적 고산식물들이 짝 들어찬 원시림지대였다. 화구 호수는 전체가 약 500평 정도이고, 호수의 남북 길이가 60m, 동서 직경이 40m 정도 된다고 했다. 북쪽 호수 가운데는 자그마한 섬처럼 바위 하나가 우뚝 서 있다. 이 호수가 처음 발견되어 보고할 때 한라산 소백록담이라 하면서 소백록담이 이름으로 굳어졌다.

사제비샘·사제비약수(-藥水)

사제비동산(사제비오름) 바로 동쪽의 어리목 등반길에 있는 샘을 이른다. 한라산 등산길 중 하나인 어리목길의 중간 정도에 있는 샘으로, 등산객이 자주 이용하는 샘 중 하나이다. 사제비동산(사제비오름) 가까이에 있는 샘이라는 데서 '사제비샘' 또는 '사제비약수', '사제비동산약수', '사제비동산물' 등으로 부른다.

오름샘·오름약수(-藥水)

윗세오름의 가운데 오름(해발 1,711m) 북쪽 골짜기에 있는 샘을 이른다. 보통 '오름샘' 또는 '오름약수'라 하고 있다.

사라오름샘·사라오름약수(-藥水)

사라오름(해발 1,325m) 북쪽의 성판악 등산길에 있는 샘을 이른다. 한라산 등산길 중 하나인 성판악 등산길의 중간 정도에 있는 샘으로, 등산객이 자주 이용하는 샘 중 하나이다. 사라오름 가까이에 있다는 데서 '사라오름샘' 또는 '사라오름약수', '사라오름샘' 등으로 부르고 있다.

노로샘·노루샘

윗세오름(해발 1,711m)의 가운데 오름(해발 1,711m) 남쪽의 영실 등산길에 있는 샘을 이른다. 한라산 등산길 중 하나인 영실 등산길의 끝인 윗세오름 대피소 아래쪽에 있는 샘으로, 등산객이 자주 이용하는 샘 중 하나이다. '노로·노루'가 자주 이용하는 샘이라는 데서 '노로샘·노루샘'이라 부른다.

원점비물

제주시 오라2동 능하오름 남쪽의 서탐라골 줄기에 있는 물로, 개미등 서쪽에 있다.

어리목샘

어리목 광장 어귀에 있는 샘물을 이른다. 어리목을 이용하는 등산객이 자주 이용하는 샘물 중 하나이다. '어리목'에 있는 샘물이라는 데서 '어리목샘'이라 한 것이다.

어승생저수지(御乘生貯水池)·한밭저수지(-貯水池)

제주시 노형로터리에서 차를 타고 '신비의 도로'를 지나는 '신비로(99번 도로)'를 따라 '천왕사' 입구를 조금 지난 곳에 있는 저수지를 이른다. 바로 남쪽에는 '어스熄이오름'(보통 지도에는 '어승생약'으로 표기됨.)이 자리잡고 있는데, '어스熄이'를 한자로 쓴 '御乘生(어승생)'을 따서 '어승생저수지'라 부르고 표기하고 있다(한라산국립공원 지도). 그러나 국립지리원 발행의 5,000분의 1 지형도와 이 저수지 입구에는 '한밭저수지(-貯水池)'로 표기되어 있다. '한밭'은 '큰[大]에 대응하는 고유어인 '한'에 '밭-'이라는 어간형을 결합시켜 만든 것이다. 곧, 크고 밝은 저수지라는 데서 새로 명명한 이름이 '한밭저수지'이다.

용진굴물

용진굴에 있는 물로, 용진각대피소 가까이에 있는 계곡의 바위 아래에 있는 샘을 이른다. 봉래천(蓬萊泉)이라고도 한다.

흑괘물

한내[漢川] 발원지의 용진굴 계곡이 흘러나가는 개미목 남동사면에 있는 토굴을 ‘흑괘(흑괘)’라 하는데, 이 굴 아래에서 솟아나는 약수를 ‘흑괘물’이라 한다.

목·도·어귀[入口·門]

한라산 국립공원 안의 지명이나 밖의 지명에서 ‘-목’, ‘-도’라는 것이 많다. ‘목’은 ‘통로(通路)’ 가운데 다른 곳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는 중요하고 좁은 곳’을 이르는 고유어다. ‘도’는 ‘문(門)’ 또는 ‘출입구(出入口)’, ‘어귀’ 등의 뜻을 가진 고유어다. 제주 지명에서는 주로 ‘-도’로 실현되지만, 육지부 지명에서 ‘-돌·돌·들’ 등으로 실현된다. 예전에는 주로 ‘-돌’로 실현되었고, 한자 차용표기로는 ‘梁(양·량)’ 또는 ‘道(도)’로 표기하였다. 제주 지명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다.

제주의 경우, 예전에 목장을 많이 설치했다. 특히 한라산 쪽에 설치되어 있는 목장에 출입할 때는 주로 ‘-도’라 한 곳으로 출입문을 냈는데, 한자차용표기로 ‘-梁’으로 표기하였다.

개미목

용진굴 쪽 삼각봉 밑에서부터 양쪽에 계곡을 끼고 남북으로 뻗어내려 맨주기출리에서 끝나는 산등성 마루를 이른다. 말 그대로 개미의 목처럼 잘록하다는 데서 붙인 것이다. 옛 지도에는 蟻項(의항 : 개미목)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개미목’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개미목도

탐라계곡을 건너 개미목 능선으로 올라가는 길목을 이른다. 해발 약 850m 지점으로, 관음사 등반로에 있는데, 이 곳을 거쳐 개미목과 용진굴에 이른다.

약다리목

성널오름 서남쪽에 있는 목을 이른다.

어리목

「한라산국립공원지도」에 ‘어리목’을 ‘御里牧’으로 표기해 있으나, 이는 적당한 한자가 아니다. ‘어리’의 뜻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으나, ‘목’은 ‘출입구, 입구, 어귀’의 뜻을 가지고 있는 고유어다. 그러므로 한자 牧(목)에 대응시킬 수가 없다. 역지로 음차(音借) 표기라고 하면 모르지만, 18세기 말의 『증보 탐라지』를 보면 氷潭(빙담 : 어름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로 볼 때 ‘어리’는 ‘어름’[氷]의 변음으로 보인다.

장구목·장고목

한라산 백록담 북쪽 어깨마루에서 북향으로 길쭉하게 뻗어나온 산릉을 이른다. 남·북단의 두 봉우리와 그 사이의 잘록한 안부로 형성되어 있다. 동·서 측면은 깊은 계곡으로 내리지르는 급사면이다 부분적으로 바위벼랑이 벼딴벽처럼 받쳐져 있다. 이 전체 지형이 장구 모양이라는 데서 ‘장고목>장구목’이라 한 것이다. 「제주삼읍도총지도」에 長鼓項(장고항 : 장고목)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장고목’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오늘날은 주로 ‘장구목’이라 부른다.

밭·왓[田]

표준어 ‘밭[田]’에 대응하는 제주방언은 ‘밭’이나 ‘왓’으로 실현된다. 선행 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대개 ‘-밭’으로 실현되고, 선행 음절이 모음으로 끝나면 대개 ‘-왓’으로 실현된다. 하지만 간혹 ‘-밭’과 ‘-왓’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밭’이나 ‘-왓’을 한자로 표기할 때는 ‘-田(-전)’으로 쓰나, 대개 고유어로 실현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진달래왓·진달래밭

성판악 등산길 중 진달래밭 대피소 일대의 진달래가 많이 자라는 곳을 이른다. 진달래가 많이 자라는 밭이라는 데서 ‘진달래왓/진달래밭’이라 부른다. 성판악휴게소에서 이 곳까지는 3시간 정도 걸리고, 이 곳에서 한라산 정상까지는 1시간 30분 정도 걸린다.

선작지왓

윗세오름의 큰 오름(해발 1,740m) 남쪽(아래쪽)에 넓게 펼쳐져 있는 바위 지역을 이른다. 영실 등반로의 이 곳 일대에는 크고 작은 바위가 널리 펼쳐져 있는데, 이것은 제주방언으로 ‘작지’라 한 것이다. 사실 ‘작지’는 ‘자갈’을 이르는 방언이지만, 이 곳에 펼쳐져 있는 ‘작지’는 자갈이라기보다는 너른 바위, 곧 암반이라 해야 맞을 것이다. ‘선’은 ‘서 있는’의 뜻을 가진 고유어이고, ‘왓’은 ‘밭[田]’의 방언으로 모음 뒤에서 ‘밭’이 ‘왓’으로 실현된다. 그러므로 ‘선작지왓’은 암반이 서 있는 것과 같이 널리 펼쳐져 있는 밭이라는 데서 붙인 것이다.

속밭

성판악휴게소에서 성판악 등산길을 따라 약 1시간 30분 정도 가면 나타나는 곳이다. 이 곳에서 40분 정도 더 걸어 올라가면 사라오름약수가 나온다. ‘속’은 ‘쑥’을 이르는 방언이고, ‘밭’은 ‘밭’을 이르는 방언이다. 이 일대에 쑥이 많이 자란다고 해서 ‘속밭’이라 부르는데, 요즘은 생태계의 변화로 쑥을 확인하기도 쉽지 않다.

구상남밭·구상남밭

‘윗세오름’ 대피소 일대와 ‘진달래밭’ 대피소 위쪽 일대를 이른다. ‘구상남’ 또는 ‘구상남’은 ‘구상나무’의 제주방언이다. 옛 지도인 『탐라순력도』에는 舊香油田(구향목전 : 구상남밭)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구상남밭·구상남밭’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개미목밭

‘개미목’을 참고할 것.

기타

동물이나 물건의 등과 같은 모양을 한 경우 ‘-등’과 같이 표현된다.

개미등

개미목 가까이 있는 등성마루를 이른다. 보통 ‘개미목’이라 부르고 사람에 따라 ‘개미목밭’

으로 부르기도 한다. 가까이에 '개미목'이 있고, 이 곳이 개미의 등과 같다는 데서 붙인 것이다.

제3장 제주의 풍수지리와 오름

1 머리말

‘인걸(人傑)은 지령(地靈)’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뛰어난 인물은 하늘의 정기를 품은 신령한 땅의 기운을 타고 난다.’라는 의미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리의 조건은 참으로 중요하다.

제주의 풍수(風水)에 있어서 오름의 존재는 제주의 풍수와 불가분의 관계이다. 오름에 대한 이해는 곧, 제주의 풍수를 바라보는 지름길이다. 그 오름의 중심에 제주 풍수의 근간(根幹)인 한라산이 영험한 기운을 품고 바다 가운데 우뚝 솟아 있다. 한라산이 품은 오름의 실체를 알 때 제주의 풍수는 비로소 제주의 큰 생명력으로 다가온다. 그 오름의 자락마다 술한 역사의 과정을 거치며 피어난 제주민의 삶과 숨결이 독특한 제주의 풍수 문화를 이루게 했다.

제주 풍수의 구심점은 ‘오름에 나서 오름으로 돌아간다.’는 말처럼 한라산의 품, 즉 한라산의 자락에서 태어나 오름을 기대어 살다가 오름으로 돌아가 오름의 자락에 묻힌다는 제주인 특유의 오름 풍수관을 안고 있다. 의지처(依支處)로서 오름을 통한 삶의 형태가 제주의 전통 풍수관으로 이어졌으며, 제주의 선조들은 영험한 기맥(氣脈)의 발원지인 한라산을 종산(宗山)으로 삼고 한라산의 지기(地氣)가 용출하는 오름 곳곳에 뼈를 묻고 삶의 터전을 형성하며 지금에 이르렀다.

아울러 신령한 기운을 머금고 있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그 품 안에 있는 오름들은 제주인의 풍수 문화에 어떤 영향을 끼쳤으며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 것인지 심히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오름과 연관된 제주의 풍수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으며, 오름의 자락에 뼈를 묻고 살아온 제주인은 오름의 풍수관을 통해 무엇을 꿈꾸었는지 조명하는 일도 의미 있는 일이다.

제주의 풍수가 제주의 땅에서 오름과 상호 유기적인 조화를 이루어 내며 어떠한 작용으로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는지는 제주민의 삶의 방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 오름과 관련하여 맺어지는 제주만의 독특한 풍수의 방식과 관념적 특징인 정신관, 생활관, 윤리관 등 모든 삶의 구석구석까지 오름을 매개체로 한 풍수관(風水觀)의 참뜻을 이해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오름 속에 자리한 제주의 풍수는 제주민의 삶과 의식 속에 어떤 존재였는지와 그 오름 풍수관이 지니고 있는 상징적 의미 또한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또 오름 풍수관이 제주의 문화 속에 농축되어 삶의 터전을 이루어 온 그 정신적인 가치가 어떠한 형태로 제주 정신을 이루는 모태의 하나가 되었는지도 생각하면서 동시에 제주의 풍수를 형성하는 근본적인 저류(低流)는 무엇인지 짚어보고자 한다. 특히 제주의 정신이 면면히 살아 숨쉬고 제주 문화의 깊은 맥이 흐르는 오름과 연결하여 제주 풍수에 대한 역할을 재조명하고, 제주의 오름 풍수관에 대한 가치의 재정립과 풍수가 지니는 자연 과학성을 통해 오름의 보존과 관리 방안을 생각하고자 한다.

또한 풍수학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오름들과 명당지(明堂地)에 대해 살펴보고 그 가치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한다. 천지 대자연의 순환의 이치인 자연과학을 토대로 발전해 온 풍수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풍수가 가지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 제주의 오름 풍수관을 통하여 제주의 자연환경을 조명하고자 한다. 아울러 현대적 풍수관의 재정립은 물론 제주의 오름 풍수관 속에 내재(內在)되어 있는 참 가

치를 밝히고 그 중요성을 시사하고자 함이 본 내용의 뼈대(骨幹)임을 밝힌다.

2 풍수지리(風水地理)의 본령

본래 풍수(風水)의 의미는 자의적(字意的)으로는 글자 그대로 바람과 물을 뜻하며, '장풍득수(藏風得水)', 즉 "바람을 감추고 물을 얻는다."라는 말의 풍(風)과 수(水)를 따서 붙인 말이다. 하늘과 땅은 음양(陰陽)으로 이루어져 하늘은 '양', 땅은 '음'인데, 하늘이란 지표면 바로 위에서부터 천체의 모든 공간을 의미한다.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음'이라고 한다면 공간의 천성(天星)인 태양은 곧 '양'인 셈이다. '양'인 태양과 '음'인 지구의 중간 공간을 연결하여 주는 흐름이 천기(天氣)이고 이 기운은 음양이 상호 교감되는 기운이며 동시에 바람의 현상을 발생시킨다. 옛 사람들은 "물은 '기(氣)'의 모체"라 했고, "물은 '기'의 경계"라 하였다. '한 치라도 높으면 산이요, 한 치라도 낮으면 물'이라고 하여 풍수학에서 말하는 '물'의 개념은 낮은 곳을 의미한다고도 할 것이다. 결국 높고 낮음이라 함은 땅을 지칭하는 말이니 땅은 산봉(山峰)과 하천(河川)이 되는 것이다. '산'은 높은 곳이 되고 '내(川)'는 낮은 곳이 되니 풍수학에서 산은 용(龍)이 되고 '내'는 물(水)이 됨과 동시에 '산'은 고요하여 '음'이 되고 '물'은 움직이므로 '양'이 된다. 음양의 균등한 형세로서 확실하게 이루어진 명혈(明穴)이 훌륭한 국세(局勢)를 만난 곳이 우리가 말하는 소위 명당인 것이다. 즉, 산맥인 '음'의 '용'이 흘러가다가 '양'인 '물'을 만나는 지점이 되면 멈추어 서게 되니 이 곳이 바로 지기(地氣)의 경계가 되는 곳이다. 풍수지리학의 형태는 음양의 기운을 형세를 따라 살피고 논하는 형기학(形氣學)과 모양의 형태를 음양으로 수직화(數值化)하여 추리하는 이기학(理氣學)으로 나뉜다. 또한 풍수지리의 적용은 크게 음택(陰宅)과 양택(陽宅)으로 나누며, 음택은 주로 죽은 자의 묘지와 관련된 것이고 음택은 우리가 살아가는 주택과 도읍에 관련된 것이다. 음택의 출발은 전통적으로 동양의 효(孝) 사상을 중심으로 조상의 유체를 산천의 정기가 모이는 좋은 땅에 편안히 모심으로써 효를 다함이 그 주된 목적이고, 동시에 "같은 기(氣)는 서로 응한다."라는 동기 감응(同氣感應)의 원리에 기인하여 조상의 기(氣)가 후손과 잘 교감되어 소응(所應)을 얻게 되면 자손의 번성을 기약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풍수에서 용(龍)이라고 하는 것은 산의 능선이 상하로 기복을 이루고 좌우로 구불구불한 모습이 마치 용의 모습과 같아 그 변화가 천태만상으로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땅을 풍운 조화를 일으키는 용(龍)에 비교한 것이다. 산세를 타고 온 지맥을 기운이 흐르지 않는 사맥(死脈)과 기운이 생동하는 생맥(生脈)으로 구분하여 생기를 타는 용맥(龍脈) 중에서 기운이 가장 집중되는 곳을 풍수에서 혈(穴)이라 하는 것이다. 혈이 맑으면 인품이 귀하고 혈이 흐리면 인품이 천하다고 여겼다.

풍수지리는 현대 지리학과는 달리 산천의 대지가 서로 호응하고 물이 흘러가는 모양을 인간의 길흉화복에 연결시켜 설명하는 지상학(地相學) 혹은 상지학(相地學)이라 할 수 있다. 현대 지리학에서는 땅의 기본적 요소인 산(山), 수(水), 방위(方位)를 오직 인간 생활의 바탕이며 물질적인 생산자로만 보아 사람의 이용 여하에 따라 작용하는 수동적인 것으로 보는데 반해 풍수설에서는 모든 토지를 능동적인 것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땅이 지니는 지형 지세에 따라 강약(強弱)과 유동(流動)의 정도가 달라지는 신비한 힘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그것의 후박(厚薄) 여하에 따라 인생의 당대 또는 후대의 번영과 쇠락(衰落)이 좌우된다고 보는 것이다. 자연의 순환을 중시하는 풍수지리는 현대 건축(주택)공학의 뿌리이며 생명의 모체인 자연과학의 시발이라 할 수 있다.

3 제주 풍수의 관념적 특성

한라산과 오름에 의지한 지모관(地母觀)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삼라만상(森羅萬象)은 어느 한 순간도 우리가 존재하는 자연의 순환 계통인 공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종종 ‘사람은 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을 한다. ‘땅은 만물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 인간의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토속 신앙적 사상이 근간이 된 풍수지리는 토속 신앙인 대지모(大地母) 사상과 역(易)의 이론인 중국의 음양 오행설(陰陽五行說)이 결합하여 입지(立地)에 관한 체계적인 학문사상으로 발전하였다. 인간은 음과 양의 결합체로, 자연으로부터 왔다가 자연으로 돌아간다. 처음으로 인간이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몸을 받았기 때문에 음양의 조화 속에서 잉태된 것이며 일생 동안 양기(陽氣)를 바탕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세월이 흘러 늙으면 어느덧 양기(陽氣)가 쇠퇴하게 되고 결국 생(生)이 다하게 되어 음(陰)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제주에 있어서 한라산은 어머니의 품과 같은 존재이다. “한라산은 제주도, 제주도는 곧 한라산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한라산을 모태(母胎)인 어머니 산으로 비교하자면, 어머니인 한라산의 정기를 받고 태어났듯이 세상을 떠나면 제주민의 육체는 다시 한라산의 품으로 돌아가는 이치이다. 이 말은 “오름에 나서 오름으로 돌아간다.”라는 말과 통한다. 만물을 길러내는 것은 흙이며 만물의 자양분도 모두 흙에서 나오는 것이다. 한라산은 어머니의 젖과 같이 제주 자연계의 모든 생물체들을 양육하는 곳이다. 한라산은 어머니의 품속과도 같이 포근하고 따스한 곳으로서 인간이 어머니를 그리워하듯 사람이 늙으면 고향을 그리워하게 되는 것처럼 제주에 있어서 한라산은 바로 이러한 곳이다. 이것은 본능적인 것으로서 살아 있을 때 아무리 천리 타향에 나가 살더라도 결국 늙어서 생을 마감할 때 쯤이면 고향을 그리고 또는 죽어서라도 고향에 묻히고 싶다는 유언을 하게 되는 것이다. 고향은 곧 어머니의 모태와도 같은 자신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뜬구름 같은 세상에서 술한 시비를 안고 살다가 늙어 기(氣)가 다하면 한라산의 품에 있는 어느 오름의 한 자락에 말없이 묻히게 되는 것이다.

지모관(地母觀)과 설화

오름에 얽힌 설문대할망의 설화

설화적으로 한라산을 창조했다는 전설의 여신(女神)인 ‘설문대할망’이 한라산을 만들기 위해 소가 누워 머리를 든 형국인 와우형(臥牛形)의 우도(牛島)에서 치마폭에 흙을 싸고 가다가 떨어뜨린 흙이 오름이 되었다고 했다. 설화 속의 ‘설문대할망’은 상상하기 어려운 큰 거녀(巨女)였다. 그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 갈래로 전승된다. 주요 내용은 ‘한라산을 베개삼고 누우면 다리는 관탈섬에 걸쳐졌다’, ‘한라산을 엉덩이로 깔아 앉아 한쪽 다리는 관탈섬에 디디고, 한쪽 다리는 서귀포 앞 바다의 지귀도(地歸島)에 디터서 우도를 빨랫돌로 삼아 빨래를 했다’는 것 등이다. 예로부터 제주민들은 옥황상제가 천지를 창조했다고 믿었으며, 모진 시련과 혹독한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절해고도(絶海孤島)인 섬의 숙명을 상상의 ‘설문대할망’이라는 신의 힘에 의지해 꿈을 이루려고 했던 소망이 마음 밖으로 표출된 것이라 짐작된다. 그것은 그들이 일생 동안 살아가고 그 오름의 자락에 영원히 뼈를 묻을 소중한 땅을 인격과 동일한 체(體)로 인식하고 그들의 뿌리로 생각한 것이라 본다. 그것은 바로 제주민의 마음속에 땅과 인간을 분리시키지 않고 하나로 보는 자연합일(自然合一) 의식과 더불어 땅이 영원한 어머니의

풍이라는 지모관이 자리했기 때문이라 본다. 제주도 전체를 하나의 인격화로 승화시킨 이면에는 제주인 특유의 지리관(地理觀)이 자리하고 있고, 한라산을 중심으로 바다 주변의 섬까지 지맥을 연결하여 본 풍수 의식이 깔려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제주의 풍수 전설에 나타난 윤리성

전설에 관한 이야기는 인간과 인간에 관한 이야기와 혹은 인간과 자연 사물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비교적 많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인간 삶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좌절된 의지나 그에 상응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전개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 지역적인 한계의 범위를 갖고 있는 것이 전설의 특징이라고 하지만 반면에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공동체라는 지역적인 유대감을 고착시키며 애郷심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허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그러한 증거물의 하나로 자연물이나 역사적 사건의 인물 혹은 특정한 사건 등이 존재한다면 전설이라는 개념으로 분류한다. 전설은 광의적(廣義的)인 시각으로 볼 때 중심적인 전승자의 역할이 바로 민중이라는 사실이다. 제주도에는 이러한 성격의 전설이 널리 퍼져 있으며 내륙의 전설과는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인다. 보편적으로 제주의 전설을 이야기할 때는 3가지 형태의 분류하고 있다.

첫째는 자연과 관련된 전설, 둘째로는 역사와 관련된 전설, 세 번째로는 신앙에 관련된 전설이다. 그 중에서 특히 두 번째의 역사 전설로 분류될 수 있는 호종단(胡宗坦), 즉 일명 '고종달'형 전설을 들 수 있다. 호종단이 등장하는 전설은 다양한 형태로 제주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풍수 사상을 토대로 하고 있는 반면 당시의 제주민이 역사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방법이 잘 드러나고 있는 전설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을 대변이나 하듯이 지형 또는 지명마다 얽힌 전설에 보면 중국의 풍수사(風水師)인 호종단이 자주 등장한다.

제주의 풍수 전설에 담긴 내용의 주류는 주로 척박한 환경에서 삶에 대한 제주민들의 염원과 역사에 대한 인식을 함께 반영하고 있다. 중국의 호종단이 제주에 들어와서 지맥을 끊어서 제주도에 큰 인물이 나지 않았다는 전설의 내용으로 볼 때 원래 이상향보다는 현실에 중점을 두고 상대적으로 난세를 극복해나갈 걸출한 인물을 기대하려고 하는 민중의 갈망의식(渴望意識) 속에서 출발한 상대적인 형상화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현실에 대해 정신적 보상을 위한 그들만의 위안의 방법일 수도 있는데 호종단의 전설에서 이러한 관념이 더욱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장차 왕이 태어날 왕후지지(王侯之地)라는 풍수학적 상징화와 형상화를 통해 제주만의 자구적(自救的)인 자존의식을 볼 수 있고, 더불어 제주를 하나의 독립적인 국가 단위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실제 역사에서 나타나는 불모지(不毛地)로서의 제주에 대한 현실감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제주도 풍수 전설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 몇 가지 기본적인 구성을 할 수 있다.

첫째, 제주도는 지세(地勢)가 좋아 장차 왕이 태어날 왕후지지(王侯之地)였다. 둘째, 이에 중국의 황제가 지리서를 보고 심히 두려워했다는 내용을 발단으로 상대적으로 중국을 등장시켜 제주도를 하나의 국가 단위로 인식하게 한 점이다. 셋째, 이러한 이유로 중국의 황제는 마침내 압승술(壓勝術)에 뛰어난 풍수의 달인을 제주에 급파하게 되는 과정이다. 넷째, 제주에 도착한 풍수사는 제주도의 명혈이 이어지는 곳곳의 지맥을 끊어 나간다. 다섯째, 그 과정에서 한라산신(漢拏山神)의 방해로 인해 계획한 대로 모든 혈을 뜨지는 못했지만 명혈로 이어진 주요 지맥은 끊었기 때문에 그 결과 제주에서는 왕이 나지 않았으며 땅의 혈맥에 속하는 샘물도 더 이상 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대략적인 고종달형(호종단) 풍수전설의 주류이다.

제주의 풍수전설에 나타나는 대체적인 내용은 천륜(天倫)과 인륜(人倫)을 중시하고 선악의 귀결로 인한 인과응보(因果應報)와 권선징악(勸善懲惡)으로 대표되는 윤리성이다. 특히 제주의 풍수 전설의 특징은 전통적인 풍수이론에 인륜의 도덕을 담고 있으며 역행을 배제하고 순리에 따라 덕을 베풀어 남을 이롭게 하고 지극한 효성을 갖추어야 하늘이 스스로 도와 명당을 내린다는 점이다. 온갖 만물이 의지하여 사는 땅은 하늘의 도(道)와 인륜의 도덕이 담겨 있어 삶의 정신적인 지주로 상징되었다.

대체적으로 제주 풍수의 유형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 개인이나 가문에 관련된 풍수적 전설이 있는가 하면 집단적인 삶의 형태인 마을의 안녕과 번영 혹은 퇴락과 쇠퇴에 관한 전설이 있다. 더 나아가 범위의 주체가 국한된 지역을 벗어나 국가로 확장되면서 한 나라의 명운(命運)과 관계된 영고쇠락(榮枯衰落) 또는 도읍지 선정 등의 역사적인 사건이나 사실과 관련을 맺으며 전개되는 전설도 있다. 제주에서 풍수와 관련된 전설은 개인으로부터 시작하여 집단의 형태인 마을과 전체라는 공동체 개념으로 이어져 국가의 흥망과 성쇠를 포함하고 있으며 생장소멸(生長消滅)의 자연이치가 공존하는 무상(無常)의 만남과 헤어짐이 잘 나타나 있다. 중요한 것은 당시 삶의 형태가 풍수의 윤리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천륜(天倫)과 인륜(人倫)에 역행하고 위배되는 행위는 결국 하늘의 노여움을 사서 스스로 쇠퇴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덕을 베풀어 사람을 이롭게 하고 지극한 효성으로 마음을 다하는 자는 하늘과 땅의 감응(感應)을 받아 산천의 기운이 모이는 명당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제주에서의 풍수적 윤리는 명당(明堂)은 절대적인 관념이 아니라 인과(因果)에 따라 얻어지는 상대적인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전통 풍수에 있어서도 풍수의 윤리성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풍수의 목적이 결코 부귀발복(富貴發福)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을 하나로 보는 사상이다. 개인의 허욕을 위해 혈(穴)을 찾으려 하면 찾기가 힘들다고 보는 것이다.

마음을 비우지 않고 개인의 욕심만을 내세워 명혈(明穴)을 찾으려 하면 잘 찾지 못하는 것이 고금의 진리이다. 평소에 덕을 쌓고 남을 위해 선업(善業)을 지은 사람은 하늘의 이치가 공평한 지라 복이 스스로 찾아오는 것이다. 자신의 티끌을 보지 못하고 이욕(利慾)의 마음으로 발복을 원한다면 그것은 하늘이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 자연의 성정을 파악하면 그 묘처(妙處)가 스스로 보이는 것이니 자연과 합일(合一)하는 마음부터 길러야 함이 옳다고 본다. 자연의 이치에 부합하여 그 혜택을 함께 공유하려는 마음이 요즘 들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다. 인간과 자연이 함께 교류하여 그 혜택을 상호 교감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오늘날 풍수학이 지향하고 걸어가야 할 책임일 것이다.

예로부터 ‘참된 혈은 하늘이 감추고, 땅이 비밀히 하여 덕이 있는 사람을 기다린다.’ 고 했다. 이렇게 볼 때 제주 풍수 전설에 나오는 풍수적 윤리성은 성격상 차이가 있는 듯 보이지만 기본적으로는 맥이 같다고 본다. 자연과 인간을 하나로 보는 관념이고 개인의 허욕을 경계하고 있는 데서 같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의 대조화성(大調和性)을 의미하며, 천지인(天地人) 삼재사상(三才思想)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4 제주 풍수의 내재성(內在性)

동기감응론(同氣感應論)과 소응(所應)

동기감응론

서구의 석학들도 과학적으로 동양의 기학(氣學)과 사람의 혼백, 동기감응론(同氣感應論)에 대해서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가까운 예로 1960년 미국의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윌라드 리비(Willard libby) 박사는 14종의 방사성 탄소를 인체에서 발견하여 동양의 풍수 지리학에서 말하는 친자감응론(親子感應論) 혹은 동기감응론(同氣感應論)을 과학적으로 제시하여 좋은 선례의 하나가 되었다. 대기 중에 있는 기운을 공기(空氣)라 하고, 태양을 위주로 하늘에 유행하는 기운을 천기(天氣)라 하며, 땅 속을 흐르는 기운을 지기(地氣)라 하는데, 이 세 가지 기운을 고루 흡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으로, 몸 안의 기(氣)를 인기(人氣)라 하는 것이다.

진(晉)의 곽박(郭璞)이 지은 『금낭경(錦囊經)』에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다.

장사를 지냄은 생기를 타야 한다. 오행의 기운은 땅 속을 돌아다닌다. 사람은 부모에게서 몸을 받는다. 부모의 유해가 기(氣)를 얻으면 남긴 유체(후손)는 음덕을 받는다. 경에 이르길, 기(氣)가 귀(鬼)에 감응되면 그 복이 사람에게 이른다. 이것은 동산(銅山)이 서쪽에서 무너지는데 영험스러운 종이 동쪽에서 응하여 울림과 같다. 나무가 봄에 꽃을 피우면 방에 있는 밤송이도 싹이 튼다. 털끝 만한 차이로도 화복이 천리이다….

… 葬者，乘生氣也。五氣行乎地中。人受體於父母。本骸得氣，遺體受蔭。經曰，氣感而應，鬼福及人。是以銅山西崩，靈鐘東應。木於華春，栗芽於室。毫釐之差，禍福千里….

「동기감응론」은 예로부터 묘지의 길흉에 따라 자손들이 화복(禍福)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이른바 조상과 자손은 동질의 기(氣)를 받는다는 이론에 근거한 것이다. 이것을 현대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같은 인자(因子)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를 바탕으로 좋은 땅에 잘 모신 조상의 체백(體魄)은 좋은 기(氣)를 발산하여 그 음덕(蔭德)이 자손들에게 전해져 부귀발복(富貴發福)하고 누대로 발전해 가게 되는 것이다. 만약 조상의 유골을 생기가 흐르지 않는 좋지 않은 땅에 모시면 나쁜 기운이 발산되어 자손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가져와 많은 재화(災禍)를 안겨주게 된다는 것이다. 즉, 생기가 왕성한 좋은 땅에 모시면 체백의 인자(因子)도 같이 왕성하여 동질의 인자를 가진 후손에게 동기 감응을 일으켜 좋은 영향을 주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조상과 자손과의 사이에 유행하는 이 에너지가 마치 주파수처럼 상호 감응하여 그 접합의 결과에 따라 길흉이 나타나게 된다. 소위 명당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기운이 흘러와 모이는 살아 있는 양명한 땅을 말한다.

『청오경』에 나오는 다음의 말도 참고가 된다.

(인생이) 백 년이면 죽음에 이르고, 형체를 떠나 본체로 돌아가니 정신이 문으로 들어가고 뼈는 뿌리로 돌아가니 길한 기운이 감응하면 많은 복이 사람에게 이르리라. 동쪽 산에 불꽃을

토하면 서쪽 산에 구름이 일어나니 혈이 길하고 온화하면 부귀가 끊이지 않고 흐를 것이니 그 반대이면 자손이 고독하고 빈한하리라….

百年幻化，離形歸真，精神入門，骨骸反根，吉氣感應，累福及人。
東山吐焰，西山起雲，穴吉而溫，富貴延綿，其或反是，子孫孤貧…

풍수의 목적은 동양의 전통적인 유교의 사상인 효(孝)에 바탕을 두고 출발한 학문으로서 자신의 뿌리가 되는 조상을 편안히 모시기 위한 것이지 결코 발복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인간 본연의 선성(善性)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효(孝)의 사상에 근본한 조상숭배(祖上崇拜), 보본반시(報本反始)에 입각한 것이며 더불어 조상의 선영(先塋)을 좋은 땅에 잘 모셔 자손의 번영과 창달을 도모하자는 데 있다.

음택(陰宅)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동양의 효(孝) 사상에서 출발하여 동기감응의 원리로 돌아가신 조상을 산천 정기가 모이는 좋은 땅에 편안히 모심으로써 돌아가신 부모 또는 조상의 기(氣)가 후손에게 잘 전달되게 자연과학의 이치에 맞추어 길흉을 살피고 연구하는 근본 학문이다. 조상과 자손간의 상호 좋은 기가 교감된다면 그 작용력은 응당 좋은 영향을 미치게 하여 자손의 번영과 행복은 물론 건강한 삶을 향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로부터 풍수지리의 심오한 진리는 효의 사상에서 출발하여 우리 인간의 운명을 개척하는 지혜로 삼아왔다.

응험(應驗)에 대해 『古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대저 사람의 부모는 나무의 뿌리와 같은 것이니, 뿌리가 견고하면 가지가 무성하다. 그러므로 부모의 체해가 안녕하면 자손 역시 안녕하고, 부모의 체해에 물, 바람, 뱀, 개미가 침입하면, 자손에게 응하여 마르고 괴로운 질병이 많이 발생한다. 산에는 생기가 있으니, 체백이 윤택하고 맑으면 자손도 역시 응하여 영화를 누린다. 땅에 맥이 이어지지 못하여 체백이 윤택함을 잃으면 자손도 역시 응하여 절패하게 된다. 화복의 응험은 마치 그림자가 따르는 것 같고, 소리가 응하는 것 같으니 가히 삼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蓋人之於父母，猶木之根之類，根固則枝茂。故父母之體骸安寧，子孫亦安寧，父母之體解，多侵水火蛇蟻，子孫亦爲之應而多乾焦勞瘵之疾。山有生氣，體魄光淨，子孫亦爲之應而榮華，地無絡脈，體魄消，子孫亦爲之應而絕敗。禍福之驗，如影之隨，如響之應，不可慎哉….

제주 풍수의 소응의식(所應意識)

풍수의 이치는 이념적으로 자연과학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전통 문화에 입각하여 민속적 차원으로 볼 때 다른 요소들과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효를 바탕으로 한 조상숭배 사상이 내부 깊숙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민간에 뿌리 박힌 전통 풍수설은 예로부터 지맥을 따라 인간사의 모든 길흉과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았고 속신(俗信)처럼 하나의 민간신앙으로 뿌리를 내려 왔다. 그것은 바로 풍수 신앙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땅을 고르려는 적지사상(的地思想)에서 출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풍수 지리학이 원래 중국에서 전래되었다고는 하지만 삼국 시대 이래로 독창적인 형태로 발

전하여 오늘날까지 우리 민간 속에 하나의 신앙처럼 뿌리깊게 인식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민간에 뿌리내린 전래의 풍수는 화복의 영향을 중시한 발복풍수가 주류를 이루었다. 땅을 써서 잘 되고 못 되었다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것은 속신(俗信)처럼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다.

집안이 편안하고 자손들이 번창하여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또는 집안이 쇠퇴하여 자손들이 번성하지 못하는 모든 길흉화복(吉凶禍福)의 결과가 대체적으로 조상의 묘(墓)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것은 조상의 유체를 지기(地氣)가 왕성한 길지(吉地)에 모셔 묘를 잘 써서 가문이 번창했다든지 혹은 문중에서 여러 명의 군수나 장관이 나왔다든지, 뛰어난 문장가나 호걸이 나왔다는 등 하는 것이 모두 풍수의 적지(的地)를 골라 그에 따른 영향을 입어 복을 누렸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풍수의 실증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사실을 풍수에서는 소응(所應)이라고 하는 것이다.

제주 풍수에서도 소응의식이 잘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인 소응의식은 대체로 묘지풍수를 중심으로 나타나는데 반해 제주의 소응의식은 음택뿐만 아니라 양택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제주 풍수에 나타난 소응의식 이면에는 효(孝)와 덕(德)을 중시한 측면이 강하게 나타난다. 풍수의 목적은 결코 부귀발복(富貴發福)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을 하나로 보는 사상이다. 개인의 허욕을 위해 혈을 찾으면 찾기가 힘든 것이다. 참된 혈은 하늘에서 감추고, 땅이 비밀히 하여 덕이 있는 사람을 위해 기다리는 것이다. 제주에서는 오래 전부터 형국론(形局論)에 기인하여 알려진 명당이 있는데, 6대 음택혈과 6대 양택혈을 말한다. 이 6대명혈은 풍수적 이치와 더불어 제주인들의 효와 덕을 중시한 인과적(因果的) 소응관(所應觀)을 잘 나타내고 있다.

소응(所應)과 6대 명혈(名穴)

제주의 6대 양택혈(陽宅穴)과 음택혈(陰宅穴)

예로부터 제주에는 형국론(形局論)을 중심으로 비롯된 전설적 명혈이 많이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6대 음택혈'과 '6대 양택혈'이다. 특히 음택혈중 4대 명혈지는 해발 1,200m 이상에 있는 고산혈(高山穴)로서 혈성(穴星)이 대개 산머리에 많이 맺혀 있는것이 특징이다. 그 중 일부는 현재까지도 지사(地師)들조차 정위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외에 금장지(禁葬地)로 알려진 명혈지를 포함하여 음택의 10대 명혈로 보는 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전해온 것은 뫓자리와 집터로 알려진 '양·음택 6대 명당지'라 할 수 있다.

소응의식이 수반된 6대 명혈지는 생전에 덕을 많이 쌓아야 얻을 수 있다는 풍수적 윤리가 점철되어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인과의 윤리성을 담고 있다. 하늘과 땅이 내린 명당의 기운을 타면 자손으로 하여금 발복의 소응을 가져다 준다는 믿음이 동시에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예로부터 "명당은 주인이 따로 있다."는 말을 한다. 이것은 바로 효와 덕을 중심으로 인륜의 도덕에 근거한 선악의 판단 기준과 가치가 작용한 '소응의식'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6대 음택혈

6대 음택혈의 제1혈은 신이 내린 명혈지로 손꼽는 '사라혈(紗羅穴)'인데, 산의 형국이 마치 힘찬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으려는 '생사축와형(生死逐蛙形)'의 형상으로 기운이 뺏어난 곳이다. 제2혈은 '역두형(逆頭形)'의 '사치괘벽형(死雉卦壁形)'으로 남근(男根)을 상징하기도 하며 개미의 머리 형상을 하고 있는 속칭 '개여목'이라고 하는 '의항혈(蟻項穴)'인데, 마치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출정하는 대장군의 형국인 ‘장군솔군형(將軍率軍形)’과 죽은 땡을 벽에 걸어 놓은 형국을 하고 있다.

제3혈은 중국 주자(朱子)의 부친이 묻혀 있다는 전설을 간직한 ‘영실혈(靈室穴)’로 영실 계곡 위쪽의 ‘주친몰리’서쪽 방향에서 밑으로 내려다보이는 평평한 평지로서 성현이 날 자리라고 하는데, 지세가 마치 아침에 봉황새가 울어대는 ‘봉명조일형(鳳鳴朝日形)’의 형국을 간직한 곳이다. 제4혈은 ‘해두명(亥頭明)’으로 한라산 서쪽 방향으로 약 3 km 지점에 위치한 곳으로 마치 돼지 머리 형상과 같다하여 일명 ‘돈두명’이라고도 하는 곳이다.

제5혈은 ‘반득전(蟠得田)’으로 남원을 의귀리(웃귀) 지경에 위치한 산으로 마치 누런 뱀이 숲에서 나온 ‘황사출림형(黃蛇出林形)’의 형국으로 일명 ‘반디기왓’이라 하는 곳이다. 제6혈은 ‘반화전(蟠花田)’으로 한림읍 누운오름 서쪽 방향으로 일명 ‘별진왓’으로 불리는 곳인데, 소 1만 마리를 기르는 부자가 날 형세로 ‘서우독만형(西牛犢萬形)’이라고 한다. 모습이 마치 선인이 글을 읽는 형상인 ‘선인독서형(仙人讀書形)’ 또는 여인이 단정히 앉아 있는 산세를 지니고 있는 ‘옥녀단좌형(玉女端坐形)’의 형국을 지니고 있다.

6대 양택혈

제주의 6대 양택혈 중 제1혈은 형국이 마치 어미개가 새끼 강아지에게 젖을 물리면서 품에 안고 있는 형상으로 소위 ‘개젓고리형’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곳은 제주시 연동 도청 남쪽 일대로 알려지고 있는 일명 ‘구아낭(狗兒囊)’이라고 하는 곳이다. 연동의 동남쪽에 위치한 속칭 민오름(戊岳)은 형세가 어미개의 형국이고 제주 MBC의 동쪽에 있는 속칭 ‘개새끼 오름(可沙只岳)’은 새끼 강아지의 형상으로 이 일대가 개의 젖주머니에 비교되었다. 그에 따라 여러가지 별칭이 생겨났는데 ‘구아낭’ 외에 ‘구유낭(狗乳囊)’·‘귀아낭(貴兒囊)’·‘귀여낭(貴如囊)’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 풍수적으로 이 곳에 집을 짓고 살면 만석꾼이 나와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전해져 명당 중에 명당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전에는 이 곳을 ‘귀낭동(貴囊洞)’으로도 불렀다. 현재까지 이 곳은 위치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지사들 사이에서는 종종 ‘무악천보지하(戊岳千步之下)’라 하여 연동에 위치한 ‘남조순오름’ 동쪽 옆이면서 민오름 북쪽 아래쪽으로 천 걸음 정도 내려온 지점으로만 전해지고 있을 뿐이다. 이 곳은 예로부터 지사들이 ‘구아낭’의 명혈지를 찾기 위해 온갖 정성과 열을 쏟았던 곳으로 만약 이 곳을 차지하게 되면 19대까지 급제하고 24대까지 부귀발복하는 땅이라고 하니 인간이면 누구나 한 번쯤 갖고 싶어하는 명혈이기도 하다. 태어남은 숙명이지만 땅은 어느 정도 자신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지기(地氣)를 얻어 좋은 운명으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양택의 제2혈은 지형의 고저가 없이 마을을 안고 흐르는 큰 내천이 완만하고 평이한 곳으로 남제주군 남원읍 신흥2리, 속칭 ‘여호내’라고 전해지는 ‘호천(狐川)’이다. 이 곳은 예로부터 ‘예온천(禮溫川)’으로 불리며 양반들이 거주해온 유양촌이다. 마을 ‘서남각’에 집터를 삼으면 발복한다는 풍수사들의 설에 따라 집터를 쓰니 나중에 호남까지 이름난 갑부가 태어났다는 등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으며 지금도 이 곳 주민들은 옥토(沃土) 마을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제3혈은 속칭 ‘배염바리’ 집터로 유명한 안덕면 창천리에 위치한 ‘사반(蛇盤)’으로 마치 뱀이 몸을 칭칭 감고 있는 형상이다. 맞은편 동남쪽으로 ‘군메오름’이 물에서 팔딱 튀어나온 개구리의 형세로 다가온다. 이렇게 볼 때 배염바리 집터에 사려 있는 뱀이 기다렸다는 듯이 단숨에 개구리를 날름 잡아먹으려는 힘찬 기세로 볼 수 있다. 이 집터에 관한 발복의 이야기는 몇 대 동안은 큰 부를 누리다가 마당에 큰 돌이 튀어나오면 발복이 끊긴다고 어느 풍수의 신안(神

眼)이 자손들에게 알려주었다 한다. 그러므로 돌이 나오면 이사를 갈 것을 알려 주었고 그대로 살 경우 오히려 큰 해가 닥친다고 했으며 그 땅의 소유자가 누구라는 것까지 알려 주었다고 한다. 돌이 튀어나와 발복이 끊긴 지금은 한 때 발복하여 번영을 누리던 이 집터도 밭으로 변해 콩, 채소 등이 재배되고 있을 뿐 세인의 관심에서 벗어나 무상한 세월의 바람을 맞고 있을 뿐이다.

제4혈은 북제주군 한림읍 귀덕의 '신흥리(新興里)'에 있는 속칭 '한다니'라고 하는 곳인데, 이 마을 어른들은 한결같이 이 지역의 지세를 맑은 밤하늘에 오작교(烏鵲橋)가 놓여 있어 견우(牽牛)와 직녀(織女)가 만나는 형세에 기인하여 '중천대교형(中天大橋形)'이라고 말한다. 한다니의 지세는 발복이 되면 만호의 집을 지을 만한 큰 땅을 소유하는 부자가 날 땅으로 '만호지(萬戶之地)'라고 하는 곳으로, 이 곳도 아직 정확한 위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덕을 쌓지 않고 속세의 욕심을 가득 안고 찾는다면 천장지비(天藏地秘)로 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바로 선과 덕을 중시한 풍수의 인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제5혈은 남원읍 '의귀(衣貴)'라고 하는 명혈지에 선조와 그들의 집터를 쓴 어느 가문이 헌마공신(獻馬功臣)이 되어 감목관 벼슬을 받았는데 그 후손들도 군마와 양마를 조정에 헌납하자 영조 임금(서기 1752년)이 그 후손들에게 옷 한 벌을 내려 이 때부터 임금으로부터 '어의(御衣)'를 받은 마을이라고 하여 '옷귀', 즉 의귀리(衣貴里)라는 지명이 붙게 되었다 한다. 이 곳이 바로 6대 음택혈의 하나인 '반디기왓'인데, 이 곳에 선조의 묘를 써서 발복한 가문이 '반디기왓'에서 이어진 맥을 그대로 받은 '옷귀'에 집터를 잡았다고 한다. 집 앞을 흐르는 하천이 반대편에서 물이 들어와 집터 양쪽으로 감싸안고 합수(合水)하여 나아가니 자손이 번창하고 이름을 크게 날릴 형국이라고 보았다.

제6혈은 애월읍 봉성리(鳳城里) 즉, 어도(於道)라고 전해지는 곳이다. 지세가 마치 봉황새가 둥지로 돌아오는 형세인 '옥봉귀소형(玉鳳歸巢形)'의 명지이다. 옥지로부터 구산(求山)차 제주에 내려온 개안(開眼)된 풍수의 신안(神眼)이 찾은 명혈지로 유명한 곳이다. 이 마을의 지명은 원래 '어도(於道)'라고 불리다가 지세에 맞지 않는 지명이라 큰 인물도 나지 않고 농민들의 생활도 힘들며 병질이 끊이 없어 마을의 이름을 개명하자는 데 전 향원(鄉員)이 동의하여 주민총회(住民總會)를 거치게 되었고 현재의 봉성(鳳城)으로 이명(里名)이 바뀐 것이다. 지형 지세에 맞는 마을 이름을 가져야 이웃마을에 뒤지지 않고 발전한다는 풍수적 믿음을 확신하게 된 것이다. 그것은 마을의 후봉(後峰)인 어도오름이 봉황새의 형국과 같고 또 성(城)처럼 마을을 굳게 호위하듯 둘러쳐 있으므로 봉성(鳳城)이란 이름으로 개명하였다. '옥봉귀소형(玉鳳歸巢形)'의 지맥을 탄 이 오름 아래에 집을 짓고 살면 15대 이상 자손이 발복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으며 봉성리의 진산(鎭山)인 어도오름은 마을을 서북풍으로부터 막아 주고 있어서 포근한 지세를 자랑하고 있다.

금장지(禁場地)에 표출된 공동체적 의식

금장 문화

예로부터 금계(禁誡)라고도 할 수 있는 금장지는 일정한 장소에 장사를 금하는 금장신앙(禁葬信仰)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것은 일정한 지역에 입장을 금하는 원칙으로 만약 금장을 어겼을 경우 그 자손들이 재앙을 입게 된다는 것이다. 예로부터 금장을 지키지 않으면 자손들이 졸지에 병에 걸리거나 가뭄으로 인한 한재(旱災), 흉작(凶作), 수재(水災), 풍재(風災), 화재(火災), 파산(破産), 패가망신(敗家亡身) 등을 당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사실 ‘금장지’라고 하는 것은 ‘금장지’ 자체가 지맥이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대부분 명당지(明堂地)이다. 이것은 이미 그 명지에 타인의 묘(墓)가 들어서 있는데 함부로 손을 대거나 훼손하게 되면 고인의 존엄성을 모독하게 되는 것이고 그들 자손의 발복을 방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마을로 내려오는 지맥의 혈에다 묘를 쓰면 개인은 발복하나 오히려 마을의 안녕을 깨고 원인 모를 재앙을 마을에 안겨준다고 믿어 금장신앙이 생겼으며 제주는 물론이고 육지에서도 금장신앙의 관념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

제주에서는 특히 마을을 보호하는 맥(脈)이 내려온 곳을 금장지로 정했고, 이미 뿔자리로 터를 잡은 타인의 묘(墓)는 함부로 훼손하거나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윤리 의식이었으며 일정한 구역 내에 묘를 쓰면 안 되는 것이었다. 이것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망자의 존엄성을 모독하거나 자손의 번성을 방해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조선시대 『경국대전(經國大典)』에도 금장을 법으로 정하여 다스렸다는 내용이 있다. 예전(禮典)편을 보면, 일정한 거리 안에서는 장을 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전(刑典)편에는 금장(禁葬)을 위반한 자에게 가하는 벌칙 규정까지 있다.

제주에서는 마을의 맥이 앞산에 있어서 만약 그 맥을 뿔자리로 사용하게 되면 그 마을이 천지신명의 노여움을 사게 되어 마을 전체가 화를 입는다고 믿어 금장지로 정해놓은 곳이 몇 군데 있다. 이것은 개인의 영달과 번영보다는 공동의 개념인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우선시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풍수신앙이 생활 속에서 받아들여지던 고려(高麗)나 조선조(朝鮮朝)에 나온 하나의 금장신앙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묘지 풍수를 중심으로 한 생활 의식이 처세적인 관념으로 구체적으로 표출된 예로 볼 수 있다. 사실 풍수의 목적이 지맥을 통하여 흐르는 생기(生氣)를 받아 그 복력(福力)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므로 양택과 음택을 막론하고 살아 있는 지기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이나 가문, 더 나아가 마을 사람들이 받아야 할 생기를 어떤 대상이 방해하거나 가로채는 것을 좋아할 리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출발한 것이 금장신앙이라고 볼 수 있다.

제주의 금장지

제주에서 금장지로 불리는 곳은 제주시에 소재한 별도봉의 명당지, 남제주군 안덕면 사계리에 있는 투구형(套鉤形)의 산방산이 대표적이다. 또한 마라도와 가파도는 ‘척후병형(賊候兵形)’, 제주 휴양소 뒤편에 있는 북진이모루는 ‘복병형(伏兵形)’으로 늘 중국을 넘나보는 형국이다. 예로부터 왕이 태어날 왕후지(王侯之地)였던 군산(軍山)은 중국에서 지맥을 끊으러 파견 나온 호종단에 의해 맥이 끊겼다는 전설이 있다. 서귀포시와 안덕면의 경계선이며 안덕면 창천리에 위치하여 마치 산의 형상이 진을 친 듯한 군막형(軍幕形)의 군산은 산정의 봉우리 1,000평이 ‘재앙지(災殃地)’라고 하는 전설이 전해 내려온다. 마치 멀리서 보면 동쪽과 서쪽으로 유두(乳頭)처럼 커다란 암석 두 개가 우뚝 버티고 서 있어서 풍수의 형기론(形氣論)으로 관망하면 이 곳은 마치 두 선인이 밝은 달을 바라보는 형국인 ‘쌍선망월형(雙仙望月形)’의 명당이 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곳을 입장(入葬)을 금하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다.

‘산담’에 표출된 생사일여관(生死一如觀)

육지의 묘(墓)와 달리 제주도는 묘 주위에 담을 친다. 일반적으로 제주의 오름은 분화구 안쪽 또는 오름의 사면에서 묘지군(墓地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특히 묘지의 담장인 산담은 음택 풍수에서 제주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다. 여기에는 풍수적으로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본다.

그 첫 번째로 제주도는 땅 속에 석질이 많은 관계로 토질이 얇아 대개 땅의 기운이 지표면에 가까이 흐르는 뜬 혈로 이루어져 천광을 깊게 파지 않는 것이 특색이다. 이것은 배토장(培土葬)의 형식이 가미된 장법(葬法)을 어느 정도 취용한 흔적으로 보인다. 제주도의 묘지는 혈장을 보호하는 선익(蟬翼)이나 용호(龍虎)의 형성이 육지의 산형과는 달리 자연적으로 형성된 곳이 많지 않으므로 혈에 모인 기운이 팔요풍(八曜風), 즉 바람에 노출되어 흩어지지 않도록 허한 곳을 보완하기 위한 비보(裨補)의 방법으로 산담을 쌓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일반적으로 산담의 크기와 높이로 집안의 지위를 은연중 나타내거나 목축으로 인한 우마(牛馬)의 침입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도 볼 수도 있으나 풍수학적 견해로 볼 때 제주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지형과 지세에 기인한 제주 선인들의 자연관과 지혜가 아닐까 생각한다.

두 번째로는 관념적인 형태로 효의 정신에서 출발한 생사일여관(生死一如觀)을 들 수 있다. 먼저 산담의 형태는 사각형과 원형이 있는데 대부분 사다리꼴로 된 사각형의 산담이다. 산담은 제주 상례 절차의 하나이며, 장례 당일날 행하기도 하고 장례를 치르고 난 후 다른 날 길일을 택일하여 행하기도 한다. 산담의 목적은 묘지의 영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묘역의 넓이와 산담의 크기로 집안의 세를 나타내기도 했으며, 별초 때에는 산담 안과 산담 밖의 1m 정도의 외곽도 함께 별초한다. 산담의 한 모퉁이에 절개된 곳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신문(神門)'이라 하여, 망자가 산담 밖으로 외출을 하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이를테면 묘는 망자의 집이요, 신문은 망자가 출입하는 문이요, 산담은 망자가 머무는 집의 울타리에 비교되는 것이다. 이것은 특히 제주민들이 조상에 대한 효 사상에서 기인했다고 보며, 산자와 죽은 자를 동일한 인격체로 생각한 것으로 본다. 결국 이것은 산 것과 죽은 것을 분리하지 않는 개념일 수 있다. 살고 죽는 일은 우주 순환의 일정한 반복이며 순리이다. 살아 땅 위에서 생활하는 것과 죽어 땅 아래서 휴식하는 일은 별개의 일이 아니라는 하나의 통일된 과정으로 생각한 생사일여관이 제주민들의 의식 속에 자리잡고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오름에 묻히려는 귀소본능(歸巢本能) 의식

제주의 오름은 제주민에게 있어서 삶의 젖줄이며 큰 의지처이다. 섬 특유의 기후와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오름은 그들을 거센 바람과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정신적인 위안과 해탈을 안겨주는 등지이자 보금자리이다. 오름을 진산(鎭山)으로 삼아 마을 대부분이 오름을 뒤에 의지한 채 들어서 있다. 팔방(八方)에서 불어오는 살풍(殺風)을 안정시키고 섬 특유의 허한 지세를 보완해 주는 작용을 한다.

오랜 질곡의 역사를 살아오면서 오름은 늘 제주민에게 희망의 대상이자 삶의 매개체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오름과 오름 사이로 사계절이 오가는 중에 오름은 안정과 위안을 형성해주는 삶의 등불이었다. 들녘에 점점이 배치되어 입체적 원망성을 제공해 주는 오름은 그 자체로 심미의 대상이며 예술품이다. 입체적 공간미와 원근의 극치를 안겨주는 오름은 그들에게 이상향처럼 다가왔다. 오름의 자락과 오름의 등성이에는 제주민의 삶이 농축되어 있으며 선조들의 땀과 해학이 오름마다 절절히 배어 있다. 오름의 자양분을 먹고 오름의 품에 삶의 고단함을 풀어 놓으며 삶의 의지를 불태워 왔다. 오름 그 자체가 제주민들에게는 생활의 터전이었으며 몸과 수족에 비유되었으니 목숨이 다해 흙으로 돌아갈 때도 역시 그 오름의 품에 묻히기를 희구하였던 것이다. 오름은 마을에 기운을 모아 주고 허한 부분을 막아 마을의 안녕과 행복을 도모해 주기도 하지만 한라산으로부터 출맥(出脈)한 지기(地氣)가 잘 모이는 오름의 곳곳에 뼈를 묻는 망자의 고향이기도 했다. 양택과 음택을 막론하고 오름은 방위에 따라 현무(玄武)인

후산(後山)이 되기도 하고 혹은 안산(案山)이 되기도 하며 청룡과 백호가 되기도 한다. 그만큼 제주 풍수에 있어서 오름은 제주 풍수를 이루는 일등 공신이 된다.

이처럼 제주민들에게는 ‘오름에서 나서 오름으로 돌아간다.’라는 의식이 저변에 자리잡은 것이다. 그것은 마치 본래 살았던 서식처나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다시 원래의 그곳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본성을 말하는데, 이것을 귀소본능(歸巢本能), 혹은 회귀본능(回歸本能)이라고도 한다. 기타 동물이나 어류(魚類)가 원래 살았던 집의 방향을 알고 돌아오는 성질을 귀소성(歸巢性)이라고 하며,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인 아닌 본능적인 행동이라는 점에서 귀소본능(歸巢本能)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사실 풍수는 인간과 대자연과의 조화를 꾀하는 학문이다. 자연의 이치에 맞추어 삶을 지향하는 음양의 순리론(順理論)이다. 인간을 비롯하여 살아 있는 모든 생명체는 천지 대자연의 품속에서 생장 소멸한다. 땅은 순환하는 인체의 기혈처럼 그대로 살아 움직이는 하나의 큰 생명체이다. 오랜 옛날부터 현재까지 제주민은 대자연이며 지모(地母)인 한라산과 오름의 품 안에서 순환을 거듭하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제주민의 풍수관은 결코 부귀발복(富貴發福)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을 하나로 보는 사상이다. 물론 개인의 허욕을 위해 혈을 찾으려면 찾기도 힘든 것이다. 오름이 몸살을 앓으면 제주민도 더불어 몸살이 나는 것이다. 제주민은 오름을 동일한 인격체로 보았으며 대지모(大地母) 사상을 위주로 하여 한라산을 낳아 길러 준 어머니로 보았다. 그 품안인 오름을 사이에 두고 살고 있는 인간을 자식으로 간주하여 애지중지한 것이다. 제주민은 오름에서 태어나 결국 오름으로 돌아간다. 오름의 따스한 품을 잃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것이다. 그것은 곧 오름이 파괴될 때 우리도 함께 절멸(絶滅)한다는 이치와 통한다. 그러므로 태어나 돌아가 마지막 누울 자리는 바로 오름인 것이며 제주민의 마음속에 영원한 귀소본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5 맥(脈)과 관련한 단혈(斷穴) 전설

풍수에서 명당이란 산천의 좋은 기운이 모이는 땅이다. 명당이 많은 곳에는 단혈(斷穴)에 관한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다. 명당은 지리적 조건에 의하지만 압승(壓勝)이나 단혈은 길흉화복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제주의 산천에 대해 풍수학적으로 구전되어온 전설이 많다. 특히 그것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내용의 주류는 제주의 지리가 매우 뛰어나 지맥에 힘이 있고 당당하여 도처에 생혈(生穴)이 맺히는 명당이 많아 장차 왕후장상(王侯將相)이 될 출중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 땅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우려하여 땅의 기운이 흐르는 맥(脈)을 미리 끊어서 인재가 나오지 못하게 하려는 '단혈'에 관한 이야기이다. 한라산을 정점으로 지세가 좋다고 알려졌으니 명당과 관련하여 단혈에 대한 전설이 많은 것도 이유 중의 하나이다.

특히 제주에는 호종단과 관련된 전설이 많은데, 호종단은 제주의 지맥을 잘랐다는 중국의 지관을 말한다. 이야기의 핵심은 중국 송나라의 황제가 풍수지리서를 살피다가 탐라국의 지세가 보통이 아님을 간파하고 후에 중국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에 단혈에 능한 호종단을 탐라국으로 급파한다는 것이다. 제주에 도착한 호종단은 제주도 동쪽 종달리(終達里)에 도착하여 차례대로 혈을 뜨며 지맥을 끊어 갔는데, 한라산신의 방해로 모든 혈을 다 뜨지는 못하고 귀로에 올랐다가 한경면 고산리 차귀도에서 풍랑을 만나 바다에 수장되었다고 전한다. 비록 호종단이 제주의 혈을 다 뜨지는 못했지만 이로 인하여 제주에는 큰 인물이 나오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 전설의 주요 내용이다.

내용으로 볼 때, 중국인 풍수사가 제주에 내려와 뛰어난 인물이 나오지 못하도록 맥을 끊었다는 호종단의 풍수전설은 일반적으로 조선 초 명나라의 풍수사 서사호(徐師昊)가 단천(端川)에 황제의 기운이 서려 있다 하여 지맥을 끊었다는 전설과 임진왜란 당시 중국 명나라의 장수 이여송(李如宋)이 조선땅 곳곳의 맥을 잘랐다는 전설보다도 몇백 년이나 앞선 12세기 초의 일인 것이다. 탐라국이었던 제주도는 원래 독립국이었는데 고려 왕조가 탐라국을 고려로 복속시키는 과정에서 일어난 풍수 침략이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사실 전설 속에 나오는 호종단은 중국인임이 확실하나 지맥을 끊어 인물이 나오지 않게 한 풍수 침략의 주체가 중국이 아니라 고려 왕조라고 보는 맥락도 의미 있는 추론이다. 고려사에 자주 등장하는 호종단은 중국 송나라의 복주(福州) 사람으로서 일찍이 중국 태학(太學)에 들어가 상사생(上舍生)이 되었으며 상선(商船)을 따라 고려에 들어왔다고 한다. 호종단은 비보진압술(裨補鎮壓術)의 하나인 압승술(壓勝術)에 뛰어나 예종의 깊은 총애를 받았다고 한다. 나중에 예종이 죽고 나자 고려사의 사관(史官)은 예종이 지나치게 호종단의 풍수설에 빠졌다고 비판했다고 한다. 예종(睿宗)에 이어 인종(仁宗) 때도 호종단은 '기거사인(起居舍人)'의 직책으로 왕의 측근에서 활동했다고 전해진다. 그 후로 고려사에는 호종단의 활동에 대해 전혀 언급이 되지 않고 있다. 호종단과 제주에 대한 관계는 다음의 전설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호종단(胡宗旦)의 지압설(地壓說)

일설에 의하면, 고려 제16대 예종(睿宗)때 중국 송(宋)나라의 황제가 지리서를 살피다가 당시 탐라국의 지리가 보통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형국의 기운이 생동하며 맥(脈)의 기세가 힘차고 당당하여 장차 이 지기(地氣)를 받게 된다면 나라를 이끌 왕은 물론 걸출한 인재들이 끊임없이 나올 것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송나라 왕은 후환이 두려운 나머지 풍

수와 잡예(雜藝)에 조예가 깊고 특히 압승술(壓勝術), 즉 단혈(斷穴)에 뛰어난 복주(福州) 사람 호종단(구전으로는 고종달(高宗杓)로 통함)으로 하여금 탐라국으로 들어가서 인재가 나올 만한 땅의 맥을 모두 끊어버리도록 지시하였다. 호종단은 왕의 명을 받고 제주의 들어오자마자 즉시 갖고 온 지리서(地理書)를 바탕으로 명당의 생혈(生穴)을 찾아 동쪽으로부터 서쪽을 향해 땅의 맥을 차례로 끊어나갔다. 찾은 맥의 생혈에 침을 꽂아 가면서 땅기운이 흐르지 못하게 산천의 정기를 하나하나 제압해 나갔다. 일설에 의하면 동쪽은 지금의 구좌읍(舊左畝) 종달리(終達里)로 추정된다.

호종단이 홍로(洪爐)지경에 이르자, 지리서에 적힌 대로 물 기운이 빼어난 ‘꼬부랑 나무 아래 행기물’이란 지맥을 찾으려고 그 주위를 수없이 오가며 돌아다니고 있을 즈음 마침 그 주변에서 어떤 농부가 밭을 갈고 있었다. 이 때 백발이 성성한 한 노인이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혈레벌떡 달려와서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도움을 청하길 “저 곳에 있는 물 한 그릇만 떠다가 소길마(소의 짐바구니) 아래 놓아주십시오. 그리고 누가 와서 뭐라고 물어보아도 절대로 모른다고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라고 말하고는 이내 사라져 버렸다.

농부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노인의 다급하고도 간곡한 사정에 자신의 점심 그릇인 행기(늦그릇)에 샘물을 가득히 담아 부탁한 대로 해 놓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침내 지리서를 펴든 호종단이 밭을 갈고 있는 농부에게 다가와 ‘꼬부랑 나무 아래 행기물’이 어디냐고 묻자, 농부는 조금 전 노인의 애절한 부탁도 있고 해서 처음 듣는 지명이라고 말했다. 호종단은 “그렇리가 없는데 ….”라고 하며 한참 동안 지리서를 몇 번이고 검토하더니 고개를 가웃거리다가 그 주위를 몇 번이고 다시 살펴보고는 그대로 돌아갔다. 순간 샘물을 떠다 놓은 그릇에서 그 백발노인이 나와 농부에게 몇 번이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다시 기운을 차린 모습으로 사라져 버렸다. 그 백발노인이 바로 수신(水神)이었던 것이며 지리서에 나타난 ‘꼬부랑 나무 아래 행기물’이란 맥은 바로 소길마 밑에 놓여진 물그릇이었던 것이다. 수신은 가까스로 밭가는 농부의 도움을 받아 살아나게 되니 호종단은 결국 홍리 지경의 지맥을 끊지 못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호종단은 이 지역에서 비록 ‘단혈’에는 실패하였지만 계속하여 서쪽으로 나가면서 곳곳의 지맥을 끊어 나가다가 산방산 부근인 지금의 안덕면(安德面) 사계리(沙溪里) 지경에 이르렀다. 이 곳의 지맥은 지리서에 장차 왕이 태어날 왕후지지(王侯之地)로 되어 있었다. 호종단이 둘러보니 그곳은 바로 용머리였다. 이에 호종단은 가차없이 용의 잔등을 끊어버렸다. 그 끊은 자리에서 붉은 선혈이 솟아나자 그는 더욱 힘을 내어 용의 잔등을 토막토막 끊어 나갔다. 이윽고 살아 움직이는 사람의 잔등같이 한참 동안이나 꿈틀거리던 땅이 신음 소리를 내다가 그치자 그 잔등에서 흘러나온 피가 주변을 붉게 물들였고 이로 인해서 결국 탐라에는 나라를 이끌 왕도, 어떤 용감한 장수도, 출중한 학자나 인재도 나오지 못했다고 한다. 그렇게 인물이 나올 지맥을 거의 다 끊어버리고 송나라를 향해 귀로(歸路)에 올랐던 호종단은 지금의 한경면 고산리 차귀섬 부근에서 한라산신의 노여움을 받아 결국 태풍을 만나게 되어 바다 속에 수장되고 말았다. 이를 두고, 탐라의 수호신이 독수리로 화(化)하여 호종단의 횡포에 보복한 것이라고 전한다. 그래서 후세 사람이 영렬(英烈)함을 숭경(崇敬)하여 차귀당(遮歸堂)을 건립하고 제사를 올려 호종단이 ‘돌아감을 막다’라는 한자어인 ‘차귀(遮歸)’를 붙여 ‘차귀도’라고 붙였다고 한다.

이상의 내용은 구전되고 있는 호종단의 ‘단혈’에 관한 전설이다. 내용 중에서 홍로(洪爐) 지경은 지금의 서귀포시 서홍동(西洪洞)으로, 그 곳 샘물의 이름이 지장천(智藏泉)으로 알려져 있다. 형상이 용머리라 불리는 곳에는 지금도 마치 잔등과 꼬리가 잘린 듯한 형상의 지형이 남

아 있다.

제주도는 지질의 특성상 샘이 드물 뿐 아니라 예로부터 물을 위주로 경작하는 논이 귀하였다. 때문에 제주민들은 언제나 물이 부족해 식수난(食水難)을 겪어야 했다. 풍수에서 땅과 물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이므로 수맥은 곧 땅의 기운과 연결된다. 물이 흐르지 않거나 수맥이 끊기면 땅에 살아 있는 기운이 흐르지 않는데, 물은 기(氣)의 경계이며 동시에 기혈(氣血)과 핏줄의 역할을 한다. 산이 가는 곳은 물이 흐르고, 물이 흐르는 곳은 산이 따른다. 산과 물이 어울려 조화를 이룰 때 땅은 곧 생명의 땅으로 탈바꿈한다. 지리적 환경은 곧 물의 어려움을 수반하였기 때문에 주식(主食)은 대체적으로 조나 보리 혹은 감자 등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만큼 쌀이 귀하여 당시에는 쌀밥을 구경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여기에 덧붙여 탐관오리들의 득세와 외세의 침탈은 제주민들의 민생고를 더욱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척박한 조건에서 삶을 영위했던 제주민들이기에 그들이 바라보는 현실관은 제주도가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절해고도(絶海孤島)의 섬이라는 한계 인식으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지리적 특수성 외에 풍토적인 상황과 역사적 불모성조차도 제주민의 의식 속에 자리잡아 스스로를 안위하고 스스로에게 형상화 내지는 상징화의 산물로 그들만의 독특한 관념을 만들어 내었다. 이러한 의식은 풍토적인 지리사상과 관련되어 숙성되었는데, 그 중 자연전설의 대표적인 것들이 ‘호종단(胡宗坦)형 전설’을 위시하여 ‘성산 일출봉 전설’, ‘아흔 아홉골 전설’ 등이다.

여기에서 풍수전설의 주류를 이루는 호종단(고종달)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짚어보도록 하자. ‘호종단(고종달) 전설’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설마다 시대적 차이가 있는데 중국 송나라 왕 혹은 진시황은 제주가 왕후지지임을 알고 후환이 있을까봐 걱정을 한다. 먼저 걸출한 인걸들이 나지 못하도록 급히 ‘압승’과 ‘단혈’에 능한 풍수사 호종단(고종달)을 탐라국(제주)에 파견한다. 호종단은 제주에 들어와서 동쪽부터 서쪽을 향해 뛰어난 인물이 나올 왕기(王氣)가 서린 여러 곳의 지맥과 수맥을 끊어 버렸는데 그 결과 제주에는 출중한 인물도 나지 않게 되고, 지맥을 이어주는 샘도 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 중심적인 이야기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한 ‘호종단(고종달) 전설’은 제주도 전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전설로 파생되어 구전으로 유포되어 왔다.

이상의 전설에서 의미하듯 풍수학적으로 지맥(地脈)을 끊으려 한 ‘호종단의 이야기’를 통해 그 당시 풍수지리적인 측면에서 산천의 땅과 물을 사람의 몸에 기혈(氣血)이 순환하는 이치와 동일시하여 중시한 선조들의 자연관을 엿볼 수 있다. 사람이 사는 고장에 물의 흐름이 원활하게 흐르거나 솟지 못하면 생기(生氣)가 맺히지 못하는 땅의 조건임을 암시한 풍수관이 깔려 있으며 물이 귀했던 당시의 생활관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전설이기도 하다. 또 제주에 널리 전해져오는 대다수의 풍수전설이 불모적인 제주의 역사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 전설의 이면에는 제주인 특유의 민중의식도 더불어 찾아볼 수 있다.

샘과 관련한 풍수 전설

물·바람·땅의 조화 추구

예로부터 물과 산의 조화를 치산치수(治山治水)의 큰 덕목으로 내세워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으로 삼았다. 그것은 하늘과 땅의 이치를 따라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동일한 생명체로 보는 ‘자연생명관’이라 할 수 있다.

산에서 발하는 생동하는 기운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용맥(龍脈)을 타고 내려간다. 힘차게 흘러 가다가 물을 만나면 멈추게 되어 기운의 경계를 이루게 된다. 바로 이러한 지점이 곧 양

택의 좋은 길지가 되거나 돌아가신 부모와 조상을 모시는 명당이 되는 것이다. 『지리오결(地理五訣)』에서 물은 산의 혈맥에 비유되어 사람을 이롭게 하거나 사람을 해롭게 하는 귀신과 같다고 했다. 지기(地氣)는 고저기복(高低起伏)의 변화를 거듭해야 생기가 발현하는데 기운이 그치는 곳은 반드시 물의 경계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호순신(胡舜申)의 『지리신법(地理新法)』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산은 본래 그 성질이 고요하여 음에 속하고, 물의 성질은 움직이므로 양에 속한다. 음은 본체를 담당하고, 양은 변화를 주관한다. 그러므로 길흉화복은 물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대개, 산은 사람의 형체와 같고, 물은 사람의 혈맥과 같다. 사람은 형체를 지니고 있는데 나서 자라고 융성하고 쇠함은 모두 혈맥에 의한다. 이 혈맥이 몸 사이를 순조롭게 순환하여 일정한 주기로 벗어남이 없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건강하고 또 강할 것이고, 일정한 주기를 거슬러 그 절도를 잃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병에 걸려 죽을 것이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로서 바꿀 수 없는 길이다. 그러므로 이 법은 반드시 물이 오고 감이 산과 더불어 어울림이 있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좋은 땅이 이루어진다 ….

…山靜物而屬陰，水動物而屬陽。陰道體常，陽主變化。故，吉凶禍福見於水者尤甚。蓋，山如人之形體，水如人之血脈。人有形體，生長枯榮，一資於血脈，血脈周流於一身之間，厥有度數順而不差，則其人必康且強，逆而失節，則其人必病且亡矣。此自然之理，不易之道也。故，是法必浴水之來去與山合，然後爲吉….

풍수의 고전으로 읽히는 『금낭경(錦囊經)』에도 ‘기가 바람을 타면 흩어지고, 물에 이르면 머문다(氣乘風則散，界水則止).’라고 했다. 물은 지구상의 모든 생태계를 유지하는 절대적인 기운이다. 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존재 그 자체이며 생물체와는 절대적인 관계이다. 인간의 몸은 약 70% 정도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식물을 포함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물은 생태계에 있어서 너무 지나쳐도 안 되지만 너무 모자라도 안 된다. 풍수학에서 양택의 좋은 집터나 음택의 좋은 명당도 물과 적당한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산이 가면 물이 따르고 물이 가면 산이 따라야 한다. 물은 기운의 경계를 짓는 곳이 된다. 산과 물이 균형을 이룬 지역은 명당을 이루나 주위에 감싸주는 산이 없이 탁 트인 큰 강이나 바닷가 가까이에서는 명당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물론 바닷가나 큰 강가에서도 명당이 얼마든지 나온다. 그것은 주변에 좋은 산이 있어서 물의 기운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걸러주는 역할이 있기 때문이다. 풍수의 고전인 『금낭경』에서 “풍수의 법은 물을 얻는 것이 으뜸이고, 바람을 감추는 것은 그 다음이다(風水之法，得水爲上，藏風次之).”라고 했다.

따라서 물과 관련한 제주의 풍수전설은 지맥과 혈에 관한 것이다. 그만큼 물은 지맥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제주도의 풍수 전설에서 지맥을 끊으려 한 호종단의 이야기는 그 당시 풍수 지리적인 측면에서 사람이 사는 고장에 물이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면 생기가 맺히지 못하는 땅의 조건을 암시하는 물과 관련된 전설이다.

『명산론(明山論)』에 산과 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 산과 물이란 음양을 일컫는다. 산과 물이 서로 어울리면, 음양이 조화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면 기운이 가득 찬다. 산과 물이 모이면, 음양이 만나고, 음양이 이루어지면 생기가 되는데 소위 말하는 길지(吉地)이다.

… 山水者, 陰陽之謂也. 山水相稱, 則爲陰陽和, 和則爲沖氣. 山水聚集, 則爲陰陽會, 會則爲生氣, 所謂吉也.

제주의 풍수 전설에 물에 관한 전설이 있는데, 거سن새미와 노단새미의 전설이 대표적이다. 그 내용을 대략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거سن새미와 노단새미

옛날 제주도에 날개 돋은 장수가 태어났다. 이 소문이 점점 퍼지기 시작하여 마침내 중국 황실(皇室)에까지 알려지자 두려운 마음에 중국에서는 제주도의 지맥을 끊기 위하여 풍수사를 급파한다. 중국으로부터 급파된 압승술의 달인인 호종단과 관련하여 수맥(水脈)을 숨긴 전설이 있는데, 그 중 잘 알려진 ‘거سن새미’와 ‘노단새미’에 얽힌 샘물의 전설이다. 이 샘물은 표선면(表善面) 토산리(兎山里)의 위아래 마을 사이에 흘러나오는 생수를 말한다. 한 줄기는 한라산 쪽으로 거슬러 흘러 ‘거سن새미’라 하고, 한 줄기는 바다 오른 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샘물이라는 뜻에서 ‘노단새미’라고 한다. 전설상에 ‘종달리’에서부터 ‘토산리’까지는 호종단(胡宗坦)이 수혈(水穴)을 모두 끊어 버렸기 때문에 생수가 솟는 곳이 없지만, 다행히 이 마을의 ‘거سن새미’와 ‘노단새미’만은 수혈(水穴)을 숨겨서 지금도 솟고 있다고 한다.

6 비보(裨補)·압승(壓勝)의 풍수관

대체로 우리나라의 풍수지리 사상이 학문적으로 체계화되고 전승되기 시작한 것은 우리나라 풍수 지리학의 전설적 원조이며 신라 말기의 고승(高僧)인 도선국사(道詵國師 : 827~898)에 의해서이다. 그는 옥룡자(玉龍子)라는 호(號)로 널리 알려진 선종(禪宗) 계통의 승려로 고려조의 도움을 정했고 ‘풍수지리설은 세상과 인간을 구제하는 이치’ 가운데 하나라는 관점으로 불교와 더불어 널리 큰 가르침을 주었다. 그 후 고려와 조선조를 지나면서 학문적으로 그 위치를 확고히 하였으며 풍수지리가 과거(科擧)의 시험과목으로 엄연히 자리하였다.

한 고을이나 부락의 지형·지세가 불길하여 기의 응집(凝集)이 부족하거나 허(虛)한 상태라 해도 이미 주거 집단의 생활 터전이 형성된 곳은 쉽게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다. 그러므로 풍수설은 좋은 길지를 다른 곳에 구해서 옮기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지형의 부족한 요인을 보충하기 위하여 지력(地力), 즉 땅힘을 보충하는 등의 비보(裨補)나 불길한 요인을 보완하기 위하여 풍수상의 흉한 기운을 인위적인 조작으로 눌러 이기는 압승(壓勝)의 방법을 발전시켰다. 다시 말해서 주변 땅의 형세가 지니고 있는 지세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보와 압승이라는 형태를 취하며 발전되어 왔다. 압승은 너무 강한 땅의 기운을 이완시켜 주는 것이다. 비보의 관념은 풍수학뿐만 아니라 고대 원시인들이 어떤 영력을 지님으로써 약한 힘을 강하게 하고자 한 차력신앙(借力信仰)이나 주부(呪符)신앙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비보·압승의 대표적인 방법은 진호(鎮護)를 위한 풍수탑(風水塔)과 보허(補虛)를 위한 조산(造山)과 방살위호(方殺衛護)를 위한 압승물(壓勝物)을 말한다. 비보 풍수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허한 곳에 인위적으로 만든 조산이나 서낭당, 선돌의 방법으로, 사람과 관련한 남근석(男根石)이나 여근석(女根石), 득수(得水)의 유무와 관련한 비보수(裨補樹), 지형의 결함을 보충하기 위한 풍수적 지명(地名)의 작명, 장승, 현판 등도 비보 풍수의 한 방법에 포함된다.

사탑비보론(寺塔裨補論)이라고도 불리는 이 비보론(裨補論)은 통일신라시대 말엽 선승인 도선대사에 의해 체계화를 이루어 발전했으며 주요 목적은 산천의 형국이 허하거나 부족한 곳에 보완하는 방법으로 절과 탑을 세워 생기가 돌고 기운이 모이는 좋은 땅으로 변화시키기 위함이다. 즉, 산천의 기운이 흩어져 달아나는 곳에 탑을 세워 기운이 새지 않고 멈추게 하여 생기를 불러들인다는 것이다. 풍수에서 말하는 명당의 조건은 주위의 형세가 풍수에서 말하는 사신사(四神砂), 즉 청룡(靑龍 : 왼쪽의 산), 백호(白虎 : 오른쪽의 산),朱雀(朱雀 : 앞쪽의 안산), 현무(玄武 : 뒤쪽의 큰 산)가 당판(堂板)을 중심으로 일정한 조건을 유지해야 한다. 예컨대, 동쪽으로는 감싸며 흐르는 물이 유유히 나가고 남쪽에는 기운이 머물게 하는 경계인 연못이 임하고, 서쪽에는 기운의 조화와 소통을 원활히 하는 큰길이 감싸듯 나가고 그리고 북쪽으로는 등을 받치듯 안정되고 어머니 품 안처럼 편안하게 보이는 높은 산이 있어야 기본적으로 명당이 된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해당 방위 쪽으로 허하게 보이면 그것을 나무나 돌 또는 여러 가지 인위적인 지형 지물로 보완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동쪽에 흐르는 물줄기가 없으면 버드나무를 아홉 그루 심는다든가, 혹은 남쪽에 연못이나 물을 얻지 못하면 오동나무 일곱 그루를 심어 대체하는데, 그러면 생기가 모이는 좋은 땅이 되므로 재난이 없이 번창하며 행복이 온다고 보는 것이다. 도선대사의 이 사탑비보론은 고려시대로부터 조선시대 후기에 이르기까지 서울과 개경 등의 한 나라의 수도를 결정하는 도읍풍수는 물론 건축물에 해당하는 집터, 사찰, 정자, 마을, 서원 등의 입지를 포함하여 인위적인 정원의 조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풍수지리적으로 지형이나 지세의 결함이 있는 곳에 인위적인 조산이나 제방을 축조하거나 숲을 조성하기도 하고 생

기가 흐르는 지맥을 차단시키거나 손상시킨 건축물 등을 헐어내기도 했는데 이것을 풍수에서는 양택 또는 양기풍수라 하는 것이다. 특히 고려시대에는 비보진압(裨補鎮壓)을 중시한 풍수로 전 국토의 명당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여기에는 불교와 호국의 두 가지 관점이 중시되어 이른바 호국적 성격을 띤 불교 풍수가 유행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고려 신종(神宗) 원년(1197년)에 설치된 '산천비보도감(山川裨補都監)'으로, 이 관청에서 그 일을 별도로 관장했다고 한다.

제주에서 비보·압승에 관한 일화를 든다면, 발복(發福)의 경쟁 심리가 작용하여 식산봉 언저리에 있는 장군석(將軍石)을 부숴 버린 전설과 옥녀산발형(玉女散髮形)에 얽힌 슬픈 전설이 있다. 또한 흉험한 기운을 안고 있다는 단산(簞山)의 주변 마을에서는 일명 '박쥐오름'쪽이 풍수적으로 허하다고 하여 마을 사람들을 침범하는 액을 막기 위해 산과 마을 중간에 4개의 '거옥대', 즉 방사탑(防邪塔)을 쌓았다고 한다. 또한 인성리 마을과 그 반대쪽에 위치한 사계리 마을에서도 방사탑을 쌓아 단산의 흉험한 기운을 막았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비보·압승(壓勝)에 관한 풍수 의식을 찾아볼 수 있다.

풍수이론 자체가 자연과 사람과의 관계를 가장 중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완벽한 조건을 갖춘 명당을 찾기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인간도 완벽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거의 없듯이 산천 지리의 좋고 나쁨을 떠나 땅의 생리에 맞추어 인위적인 보완과 이완이 필요할 뿐이다. 허실은 분명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강하면 누르고 설기(泄氣)시키며 약하면 보충하고 키우는 상대적 조화를 이루어나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다. 명당은 허실을 따져서 보완하며 만들어 가는 것이다. 천혜적으로 좋은 조건을 갖춘 명당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땅도 생리에 맞게 보완해 가면 좋은 땅이 되는 것이다.

제주의 방사탑(防邪塔)과 돌담

제주에서 비보의 형태는 돌과 관련한 방사탑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은 허한 곳을 막아 비보(裨補)하고 마을의 안녕을 지키는 수호의 역할을 하였다. 마을에서 보아 그 허(虛)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마치 산용(山龍), 즉 산 능선의 형태로 높고 낮게 쌓은 돌담이 해안을 따라 이어져 있으며, 동시에 방사탑(防邪塔)을 2~3m의 높이로 쌓아 허한 곳으로 침입하는 살풍(殺風)을 막아주고 있다. 특히 해안을 중심으로 외부에 다른 섬이나 가까이 조산과 안산이 없는 곳이면 대체로 방사탑을 위시하여 돌담을 겹겹으로 쌓아둔 곳이 많다. 돌담을 이중 삼중으로 겹겹이 친 것은 바람막이가 없는 허한 해안에서 불어닥치는 강한 해풍으로부터 살풍을 걸러주는 역할로 삼았다고 보는데, 이것은 선인들이 풍수의 지혜를 발휘한 것이라 본다.

오름은 마을의 진산(鎭山)

풍수에서 말하는 내룡(來龍)의 맥절(脈節)이 이어진 곳으로 묘지 뒤에 높게 솟은 산을 말하며, 주산(主山) 또는 후산(後山)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마을이나 묘지에는 이러한 산이 있다. 마을의 경우는 이 주산이 마을을 수호하여 준다고 하여 진산(鎭山)이라고 한다.

이중환의 『택리지(擇里志)』에 다음의 언급이 있다.

… 무릇 살 곳을 정하는 데는 첫째 지리를 으뜸으로 삼고, 그 다음 생리(生利 : 땅에서 생산되는 이익)가 좋아야 하며, 다음으로 인심이요, 다음으로 수려한 산과 물이 있어야 한다. 이

네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모자라면 좋은 땅이 아니다. 지리가 비록 좋아도 생리가 결핍되면 오래 살 수 없고, 생리가 비록 좋으나 지리가 나쁘면 역시 오래 살 수가 없으며, 지리와 생리가 모두 좋아도 인심이 나쁘면 반드시 후회할 일이 있게 되고, 가까운 곳에 즐길 만한 산수가 없으면 성정을 화창하게 흐르게 하지 못한다….

大抵，卜居之地，地理爲上，生利次之，次則人心，次則山水，四者缺一，非樂土也。地理雖佳，生利乏則，不能久居，生利雖好，地理惡，則亦不能久居，地理及生利俱好，而人心不淑，則必有悔吝，近處無山水可賞處，則無以陶瀉性情….

진산은 예로부터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기리는 마음에서 풍수적으로 허(虛)한 부분을 막아 주는 기능도 함께 했다고 본다. 풍수의 고전으로 꼽는 『장경(葬經)』에 “기가 바람을 타면 흩어진다(氣乘風則散).”고 했다. 마을을 휘감고 있는 생기가 바람을 만나면 흩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마을이 쇠퇴한다고 보는 선인들의 지혜이기도 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리의 조건은 참으로 중요하다.

또 이중환의 『택리지』에 다음의 언급이 있다.

…먼저 수구를 보고, 그 다음에 들의 형세를 보고, 다음으로 산의 형세를 살피고, 다음으로 흙의 빛깔을 보고, 다음은 물의 이치를 보고 조산과 조수를 본다. 무릇 수구가 영성하고 넓기만 한 곳은 비록 좋은 밭 일만 이랑과 넓고 큰 집 천 칸이 있다 하더라도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자연히 흩어져 사라진다. 그러므로 집터를 찾으려면 반드시 수구가 꼭 잠긴 듯하고 그 안에 들이 펼쳐진 곳을 착안한 후에 구해야 한다….

先看水口次看野勢次看山形次看土色次看水理次看朝山朝水凡水口虧處空闊處雖有良田萬頃廣廈千間不能傳世自然消散耗敗故尋相陽基必求水口關鎖內開野處着眼….

제주도는 장축이 북쪽을 기준으로 하여 동쪽으로 약 70도(度) 정도 기울어진(N70E) 달걀 모양의 타원형을 이루고 있다. 부속도서(附屬島嶼)로 유인도(有人島) 8개, 무인도(無人島) 54개로 모두 62개 섬을 거느리고 있는 섬이다. 등고선(等高線)으로 보면 1,950m인 한라산을 중심으로 동심원(同心圓)의 모양을 하고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의 거대한 산을 연상케 한다. 또한 제주도는 예로부터 바람이 많은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주거지가 해안선을 따라 바다에 가까이 인접해 있으므로 바람에 노출이 많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서남쪽 모슬포 지역이 바람이 가장 강하다. 바람은 혹독하나 계절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하며 지리적으로 태풍의 진로 선상에 있기 때문에 잦은 태풍의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러한 기후 조건 때문에 제주민은 바람의 침입이 용이해 허한 곳을 풍수적으로 보완하는 장풍(藏風)의 생활 문화가 싹텄다. 그러한 영향은 생활의 주거지인 양택, 돌담, 남동향의 묘지 등에 적용되어 나타난다.

김정(金淨)의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에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다.

…기후는 겨울이 혹 따뜻하고, 여름이 혹 서늘하나 일기 변화가 많아 바람과 공기는 따뜻한 것 같으나, 사람에게에는 매우 몹서리날 만큼 날카롭고 사람의 의식(衣食)에 알맞게 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병이 나기 쉽고, 더욱이 운무(雲霧)가 항상 음침하게 가리우고, 하늘이 맑게 개인

날이 적으므로 거기에 대하여 질풍과 괴이한 비가 솟구쳐 일어나지 않을 때가 없어서 찌는 듯이 덥고 축축하므로 숨이 막힐 듯이 답답하다. 또 땅에는 벌레들이 많음에 더욱이 파리와 모기가 심하고, 무릇 지내와 개미와 지렁이 따위의 여러 가지 우글거리는 벌레들이 겨울이 모두 지남에도 죽지 아니하여 매우 견디기 어렵다….

… 氣候 冬或溫 夏或涼 變錯無恒 風氣似暄 而着人甚尖利 人衣食難故 易於生疾 加以雲霧恒陰 黍少開霽 盲風怪雨 發作無時 蒸濕沸鬱 又地多蟲類 蠅蚊尤甚 與凡蜈蟻蚓等 諸雜蠹雷之物 皆經冬不死 甚爲難堪….

이처럼 척박했던 땅에 사계절의 기후마저 불규칙하였고 잦은 태풍과 더불어 겨울의 서북풍과 매서운 바람은 건축의 양식과 주거의 문화에까지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오름은 기(氣)의 흠어짐과 바람을 막는 장풍(藏風)의 역할과 더불어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가져다 주고 지켜 주는 진산으로 자리잡았다고 볼 수 있다.

돌과 관련한 풍수전설

대체적으로 제주도의 풍수 전설 내용은 지관(地官)과 관련한 이야기, 금장에 관한 이야기, 지형과 지맥에 관한 이야기, 묘지에 관한 이야기들이 주축을 이룬다. 돌을 쌓거나 세워서 허한 부분을 보충하는 방사(防邪)의 기능이 주된 목적이지만 때로는 주변의 험한 지형 지물에 의해 조화로운 기운을 파괴하는 살기를 감추거나 흉험한 기운을 막았던 예가 돌과 관련하여 나오는 풍수전설이 있다.

전통적으로 대개 풍수적으로 조화롭지 않은 지형에 압승과 비보의 한 형태로 사찰이나 탑, 인조산(가산), 돌무덤, 장승, 선돌, 솟대 등을 세우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다. 이것은 음택인 묘지 풍수보다는 살아 있는 사람이 주거하는 양택(집터)과 마을과 같은 집단이나 양기(陽基 : 마을, 도시) 풍수가 주축이 된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 볼 수 있다. 그 중 압승은 너무 강한 땅의 기운을 이완시켜 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서울 관악산은 대표적인 풍수의 오성체(五星體)의 분류로 볼 때 화형(火形)에 속하는 산으로 강하게 눌러오는 화기(火氣)의 살(殺)을 누르기 위해 예전에 국립중앙박물관의 현관 좌우에 해태상을 만들어 배열하였다고 하며 동시에 강한 화세(火勢)를 잠재우기 위해 관악산의 도처에 물항아리를 문었다고 한다. 또한 물형으로 서울의 형세가 학이 춤추는 형상이어서 궁궐을 지을 때 공사가 순조롭게 되기 위해서는 날개의 부분을 눌러야 축조가 가능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온다.

현재 서울의 남대문은 숭례문(崇禮門)으로 숭례문의 ‘예(禮)’자는 오행의 성정으로 ‘화(火)’에 속하여 남방이라는 의미를 안고 있으며 화형산(火形山)인 관악산의 살기(殺氣)를 누르기 위해서 종서로 썼다고 한다. 또한 서울의 동대문은 원래 이름이 흥인지문(興仁之門)인데 대개 다른 문의 이름이 세 글자로 이루어진 반면에 유독 동대문은 네 자로 쓰고 있다. 동쪽은 오행으로 목(木)을 나타내며 성정은 인(仁)이다. 지(之)자를 하나 더 추가한 것은 동쪽이 허전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 지(之)자는 풍수에서 말하는 기운이 생동하는 생룡(生龍)의 형태로서 산맥(山脈)의 굴곡을 의미하며 동시에 현(玄)자와 같이 꿈틀거리듯 힘차게 내려오는 기운의 흐름을 뜻하고 풍수에서 꺼리는 직룡(直龍)의 형태가 되면 생기가 모이지 못하고 흠어지므로 기운이 곧게 내려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밖에도 비보·압승의 역사적 이야기는 전국 곳곳에서 얼마든지 전해져 온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가산(假山)에 대해 “흙을 쌓아 인공적으로 산을 만들었으니 땅의 기운인 지기(地氣)가 설기되거나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가산에 대한 기능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다. 이처럼 가산은 산이나 지형 지물이 허하고 부족한 곳의 지세(地勢)적 결함을 보충하는 것으로 풍수에서 말하는 비보(裨補)의 형태로 생겨난 것이다. 가산은 선돌이나 장승, 돌무더기, 당산(堂山), 솟대, 탑(塔), 동수(洞藪), 당간(幢竿) 등으로 말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일련의 상징물들은 예로부터 마을을 흉년이나 재앙, 괴질이나 전염병 등 모든 재해로부터 지키고 보호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방위적으로 허한 곳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기(氣)의 균형과 조화를 꾀하여 생기가 흩어지지 않게 하였다. 산천과 관련된 비보의 방법으로는 풍수 도참설(圖讖說)을 근거로 국가의 번영과 안녕 그리고 군왕의 장생을 기원하는 의미로 사찰에 위치시키기도 했다.

마을이나 읍에 비보의 방법으로 지맥이나 수구(水口)가 허한 곳을 보충하기 위해 세우기도 했으며, 불법(佛法)을 수호하고 널리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찰의 앞이나 입구에 세워 사찰 내의 청정한 의미와 존엄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 밖에도 수렵이나 혹은 농경과 관련하여 땅의 경계표 역할을 했으며 국외로부터 들어오는 역병(疫病)이나 기타 여러 가지 불길한 일 등 재앙의 침입을 제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성문(城門)을 지키는 상징적 수호 역할을 하였다. 그런가 하면 당시 남아선호 사상과 관련하여 득남을 바라고 생활의 풍요를 기원하는 일명 기자(祈子)의 상징으로 선돌을 세우기도 했다.

지금까지 전해지는 선돌은 마을마다 안녕을 기원하고 희망을 바라는 신앙의 대상으로 신격화되기도 했는데 여기에는 제사신앙이 함께 수반되어 있다. 또한 그에 관한 특이한 전설이나 영험한 이야기 등을 지니고 있어 마을주민들에게 절대 불가침의 신성한 대상으로 보호를 받아왔다. 상황과 기능에 따라 선돌의 축조 목적을 오랜 원시사회의 정령숭배(精靈崇拜) 사상과 연결시켜 생각하는 것이 지배적인데, 이것은 선돌의 외형적인 모양이 마치 남성(男性)의 생식기(生殖器)와 비슷한 데서 연유하여 당시 고대 원시사회에서 생식기는 풍요와 다산(多産)의 상징으로 비교되었으므로 하나의 신앙의 대상물로서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의미로 선돌을 축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 후 오랜 세월이 경과하면서 선돌의 의미가 여러 가지로 의인화(擬人化) 또는 신격화되면서 기자암(祈子岩)이나 수호신(守護神) 같은 역할로 그 기능이 변질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선돌이 세워지는 장소는 대체로 평지인 마을의 어귀가 대부분이고, 곳에 따라 지리적 특성으로 간혹 구릉 위나 비탈에 세워진 것이 발견되기도 한다.

풍수의 형태로 선돌이 이용된 것은 마을에 사악한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수호하는 방사(放邪)의 기능을 지니는 한편 풍수적으로 허한 곳에 돌을 쌓아 조화로운 기운을 유지하려는 비보의 목적과 동시에 마을에 침입하는 사기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이처럼 풍수의 대표적 형태로 돌이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주의 마을 어귀나 밭의 한 가운데에 돌로 쌓은 원통형 돌탑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부정한 사기(邪氣)와 악(惡)을 막아내고 마을을 편안하게 하려는 방사(防邪)의 풍습으로서 이것을 제주에서는 방사탑(防邪塔)이라고 부른다. 육지의 마을 어귀에 있는 솟대나 장승과 같은 것에 해당된다. 또한 신흥리에는 유일하게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방사탑을 볼 수 있는데, 방사탑은 예로부터 사악한 것들을 막아주고 마을의 안녕과 복을 불러 준다고 하여 제주민에게는 속신(俗信)처럼 인식되었다.

풍수지리상으로 볼 때 서남쪽과 동북쪽은 이귀문(裏鬼門)과 귀문(鬼門)의 방위로 기운이 설기되는 방향인데 동북방은 부정과 악이 들어온다고 믿어 집 뒤편에 복숭아나무들을 심어 사악한 기운과 액을 막았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돌과 관련된 방사탑은 제주도 전체의 액을 막는 상징이 되었다. 이에 제주 사람들은 방사탑을 ‘답’ 또는 ‘거옥대’라고도 부른다.

제주는 지질 구조상 특히 돌이 많은 곳으로서 그 많은 돌을 치우고 흙이 적은 경작지를 일구고 가꾸어야 하는 제주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삶의 한 형태로 변화시킨 돌 문화를 보면서 제주민들의 자연풍수관에 대한 지혜를 엿볼 수 있다. 돌과 관련한 전설을 몇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조천석(朝天石)의 풍수전설

원래 조천관은 조천리의 옛 지명으로서 부산(釜山)과 인천(仁川)을 포함하여 3관(三館) 중의 하나로 당시 제주목(濟州牧)의 출입 항구였는데, 조천석(朝天石)은 이 선창가에 있는 아주 큰 바위를 말한다. 원래 조천관이라는 이름도 이 곳에서 유래된 것인데 배들이 정박할 때 이 바위에다 닻줄을 걸어서 매곤 하였다.

어느 때인가 중국으로부터 이름난 지관이 와서 이 곳에 있는 큰 바위를 보고서 “저 큰 바위를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감추시오. 만약에 바위를 감추지 않으면 이 곳 조천에는 성품이 불량하고 좋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어 살기 힘든 곳이 될 것이니, 이 바위를 감추게 되면 훌륭한 인물이 대대로 끊이지 않게 될 것이오.”라고 했다. 이 말을 듣고서 당시 조천면 관내에 있는 9개 리(里)의 백성들을 동원하여 성(城)을 쌓게 하였고 아울러 이 조천석을 흙으로 덮어 매우고는 크고 둥글게 높이 쌓아 올렸다. 그리고는 이 곳에 정자(亭子)를 지어 쌍벽정(雙璧亭)이라 했다가 후에 연군(戀君)의 의미를 붙여 연북정(戀北亭)이라 고쳤다. 이렇게 조천석을 감추고 그 곳에 정자를 지은 후로는 조천에서는 삼대 문학이 나왔는가 하면 현감(縣監)이나 군수(郡守)를 비롯해 높은 관직에 오른 인물이 수없이 배출되었으며, 만호(萬戶)의 큰 부자들이 줄줄이 나왔다고 한다.

이것은 풍수에서 명당의 기운이나 흉흉한 기운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차단하거나 제압하는 압승술의 한 방법으로 동네 앞이나 주변에 흉한 형상의 지형 지물이 있으면 살기가 되어 불리하니 풍수상의 흉한 기운을 인위적인 조작으로 눌러 이기는 압승의 방법을 발전시켰다.

대림 선돌에 얽힌 풍수전설

한림읍 대림리와 수원리 경계선 넓은 들에는 하나의 큰 바윗돌이 우뚝 서 있다. 원래 이 선돌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세워놓은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그 곳에 서 있는 높은 바위라고 한다. 그 형상이 마치 돌이 서 있는 모습과 같다고 하여 선돌 또는 입석(立石)이라 부르는데, 그 뿌리가 어찌나 깊은지 조금의 흔들림도 없다. 현재 대림리의 옛 명칭은 이 돌의 형상으로 인하여 ‘입석리’라 불렸다. 풍수에서 말하는 대림리의 마을 형세가 서쪽 방향이 비어있는 듯한 허한 형국이므로 풍수적 비보의 방법을 동원하여 마을의 조화로운 기운을 유지하고 좋은 기가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선돌 위에 다시 많은 돌을 올려놓아 풍수의 용어로 사(砂), 즉 지형 지물의 보안을 꾀하려고 하였다.

전설에는 수원리 쪽에서 선돌을 바라볼 때 형세가 마치 닭의 벼슬 모양이라 마을 주민들이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수원리에는 힘 센 장사들을 모아서 허한 곳을 보완하기 위해 선돌 위에 쌓은 돌들을 모두 떨어뜨려 버렸다. 이러한 사실을 대림리 사람들이 알고서 선돌 위에다 다시 돌을 올려 놓곤 했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대림리의 지세가 마치 배의 형상을 닮아 이 선돌을 이용하여 배의 돛대 역할을 삼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선돌 위에는 큰 돌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곳의 큰 돌들을 사람들이 가져가서 작은 돌들만이 남아 있다.

어느 날 이 곳을 지나던 풍수에 능한 한 지관이 대림리의 지세에 대해 한마디 농담을 남기고

는 홀연히 가 버렸다. 그의 말인 즉슨 “ 지세로 보아 이 곳 대림리는 선돌이 있는 방향으로 해서 성(城)을 쌓게 되면 마을이 흥성하겠다.”라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선돌 쪽으로 모여 들어 성을 쌓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지관 말대로 선돌이 있는 방향으로 성을 쌓자 오히려 마을이 번성하기는커녕 반대로 망해가기 시작했다. 그 곳엔 집들도 많이 있었는데 하나하나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긴 대림리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그 지관에게 속았음을 알고 쌓은 성을 모두 허물어 버렸는데 이렇게 하여 지금은 그 형태만 조금씩 남아 있을 뿐이다. 이유는 대림리의 지세가 풍수의 물형(物形)으로 배의 형상인데 배가 가는 곳에 성을 쌓아 뱃길을 막아 버린 형국이니 행주형(行舟形)의 대림리가 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유반석(儒班石)과 무반석(武班石)

풍수에서 지형(地形)·지물(地物)은 곧바로 형상으로 이어진다. 형상은 이른바 풍수에서 말하는 형기론(形氣論)을 말한다. 지형의 갖가지 형상, 강약과 미추(美醜) 내지는 고저(高低)에 따른 공간적 영향이 실로 크다 할 것이다. 지형의 형태에 따라 사람은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땅과 인간이 서로 닮아간다.’는 지인상관론(地人相關論)에서 연유한다. 사(砂)의 형태로 중시되는 바위는 힘을 상징하는데, 예로부터 동네 장사의 힘 자랑은 ‘듬들’로 하는 등 대개 힘의 생성과 소멸을 바위로 나타낸 일이 많다.

전설에 의하면 남제주군 안덕면 화순리는 동쪽 동네(동동네)와 서쪽 동네(셋동네)로 나누어졌다. 셋동네에는 힘이 센 장사들이 많이 살았고, 동동네에서는 문장에 능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고 한다. 이 곳 사람들은 동동네의 동쪽 냇가 높은 언덕에 버티고 있는 큰 바위를 유반석(儒班石)이라 하고, 셋동네의 언덕에 있는 큰 바위를 무반석(武班石)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소위 글을 했다는 동동네 사람들이 항상 셋동네 사람들에게 모든 면에서 뒤떨어졌다. 동동네 사람들은 늘 이것이 마음에 걸렸다. 나중에 연유를 알게 되었는데 두 바위에서 불빛이 새어 나오는데 유반석 바위보다 무반석 바위에서 불빛이 더 강하게 나왔다는 것이다. 불빛이란 상서로운 기운, 즉 땅의 정기가 더욱 강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래서 동동네 사람들이 공모하여 무반석을 무너뜨리게 된다. 그 후로 셋동네 사람들은 힘도 쓰지 못하고 힘쓰는 장사들은 병들거나 죽어서 결국 셋동네 사람들이 동동네 사람들에게 힘으로나 다른 면으로 당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전설이다. 유반석을 가진 셋동네 사람들이 무반석을 가진 동동네 사람들을 이겼다는 것은 선비의식을 중시한 이 지역 사람들의 내면이 잘 나타나 있는 전설이다. 또한 풍수적 입장에서 볼 때 주변의 지형지물인 사(砂)의 중요성, 지형의 입체적 균형과 조화를 중시하는 비보·압승의 풍수관을 찾아 볼 수 있다.

강초관(姜哨官)물

이 전설은 돌에 관한 풍수 전설이지만 돌과 관련한 혈(穴)에 대한 이야기이다. 혈은 인간이 태어난 모태(母胎)에 비유되며 나무에 있어서는 열매와 같다. 혈을 찾고 판별하는 일은 쉽지 않으며 아무 곳이나 혈이 맺히지 않는다. 혈(穴)의 수량 또한 그다지 많지 않으며, 혈을 찾는 일은 묘지풍수의 핵심이다. 나무로 비유하자면 열매가 맺히는 것이며, 용맥(龍脈)의 흐름으로 보면 생동하는 기운이 결실이 되는 하나의 생명체로 볼 수 있다.

북제주군(北濟州郡) 조천읍(朝天邑) 신촌리(新村里) 동수동(東水洞) 입구에 ‘강초관물’이라는 샘이 있다. 본래부터 있었던 물은 아니라 물이 나기 전에는 돌무더기로 이루어진 벌판이었다고 한다. 오래 전에 신촌리에 강초관(姜哨官)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조상의 상(喪)을 당하여

지리에 밝은 지관(地官)을 청해 구산(求山)을 다녔다 한다. 며칠째 구산을 하다가 마침 혈 자리를 하나 찾았는데 이 곳이 바로 현재 샘물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 지관은 혈점(穴点)을 골라 그 자리에 광(曠)을 파고 장(葬)을 하라고 지시했다. 그와 동시에 광을 팔 때 돌이 나오더라도 그 돌을 파 내지 말고 얇게 묻어야 된다고 단단히 주의를 주었다. 그리고 장날(葬日)에 일꾼들이 광중을 파기 시작했는데 상주(喪主)인 강초관은 잠시 일이 있어 그 순간을 지켜보지 못했다. 일꾼들이 광중을 파고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돌이 막혀 있었다. 영문을 모르는 일꾼들은 광중이 너무 얇아 막힌 돌을 파내기 시작했는데 돌은 쉽게 흔들려버렸다. 일꾼들이 막 돌을 파 올리는 순간 그 자리에서 비둘기 한 마리가 푸드득 날아가는 것이었다. 순간 그 자리에 샘물이 솟아나기 시작했는데 그 비둘기가 바로 그 용맥의 정기였던 것이다. 혈이 손상을 입었으니 더 이상 그 곳에 장사지낼 의미가 없어서 장을 치르지 않았다고 한다. 그 후 여기에서 계속 샘물이 솟아나 지금의 못이 되었다. 이 곳에 묘를 쓰려고 했던 사람이 '강초관'이었으므로, 그 샘물 이름을 '강초관물'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내용으로 볼 때, 이 곳의 혈은 깊이 않고 얇게 맺힌 배토혈(培土穴)의 한 부류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배토장은 천광(穿曠)작업을 하여 광중(曠中)을 만들지 않고 땅을 얇게 파거나 그대로 땅 위에 시신을 안장하여 그 위에 참흙을 쌓아 봉분(封墳)을 하여 배토장(培土葬)하는 것을 말한다. 배토장은 지기(地氣)가 땅 위로 뜨는 혈이 있을 때 이를 취하는 것이다. 결국 이 이야기는 땅을 잘못 건드려 혈을 다치게 한 돌과 관련한 풍수 전설이다.

7 제주 풍수의 모체(母體)인 한라산과 오름

제주 생명의 상징 한라산

제주도는 예로부터 영주(瀛洲)라 불리며 백두산을 조종산(祖宗山)으로 삼아 심원(深遠)하게 뻗어 내려온 대맥(大脈)의 귀결지(歸結地)이다. 한라산은 동쪽 우도에서 서쪽 차귀도까지 동·서의 맥이 길게 떨어져 발복이 느리면서도 감응을 받으면 복이 오래 간다고 했다. 동·서의 맥은 제주도의 최장축 라인을 형성하고 있으며 한라산의 중심 맥을 위주로 동서 방향으로 100여 개의 기생 화산(오름)이 분포하고 있다.

한라산은 제주 풍수의 모체이며 지맥을 일으키는 발원지이다. 인체에 비교한다면 하나의 살아 있는 거대한 몸체이다. 기운을 일으키는 원동력이며 제주 생명의 근원이다. 하늘에는 365일이 있고, 사람에게도 365개의 골절이 있다. 하늘에 12시가 있으니 사람에게도 12경락이 있다. 하늘에 5운 6기의 변화가 있으니 사람에게도 5장 6부가 있다. 하늘에 해와 달이 있으니 사람에게 눈과 귀가 있다. 하늘에 24절후가 있으니 사람에게도 24초(焦)가 있고, 사시(四時)의 계절이 있으며 사람에게도 사지(四肢)가 있다. 땅에 초목과 흙과 돌이 있고, 사람에게는 털과 힘줄과 뼈마디가 있다. 사람의 상반신을 천기(天氣)라 하고 사람의 하반신을 지기(地氣)라 하며 사람은 천지간(天地間)의 정기를 타고났으므로 소천지(小天地)라 한다.

자연의 원리가 인간과 그대로 부합되듯이 한라산이란 거대한 생명의 몸체는 제주의 모든 원류이자 그 자체이다. 풍수에서 땅의 이치는 곧 우리 인체가 순환하는 기혈(氣血)의 이치이다.

『명산론』에 산과 물의 호응 관계에 대한 언급이 있다.

… 산은 즉 근원이 하나이나 끝은 다르고, 물은 그 근원이 다르지만 끝은 같다. 먼저 그 근원지를 찾아야 하고, 이어서 물이 끝나는 곳을 규찰해야 한다….

… 山卽本同而末異, 水卽本異而末同. 先探其始, 續要其終….

이렇게 산과 물은 풍수지리학을 이루는 근본적인 요체이다. 산이 있으면 물이 있고, 물이 있으면 반드시 산이 있는 법이다. 그러므로 산과 물은 짝이요, 부부간의 유정한 사이가 된다. 산은 음(陰)인 아내요, 물은 양(陽)인 남편이 된다. 산과 물은 한 쌍의 음양이 되므로 산과 물이 배합되면 음양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고, 산과 물이 배합을 이루지 못하면 음양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태고(太古)로부터 이어온 제주민의 삶은 영원한 대순환의 생명체인 한라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풍수적으로 종산(宗山)인 한라산을 자연과학적인 지혜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 한라산이 품고 있는 자연 생명체의 중요성을 알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라산의 생명과 직결된 곳곳의 지맥을 파괴(破壞)의 무지로부터 막고 영원히 하나뿐인 한라산의 자연 환경을 풍수적 지혜로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풍수적 지혜를 발휘하고 있지 못한 현 시점에서 경제의 논리에만 치우쳐 개발이란 명목으로 중산간, 해안, 오름 등 어느 곳 성한 곳 없이 날이 갈수록 훼손되고 있다. 한라산이 일으키는 힘찬 지맥들이 어리석은 난개발의 그릇된 시각으로 인하여 하루가 다르게 힘을 잃어가고 있다. 제주에 있어서 풍수적 지혜란 바로 풍수관의 재정립을 통하여 한라산이란 거대한 생명체를 인체의 순환에 비교한 제주의 자연풍수관에 옮겨 제주 생명의 상

징인 한라산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일이다.

또한 인간의 신체를 지탱하고 보호하는 모든 뼈에는 뼈마디가 있고 구멍이 있는데 어떤 것은 보이고 어떤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한라산에도 만 갈래 천 갈래의 산줄기와 물이 있는데 어떤 것은 서로 얽히고 어떤 것은 안으로 뭉쳐 있으며, 또 어떤 것은 밖으로 나타나 있다.

인간의 신체에도 무수한 백해구공(百骸九空)이 있듯이 한라산에도 각기 수많은 형태의 자연적 생태 변화가 있다. 이것은 오름과 서로 얽히고 설켜 상호 대립과 통일을 이루면서 연관 작용을 하고 있다. 제주민은 한라산의 큰 품에 존재하기에 물 밖을 나가면 자연히 제주의 푸른 산과 물을 그리워한다. 정신이 황폐할 때 우리는 그 자연 속으로 여행을 하면서 몸과 마음을 위안하고 수양하는 이치와 같다. 한라산을 생명의 모체로 삼고 있는 제주도는 복된 땅이다. 그 복된 땅이라 함은 바로 한라산이 가지고 있는 영험한 지세(地勢)적 특징이며 한라산과 오름이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조화를 이루기 때문이다.

풍수의 고전인 『청오경(靑烏經)』에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다.

… 산천이 응결하여 산이 치솟고 흐르는 물이 끊어짐이 없으니 만약 두 눈이 없다면 오호! 어찌 그것을 분별하리오. 복되고 후덕한 땅은 온화하고 너그러워 공박하지 않고 사방 주위를 두루 감싸 안으니, 주객이 법도에 맞다….

… 山川融結，峙流不絕，雙眸若無，烏呼其別。福厚之地，雍容不迫，四合周顧，卞其主客….

종산(宗山)인 한라산의 역할

한라산과 오름은 본래 하나이지만 체용(體用)의 관계로 볼 때 상호 불가분의 보완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예로부터 영주산(瀛洲山), 즉 한라산은 삼신산(三神山)으로 불리며 봉래산(蓬萊山), 방장산(方丈山)과 더불어 신령한 한민족의 3대 영산(靈山)으로 여겨 왔다. 변화무쌍한 신비를 간직한 한라산에 대한 이야기와 모습, 수많은 설화와 전설은 물론 『고려사(高麗史) : 1451년(문종1년)』: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 (1530년, 중종25년)이나 작가 미상의 『영주지(瀛洲誌)』 (고려 말엽~이조초엽), 김정(金淨)(1486~1521)의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 김상헌(金尙憲)(1570~1652)의 『남사록(南統錄)』, 이건(李健)의 『제주풍토기(濟州風土記)』, 김석익(金錫翼)(1885~1956)이 새로 편성한 『탐라기년(耽羅紀年)』, 이원진(李元鎭)(1594~?)의 『탐라지(耽羅志)』, 이증(李增)(1628~1686)의 『남사일록(南統日錄)』등 기타 역사적인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는 육지에서 약 천여 리를 사이에 두고 남쪽 바다에 돌기한 국내 최대의 섬이며 동서가 약 400리, 남북이 약 200리로 지형이 둥그스름하고 길어서 마치 달걀의 형상과 같다. 한라산 맥이 높고 낮게 혹은 일어나고 엎드린 듯한 고저기복(高低起伏)이 출중하여 풍경이 아름답고 지맥이 잘 발달된 곳이다. 높이 1,950m로서 한반도에서 두 번째로 높고, 화산 폭발에 의해 이루어진 신비한 영산(靈山)이며, 산정(山頂)이 높고 빼어난 곳이다. 산 전체에 우거진 숲과 기이한 형상의 암석과 돌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 영주산(瀛洲山)이라고도 일컫는다. 이외에도 시대에 따라 한라산의 명칭은 부악(釜岳), 선산(仙山), 진산(鎭山), 여장군(女將軍), 단산(單山), 부라산(浮羅山), 원교산(圓嶠山), 무두악(無頭岳), 두무산(頭無山), 봉래산(蓬萊山), 혈망봉(穴望峰), 조선부산(朝鮮富山), 하늘산 등 무려 20여 개에 달하는 이름들이 나온다.

이에 대한 기록은 『남사록(南統錄)』에도 자세히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지지(地誌)에, 한라산은 주(州)의 남쪽 20 리에 있으니 그 한라(漢拏)라고 부르는 것은 운한(雲漢)을 끌어당길 만하다. 한 가지 두무악(頭無岳)이라고 하는 것은 봉우리마다 평평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 두무악이라고 산이 이어진 것이 하나가 아니며, 봉우리마다 모두 못이 있어 물을 담는 그릇과 같기 때문이다. 한 가지 원산(圓山)이라고 하는 것은 산의 형상이 높고 부풀고 둥글기 때문이다….

… 地誌 漢拏山在州南二十里, 其曰漢拏, 以雲漢可拏引也. 一云頭無岳, 以其峰峰皆平也. 一云豆毛岳, 以山之連絡者非一, 而峰頭皆有池, 似貯水器也, 一云圓以山形穹隆而圓也….

특히 육지의 풍광과는 달리 독특한 천연미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 제주도는 동경 126도 08분~120도 58분, 북위 33도 06분~34도 00분에 위치하여 어머니의 모태인 한라산을 중심으로 368여 개의 오름을 안은 영험한 기운이 서려 있는 섬이다. 목포까지는 약 88리요, 부산까지 약 170리 정도 떨어져 있는 제주도는 예로부터 절해고도(絶海孤島)의 타원형(橢圓形)의 섬으로 서쪽으로 중국의 상해까지 약 200리 정도 떨어져 있고, 동쪽으로는 일본 장기현(長崎縣)의 오도(五島)까지 약 100리 정도 떨어져 있는 곳으로 동해상에 있어서 지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산세는 대체로 사방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바다로 들어가고, 부락은 주로 경작 지대에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해안 지대에 많이 들어서 있다.

충암(靚庵) 김정(金淨)의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에 다음의 내용이 보인다.

한라산 절정에 올라 창망한 바다를 사면으로 둘러보며 ‘남극노인성’을 굽어보고(노인성의 크기는 셋별만 하고, 남극의 중심에 있으니 지상에 나오지 않으므로 만약 이 별을 보게 되면 장수한다는 상서로운 별이니 다만 한라산과 중국의 남악에서만 이 별을 볼 수 있다)… .

…登漢拏絕頂, 四顧滄溟俯, 觀南極老人(老星大如明星, 在天南極之軸, 不出地上, 若峴則仁壽之祥, 唯登漢拏及中原南嶽則可見此星)….

예로부터 한라산 백록담은 남극 노인성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장수하는 노인이 많다고 전해 왔다. 서양 별자리로 보면 노인성은 용골자리인 ‘카노푸스(CanPus)’라는 별로 남극 부근에서 뜨는 별을 말하는데, 한국에서는 제주도 남쪽 수평선 근처에서만 관측이 가능하다고 한다. 천체에서 노인성은 북반구의 큰개자리에 있는 시리우스 다음으로 밝은 별이다. 지름이 태양의 약 65배이고, 밝기는 태양의 약 1만 4천 배이며 거리로는 약 180광년에 위치한다고 한다. 노인성은 수성(壽星) 혹은 노성(老星)이라고도 하며, 서귀진(西歸鎭)에서도 볼 수가 있다고 했다. 지맥의 모체에 해당되는 종산인 한라산을 오름을 품에 안은 어미담으로 비교하고 한라산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분포해 있는 오름들을 새끼 병아리로 간주한다. 한라산과 오름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고, 또한 제주의 풍수는 한라산과 오름을 떼어 놓고 달리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만큼 제주의 풍수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수많은 오름들이 주요 지맥 형성의 매개체 역할을

하며 사방으로 뻗어나갔는데, 그 기본 등줄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주로 동서장축(東西長軸)을 중심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라산의 독특한 지세가 오름으로 연결되어 그 사이를 돌고 휘감으며 흐르는 주요 하천들이 생명의 핏줄기를 형성하고 동시에 지맥의 경계를 가르며 주위 사방으로 면면히 이어져 내려간다. 한라산의 역할은 제주 풍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종산의 역할이다. 먼저 간단히 종산의 의미와 역할을 살펴보기로 한다.

풍수에서는 원류가 되는 시원적(始原的)인 산을 태조산(太祖山)이라고 하는데 중국의 곤륜산(崑崙山)을 태조산으로 본다. 그 풍수적 지세가 곤륜산으로부터 이어져 왔다고는 하나 백두산은 중국의 산세를 벗어나 독창적인 지세를 구축하고 전개되므로 한반도의 시원(始原)이 되는 조산(祖山) 또는 조종산(祖宗山)으로 삼는다. 백두산을 조산으로 삼으면 백두산을 중심으로 뻗은 한반도의 명산들을 소조산(小祖山) 혹은 종산(宗山) 등으로 명칭을 부여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태조산에서 뻗어 나와 다시 맥을 형성한 산을 소조산 혹은 종산이라고 하는 것이다. 조산은 혈에서 가장 멀고 높은 산이며 나무의 뿌리와 같은 근원의 산을 지칭한다. 태조산의 형국이 힘있고 산체가 수려하면 큰 대지를 이루고,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혈을 맺게 되며, 만약 태조산이 험준하고 가파르면 중조산까지 많은 산맥을 거치며 깎이고 다듬어져 변화하는 과정이 있어야 양명한 기운이 모여 대개 멀리서 혈을 맺게 된다. 혈장(穴場)으로부터 태조산은 멀어야 좋다. 태조산의 산형은 자태가 웅장하고 위엄이 있어 보여야 하며 항상 상서로운 운무가 쌓여 있어야 상격이라 했다. 백두산은 대표적인 조산의 형상이므로 백두의 정기가 뻗어내려 한라산으로 다시 돌출한 것이다. 한라산과 백두산은 체와 용의 관계이므로 분리해서 말할 수 없다. 그 영험한 백두의 정기가 다시 종산인 한라에서 빛을 발하니 한라산이야말로 태조산에서 가장 멀리 변화의 과정을 거쳐 다시 바다를 지나 바다 가운데 신령한 기운을 일으키며 돌기한 영산(靈山)이다.

한라산의 산세(山勢)

예로부터 영주(瀛洲)라 불리는 제주의 한라산은 백두산을 조종산(祖宗山)으로 삼아 심원(深遠)하게 뻗어 내려온 대맥(大脈)의 귀결지(歸結地)이다. 그 힘솟는 지맥이 제주의 생명력을 독창적으로 만들어 내기에 한라산은 제주 풍수의 모체이며 지맥을 일으키는 발원지이다. 한라산은 동쪽 우도에서 서쪽 차귀도까지 동·서의 맥이 길게 떨어져 발복이 느리면서도 감응을 받으면 복이 오래간다고 했다. 동·서의 맥은 제주도의 최장축 라인을 형성하고 있으며 한라산의 중심맥을 중심으로 동서 방향으로 100여 개의 오름이 분포되어 있다.

제주도에 대해 이중환의 『택리지』에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다.

…마이산 서쪽과 북쪽에서 뻗은 두 지맥은 진잠과 만경에서 그치고, 그곳에서 가장 긴 것은 노령에서 세 가닥으로 갈라져 서북쪽 두 지맥이 부안·무안을 지난 다음에 흩어져서 서해 북판의 여러 섬이 되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또 긴 것은 동쪽으로 가서 담양 추월산과 광주 무등산이 되었고, 추월산과 무등산 맥이 다시 서쪽으로 내리 뻗어 영암의 월출산이 되었다. 월출산에서 다시 동쪽으로 흘러 광양 백운산에서 그쳤는데, 구불구불한 산맥이 ‘갈 지자(之字)’ 모양과 같다. 월출산의 한 맥이 남쪽으로 흐르다가 해남현 관두리를 지난 후에, 남해 북판의 여러 섬이 되었고, 바닷길 천리를 건너 제주 한라산이 되었다….

…馬耳西北二枝止鎮岑萬頃其最長者自蘆嶺分三脈西北二枝由扶安務安而散作西海中諸島其最長

者東去爲潭陽秋月山光州無等山秋月無等又西行爲靈巖月出山自月出又東行止於光陽白雲山山脈之屈曲如之字形而月出一枝別爲南行由海南縣?頭里爲南海中諸島渡海千里爲濟州漢拏山….

이처럼 제주도 한라산은 태조산인 백두에서 심원(深遠)하여 즐기치게 흘러 내려온 大脈(대맥)으로서 바다를 지나 그 힘솟는 지맥이 종산(宗山)인 한라산에서 맺혀 제주의 생명력을 독창적으로 만들어 낸다. 한라산의 품에 안긴 오름들을 중심으로 그 사이 사이로 크고 작은 하천이 기운의 경계를 짓는다. 대표적인 하천으로는 무수천(無愁川), 병문천(屏門川), 창고천(倉庫川), 금성천(錦城川), 한천(漢川), 신례천(新禮川), 옹포천(壟浦川), 연외천(淵外川), 강정천(江汀川), 효돈천(孝敦川), 천미천(川尾川) 등을 사이에 끼고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살아 꿈틀거리듯 기맥(氣脈)을 형성하며 제주의 산천 곳곳에 생태적 환경을 만들어낸다.

백두산을 조종산으로 삼고 있는 한라산은 크게 두 가지 맥으로 구분한다. 그 주요 맥은 동쪽과 서쪽으로 길게 뻗어 있는 것이 특징인데, 첫 번째 산세는 종산인 한라산을 최고봉으로 하고 동쪽으로 사라악을 중심으로 성판악에 이어지면서 즐기치게 동쪽 오름의 맥을 타고 성산일출봉까지 내달아 우도에서 맺는다. 두 번째 맥은 서쪽 영실과 남성대 위쪽에서 어승생쪽으로 나뉘어 뻗어 나갔는데 영실 쪽으로 이어진 맥은 그 중 한 갈래가 서남쪽인 산방산으로 떨어지고 또 한 갈래는 노루오름을 타고 서북쪽인 한림(翰林)과 한경(翰京) 방면으로 이어져 나갔다. 어승생 쪽으로 분기한 맥은 다시 분기하면서 산심봉(山心峰), 즉 일명 산새미오름으로 이어져 내려갔다.

제주도 지세에 대해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이 편저한 『남사록(南統錄)』에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다.

… 임자순(林子順)의 남명소승(南溟小乘)에 의하면 섬이 나라의 정남에 있어서 한라산이 그 가운데 있고, 좌우의 날개를 펴서 일자(一字)와 같이 가로 퍼져 있는데 제주 일진(一鎭)은 북쪽에 있어서 바다에 임하고 바로 두무악과 서로 대하였고 정의현은 좌익의 남쪽에 있고…

… 林子順南溟小乘，島在國之正南，而漢拏峙其中，張左右翼，如一字橫鋪，濟州一鎭在北而際海，正興頭無岳相對(頭無漢拏別名)，旌義縣在左翼之南 …

또한 제주도 풍수의 고전으로 익히 알려진 『과영주산세지(過瀛州山勢誌)』에 제주의 지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영주산, 즉 한라산은 마치 백학이나 푸른 매의 형국으로 주위 사방이 높고 마치 장군이 홀로 앉아 있는 듯하다. 머리는 서쪽으로 향하고, 꼬리는 동쪽으로 내려 조종산(祖宗山)인 백두산을 돌아보는 형국이다. 동쪽의 지세는 미인의 눈썹 같아 벼슬하지 않아도 번성하고, 서쪽 산의 형세는 창고와 같아 농사에 관한 일을 하면 크게 이룬다 했다. 남쪽의 지세는 매의 형상과 같아 날아서 먹이를 얻지 않으면 앉아서 굶는다 했다. 북쪽의 지세는 호랑이의 머리 형국으로 천리에 있는 먹이를 얻는데 성공한다.”

이 밖에도 영주완형시(瀛州斲形詩), 『제주도산록(濟州島山錄)』, 『탁옥정도식(琢玉亭圖式)』 등에서 제주도의 산세를 논하고 있다. 또한 충암의 『제주풍토록』에 영실 존자암(尊者庵)에 대한 지세를 언급하고 있으며, 청음의 『남사록』에서도 한라산의 산세에 대해 비교적 소상하게 수록하고 있다. 김치(金緻)의 『유한라산기(遊漢拏山記)』에서는 한라산의 이모저모와 영실의 존자암

(尊者庵), 특히 수행굴(修行窟)에 대한 언급이 보인다.

과영주산세지(過瀛洲山勢誌)에 나타난 지세

『과영주산세지』는 지은이가 분명하지 않지만 아마도 조선조(朝鮮朝)때 구산(求山)의 목적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임금의 뒷자리를 찾아 나섰던 어지관(御地官)이 탐라의 지리를 두루 살펴 보고 남긴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의 산세에 대해서는 풍수사(風水師)마다 보는 입장에 따라 지상(地相)이나 산세(山勢)에 대한 소견의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제주도 지관들의 입장은, 한라산은 백두산에서 발원(發源)한 조종산으로서 백두산에 대한 안산(案山)의 역할을 하는데 용세(龍勢)가 짧고 크기가 작아 장군세(將軍勢)는 아니고 다만 양생부육(養生扶育)의 수준으로 제주도는 부지런해야 번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백두산으로부터 박환(剝換)의 과정을 거치며 줄기차고도 심원하게 이어져 온 맥이 바다 건너 명산(名山)으로 다시 돌기(突起)한 것은 한라산 자체로만 보면 맥이 짧다 할 것이나 결코 그런 것만이 아니라고 본다. 왜냐하면 조종산은 태조산으로부터 멀수록 좋고 용세를 타고 많은 변화의 과정을 타고 내려왔기에 한라산은 땅기운이 용출하는 신령한 땅이라 할 수 있다. 동·서의 맥(脈)이 길기 때문에 큰 인물이 나고 안 나는 것은 세월을 안고 기다려야지 단정 하지는 못한다.

다음은 제주의 산세에 대해 『과영주산세지』에 나타난 일부 내용이다.

영주산을 본 바로는, 마치 백학이나 푸른 매와 같다. 주위 사방이 높이 바라보이고, 마치 장군이 홀로 앉은 듯하다. 머리는 서쪽으로 향하고, 꼬리는 동쪽으로 내렸다.

고개를 돌려 태조산인 백두를 돌아보는 형국이다

동쪽의 지세는 아미형을 닮아, 풍류에 의탁해도 가업을 이룬다.

서쪽의 형세는 창고와 같아 농사에 관한 일을 하면 대성한다.

남쪽의 지세는 매의 형국이니, 날아야 먹이를 먹고 앉아 있으면 굶는다.

북쪽의 지세는 호랑이 머리와 같아, 천리의 먹이를 얻는 데 성공한다….

瀛州山之所見, 若白鶴之青鷹. 周四方而高瞻, 若將軍之獨坐.

頭向西而尾東, 回顧祖而的實. 東發跡而蛾眉, 遊瑯業而成家.

西山形而倉庫, 近土業而大成. 南角勢之鷹鳥, 飛得食而坐飢.

北角勢之虎頭, 千里食之成功….

돼지와 뱀의 머리 모양이 귀하고, 금반형(쟁반형)의 형국이 귀하다. 와혈(窩穴), 검혈(鉗穴)이 불리하고, 유혈(乳穴), 돌혈(突穴)이 대길하다.

조산(祖山)을 바라보는 맥이 가장 좋고, 과협맥(過峽脈)이 그 다음이다.

豬蛇頭而爲貴, 金盤玉而爲貴. 窩鉗穴而不利, 乳突穴而大吉.

回祖脈而上吉, 過峽脈而爲次.

오름마다 오목한 분화구가 있으니, 남자는 적고 여자는 많다.

남북이 서로 배반하는 상이니, 본받고 공경하지 않으면 시비가 많다.

峰峰峰而皆凹，小男子而多女。
反相背而南北，不孝悌而哮_ㄷ。

금반(金盤)은 주옥과 같으니, 금성(金星), 토성(土星)이 가장 길이다.
혈성(穴星)이 산머리에 있으니, 모든 곳이 집이 된다.

金盤竝於珠玉，金土星而爲上。穴星在於山頭，是四海之爲家。

맥의 일어남이 일정하지 않으니 재능은 있으나 공(功)은 없다.
동쪽산이 서쪽산을 배반하니, 봉당(朋黨)하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한다.
왼쪽이 산을 향하면 우측이 배반하니, 가족과 친척이 화합하지 못한다.

脈踊躍而散齊，善手才之無功。
東背山而西背，朋黨人之不久。
左向山而右背，六親戚而不合

오름의 외형이 예쁜 아미(蛾眉)와 같아, 아첨하는 미인이 매우 많다.

山丘懾而蛾眉，蛾媚人而甚多。

사방의 기슭이 높구나. 매서운 바람이 일 년 내내 있네.
한라산 주위가 제각기 모양이 달라, 섬의 바람이 재난이 된다.
위에는 은하수가 응하고, 산골짜기의 흐름은 일정치 않다.
해와 달이 섬 가운데를 관통하니, 고난 속에 밝음이 많다.
노인성이 조림하니, 상하가 화목하고 노인을 존경한다.
삼성(參星)이 한라산에 비추니,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이 존귀하다.
팔국성(八國星)이 멀리 있으니, 어려움이 먼저 오고 뒤에 도움을 받는다.

四方角而嗟峨，烈狂風而四時。擎四面而異體，島中風而爲難。
銀河水之上應，山谷過而不均。日月貫於島中，知明多於暗事。
老人星之照對，上下睦之爲尊。參星照於擎山，三鄉府於爲尊。
八國星於遐遠，先急害而後助

산체가 오목하고 골이 깊으니, 승(僧)이 아닌 무속이 창궐한다.
동쪽의 지맥은 소가죽 같아, 사방이 우마(牛馬)로 가득하다.
서쪽의 지맥은 검(劍)이나 창과 같아, 능히 무인(武人)이 많이 난다.
남쪽의 지맥은 필봉(筆峰)이 연이어져 크고 작은 학자가 연이어 나온다.
산북의 맥은 범이나 범과 같아, 천리의 먹이도 조석(朝夕)으로 먹는다.
남북의 날개가 짧으니, 발복(發福)도 빠르지만 실패도 빠르다.

한라산은 대맥(大脈)의 끝이니 장손보다 막내가 대길한다.

岳體凹而岩谷，非僧巫而賤名。山東脈則牛皮，滿四澤而牛馬。
山西脈則劍戟，能武士之多出。山南脈則連筆，大小文而連出。
山北脈則虎豹，千里食之朝夕。南北翼而地峽，速吞福而速敗。
漢拏山則季山，每季方而大吉。

큰 바다에 돛배가 떠 있는 형상이니, 안산을 정하지 못하는구나.
흰구름 사이에 가을달 형상이니, 반드시 쌍성(雙星)에서 향(向)을 구하라.
우충혈(羽鯁穴)이 삼백이니, 만리안(萬里案)이 보이지 않는다.
모충혈(毛鯁穴)이 삼백이니, 응대함이 없으면 두렵도다.
어충혈(魚鯁穴)이 삼백이니, 물이 없으면 꺼리도다.
산봉(山峰)이 다한 산에 물이 없으면, 종손(宗孫)에서 제사가 끝난다.

大海洋一葉舟，向案處之無定。白雲間之秋月，必求向於雙星。
羽鯁穴而三百，萬里案而不見。毛鯁穴而三百，無應對之可畏。
鱗魚鯁而三百，無水澤之可忌。窮山峰之盡水，覆宗孫之絕祀。

8 제주의 풍수적 지맥(地脈)

지맥의 개념

『명산론(明山論)』에 지맥의 형성에 대한 언급이 있다.

…무릇 산을 취하는 법은 반드시 그 근본을 따져야 하는데, 근본이라는 것은 산을 말하며, 그것은 조종산이요, 부모산이며, 물을 취하는 법은 반드시 그 끝을 미루어 살펴야 하며, 물이 서로 어울리는 흐름의 크고 작음과 발원처의 가깝고 먼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그 중요한 핵심이라….

…夫取山之法必原其本，本者名山，爲之祖宗，爲之父母，取水之法必推其末，謂交流小大及發源遠近者，此其要也….

이처럼 지맥(地脈)은 조종산을 중심으로 인체의 기맥(氣脈)을 연결하듯 물과 산이 서로 어울려 곳곳에 생기를 형성하며 궁극의 지점까지 각 방향으로 수없이 이어지는 것이다.

『지리정종(地理正宗)』에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다.

땅이란 기(氣)의 체(體)이다. 기를 알고자 하면 땅의 형상으로 살필 수 있다. 땅이 형상이 있으면 바로 기가 있는 것이다.

또 『장서(葬書)』에도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다.

무릇 기(氣)란 땅속을 돌아다니는데 기(氣)가 흘러감은 바로 산맥으로 인하여 일어난다.

이처럼 생기가 흐르는 땅 속의 통로를 지맥이라고 하는데 지맥이란 본래 시각적으로 보이는 일반적인 산줄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산맥, 즉 용맥(龍脈)을 타고 땅 속으로 흘러 통하는 기(氣)의 통로를 말한다. 결코 맥이 외형적인 산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땅 속으로 유통하는 정기(精氣), 즉 에너지가 통하는 통로를 의미한다. 맥은 고저를 이루는 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평지에도 여전히 흐르고 있다. 풍수에서 보통 용신(龍身)의 지세에 따라 음양의 생기가 유동(流動)하는 것이 마치 인체의 맥락에서 기혈이 흐르는 것과 같기 때문에 생기의 운행이란 측면에서 ‘맥’이라고 한 것이다. 용맥을 타고 지기(地氣)가 힘차게 흘러 내려가려면 구불구불 좌절우곡(左折右曲)하고 일기일복(一起一伏)하면서 과협(過峽)과 박환(剝換)을 이루어야 혈이 제대로 맺힌다.

또한 맥은 인체의 혈관(血管)과 같고 용(龍)은 인체의 수족(手足)에 비유된다. 용은 시각적으로 나타나지만 땅 속으로 흐르는 맥은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고 다만 역리(易理)에 통하여 이기법(理氣法)과 형기법(形氣法)을 터득하고 산세의 형국과 지리의 성정을 살펴 직관과 고도의 심안으로 얻어지는 것이므로 관산(觀山)을 통한 많은 지리적 경험과 연구를 통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맥은 산맥에만 통하는 것이 아니고 평지에도 흐르기 때문에 지세를 입체적으로 살피고 물이 오고 가는 진퇴(進退)를 잘 관찰해야 하는 것이다.

제주 풍수의 모체(母體)는 한라산이며, 모체인 한라산과 오름은 체용(體用)의 관계이다. 사방에 산재한 오름과 관련하여 한라산의 산세를 알 수 있고 오름마다 생기를 타는 길지(吉地)와 제주민의 애환과 이상이 서려 있다. 제주의 선조들은 한라산과 오름의 상호 유기적(有機的)인 지맥을 이용하여 양택과 음택을 가리고 그들이 지향하는 삶의 안녕과 번영을 꿈꾸었다. 또한 오름은 제주인의 삶 속에 복합적인 문화를 형성하는 요인이 되었으며 오름마다 우마를 방목하며 생활의 근거로 삼았다. 지역을 구분하는 데 오름이나 물길이 이용되었고 최후의 안식처로서 제주인의 뼈를 묻는 묘역이 오름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지맥을 이어주는 용맥(龍脈)의 역할

오름은 지맥을 잇는 도체(導體)

제주인이 생각하는 오름은 대체로 경사가 급하지 않고 봉우리가 둥글게 봉긋 솟아 있는 형태의 기생화산을 지칭하며, 산체의 산록 상에서 만들어진 날낱의 분화구를 갖고 있는 소화산체(小火山體)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분화구를 갖고 있고 내용물이 화산쇄설물(火山碎屑物)로 이루어져 있으며 화산구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김정의 『제주풍토록』에서는 오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구름이 있되 모두 외따로 떨어져 우뚝하나 머리가 없이 활처럼 휘었으며 (모두 고립되어 있고, 우뚝 솟진 않았고, 또한 머리가 벗겨졌다), 돌아 감싸안은 듯한 형세는 없고, 오로지 큰 봉우리가 하늘 가운데 우뚝 솟아 시야를 가릴 뿐이다… 또 산봉우리의 정상은 반드시 오목하여 오목한 가마솥과 같고 진흙물을 이루어 고여 있는데, 봉우리마다 그러하므로 머리 없는 두 무악(頭無岳)이라 한다…

雖或有丘巒 而皆孤擲隆頽(孤而不聳, 隆而又頽), 無迴擁之勢, 唯見巨岳, 岷然當中, 岌岌而已其視…又山峰之頂, 必凹如甕, 陷成泥罅, 峰峰皆然故, 謂之頭無岳…

이처럼 오름의 독특한 이미지는 제주만의 특징이다. 풍수에서 “한치라도 높으면 산이요, 한치라도 낮으면 물이다.”라 했다. 제주 지맥을 잇는 통로는 단연 오름이다. 제주의 고지도에 나타난 지맥의 분포를 보더라도 오름의 배치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길게 뻗어나갔다. 특히 동서를 기본 축으로 가장 길게 맥이 형성되어 있다. 제주 풍수에 있어서 오름은 전기(電氣)를 통하는 도체에 비교될 수 있는데 오름의 파괴는 곧 전선의 동력이 끊어지는 것과 같다.

제주의 지맥

풍수에서 땅의 이치는 곧 우리 인체가 순환하는 기혈(氣血)의 이치이다. 명산론(明山論)에 “산은 즉 근원이 하나이나 끝은 다르고, 물은 그 근원이 다르지만 끝은 같다. 먼저 산의 근원지를 찾아야 하고, 이어서 물이 끝나는 곳을 알아야 한다.(山卽本同而末異, 水卽本異而末同. 先探其始, 續要其終)”라고 했다. 이 말의 뜻은 모든 산들은 그 시원(始原)하는 출발점이 태조산(太祖山)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 근원(출발점)이 같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태조산은 백두산이며, 중국은 곤륜산(崑崙山)을 태조산으로 삼는다. 그러나 한 곳인 태조산으로부터 시원하여 중조산(中祖山), 소조산(小祖山)을 거쳐오는 동안 용맥(龍脈)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뻗어나가게

되어 지엽(枝葉)은 다른 것이다. 물의 경우는 발원지가 모두 다르다. 그러나 그 물줄기는 궁극적으로 바다로 흘러 들어가 결국 하나가 되어 만나게 된다.

제주의 지맥은 예로부터 한라산을 종산(宗山)으로 삼아 첫 번째 맥은 동쪽의 사라악을 중심으로 성판악으로 이어져 궤팽이오름, 거문오름, 붉은오름, 소록산, 대록산, 따라비, 모지악, 영주산으로 이어져 천미천(川尾川)을 만나 일시 멈추었다가 남산봉에 이른다. 주맥(主脈)은 계속하여 은월봉, 두산봉, 지미봉, 식산봉, 소수산봉, 대수산봉을 거느리며 성산일출봉을 거쳐 우도까지 뻗어 나간다. 동쪽의 주맥인 성판악에서 우도로 이어지는 본 맥의 중심선에서 다시 좌우 두 줄기로 크게 나누어져 한 줄기는 동남쪽 남원을 수망리를 거쳐 '반득이왓'으로 흘러내리고 또 한 줄기는 동북쪽의 조천읍 교래리에 있는 조인납으로 흘러내린다.

두 번째 맥은 서쪽의 영실로 뻗어나가 그 중 한 갈래가 법정악, 녹하지오름, 왕이메를 거쳐 군산, 월라산, 산방산으로 이어진다. 또 한 갈래는 족은대비오름, 왕이메, 원물오름, 거린오름으로 이어져 지맥이 덕수 방향으로 잠시 약해졌다가 물을 만나 지세를 회복하고 산방산에 임하여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단산, 금산이오름, 송악산, 가파도, 마라도로 흘러내린다. 또 한 갈래는 한대오름, 빈네오름, 폭낭오름, 괴오름을 거쳐 어음 방면인 새별오름, 이달오름, 정물오름, 금악, 가마오름, 새신오름, 저지악 등으로 이어져 한림과 한경 방면인 고산의 당오름, 수월봉을 거쳐 차귀도로 내려간다. 다시 한 갈래는 어승생 서쪽으로 삼형제오름, 노루오름, 바리메, 노꼬메, 과오름, 알오름으로 이어져 애월 납읍, 고내 방면과 금덕, 하귀 쪽으로 내려간다. 다시 한 갈래는 어승생 서쪽 삼형제오름으로 흘러 내려 붉은오름, 천아오름, 산세미오름을 거쳐 애월 광령쪽으로 이어진다고 보는데, 남성대 위쪽 어승생 방향으로 떨어진 용세를 고려하여 서쪽은 크게 세 갈래의 지맥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지맥이 주변으로 이어 내려간다고 보는 설이 지배적이다.

제주의 지맥을 구성하는 중요한 것은 오름과 오름을 사이로 크고 작은 하천을 경계로 한라산의 용맥이 싹틔줄처럼 서로 교응하면서 산천의 조화를 이루며 이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오름을 중심으로 지맥이 연결되어 마을마다 하나의 의지처로서 마을을 호위하고 지켜주는 진산으로 삼았으며 정신적인 지주이자 살아서는 생업의 젖줄이었고 생을 마치면 돌아가 뼈를 묻을 영원의 쉼터였다. 오름은 바로 독특한 제주의 풍수관을 이룬 모체가 되었으며 오름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배어 나온 그들의 삶의 방식이자 제주만의 독특한 역사성 위에서 길들여진 절대적 가치를 중시한 풍수 신앙을 형성했다. 오름의 특성마다 제주 선조들의 지혜와 생활 철학이 농축되어 있으며 산수 방위를 이용한 제주 특유의 전통 지리관이 잘 나타나 있다.

고지도(古地圖)와 오름의 지맥

옛 지명 등 제주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는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 중 『한라장축(漢拏壯嶺)』은 1702년 당시 이형상(李衡祥, 1653~1733) 제주목사가 제주도 전역을 순력하면서 화공(畵工)을 시켜 그린 지도첩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형을 그림 형태로 나타낸 도서로서 마을의 지명과 물 흐름 등의 표기가 비교적 정확하다.

조선 중기 때의 문신 이형상 목사의 저서로는 제주도 인문지리서인 『남환박물(南宦博物)』 등이 있는데 주요내용은 제주도와 주변 도서 및 바다 등에 관한 것이다. 저자는 기존의 읍지(邑誌)와는 달리 실지를 관찰하고 사실을 설명하였다. 또한 기존의 관련 문헌을 검토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또한 제주에 관한 지도에서 『여지도(輿地圖)』 중 6책 속에 들어있는 『제주도도(濟州道圖)』는 주요 하천과 오름의 지맥들이 상세히 그려져 있는 것이 특징이며, 1698~1703년에 제작된 것으로 가로 29.2cm, 세로 19.2cm이다. 그밖에 한라산과 주요

오름들이 상세하게 그려져 있는 제주도 유형문화재 13호인 『탐라지도병서(耽羅地圖并序)』, 『제주삼읍도총지도(濟州三邑都摠地圖)』, 1428년(조선 성종 13)에 양성지(梁誠之, 1415~1482)가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제주삼읍전도(濟州三邑全圖)』 등이 있다. 제주도 지도의 시초에 관해 학자들은 1002년(고려 목종 5년)에 제주도의 화산 폭발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전공지의 작품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다. 또한 18세기 전반으로 추정되는 『조선강역총도(朝鮮疆域摠圖)』의 『제주지도(濟州地圖)』, 1800년대에 제작된 『광여도(廣輿圖)』, 김정호의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書)』, 『청구도(靑邱圖)』, 『동여도(東輿圖)』 등이 전해지고 있다. 특히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는 주요 하천과 오름의 지맥들이 상세히 그려져 있는 것이 특징이며 오늘날 제주의 지맥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9 제주의 오름과 풍수

오름에 대한 옛 제주인의 시각

제주민들은 오름의 형상에 자신들의 희망을 담아 상징화했다. 오름마다 오름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가 생생하다. 그러한 오름은 어느덧 그들이 붙여넣은 생명체가 되어 그들의 소망을 싣고 비상(飛翔)의 날갯짓을 했다. 척박했던 곳에서 온갖 질곡의 한숨을 오름의 자락에 묻으며 아픔과 한을 달랬다. 오름은 시간의 역사 속에서 늘 안식과 위안을 제공해 주었다. 오름은 저마다의 사연을 담고 있다. 그 사연 속에 그들이 살아온 발자취가 역력히 배어 있다. 그 오름들은 어머니의 포근한 품처럼 고단한 삶을 풀어 주는 의지의 대상이었다. 오름에 얽힌 술한 설화와 전설은 그들의 마음 속에 자리한 그들 자신의 피상의 존재이자 자화상이었다. 오름은 제주민에게 피안(彼岸)의 존재처럼 여겨졌으며 영원한 그들의 고향이자 안식처로 인식되었다.

설화에 나타난 오름의 인격화

오름을 중시한 자연풍수관

풍수의 근본 원리는 자연과의 조화를 통한 합일(合一)이며 심오한 자연미학(自然美學)을 담고 있는 일종의 자연과학이다. 또한 자연심미학(自然審美學)이라 말할 수 있고 유무(有無)의 형상을 음양 이론으로 담아내고 있으며 산천 대지와와의 입체적 조감을 통하여 자연과의 통일을 꾀하는 학문이다. 제주민들의 오름을 통한 생활의 조화와 통일은 제주의 환경에 어울리는 제주적인 '자연풍수관'에서 출발하였다.

오름에서 나와 오름으로 돌아가는 제주민들은 오름의 자락을 일구며 농업의 기반을 구축하였고, 오름에 방목한 우마를 식용으로도 이용하며, 그들이 배설한 분비물은 거름이 되어 제주민에게 생활의 젖줄이 되었다. 하늘에서 내린 비는 오름이 받아 저장하고 마을마다 생명수를 제공하였으며, 나무와 풀과 약초를 생산하여 제주민의 삶을 이어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이 제주민은 자연 생태의 소중함을 인식하여 오름을 신성시하였으며, 오름에 대한 생명관이 특이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자연 환경에 대한 선견과 소중함을 알았던 지혜의 발단이기도 하며, 오름을 동일한 인격체로 여기고 오름을 통해 삶을 연결하고자 한 제주적인 자연풍수관이 앞섰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름의 역할은 실제적으로 마을마다 넘쳐흐르는 생명력을 제공하고 있고, 계절마다 불규칙한 바람에 의해 기가 흩어지는 것을 막아주고 있다. 기의 순환을 조화롭게 하여 생태학적으로 귀중한 근간을 이루고 있는 오름의 파괴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과 더불어 자연과학인 풍수학적 지혜를 살려 제주도의 마지막 생명체인 오름을 대하는 도민들의 의식이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

오름의 풍수적 상징성

오름은 마을마다 진산의 역할을 하며 주민들의 삶 속에 뿌리 깊게 자리하였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정신의 맥이 면면히 흐르고 있다. 특히 오름들은 색채의 아름다움과 공간 배치의 조화성, 음양 오행의 형체론적 역(易)의 이치를 담고 있으며 조형미와 변화의 창출성이 빼어날 뿐 아니라 상호 보완성의 지맥도 안고 있다.

제주도의 오름은 저마다 크기와 형태가 다양하여 제주만의 독특한 자연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제주의 오름은 동양의 음양 사상에서 오행(五行)의 특징을 골고루 갖추고 있다. 풍수학에서 말하는 오행의 성정을 표현한 오체(五體)를 형태별로 구분한다면 목형(木形), 화형(火形), 토형(土形), 금형(金形), 수형(水形)이다. 오름마다 오행의 형태로 조형미를 이루며, 색채의 상호 배합과 미끈한 곡선미를 나타내므로 오름의 곡선은 제주미를 상징하는 또 하나의 자산이다. 또한 오름은 제주 선조들의 생활 근거지가 되었으며, 오름마다 말과 소를 방목하는 한편 지역을 구분하는 데 물길이나 오름이 주로 이용되었다.

오름을 중심으로 제주민들의 뼈를 묻는 묘역이 형성되었는데, 서북풍을 막아 주는 진산으로 삼아 대개 명당의 혈처(穴處)를 찾아 동쪽이나 남쪽에 좌향이 들어섰고 둔지붕이나 높은오름, 동거문오름은 사방에 망자들의 이상향인양 무덤들이 산재해 있기도 하다. 제주 오름이 안고 있는 진정한 상징은 곡선미와 원형(圓形)이 가져다 주는 원망성(遠望性)이다. 사각(四角)과 직선은 제주도의 지형에 부적합한 배합이 된다. 요즘은 필요한 부분의 도로를 제외한 기타 지역에도 오로지 지형과 마을의 정서적 분위기를 무시한 채 딱딱한 직각의 형태나 직선의 도로들이 좌로 우로 관통되고 있으니 생각해 볼 일이다.

오름의 풍수적 산형

목형산(木形山)

특별하게 섬세하거나 첨예하지는 않으나 봉우리가 하늘을 향해 힘있게 솟아올라 간 모습이다. 성격은 곧고 대체로 귀한 것을 주재한다. 이러한 산의 정기를 받은 사람은 문인, 학자 등 귀한 사람이 나오게 된다. 산의 성격은 곧고 불쑥 솟는 형국으로 힘이 따르며 산의 중간 아랫부분, 즉 배(腹)에 해당하는 부분에 가지 용(龍)이 많이 퍼지는 편이다. 쇠섬이나 노꼬메 오름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화형산(火形山)

산봉우리가 마치 불꽃처럼 뽀족뽀족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화형산이 청명하면 자질 있는 화가나 예술가가 나온다. 대체로 화형산은 기운이 흩어져 있으므로 혈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외형은 화려하고 아름다우나 실속은 없다. 산의 성격은 건조하며 섬세하고 날카로운 면을 지닌다. 성산일출봉 또는 육지의 관악산이나 도봉산의 경우이다.

토형산(土形山)

산의 윗부분이 지붕이나 평상처럼 평평한 모습을 하고 있고 토형산의 정기를 타고난 사람은 대체적으로 목(木)·화(火)·금(金)·수(水)의 네 가지 성격을 모두 포용하는 기질을 갖는다. 대체적으로 토형의 산은 기운이 충만하여 왕후장상(王侯將相)이 나오고 오복(五福)을 겸비한다. 또한

산의 형태가 마치 산마루가 평평한 일자(一字)와 같기도 하여 일자문성(一字文星)이라고도 부르며 균형감과 안정감을 지닌 산이다. 산의 성격은 여유롭고 후중(厚重)하다. 제주 오름에는 토형이 많다.

금형산(金形山)

산봉우리가 둥글고 풍부하며 마치 종 또는 가마솥의 뚜껑 모양과 흡사하다. 철모나 바가지를 얹어놓은 것처럼 둥그스름하니 들판에 곡식을 많이 쌓아 둔 상이다. 다른 말로 부봉사(富峰砂)라고 하며 산에 청명한 기운이 감돌면 큰 사업가나 기업가, 총신, 부장 등이 나온다. 산의 성격은 둥글며 맑은 편이다. 주위가 정결하고 목형산처럼 산의 가지가 많이 퍼져 나가는 편이다. 제주 오름에는 금형이 많다.

수형산(水形山)

산의 기세가 큰 굴곡이 없는 반면 마치 물 흐르듯 부드럽게 이어져 진행해 가는 모습이며 산의 기운이 청명하면 선비나 학자 등이 나온다. 한국의 산들은 대체로 수형(水形)의 산세가 많은 편이다.

오름의 풍수적 형상화

제주의 초가(草家)와 돌문화

제주 초가의 전형은 돌담으로 울타리를 두르고 지붕은 띠풀(제주에서는 '새'라고 함)로 덮은 다음 띠풀을 꼬아서 만든 밧줄로 바둑판처럼 단단히 동여매어 지은 것이다. 특히 바람 많은 제주 섬에서 바람과 싸워 온 조상들의 생활의 지혜가 담겨 있는 제주 초가에는 오름을 기대고 살아온 제주민의 삶이 잘 나타나 있다. 오행의 체(體)를 모두 갖추고 있는 제주 오름은 특히 둥그런 원형의 곡선미가 지배적이다. 또한 제주의 오름들은 포근하게 다가오는 반월형(半月形)의 오름들이 많이 있는데, 제주 초가의 원형은 오름의 형상에서 기인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집의 울타리는 물론 해안이나 밭 등에 높고 낮게 고저기복(高低起伏)의 형상으로 구불구불 이어져 있는 돌담은 풍수학적인 산의 능선, 즉 용세를 형상화했거나 오름의 등성이가 고저를 이루며 출렁이는 듯한 형상의 곡선미의 영향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10 제주 풍수와 관련된 주요 오름들

어도오름(於道峰)

애월읍 봉성리에 위치한 어도오름은 마치 봉황새가 등지로 돌아오는 형세인 ‘옥봉귀소형(玉鳳歸巢形)’의 명혈지로 유명한 곳이다. 이 마을의 지명은 원래 ‘어도(於道)’라고 불리다가 지세에 맞지 않아 향원들의 동의로 현재의 봉성(鳳城)으로 이명(里名)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지형 지세에 맞는 마을 이름이어야 마을이 발전하게 된다는 풍수적 믿음의 결과이다. 마을의 후봉(後峰)인 어도오름이 봉황새의 형국과 같고 또 성(城)처럼 마을을 굳게 호위하듯 둘러쳐 있으므로 봉성(鳳城)이란 이름으로 개명하였다. ‘옥봉귀소형(玉鳳歸巢形)’의 지맥을 탄 이 오름 아래에 집을 짓고 살면 15대 이상 자손이 발복한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봉성리의 진산인 ‘어도오름’은 마을을 서북풍으로부터 막아 주고 있는 포근한 지세이다.

별도봉(別刀峯)

제주시에 소재하여 명당처가 자리한 별도봉(別刀峯)은 한때 금장지(禁葬地)로도 유명하였다. 현재 제주시 정수장이 위치한 알오름은 예로부터 제주의 지관들이 한결같이 장군이 허리에 찬 검(劍)을 힘차게 뽑으려고 하는 형국이라 하여 형기론적(形氣論的) 풍수의 물형(物形)으로 ‘장군패검형(將軍佩劍形)’의 지세로 보았으며 그 별도봉의 높은 봉우리 형세가 바로 장군의 머리에 해당한다. 이러한 지세로 인하여 지세의 살기(殺氣) 또한 만만치 않다. 별도봉의 제일 발복지(發福地)로 알려진 이 곳은 마을로 들어가는 지맥(地脈)의 선상에 있어서 마을을 보호하고 지기(地氣)를 전달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이 곳은 산비탈에 위치하여 보기에는 대수롭지 않은 듯하나 ‘괴혈(怪穴)’로 알려져 있다. 또한 별도봉 북쪽 해안의 절벽에 위치한 바위인 일명 ‘애기업은 돌’은 한때 지역 주민들에게 ‘자살터’로 잘 알려져 있었으며, 또한 헤어짐의 슬픔을 간직한 곳이기도 하다.

검은오름(西巨文岳)

조천읍 선흘리와 구좌읍 송당리의 경계에 위치한 ‘서검은이오름’은 구름 속에서 마치 구룡(九龍)이 여의주를 희롱하는 듯 전후좌우로 봉우리가 기복을 이루며 능선을 타고 에워싼 듯하여 문득 서 있는 곳이 속세와는 차단되어 고상한 은자(隱者)가 깃들어 살 듯한 분위기이다. 그 가운데로 여의주인 듯 알오름이 봉긋하게 솟아 좌우로 골짜기를 형성하고 깊은 숲을 형성한다. 높고 낮게 이어진 깊은 골짜기는 끊어질 듯 다시 이어져 신비한 변화를 자랑하고, 오고 감을 무색케 하듯이 도무지 시작과 끝이 보이지 않는 심연의 지세이다.

서검은이오름은 보는 각도에 따라 나타나는 형기적(形氣的) 물형을 읽을 수 있는데, 일례로 구름 속에 달이 숨은 형상인 운중복월형(雲中伏月形), 구름 속에 반달이 보이는 형상인 ‘운중반월형(雲中半月形)’, 구룡이 여의주를 희롱하는 ‘구룡농주격(九龍弄珠格)’ 등 서검은이오름을 장식하는 풍수적 수사가 전개된다.

서검은이오름은 동쪽의 지기(地氣)를 갈무리하는 영험한 땅으로 좋은 혈처(穴處)를 이루기 때문에 망자들의 편안한 휴식처가 되어 외표면에 묘지군(墓地群)이 형성되어 있다. 역사성, 자연성, 문화성이 골고루 배어 있는 오름으로 특히 제주 땅의 성정을 파악하는 데 풍수학적으로도 중요한 곳이다. 또한 지형의 특이성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생태에 있어서도 식물학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이므로 공동의 학술적 연구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식산봉(食山峯)

제주의 동쪽 끝 성산일출봉 해안 가까이에 숲을 이루고 있는 식산봉은 시원하게 탁 트인 해안을 끼고 있어서 기개가 당당한 형국을 자아내는데, 오조리(吾照里) 마을의 해안 구릉에 위치해 있다. 식산봉을 중심으로 이 지대의 형상을 풍수학적인 물형으로 관찰하면 마치 고운 여인이 머리를 풀어헤쳐 울고 있는 형국인 '옥녀산발형(玉女散髮形)'에 속한다.

발복의 경쟁 심리가 작용하여 식산봉 언저리에 있는 장군석(將軍石)을 부숴 버린 전설과 '옥녀산발형(玉女散髮形)'에 얽힌 슬픈 전설에서 압승에 관한 풍수 의식을 찾아볼 수 있다. 표고 60m이자 용암으로 이루어진 원추형 식산봉의 정상을 중심으로 동남쪽에 성산 일출봉과 일명 '새끼소'라고 부르며 송아지가 누운 형상인데, 성산을 고성리에 있는 소수산봉이 안산 역할을 한다.

식산봉은 비고가 55m인 작은 산봉이지만 좌우로 지미봉과 대수산봉이 청룡과 백호로 호위하며 감싸고 있고, 대왕산·두산봉이 안산과 조산의 역할을 한다. 또한 식산봉 정면으로 우도와 성산 일출봉이 이 곳의 허한 지세를 보호하여 안산의 역할을 담당하며 아늑한 형상을 만들어 주고 있다. 종산인 한라산으로부터 달려온 지맥이 마을 오조리의 습지를 위시하여 물이 경계를 이루는 곳에서 기운이 뭉쳐 마을을 수호하는 산세로 평지에 돌혈(突穴)이 맺힌 형상이다. 숲을 이룬 언저리는 지각(枝脚)이 잘 발달되어 주변의 지형 지물인 사(砂)가 보호하고 있어서 은밀하게 혈처를 감추고 있는 형국이다.

대수산봉(大水山峰)

대수산봉(大水山峰)은 성산을 고성리에 위치하는데, 소가 편안하게 누워 있는 '와우형(臥牛形)'의 형국으로 자손대대 편안할 지세로 꼽힌다. 소의 성격은 끈기가 있고 온순하며 곡초(穀草)만 주위에 있으면 누워서도 먹을 수 있다. 풍수의 형기론에서는 지세(地勢)의 호응을 중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와우형의 형국은 맞은편에 곡초형(穀草形)의 안산이 주객의 관계를 형성해야 소응(所應)을 받아 많은 인물들을 내고 자손들이 대대로 번창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대수산봉은 여인이 화장대 앞에서 화장을 하는 모습으로 보아 '옥녀단장형(玉女丹粧形)'의 형국으로 보는데, 여자가 화장대를 앞에 놓고 화장을 하는 지세의 명혈처는 바로 젓무덤에 해당하는 자리이다.

형기론에서는 여성을 주제로 한 것이 많다. 어머니의 품이 아늑하고 포근하듯 여성에 관련된 물형은 역시 여성의 음부나 젓무덤에 해당하는 자리를 기운이 모이는 혈처로 삼는다. 이 곳은 산수의 기운이 합일하는 지점으로 인체와 교류하는 곳으로 적합하기 때문이다. 대수산봉은 호종단이 수맥을 끊었다는 전설도 함께 간직하고 있는데, 남녘 기슭에 망자들의 보금자리인 공동묘지가 세월을 안고 포근히 자리하고 있다.

종산인 한라산을 기점으로 여러 맥을 거치며 뺏어 내려온 지맥은 구좌읍 '동검은오름'으로 이어지고 다시 이 지맥이 손지오름(손자봉)을 거쳐 '전임이'에서 왕주굴을 타고 대수산봉까지 이어진다. 곡초 역할을 하고 있는 주변의 대왕산, 은월봉, 두산봉 등이 지세를 보호하며 안산의 소임을 다하고 있다. 대수산봉의 맥을 받아 맞은편 동쪽에 있는 소수산봉(작은 물뿔)이 안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주변으로부터 감싸듯 휘감아 흘러 내려온 왼쪽의 청룡 맥이 고성리까지 힘차게 고개를 돌려 감싸 안았고 백호인 오른쪽 신양리 지역은 포근하게 다소곳이 혈을 감싸고 돌았다.

소수산봉(小水山峰)

소수산봉은 성산리 신양리 입구 일주도로 변에 위치하는데, 효와 충으로 대변되는 효자의 이

야기로도 유명하다. 지리의 형국이 마치 새끼소가 누운 형국 같아 '새끼소'라고 불리던 소수산봉, 즉 죽은물뫼가 자리하고 있다. 한라산의 지맥이 힘차게 달려와 고산 대수산봉에서 멈추다가 다시 청룡 맥이 안쪽으로 휘감으며 소수산봉에 이르렀다. 소수산봉은 닭이 알을 품은 형상인 '금계포란형(金鷄包卵形)'으로 풍수적으로 조화가 빼어난 명당지로 알려져 있다. 마을의 맥으로 이어지는 앞쪽 대수산봉은 고성리의 현무(玄武)격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월랑봉(月郎峰), 즉 다랑쉬 오름, 두산봉, 식산봉 등이 주객의 관계로 호응이 되어 안산의 역할로 혈을 받쳐주고 있다. 소수산봉은 신양(新陽) 해수욕장을 뒤로한 포근한 지세를 자랑하며 봉우리 뒤쪽의 일출봉 등이 이 곳의 혈처를 보호해 주고 있다.

영주산(瀛洲山)

동쪽의 꽃인 영주산은 문기(文氣)가 빼어난 산으로 한라산 동쪽의 주요 지맥인 사라오름과 성널오름을 지나 성판악 동남쪽으로 지맥을 형성하며 힘차게 뻗어 영주산으로 이어져 정의 고을로 들어간 지맥이다. 천미천(川尾川)을 끼고 출령이며 휘어 감듯 뻗어 내린 영주산은 성읍 마을의 후택(後宅)에 위치하여 이 곳 정의현을 보호하는 낙산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산체(山體)이다.

낙산(樂山)이란 혈의 뒤에서 기운이 응하여 받쳐주는 산이다. 혈을 맺기 위해서는 혈장의 후면 가까운 곳에서 허한 곳이 없도록 바람을 막아주고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공허한 혈장의 뒤쪽을 보호하는 낙산은 조산에서 흘러와 용(龍)의 본신(本身)에 연결된 산이거나 독립된 산이거나 관계없이 혈장의 공허한 부분을 반드시 호위해야 낙산이 되는 것이다. 혈장의 뒤가 공허한 국세에 낙산이 보호를 해주면 혈은 낙산의 세력에 의해 결정되게 된다. 예컨대, 낙산이 오른쪽에 있으면 혈도 우측에 맺히고, 낙산이 왼쪽에 있으면 혈도 왼쪽에서 맺히는 것이다. 어병사(御屏砂)로 된 낙산은 예로부터 왕비나 장상(將相)이 나는 땅이라 했다.

영주산의 긴 몸체는 마치 하늘로 승천하는 비룡(飛龍)의 형상을 닮아 그 기세가 북쪽으로 머리를 틀고 동남쪽으로 길게 꼬리를 내린 듯 땅기운이 범상치가 않다. 심원한 구곡(九曲)의 골짜기는 굽이굽이 명혈의 기운을 형성하고, 미끈하고 부드러우며 수려한 산체는 수만의 병사를 호령하는 오영장군의 위풍으로 그 위엄을 드러냈다. 하나의 신령한 몸체에 분명 봉우리는 높고 낮게 쌍봉(雙峰)으로 솟구친 듯한데 하나는 문필봉(文筆峰)으로 일어나고 또 하나는 둥근 달의 형상이 되어 반월형(半月形)으로 떠올랐다. 서남쪽에서 바라보면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비룡양천형(飛龍仰天形)'이고, 동남쪽에서 바라보면 장수(將帥)가 위엄 있게 앉아 있는 '무공단좌형(武公端坐形)'의 형국이다.

매오름(鷹岩山)

매오름(매봉)은 남제주군 표선리 경내에 위치하여 성읍 민속 마을의 후산(後山)인 영주산과 호응하여 조산(朝山)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곳 마을을 보호하는 중요한 안산 역할을 한다. 날개를 편 매가 부리를 치켜들고 금방이라도 바다에서 힘차게 날아오를 형국이다. 매오름 조금 남쪽 방향으로 자리한 토산봉(兎山峰)도 영주산과 호응이 되어 조산의 역할이 되므로 달산봉(達山峰)과 더불어 매오름은 표선의 지세를 보호하며 원활하게 해 주고 있다. 특히 매오름은 물이 가는 방향이 길방(吉方)으로 나가는 틈 사이에 위치하므로 명당을 보호해 주는 좋은 형세이다.

매오름은 표고가 136.7m에 불과하나 한라산으로부터 뻗어 내려온 지맥이 크고 작은 술한 오름의 맥을 타고 동남쪽으로 의지하면서 세화1·2리와 표선리와 성읍 마을 중간 지점인 수구봉

(水口峰), 일명 '트멍'에 위치한 지세로 해동청(海東靑 : 매편)이 힘차게 날아 오를 듯한 기세를 형성한다. 하천리(下川里)에 위치한 달산봉(達山峰)은 표선리 마을을 안산으로 하천리와 표선리(表善里)를 보호한다. 안타깝게도 치산을 무시한 채 난개발로 이어진 매편의 훼손으로 원래의 모습이 크게 변형되어 지기(地氣)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맥이 방해를 받거나 차단되면 조화의 균형을 잃게 되므로 마을의 화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등장하여 불목(不睦)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단산(單山)

단산은 남제주군 안덕면 사계리와 대정읍 인성리의 경계에 있는 산으로 '박쥐오름', '바금쥐오름', '파군산' 등으로도 불린다. 풍수적 형기론으로 성인과 군자를 배출시키는 명당지로 알려져 있으며, 마치 봉황새가 보금자리로 돌아와 앉은 모양의 '비봉귀소형(飛鳳歸巢形)'인데, 보는 방향과 각도에 따라 풍수적 해석에 차이가 있는 지형이다. 단산에 대한 풍수가의 여러 견해 중 하나는 솟은 두 봉우리가 서로 호응하지 않고 등을 돌려 배반하는 형상이라고 전한다. 풍수에서는 이것을 흉사(凶砂)라고 하는데 마을 앞에 이렇게 보이는 산봉을 꺼렸던 것이다. 또한 바위가 마치 치마처럼 골을 이루고 암석이 뼈를 드러낸 것처럼 험하게 보이거나 하는 주위의 산봉도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형국으로 인하여 이 주변 마을 사람들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박쥐가 먹이를 잡아먹으려고 날렵하게 노려보는 형상으로 어딘지 모르게 살기가 서려 있어서 마을 사람들은 흉사로 인식하였다. 또한 그 기세에 놀려 마을에서 큰 인물이 날 수 없다고 믿었다. 박쥐오름이나 바금쥐오름은 박쥐와 닮은 형상의 산이라는 뜻이다. 조선조 1702년(숙종 28년) 제작한 『탐라순력도』에도 단산의 이름이 '파군산악(破軍山岳)'으로 표기되어 있다.

풍수에서 파군(破軍)의 의미는 구성(九星)의 수법(水法)으로 길흉 방위를 말하며 또한 아홉 가지 유형의 산형을 나타내는데, 질병이나 겁탈, 형벌 등을 의미하는 대흉성(大凶星)이다. 오고가는 물의 득파(得破)가 만약 파군성에 이르면 뜻하지 않은 객사를 당하거나 손재와 재화가 따르며 전택이 파쇄되고 결국은 이사까지 하게 되는 흉성으로 좌향을 바꾸어야 된다. 기능분야에서 낙공(樂工)과 장인(匠人)이 나오나 대체로 품질로 고생하거나 농아자 혹은 불구자가 많이 난다고 한다. 여자는 산액(産厄)으로 고생하고 물에 빠져죽는 익사자와 전상자가 나와 자손이 끊기는 액도 당한다. 그 후로 마을에서는 박쥐오름 쪽이 풍수적으로 허하다고 하여 마을 사람들을 침범하는 액을 막기 위해 산과 마을 중간에 4개의 '거옥대', 즉 방사탑을 쌓았다고 한다.

그런데 1951년 이 곳에 육군 제1훈련소가 들어서면서 방사탑 3기를 헐어 버렸는데, 그 후로 마을에 원인 모를 괴질이 발생하자 이를 두려워한 나머지 1961년에 원래대로 복구하면서 인성리 마을과 그 반대쪽에 위치한 사계리 마을에서도 방사탑을 쌓아 단산의 흉험한 기운을 막았다. 단산의 지맥은 한라산으로부터 달려온 맥이 산방산에서 멈추는 듯하다가 단산과 금산이 오름으로 이어지면서 송악산으로 들어간다.

산방산(山房山)

산방산은 남군 안덕면 사계리에 위치하여 외형으로 보기에 석산(石山) 같지만 풍수적으로 기운이 강하게 맺히고 조화가 잘 이루어진 영산(靈山)이다. 돛 형태로 이루어진 산방산은 사람들로부터 신의 예술품이라고 극찬을 받는 곳으로 서쪽의 해안에 웅장한 장군의 모습으로 힘있고 당당하게 서 있다. 압승술(壓勝術), 즉 단혈(斷穴)에 뛰어난 중국의 풍수사들도 두려워 했

을만큼 예로부터 왕후지지로 널리 알려져 왔다. “산방산 대혈은 옥촉조천형(玉燭照天形)으로 백록담을 안산으로 삼는다. 이 곳에서 죽거나 이 곳에 묘를 쓰면 연이어 왕이 나온다. (山房山大穴, 玉燭照天形, 白鹿潭爲案, 死於此地, 葬於此地則, 秦皇漢武連代왕出)”라고 했다. 옛 풍수서에 산방산이 금장지라는 이야기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나 명당지인 산방산에 묘를 쓰게 되면 인근 마을에 원인 모를 재앙이 침범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1987년 2월 사계초등학교에서 간행된 『사계리지』에 금장지에 관한 사례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산방산 안에 ‘질매톡’이라는 곳이 있는데 특히 이 곳에 장사 지내면 한발이 심하여 주민들이 살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가뭄이 들게 되면 누군가가 질매톡에 묘를 썼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 곳을 찾아 더듬어 보면 과연 묘를 쓴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파헤치면 곧 비가 내리곤 했다고 한다. 욕심있는 사람들이 명당지인 것을 알아차리고 야밤에 남몰래 봉분(封墳)을 만들지 않고 평토장(平土葬)을 하곤 한 일이 있다. 그 외에 산방산 정상에 농사를 지어도 한발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개인보다는 공동체 삶을 더 중시한 풍수윤리관의 표출이라 할 것이다.

산방산의 지세는 종산인 한라산에서 발원한 힘찬 용맥이 서남쪽으로 향해 뻗어가다가 한대오름, 빈네오름, 폭낭오름, 작은대비오름, 당오름, 원물오름, 거린오름 등으로 박환을 거듭하며 이어지다가 지맥이 약해지자 덕수마을로 방향을 틀고 들어가 수맥(水脈)을 만나 지기를 회복하고 곧바로 산방산으로 이어진다. 산방산의 좌향은 방위에 따라 안산인 주작(朱雀)을 삼을 때도 있고 후산인 현무(玄武)를 삼을 때도 있으니 위치에 따라 좌향(坐向)의 변화가 있다.

마치 한라산의 백록담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산방산은 동사면과 서사면에서 보면 험산(險山)처럼 보이거나 서쪽 해안의 허한 지세를 보완하고 모체인 한라산과 주객(主客)의 관계로서 상호 조화적인 역할을 한다. 풍수의 물형(物形)에서 볼 때 옥촉조천형(玉燭照天形)의 명혈로 그 형국이 촛불이 곧게 타올라 광대한 하늘을 환히 장엄하게 비추는 형상이다. 그 위엄 있는 형국이 마치 주변의 모든 오름들을 통솔하고 지휘하는 형상으로, 종산인 한라산으로부터 힘차게 용맥이 뻗어나와 솟구친 명혈대지인 것이다. 이 밖에도 산방산은 보는 각도와 방향에 따라서 풍수의 형기론으로 ‘옥촉조천형’ 외에 여러 가지 물형(物形)의 이름이 있다.

군산(軍山)

서귀포시와 안덕면의 경계선이고 안덕면 창천리에 위치하며 마치 산의 형상이 진을 친 듯한 군막형(軍幕形)의 군산은 산정의 봉우리 1,000평이 재앙지(災殃地)라고 하는 전설이 전해 내려온다. 동쪽과 서쪽으로 마치 멀리서 보면 유두(乳頭)처럼 커다란 암석 두 개가 우뚝 버티고 서 있는데, 풍수적인 물형으로 이 곳은 마치 두 선인이 밝은 달을 바라보는 형국인 ‘쌍선망월형(雙仙望月形)’의 명당이다. 그러나 이 곳은 입장(入葬)을 금하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다. 예로부터 금계(禁誡)라고 할 수 있는 ‘금장지’는 일정한 장소에 장사를 금하는 금장신앙(禁葬信仰)이다. 이것은 일정한 지역에 입장을 금하는 원칙으로 만약 금장을 어겼을 경우 그 자손들이 재앙과 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예로부터 금장을 지키지 않으면 자손들이 졸지에 병에 걸리거나 가뭄으로 인한 한재(旱災), 흉작(凶作), 수재(水災), 풍재(風災), 화재(火災), 파산(破産), 패가망신(敗家亡身) 등을 당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사실 금장지라고 하는 것은 금장지 자체가 지맥이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대부분 명당지이다. 이미 그 명지에 타인의 묘(墓)가 들어서 있는데 함부로 손을 대거나 훼손하게 되면 고인의 존엄성을 모독하게 되어 그들 자손의 발복을 방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보았다. 또는 마을로 내려오는 지맥의 혈을 쓰게 되면 개인은 발복하나 오히려 마을의 안녕을 깨고 원인 모를 재앙을 마을에 안겨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금장신앙

이 생겼으며 제주는 물론이고 육지에서도 금장신앙의 관념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금장지로 불리는 곳은 제주시 별도봉의 명당지, 남제주군 안덕면 사계리에 있는 투구형(套鉤形)의 산방산이 대표적이다. 또한 마라도와 가파도는 척후병형(賊候兵形), 제주 휴양소 뒤편에 있는 북진이모루는 북병형으로 늘 중국을 넘나보는 형국이다. 예로부터 왕이 태어날 ‘왕후지지’였던 군산은 중국에서 지맥을 끊으러 파견 나온 호종단에 의해 맥이 끊겼다는 전설이 있다.

괴살메(猫岳)

괴살메 혹은 괴살미는 북제주군 구좌읍 김녕리에 위치하는데 북동쪽으로는 삿갓오름(笠山峰)과 가까이 이웃해 있다. 풍수에서 오행(五行)의 산체(山體)로 보면 반달처럼 둥근 금형(金形)과 산 위가 평평한 토형(土形)에 가까운 오름인데 낮게 드리운 것이 여인의 고운 눈썹처럼 가지런하여 전체적으로 아미형(蛾眉形)의 형상으로 볼 수 있다. 형기적(形氣的) 물형(物形)으로는 오름의 모양이 마치 고양이가 머리를 사리고 살짝 누운 형국을 고려해 묘악(猫岳), 묘산(猫山), 화산(花山) 등으로도 부르는데 ‘고지도’에는 고산(高山)이라는 표기도 보인다. 마을에선 포제(瞻祭)동산으로 되어 있는데 대개 오름의 허리나 언덕에 정해진다. 남동쪽 사면에는 모 가문의 입도조(入島祖) 묘역이 넓게 자리하고 있다.

풍수에서는 산의 형상이 길짐승의 형상일 경우 혈이 맺히는 곳은 비교적 이마, 코, 귀, 배, 꼬리 등에 있다고 본다. 뿔은 감각이 아둔한 곳이므로 좋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이 곳의 지맥은 한라산으로부터 달려온 지맥이 괴살미로 이어진 것인데 남쪽을 돌아온 백호맥(白虎脈)은 삿갓오름으로 완만하게 흘러내리고 서쪽으로 내려온 청룡맥(靑龍脈)은 목지 동산으로 이어져 내린다. 평지에 포근하게 내려앉은 지세로 마을에 편안함을 안겨주는 좋은 사(砂)이다.

송악산(松岳山)

일명 ‘절울이’ 또는 한자명으로 저별이(貯別伊) 혹은 貯別岳(저별악)이라는 속칭을 가지고 있는 송악산(松岳山)은 대정읍 남쪽으로 50리에 위치해 있으며 한라산에서 발원한 지맥이 서남쪽 방향으로 여러 오름들을 거치면서 힘차게 뻗어 내려온 산세가 송악산을 통해 바다로 떨어져 가파도와 마라도까지 이어진다.

풍수지리의 형기론에 의한 물형으로는 마치 두 신선이 밝은 달을 바라보는 형국인 ‘쌍선망월형(雙仙望月形)’과 선인이 책을 보고있는 형국인 ‘선인독서형(仙人讀書形)’의 지세이다. 멀리 달려온 맥이 산방산에 임하여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단산과 금산이오름을 거쳐 송악산으로 우뚝 솟아서 힘을 모으고는 다시 남쪽으로 고개를 틀고 바다로 들어가 가파도(加波島)와 마라도(馬羅島)로 흘러내린다. 북쪽에서 보면 드넓은 평야에 솟아 있는 제단과 같으나 바다에서 솟은 높이가 104m에 불과한 산 위엔 뚜렷한 봉우리가 없이 사면을 돌아가며 봉긋봉긋한 울동만이 고저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일단 산정에 올라서면 깔때기 모양으로 깊숙이 패인 분화구가 있는데, 이중 폭발을 거친 화산(火山)이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남쪽의 험준한 절벽에 부딪치는 물결의 울음 소리는 수난의 시대에 새겨진 슬픔과 쓰라림을 대변하고 있는 듯 세월을 타고 있다.

사라악(紗羅岳)

천장지비(天藏地秘)의 명혈지, 흰구름 오가는 사라악의 산정에서 허심한 마음으로 시간의 역사를 반조해 보라. 고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갈 때 장엄한 옥반형(玉盤形)의 사라악

산정 호수에 투영된 산 그림자에 마음을 놓아 보라. 사라악의 품에서 세상의 생각을 잠시 멈추고 그 곳에 몸을 맡기어 고요히 마음을 관조한다면 선계(仙界)의 청학이 날갯짓하는 듯 물외(物外)의 세계를 소요하는 우리는 어느새 적송자(赤松子)가 되어 시공(時空)을 넘나들고 있음을 자득할 것이다.

제주의 동쪽 지맥을 알려면 먼저 사라악을 느껴야 한다. 사라악은 '제1음택 명혈지'이기에 앞서 동쪽 오름군의 전설적인 존재로 힘차게 박동하는 동쪽의 심장부에 해당된다.

생동하는 기운을 호흡기관인 성판악(城板岳)이 받아들여 마음껏 대자연의 기운을 호흡하며 동쪽의 곳곳으로 지맥을 일으켜 땅의 기운을 순환시킨다. 사라악은 오기(五氣)가 고루 모이는 땅으로 예로부터 현인 군자가 많이 나오는 곳으로 하늘이 점찍어 놓은 곳이라고 알려져 있다. 하늘이 감추고 땅이 감추는 오복지지(五福之地)로 덕이 없는 자는 일찌감치 희망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 사라악은 한라산의 동북 중간에 있는 허리 부분으로 형세는 기운찬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으려는 '생사축와형(生蛇逐蛙形)'으로 볼 수 있으며 조안격(朝案格)인 성판악은 오히려 살찐 개구리의 형상으로 다가온다. 일찍이 장상(將相)의 땅으로 점지된 이 곳은 후덕한 자가 심안(心眼)으로 서쪽을 의지해 바라보면 하늘과 땅의 비밀을 가히 알 수 있다고 했다.

과오름(郭岳)

포근한 지세로 '곽지팔경'의 하나로 꼽히는 삼태봉(三台峰), 즉 곽악삼태(郭岳三台)로 이름난 과오름은 북제주군 애월읍 곽지리, 납읍리 사이에 위치한 숲산으로 표고 155m의 산체이다. 과오름의 서사면은 곽지이고, 남동사면은 납읍이며, 북쪽으로 내려간 산자락 끝이 애월리이다. 오름의 형상이 풍수의 물형(物形)으로 보았을 때 마치 소가 누워 있는 형국인 와우형(臥牛形)이므로 일명 '와오름'이라고도 부른다. 활모양으로 환포(環抱)되어 양옆으로 애월리와 곽지를 끼고 있으며, 산세(山勢)가 형기론(形氣論)으로 마치 신선이 바둑을 기국(碁局)하는 형국이어서 '선인기국형(仙人碁局形)'으로도 본다.

또한 조선조 초기에 제주로 유배되어 온 한천(韓蘊)·이미(李美)·강영(康永)과 더불어 제주사헌(濟州四賢)의 한 사람으로 알려진 고려의 유신(遺臣)이자 1393(태조 2년)에 제주로 유배되어 김해김씨(金海金氏) 좌정승공파(左政丞公派)의 입도조(入島祖)가 된 김만희(金萬希)가 적거(謫居)하였던 오름이라고 한다. 오름의 남쪽에 위치한 목형(木形)의 문필봉(文筆峰)은 북쪽에 자리한 비양도와 주객(主客)의 호응을 이루어 안산(案山)의 역할을 한다. 이 오름에서 남쪽에 보이는 봉성리의 '어도오름'이 호응하여 안산으로서의 균형을 이룬다.

금산(琴山)

인성리와 사계리의 접경인 단산(簞山)의 남서쪽에 뻗어 내린 '금산이' 오름은 특별한 지형의 변화가 없이 남북으로 길게 한 줄기 완만한 지세를 이룬 곳이다. 형기론(形氣論)의 물형으로 마치 아름다운 여인이 거문고를 켜는 형국으로 '옥녀탄금형(玉女彈琴形)'에 속한다. 목성(木星)과 화성(火星)의 형국은 대개 사람의 신체 형태를 나타내는데, 혈을 맺는 곳이 주로 심장, 단전 부위, 음부 등이다(心·臍·陰). 금산이오름은 모슬봉(摹瑟峰)과 주객의 관계로 호응을 이루고 있는데, 모슬봉을 옥녀형에 비교하면 금산이오름은 거문고 형국이 되어 모슬봉인 옥녀가 거문고인 금산이오름을 타는 형국이 이루어진다. 한라산에서 뻗어온 한 가닥 맥이 분기되어 산방산으로 이어져 멈추는 듯하다가 다시 단산과 금산이오름을 일으키고 곧장 송악산으로 흘러 들어간 지맥이다. 이러한 지형으로 인하여 사계 마을은 전반적으로 평화롭고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양명(陽明)한 곳이 된다.

당오름(堂岳)

당오름은 안덕면 동광마을 북쪽에 위치하여 북서쪽으로 정물오름과 호응을 이루는 유연한 오름이다. 남사면은 지형이 완만하여 출렁이듯 봉긋한 여러 개의 크고 작은 봉우리가 고저를 이루며 구릉 지대를 형성한다. 북사면은 양쪽의 능선이 환포(環抱)를 이루며 가파른 듯 흘러내리지만 청룡과 백호의 국세가 이루어지고 좌우로 감싸듯 하여 좋은 기운이 모이는 곳이 된다. 이 오름은 오래 전에 ‘당’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비록 그 흔적은 없으나 예로부터 신성시(神聖視)하여 축원을 드리는 섬사람들의 민속신앙의 터이다. 당이 자리한 곳은 보통 신령한 기운이 감돌고 지세적으로도 풍수의 이치에 부합하는 포근한 곳에 정해진다. 남동사면 일대는 망자의 보금자리인 무덤들이 기슭에 산포되어 있으며, 산정 분화구 안쪽에 좌향(坐向)을 튼 묘지가 회류수(廻流水)의 길한 조화를 안고 주위의 지세와 어울려 인상적이다. 남쪽으로 원물오름이 호응하여 뺀어난 수기(水氣)를 지탱해 주어 땅 기운을 더욱 안정시킨다. 땅에 물이 가면 기운이 따라 가고 기운이 있는 곳은 반드시 물줄기가 경계를 이룬다.

당오름의 지세는 한라산에서 발원한 지맥이 곧바로 영실 북쪽으로 이어져 동남쪽 한대오름을 거치면서 지맥이 끊어진 듯 잠잠하게 이어지다가 맥이 사방으로 퍼져 나간다. 한대오름을 조산(祖山)으로 삼아 비녀오름과 폭낭오름을 거쳐 왕이메로 이어지고 다시 개오름과 작은대비오름 등으로 지맥이 이어져 내린다. 남쪽 방향으로 당오름과 호응하는 원물오름은 안산이 되어 당오름을 호위한다. 또한 북쪽에 좌향을 틀면 정물오름이 둥근 ‘금형(金形)’의 부봉(富峰)으로 솟아올라 당오름의 백호 지세로 작용하고 길사(吉砂)의 작용도 함께 하여 명혈을 이루는 국세를 형성한다. 근처의 원물오름이 샘을 안고 있어서 목장으로도 좋은 장소인 7소장(所場)이 위치해 있는 맥상(脈上)의 땅이다. 맥을 물이 감싸며 땅기운이 흐르는 곳으로 서부 지역에 있어서 명혈대지(明穴大地)를 맺게 해 주는 좋은 곳이다.

지미봉(地尾峰)

지미봉을 사이로 쉽없이 흐르는 뺀어난 물줄기가 곳곳에 기운을 모은다. 물이 경계를 이루는 곳이 바로 지기(地氣)가 응결되는 이치이다. 종달리에서 지미봉은 중심을 이루는 지맥으로, 맞은편 두산봉은 시흥리의 조산격이 된다. 이 지미봉은 두산봉과 서로 호응하여 주객의 관계를 이루며 먼 곳을 유연히 바라보면서 무상을 관조하는 형상이다. 지미봉의 안산은 두산봉을 중심으로 좌향에 따라 주변의 오름들이 상대적인 안산으로 다가온다. 그 맥이 한라산에서 발원하여 동으로 동거문오름에 이어 손지오름을 거쳐 용눈이오름과 은월봉에 이어지고 다시 두산봉을 지나 지미봉으로 지맥이 뻗었다. 지미봉은 두산봉 쪽에서 바라보면 독수리가 날개를 힘차게 펴고 날아 올라갈 것 같은 지세이며, 두산봉 왼쪽에 있는 ‘매망머리’가 지미봉을 간접적으로 보호하며 받쳐주는 길사(吉砂)의 역할을 함께 한다. 지미봉은 물형(物形)으로 마치 ‘옥로괘벽형(玉爐掛壁形)’의 형국인데 이 지기(地氣)를 받으면 혈의 성정에 따라 부귀쌍전(富貴雙全)의 발복이 일어나기도 하고 학자의 맥을 잇는 구대청빈지(九代淸貧之地)이기도 하다. 마치 종(鐘)을 엮어 놓은 듯한 ‘금형(金形)’의 형상으로 다가오다가 하면 날랜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힘차게 하늘로 날아 오르려고 하는 ‘비취등공형(飛鸞登空形)’의 형상이기도 하다. 또한 옥로를 벽에 걸어 놓은 듯한 ‘옥로괘벽형(玉爐掛壁形)’의 형상이기도 하며, 우도(牛島)에서 바라보면 목형(木形)인 문필봉(文筆峰)의 기상으로 다가온다. 이렇게 보는 각도와 방향에 따라 오름의 형상을 두루 갖추고 있어서 단순하지만 변화를 감춘 오름이다. 전체적 지리를 형상화 한다면 구좌읍 종달리에 있는 지미봉(地尾峰)을 제주 지역의 꼬리라 할 수 있겠고, 반대 방향에 있는

한경면 '두모리'는 섬의 머리 부분에 비교된다.

방일봉(方日峰)

살짝 고개를 든 봉긋한 형태의 봉우리를 이루고 있는 표고 113m의 방일봉(方日峰)은 둥근 형태의 원추형에 느슨한 비탈을 이루며 출렁이듯 구름진 지세로 소나무와 덩굴이 무성한 지대이다. 노형동 남서쪽에 위치하여 원래 '해맞이 동산'으로 부르던 곳인데 후에 한자 표기에 의해 현재의 '방일봉'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 오름은 화구(火口)가 없는 곳으로 방일봉 북동쪽으로 중간 허리 부분에 살짝 감싸 안은 듯 오목한 곳을 만날 수 있는데 이 곳이 바로 함박이굴이다. 포근하게 감싸진 듯한 이 곳은 '월주 변씨' 입도조 묘역과 '나주 김씨' 입도조의 '제터'가 들어서 있다.

지세는 한라산에서 발원하여 힘차게 달려온 지맥이 기운을 가르며 계곡을 자랑하는 어승생악으로 이어지고, 다시 산 모양이 마치 기러기가 줄지어 날아가는 형국과 같아 이름지어진 열안지오름을 거쳐서 완만한 지세인 노루손이(노루생이)오름을 타고 출렁이듯 고저기복을 자랑하며 내려온다. 형기적 물형으로 마치 신선이 거문고를 타는 형국인 '선인탄금형(仙人彈琴形)'의 지세로 거문오름 등으로 이어지고 다시 이들을 조산(祖山)으로 삼아 내려온 맥이 누운오름을 거쳐서 방일봉으로 머리를 틀어 감추어 들어가서 노형의 명당지세(明堂之勢)를 창출한 양명한 곳이다. 다만 지금은 산등성이에 길이 뚫려 있고 개발로 점점 그 본래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불래오름(佛來山)

불교적 색채를 띠고 있는 불래오름은 행정구역상 서귀포시 중문동에 속하나 북제주군과의 접경에 위치하여 북동쪽 사면의 일부는 애월읍과 경계가 된다. 지세적 특징은 한라산의 산줄기를 엮고 둥근 부봉(富峰)의 형태로 평원 중에 우뚝 솟은 형상으로 높고 가파른 듯 보이나 비교적 평평한 등성마루로 이루어져 북서향으로 입을 벌린 말굽형 오름이다. 이 오름에 올라서면 수려한 산세에 아늑한 지세로 형성된 '명혈터'임을 인식하게 된다. 기운의 경계를 가르는 물의 방향은 하나가 북서쪽으로 흘러가고 또 하나는 남서쪽으로 흘러내려 법정악(法井岳)의 계곡을 이루며 '큰내'로 들어간다.

풍수지리의 형기적 물형으로는 마치 봉황이 날개를 펼치고 동지에서 알을 품고 있는 형국인 '봉소포란형(鳳巢包卵形)'의 지세이다. 주변의 깊은 골짜기는 속세와 차단된 듯하고 가파른 기암절벽과 조도(鳥道)의 낭떠러지가 마치 병풍을 둘러친 듯 펼쳐져 있다. 그 사이로 이어지는 청허(淸虛)한 풍경은 세속의 일과는 무관한 듯 대자연의 절주(節奏)인 무상(無常)을 안고 세월을 타고 있는 듯 보인다. 산정의 주봉(主峰)이 풍후하고 넓어 금형(金形)의 형태로 미끈하게 넘는 듯한 형상을 이루고 있어서 풍수의 작국(作局)으로 사신사(四神砂)의 하나인 현무(玄武)에 준하는 '명당 국세'가 전개된다. 이 곳에 흐르는 맑은 물줄기는 영실계곡을 거쳐온 복류천으로서 주작인 남쪽의 용맥(龍脈)을 타고 흘러간다. 산정에 올라서면 영실 계곡의 오백나한이 시야를 사로잡고, 깊은 숲속 남서면 쪽엔 어떠한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맑은 샘물이 용출(湧出)하는 곳이 있는데, 이 곳에는 예로부터 스님들이 수양의 도량으로 삼던 청정한 정기가 서린 존자암(尊者庵) 절터가 숨겨진 듯 자리하고 있다. 한라산을 나한산(拿漢山)으로 삼는다면 절터의 조건이 잘 부합된 요지로 알려져 있다.

왼쪽의 청룡 지세는 출렁이듯 꿈틀대며 산허리를 따라 내려오며 안쪽으로 감싸려는 듯하고 우측의 백호지세는 청룡의 지세와 입을 맞추려는 듯 호응하는 기세로 감싸고 들어와 빼어난 명

혈지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국세를 호위하는 경계는 크고 작은 기암괴석(奇巖怪石)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절벽들이 마치 얼굴을 마주보고 호응하는 듯 정담을 나누며 벗하는 형국이다.

어승생(御乘生)

한라산의 서북쪽을 의지하여 당찬 산세(山勢)를 자랑하는 어승생은 북쪽을 향하는 지맥과 수원(水源)을 형성해 주는 중요한 오름이다. 풍수에서 생동하는 용맥은 물이 가면 산 따르고 산이 가면 물이 따라야 한다. 어승생은 산세가 중후하고 위용을 갖추어 오름의 정상부인 동쪽 등성마루에 서면 마치 천마(天馬)의 안장에 올라 세상을 관조하는 느낌이 든다. 천지의 비밀을 감춘 듯한 심연의 계곡은 좌우로 구불구불 이어지고 높고 낮게 출렁이듯 기복을 타고 흘러내리는 그 형상은 마치 용이 조화를 부리고 꿈틀대며 활개치는 듯하다. 양명한 어승생의 땅기운이 힘차게 과협(過峽)을 따라 흘러내린다. 그것은 바로 산용(山龍)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어승생은 지세의 변화가 출중하여 마치 용이 풍운 조화를 부리는 듯 그 시작과 끝을 헤아리기 어렵다. 이렇게 산세의 변화가 출중한 어승생은 영남(瀛南)의 제일지(第一地)로 손색이 없는 명혈지(明穴地)이다.

풍수학상으로 명혈의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는 어승생은 그 웅장한 몸체를 자랑하는 듯 산체의 기상이 호방하고 당당하다. ‘아흔아홉골’의 비경을 간직하며 물의 발원지를 품고 있는 어승생은 동북쪽으로는 도근천(都近川)의 상류부를 끼고 있고, 서남쪽에는 외도천(外都川)의 상류부인 어리목이 자리한다. 그 사이로 장엄한 물줄기가 구곡(九曲)의 신비를 품은 채 줄기차게 북록(北麓)의 일대를 안고 달려간다.

예로부터 어승생은 높은 하늘의 상서로운 기운이 산정에 내린 명혈지로 알려져 있다. 산세의 변화가 위아래로 나열한 듯하고 움직임과 고요함을 두루 갖추니 이 맥상(脈上)의 정기를 받으면 무관(武官)과 문관(文官)이 연이어 함께 나오는 땅이라고 했다. 또한 땅이 생동하고 양명하여 어승생의 지기를 타면 부귀의 가지와 잎이 무성하듯이 자손 대대로 번성한다고 했다. 산이 오묘하여 천장지비(天藏地秘)의 땅이므로 혈처(穴處)가 혹은 위에 있고 혹은 아래에 맺혀 풍수사(風水師)들까지도 분간하기 어렵다고 했다.

어승생의 지기를 얻으려면 덕을 쌓은 집안만이 하늘이 용사(用事)를 내린다고 했으며 마음을 다하고 치성을 다해야 이 곳의 혈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산체의 위쪽은 대개 와혈(窩穴)이요, 아래 부분은 대개 검혈(鉗穴)이 맺히니 상하로 혈처(穴處)가 분명히 나뉜다고 했다. 같은 기운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니 발복이 장구(長久)하고, 동남쪽의 형상은 선인(仙人)이 산정에 거꾸로 선 듯하며, 서북쪽의 산록인 허리 부분과 정강이 부분은 산세의 형상이 마치 8만 신하가 도열하여 엎드린 듯하다. 맥상이 좌우로 감싸듯 감아 돌고 주변의 높은 태을(太乙)의 정봉(頂峰)들이 호응하여 첩첩히 호위하며, 서북쪽 산록 아래로 한라산이 어승생을 높이 받친 듯한 형상이 전개되니 마치 상제나 임금의 말을 타고 높이 하늘을 달리는 궁마어천형(宮馬御天形)이나 천마유주형(天馬遊駐形)의 물형이 이루어진다. 제주 생명의 기운을 뿜어내는 용출지(湧出地)인 어승생은 청정한 기운을 제주시에 보내주는 오름으로 자연 생태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이며 신령한 땅의 기운을 품고 있는 곳이므로 도로를 명분으로 한 난개발의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야 할 것이다.

수산봉(水山峰)

산과 물이 유기적인 조화를 이루어 편안함을 안겨 주는 곳이 수산봉(水山峰)이다. 물에 비친 한 폭의 그림처럼 물 좋고 산이 빼어나 아름다운 인정을 싹트게 하는 미안(美顔)의 수산봉은

기우제를 지내던 치성 터이기도 하며 수산 마을이 의지하는 후산(後山)으로서 조산을 삼는 오름이다. 물과 조화를 이룬 산의 성정이 어질고 화평하여 수산리 마을의 신령스런 영봉이 되어 북방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 주고 마을의 번영과 건강을 기원한다. 수산 마을을 보호하는 진산인 '물메오름'은 북제주군 애월읍 수산리 해안에 위치하여 뒤쪽으로 바리떼 모양의 안산인 바리떼(밭이오름)가 있고, 남쪽으로는 극락오름이 안산이 된다. 한라산을 중심으로 서북쪽으로 타고 내려온 챗망오름, 이스령오름, 천아오름, 한 대오름, 산새미오름(山心峰)을 돌아 필봉을 자랑하는 노꼬메오름을 거쳐 새별오름(新星岳)을 타고 수산봉으로 이어지는 제주 지맥의 전형적인 산세이다. 산은 멈추고자 하니 음(陰)이요, 물은 움직이고자 하니 양(陽)이다. 수기(水氣)가 빼어나니 기운이 돌고, 마르지 않는 샘이 있으니 명혈이 이루어진다.

새신오름(鳥巢岳)

새신오름은 북제주군 한경면 청수리에 위치하는 나지막한 반월형(半月形)의 산체로 둥글게 살짝 솟아오른 예쁜 오름이다. 비교적 완만한 사면을 이루고 있는데, 분화구의 모양은 살짝 내려앉은 듯 깊지 않고 우묵진 모양이 마치 둥지를 튼 새집과 같아 풍수의 물형(物形)으로 조소형(鳥巢形)에 속한다. 조소악(鳥巢岳)이란 이름도 형국론과 관련하여 지어진 이름으로 생각된다. 별다른 특징이 없어 보이는 오름이지만 서북쪽으로 지맥을 잇는 중요한 오름이다. 아름다운 봉황새의 형상을 이루어 고운 산세를 자랑하는 곳이기도 하다. 한라산에서 뻗어온 지맥의 한 가닥이 서쪽의 지세를 타고 새별오름을 거쳐 금악오름으로 이어지고 다시 정물오름 등을 거쳐 새신오름으로 이어졌다. 또한 솔개의 형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풍수적으로 옥녀탄금형(玉女彈琴形)인 남송이오름과 죽은 돼지의 형국인 문도지오름이 호응을 이루어 안산의 역할을 하므로 비교적 포근하고 안정된 지세를 이룬 곳이다.

붉은오름(赤岳)

항파두리 남동쪽에 위치하여 김통정(金通精) 장군에 대한 전설과 함께 삼별초가 최후로 항전했다가 전멸 당하여 피로 물든 산으로 이름난 붉은오름은 행정구역상 애월읍 광령리에 속한다. 붉은오름의 남쪽엔 삼형제오름이 가까이서 호응하고 있고 왼쪽으로는 출렁이듯 기복을 이루며 호응하는 노루오름이 있으며, 계곡을 끼고 흘러내린 남사면은 지세의 변화가 가파른 편이다. 굽부리가 패인 북사면쪽으로는 멀리 비양도가 상대적으로 입체적인 호응을 이루면서 조화를 안겨준다. 북쪽에서 붉은오름을 보면 마치 쌍봉의 형태로 다가온다.

붉은오름의 오른쪽으로 감싸며 돌아온 백호맥은 한라산 북맥을 타고 내려온 산용(山龍)이 어승생오름에서 힘차게 기운을 응집한 다음 천아오름으로 시원하게 미끄러져 내리고 다시 산새미오름을 거쳐 노꼬메오름으로 연결된다. 이 오름의 서쪽과 동쪽으로 계곡이 흐르고 있는데, 특히 동쪽의 계곡이 크고 깊으며 동서 양쪽 계곡은 다시 북으로 방향을 바꾸어 천아오름 근처에서 합수(合水)하여 외도천으로 흘러 들어간다. 작국의 형세로 보아 붉은오름의 지세는 환포되어 마치 궁궐터에 위치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붉은오름으로 이어진 지맥은 계속하여 항파두리를 중심으로 고성리 아래쪽에 있는 파군봉을 거쳐 해안에 위치한 군량포까지 연결된다. 위쪽의 검은덕이오름을 안산으로 삼으면, 항파두리에서 조망했을 때 마치 장군이 수많은 군사들을 호령하는 형국인 장군출진형(將軍出進形)의 물형이 성립된다.

둔지악(屯地岳)

비자림 북서쪽에 있는 둔지악은 행정구역상으로 한동리와 덕천리의 경계에 있다. 둔지봉의 북

록(北麓)을 중심으로 동서로 덕천에서 선흥로 이어진다. 평대초등학교 전방에서 비자림쪽 들판 너머로 뾰족한 원뿔꼴 봉우리가 보이며, 다가갈수록 모서리를 이룬 삼각의 피라미드 형태로 변화하며 그 모습을 선명하게 평지에 드러낸다. 둔지봉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하여 동쪽으로 사라오름의 큰 용맥(龍脈)의 줄기를 타고 성판악, 괴평이오름, 거문오름, 붉은오름, 소록산, 대록산, 따라비, 모지악 등으로 이어지고, 다시 분기되어 입산봉으로 이어져 우전제비, 옷밤오름, 알밤오름, 체오름, 돌오름, 둔지봉으로 이어진다. 북사면으로 이어지면서 동으로 머리를 돌린 둔지봉은 동남과 서남쪽 곳곳에 명혈을 품고 문필(文筆)의 형상을 띠며 힘차게 머리를 들었다. 둔지봉은 특히 보는 방위와 위치에 따라 풍수에서 말하는 물형이 다양하게 형성된다. 둔지봉의 서남쪽을 의지하여 좌향을 잡으면 마치 장수가 앉아 있는 형국인 ‘무공단좌형(武公端坐形)’이 되며 혈처(穴處)가 맺힌다. 신촌(新村)의 뒤편에서 보면 붉은 용이 거북이를 희롱하는 형국의 적룡농구형(赤龍弄龜形)이 이루어지고, 서북[乾亥]으로 흘러온 둔지의 맥을 의지하고 서남방으로 입수(入首)하여 서북방 아래 좌향을 틀면 무소가 둥근 달을 바라보는 형상인 ‘서우망월형(鼠牛望月形)’과 누운 용이 머리를 들고 해주(海珠), 즉 바닷가에 서식하는 연체동물을 바라보는 형국인 ‘와룡기두망해주(臥龍起頭望海珠)’의 지세가 된다.

둔지악의 북쪽에 자리를 정하고 남향(南向)을 하면 금비녀를 땅에 드리운 형상인 ‘수지금차형(垂地金隰形)’의 형국이 이루어지는데 하면 군막(軍幕) 아래 귀인이 있는 형국으로 ‘장하귀인격(帳下貴人格)’이 이루어져 명혈을 품는다. 둔지봉의 정상 아래 삼혈(三穴)의 묘처(妙處)가 있으니, 서남을 의지하고 동북을 향하면 자손들이 크게 흥성하고 후손이 끊기지 않아 대대손손 부귀를 이루는 연손치부지(連孫致富地)가 된다. 둔지봉은 그 위용을 자랑하듯 삼각의 형태로 봉우리가 하늘을 향해 힘차게 솟아 올라간 목형(木形)의 기세로 문필봉(文筆峰)의 산세를 드러내고 있다. 멀리서 가까이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는 각도에 따라 그 산형은 교묘히 변화하지만 전체적인 형상은 필봉(筆鋒)의 기상을 품고 있다. 이러한 지리의 성정은 곧고 청수(淸秀)하며 대체로 귀한 것을 주재하는 기운이 있다. 이 둔지봉의 정기는 서북으로 이어지고, 동시에 동북으로 이어지며, 동남으로 이어진다. 가까이 바다쪽인 한동리, 덕천, 멀게는 선흥로 이어져 내려가고, 다른 한쪽은 평대리로 이어져 내려간다. 둔지악의 성정은 곧고, 평지에서 불쑥 솟아오른 형국으로 둔지봉의 중간 아래부분, 즉 복부(腹部)에 해당하는 부분에 지룡(枝龍)이 많이 퍼지는 형상이다. 기슭의 아래로 낮고 높은 작은 구릉들이 고저기복(高低起伏)하고 구불구불 뱀이 기어가듯이 좌곡우곡(左曲右曲)하며 그 사이로 수구(水口)가 형성되고 물이 따라 감싸 흐르니 그 경계를 이루는 곳곳에 땅의 색깔이 밝고 자색(紫色)의 서기(瑞氣)를 띤다. 둔지봉은 산남, 산북에 사는 사람 할 것 없이 그 기슭에 돌아가신 이를 편히 모시기 위해 오래 전부터 묘역으로 선호하는 망자들의 이상향이기도 하다.

성불오름(成佛岳)

산정(山頂)에 해탈한 반야(般若)의 지혜가 서린 성불(成佛)오름은 용호, 즉 좌우의 산줄기가 맞닿는 곳에서 촉촉한 봄물이 배어 나오듯 빼어난 수기(水氣)를 자랑하는 곳이다. 서남쪽에서 지맥을 받아 동쪽으로 머리를 들어 올리고 청룡이 오른쪽으로 감싸돌아 북동향으로 개구(開口)되어 그 사이로 깊고 은밀한 골짜기 숲을 이루니 여체의 옥문형(玉門形)이 된다. 그 위쪽 일대는 묘지군(墓地群)을 이루어 망자들의 안식처로 삼고 있다. 동쪽 산정에 귀성(貴星)이 보이는데 서기(瑞氣)를 띠고 용기한 암석이 마치 선정에 든 수행인이 생사의 고뇌를 뛰어넘어 해탈한 반야의 지혜를 얻어 성불하는 듯 유장한 세월을 맞으며 영원을 향하고 있다. 물형으로 바라보면 성불암(成佛岩) 아래는 여인이 하늘의 성신을 향해 절을 하는 형상인 ‘옥녀배두형(玉

女拜斗形'으로 뻐어난 문기(文氣)가 발복의 기운을 타고 시원하게 동쪽을 타고 내려간다. 이 오름은 오성(五星)으로 봤을 때 금형(金形)과 토형(土形)이 배합된 형태이다. 옥문형을 이루고 있는 골짜기의 위쪽은 엄지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 사이의 협곡(峽谷)과도 같은 검혈(鉗穴)이 형성되어 청룡작국을 하여 동북쪽인 우측으로 물이 돌아나간다. 동북으로 흘러 내려간 물줄기는 한라산에서 발원하여 유원하게 에돌아 흘러 천미천의 지류와 합수하여 민오름, 비치미, 개오름을 차례로 지나 영주산을 경유하여 남으로 향진한다. 보는 위치에 따라 변화가 무쌍한 풍수의 주요 작국 요소인 용호사수(龍虎砂水)가 겸비된 곳으로 단순한 듯하지만 역리상으로는 음양의 이치를 내포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역사성과 문화성이 깊게 배어 있는 곳으로서 성불오름의 지명이 의미하는 만큼 원형의 보존과 옛 기록을 토대로 한 문화적 소재를 복원함이 필요하다 하겠다.

비치미오름(飛稚岳)

천미천의 물줄기가 동으로 흘러가다가 비치미오름에서 돌연 직각으로 방향을 돌려 남쪽으로 향진하며 기운의 경계를 가르며 지나간다. 비치미오름은 민오름, 큰도리미, 작은도리미와 더불어 음양이 소생하여 연역된 사상(四象)의 조화를 안고 있는 오름 중의 하나이다. 선율처럼 황홀한 곡선미를 자랑하며 휘날리다가 마치 막 가무를 마치고 하늘의 성신(星辰)을 향해 머리를 조아리듯 양팔을 앞으로 뻗어 절을 하는 '무녀배두형(舞女拜斗形)'의 형국을 떠올리게 한다. 또한 비치미 오름은 흘러온 지세를 서북쪽에서 받아 머리를 들어올리고, 굽부리가 동쪽으로 벌어져 내리면서 양날개의 형국을 이룬다. 그 가운데로 다시 도톰하게 등성이가 융기되면서 출렁이듯 한 번은 높게 한 번은 낮게 솟아 두 번의 기복을 이루며 힘차게 기운을 모으며 동쪽으로 줄기가 흘러 내려가는 동사면과 남사면의 자리에 묘지군(墓地群)을 형성한다. 그 양날개 가운데 형성된 등성이 양쪽 사이로 골을 이루며 물줄기를 형성하고 청룡·백호가 좌우로 환포하여 풍수의 작국이 오묘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 전방으로 건영목장을 중심으로 남동쪽으로 백약이, 좌보미, 대왕산, 개오름, 모구리, 영주산, 모지오름 등이 보이고, 북동쪽으로 동거문이오름 등이 멀리서 가까이서 안산과 조산을 이루며 색감의 조화를 형성하며 아름답게 다가온다. 비치미오름을 산의 형태로 보면 남동사면 쪽으로 길게 가로누워 비스듬히 뻗어 내려간 횡악(橫岳)의 형태이다.

풍수의 물형으로 관산(觀山)하면 전체적인 산체는 평이 나는 형상인 비치형(飛雉形)과 춤추는 여인이 28수(宿)의 하나인 두성(斗星)을 향해 절을 하는 형상이다. 비치미 오름의 지명에 관해서는 의론이 분분하지만 평이 나는 형국과 비끼어 돌아 뻗은 형국 모두 의미상으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조선시대 지도에 비치악(飛雉岳)이란 표기는 없고 대신 그 위치에 '횡악(橫岳)'이라 표시되어 있으니, '비치미'란 지관들이나 당시 주민들에 의해 구전으로 불리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고, 공적으로는 한자로 '횡악'으로 표기되었으리라 보면, 바라보는 견해에 따른 표기상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된다.

비치미오름 남사면에서 보면 묘지악은 정상부가 평평한 마치 '一'字 모양인 일자문성(一字文星)으로 다가온다. 북서쪽에서 생성된 물줄기가 비치미 오름의 북사면을 감으며 내려가다가 방향을 틀어 횡수국(橫水局)을 이루며 남쪽으로 흘러 물을 합하고, 한쪽은 천미천이 서사면과 남사면을 감싸안으며 영주산쪽으로 흘러가면서 뻐어난 수기(水氣)를 자랑한다. 비치미오름은 그 지기(地氣)를 얻으면 누대에 걸쳐 군 계통이나 예능 계통에서 출중한 인물이 출현할 수 있는 영험한 기운을 안고 있다고 한다.

좌보미오름(左輔岳)

좌보미오름은 오행의 형상을 두루 갖추고 상생하는 변화의 형국이다. 북쪽으로 목형(木形)인 문필봉이 자리하고, 북에서 동쪽으로 흘러내려가 금형(金形)인 부봉사(富峰砂)가 이루어지며, 남쪽으로 향진하여 수형(水形)을 빚어낸다. 다시 남쪽에서 금형(金形)이 이루어지고 서쪽으로 올라가서 일자문성(一字文星)인 토형(土形)을 빚어내며 문필의 머리에 핀 화형(火形)에 상응한다. 누군가 5개의 봉우리라고 했지만 땅의 변화를 읽으며 바라보면 크고 작게 일어난 봉우리의 형태를 가감했을 때 9개의 봉우리라 할 수 있다. 오름의 형세가 서 있는 위치와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형상을 달리하며 변화를 창출하고 있다. 한 봉우리가 끝난 듯하면 다시 다른 형상의 봉우리가 나타나고 내려가는 듯하면 다시 봉우리가 나타나 올라가야 한다. 높고 낮게 출렁이며 유연하게 이어지는 곡선미의 조화를 안은 좌보미오름의 안에 들어오면 마치 미궁(迷宮)에 빠진 듯하다. 땅의 색깔이 양명하고 산세가 서로 호응하는 듯 하여 몸을 등성이에 기대 노라면 속세를 잊은 듯 마음이 편안해진다. 땅과 수풀의 색깔이 청량(淸曠)하게 어울리며 산자락에 소박하게 둘러쳐 있는 작은 소나무 군락들이 못 수풀과 어울려 푸르름을 더하고, 동북쪽 자락에 기대면 어느새 남서쪽으로 비치미오름이 아름답게 조형된다. 북동쪽으로 궁대악, 후곡악, 모구리, 유건에, 통오름, 독자봉, 수산봉, 나시리오름 등이 조산으로 호응하고, 남쪽으로 남산봉, 영주산, 달산봉, 매오름 등이 들어온다. 다시 서남쪽으로 멀리 주봉인 한라산을 비롯하여 가까이로 백악이, 문석이, 동거문이, 높은오름 등이 들어오고, 북쪽으로 다량쉬오름 등이 호응한다.

좌보미오름의 지세는 북에서 머리를 들어 청룡이 동쪽으로 기복을 이루며 출렁이듯 흘러 가다가 다시 허리를 틀어 동남으로 향진하다 남쪽으로 우선(右旋)하여 내려간다. 그 과정에서 동남쪽으로 지룡(枝龍)이 수구의 경계를 이루는 곳곳에 가지들 틀어 묘택이 들어서는 장소를 제공한다. 북에서 서쪽으로 흘러 남쪽으로 내려간 백호는 기세 좋게 청룡을 응수하듯 힘차게 기복을 이루며 내려간다. 북동에서 흘러온 용을 타고 북방에 등을 기대고 남방을 향하면 일명 '원님아진마루(원님이 앉은 마루)'인 피두안(陂頭案)을 삼고 거위가 날아가는 형국인 비아형(飛鵝形)이 된다. 또한 좌보미의 작은 산줄기를 타고 흘러내려온 용이 동북으로 맥의 뼈대를 이루어 서북방으로 머리를 입수(入首)하여 모구리오름을 안산으로 삼으면 호랑이가 엮드린 형국인 복호형(伏虎形)이 된다. 좌보미오름의 동남쪽은 산자락이 흘러오다가 다시 머리를 들어올린 형국으로 서북방에 등을 기대면 왼쪽으로 누워 잠을 자는 형국으로, 극히 길하고 부귀가 끊이지 않는 금성형(金星形)이 된다. 서북으로 흘러온 용(龍)에 서쪽과 서북이 만나는 아래 부분에서 서북 방향으로 조금 아래 신좌(辛坐)를 놓으면 죽은 평을 걸어놓은 형국인 '사치괘벽형(死雉掛壁形)'이 된다. 혈은 한쪽에 치우쳐 서리고, 혈 앞의 임대안(林帶案)을 삼으면 당대에 치부(致富)와 영화를 누리는 곳이 되며, 청룡에 서린 혈은 뒤에 올 사람을 기다린다. 좌보미의 변화무쌍한 산의 형국은 상서로운 기운이 뻗치는 곳이므로 음덕을 누릴 자는 하늘이 내릴 것이다.

동거문오름(東巨文岳)

음택지 중에서 서기(瑞氣)를 품은 망자들의 쉼터로 동거문오름과 높은오름은 둔지악과 더불어 지세가 자못 빼어난 곳이다. 동거문오름은 역(易)에서 말하는 구궁(九宮)의 변화를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하늘에서 빠진 기운을 살짝 가두어 땅의 기운과 은밀히 합치시키는 그러한 곳이다. 음양의 상대적 기운이 서로 밀고 당기면서 오행의 상생상극(相生相剋)을 조화롭게 섞어낸다. 예컨대 날카로운 듯하면 부드러워지고, 부드러운 듯하면 날카로운 기세로 다가온다. 내려가는 듯하면 올라가고, 올라가는 듯하면 내려간다. 송당~수산간 도로에서 1km 남짓한 곳에

서 남쪽으로 꺾어 좁은 숲으로 이어진 구좌읍 공설묘지로 들어서면 먼저 오른쪽으로 높은오름이 자리하고, 맞은편으로 보기 좋게 일자문성(一字文星)의 형상으로 동거문오름이 크게 다가온다. 그 사이로 문석이오름이 나지막이 반월형(半月形)으로 얼굴을 내민다. 이 오름들의 품을 사이로 평지를 이루고 있는 습지의 수색(水色)은 산영(山影)을 머금고 풍수의 극치를 이룬다. 빼어난 산의 몸체는 기슭에 가지를 틀어 곳곳에 혈처를 내고, 흘러온 내룡(來龍)은 기슭에 잔잔한 줄기를 형성하여 득수처(得水處)를 이루어 명혈을 이루는 좋은 조건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곳인지라 예로부터 이 지역은 좋은 자리에 조상을 잘 모셔 누대손손(累代孫孫) 발복을 꿈꾸는 후손들이 지관을 대동하여 혈처에 해당하는 묘자리를 찾는 곳이기도 했다. 그 동쪽의 지맥을 이어주는 오름들은 각기 특별한 성정을 품고 있지만, 동쪽의 오름들 중에 특히 심오한 역의 이치를 담고 있는 동거문오름은 풍수학적으로 중요한 오름 중의 하나이다. 동거문오름은 둔지악과 더불어 새기오름들을 많이 안고 있는 니류구(泥流丘)를 형성한 특색있는 오름 중의 하나이다. 남쪽의 한쪽은 좌보미오름 방향에서 물이 와서 동거문오름의 남쪽기슭과 동쪽 기슭을 감싸며 흘러 내려간다. 북동을 의지하여 남서쪽 방향으로 동거문오름의 안쪽에서 발원한 물이 남쪽으로 진행하다가 우선(右旋)하여 서쪽으로 돌아 다시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동북쪽으로 흘러내려가 동쪽 방향으로 합수(合水)를 이루니, 물이 경계를 이루는 곳에 기운이 생동하고 구릉과 구릉 사이로 발원한 물이 구곡수(九曲水)를 내며 주변 곳곳에 좋은 기운을 모은다. 청룡의 세력을 안고 하향(下向)하여 동쪽과 남쪽 기슭의 중간을 중심으로 밑으로 많은 가지용(龍)을 낸 이류구 사이가 기운을 모으는 양명한 곳이다. 서남쪽으로 좌보미를 안대(案對) 삼아 좌(坐)를 삼으면 드물게 고산혈(高山穴)이 이루어지며, 천(千)의 얼굴을 지닌 동거문오름에서 동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서남쪽을 향하면 쇠북을 걸어놓은 형상인 괘종형(卦鐘形)의 자리에 혈처가 서리고, 북쪽을 의지하고 남향을 하면 군막 속에 장군이 앉아 있는 형국의 자리인 우측에 혈처(穴處)가 있다. 또한 북쪽을 좌로 하여 남쪽을 향하면 땅에 던져진 금비녀의 형국인 '척지금차형(擲地金隰形)'의 자리가 혈처를 이루고, 열레빗의 형상인 앞의 산을 옥소안(玉梳案)으로 삼으면 주객(主客)이 조화를 이루어 누대자손발복지(累代子孫發福地)로 번창이 삼대(三代) 이상을 누리는 기운이 응기된 곳이다. 또 동거문오름의 아래 옛 정의지(旌義址)에서 서북방을 의지하여 동남방을 향하면 들보에 매달린 뱀이 개구리 소리를 듣는 형국인 문합괘량사(聞蛤掛樑蛇)의 형국이 전개된다.

동거문오름의 북쪽 정상부는 목형(木形)인 필봉(筆鋒)의 기세로 우뚝 솟아 있고, 그 좌우로 금형(金形)의 탐스러운 크고 작은 봉우리들이 오행의 기운을 상호 교환하며 환영(幻影)의 정경을 펼친다. 그 우주의 신묘함을 안고 있는 동거문오름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동서남북 전 사면으로 오르고 내려야 한다. 스스로 그 기운의 작용을 느끼며 허심한 마음으로 모든 이욕(利慾)과 잡념을 끊고 바라보아야 한다. 동거문오름은 하나의 정형화된 시각으로 보아서 안된다. 이 지역에서 동거문오름은 역의 이치가 갖는 변화의 상징으로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할 때 동거문오름은 음택지로서의 명혈지가 아니라 산 자와 죽은 자가 함께 공유하는 21세기 동쪽의 서광(曙光)을 알리는 희망의 오름으로 다가올 것이다.

우도(牛島)의 지세

우도는 풍수적 물형의 지세로 보면 와우형(臥牛形)이다. 와우형은 소가 누워 머리를 든 형상으로 왼쪽 방향으로 소가 먹을 양식인 낮가리에 비유되는 성산일출봉(城山日出峰)이 있다. 쇠머리오름의 왼편에 마치 불꽃처럼 화형(火形)의 형태로 보이는 성산일출봉은 곧 소의 양식인 적초안(積草案)이 된다. 우도면의 안산격인 서쪽으로 지미봉이 보이고, 그 왼쪽으로 조산의 형태

로 다량취오름이 보이며, 다시 왼쪽 뒤쪽으로 높은 오름이 보이고, 그 뒤로 멀리 크고 작은 태을(太乙)과 천을(天乙)의 봉우리들이 호응한다. 우도봉 자체가 진산(鎭山)이 되어 용(龍)의 근원처가 멀지 않은 듯하지만 사실 한라산의 산세로 볼 때 동쪽의 지맥은 한라산을 조종산(祖宗山)으로 하여 사라오름, 물오름, 성판악, 영주산, 성산일출봉으로 흘러오다가 바다로 들어가 다시 우도악으로 머리를 들었기 때문에 지맥의 흐름을 따질 때 우도 자체만 가지고 보면 안 될 것이다.

풍수서인 장경(葬經)에 말하길 ‘땅에는 사세가 있고, 기(氣)는 팔방을 따른다. (地有四勢, 氣從八方)’라고 했다. 우도를 사신사(四神砂)적으로 말하자면, 주산인 쇠머리, 즉 우도봉(牛島峰)을 중심으로 알오름 사이 우묵한 부분, 즉 우도봉의 왼쪽으로 속기하듯 청룡의 맥이 힘차게 일어나 출렁이듯 기복을 이루며 내려오다가 알오름(망동산)에서 고개를 들고 꿈틀하며 동천진동과 서천진동 방향으로 나누어져 들어간다. 알오름(卵峰)은 낮은 금형체(金形體)의 봉우리로 마치 아름다운 여인의 가슴처럼 봉긋하게 솟아 있다. 그 바로 오른쪽에 분화구로 우묵한 부분은 현재 저수지가 들어서 있는데, 이 부분은 마치 여인이 소반을 들고 있는 듯 옥녀금반형(玉女金盤形)과 같기도 하고, 검혈(鉗穴)의 형태를 안고 있다. 우도봉을 중심으로 우측 북서향으로 뻗어나간 말굽형 분화구로 이루어진 외륜산(外輪山)의 백호맥이 힘차게 나아가면서 조일리 영일동 부근에서 분맥하여 원줄기는 중앙동과 서광리 방향으로 회두(回頭)해 서빈백사 방향으로 흘러들어가고, 분기된 줄기는 우도에서 제일 처음 해를 맞이한다는 뜻의 조일리(朝日里)의 영일동(迎日洞)으로 살짝 내려오면서 비양동(飛陽洞) 방향으로 흘러 들어간다.

제주도에는 옛날부터 양쪽 날개가 있다는 말을 하는데, 이것은 동비양(東飛揚)과 서비양(西飛揚)을 지칭한다. 동비양은 해가 떠오르는 곳이라 하여 ‘별양(陽)’이라 하고, 서비양은 해가 지는 것을 건져 올린다는 뜻으로 ‘위로 오를날 양(揚)’을 사용함으로써 동서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낸다고 생각했다. 다시 우도봉의 백호에서 분맥한 줄기는 중앙동 부근에서 나뉘어 주흥동 아래의 잘룩한 지세로 인하여 생성된 힘찬 기운이 하고수동과 상고수동 방향으로 살짝 뻗어 내려가다가 오봉리를 거쳐 마지막으로 세비코지(소의 꼬리, 牛尾)로 강하게 흘러 들어간다. 이 세비코지 부분은 모서리 부분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허하고 앞쪽 또한 바람의 막이가 없으니 사방으로 불어오는 거센 바람을 맞이하는 곳이다. 이 모진 바람과 싸우다 보니 이 곳의 주민들은 세월을 거쳐오면서 강한 정신력과 악천후를 이겨내야 하는 의지를 다져 왔다. 또한 물형론으로 소의 꼬리에 해당되는데, 소는 꼬리에 힘이 쏠린다. 그러므로 백호의 맥이 흘러오다가 땅 속으로 은복(隱伏)하여 이 곳 쇠비코지에서 머문다. 이러한 영향으로 이 곳에서 강인한 정신의 출중한 인물이 출현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다시 중앙동 부근에서 우도봉의 원줄기는 천진동을 사이로 하우목동과 상우목동으로 나뉘어 서광리 쪽과 서천진동 쪽으로 흘러 들어간다. 우도면 전체를 휘감고 있는 청룡과 백호의 맥은 좌선수국(左旋水局)의 형태로 돌고 있어서 백호의 자락이 청룡의 자락보다 길게 돌고 있다. 백호의 맥을 벗어난 듯 우측 해안을 끼고 있는 조일리 영일동과 비양도가 있는 비양동, 까막동산이 있는 하고수동은 대체로 지세가 낮고 남쪽과 북쪽이 대체로 허(虛)하기 때문에 풍수학적으로 선인(先人)들의 지혜를 찾아 볼 수 있다. 마을에서 보아 그 허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마치 용의 형태로 높고 낮게 쌓은 돌담이 해안을 따라 이어져 있으며, 동시에 방사탑(防邪塔)을 2~3m의 높이로 쌓아 허한 곳에 침입하는 살풍(殺風)을 막아주고 있다. 특히 해안을 중심으로 외부에 다른 섬이나 가까이 조산과 안산이 없는 곳이면 대체로 방사탑을 위시하여 돌담을 겹겹으로 쌓아둔 곳이 많다. 돌담을 이중 삼중으로 겹겹이 친 것은 바람막이가 없는 허한 해안에서 불어닥치는 강한 해풍으로부터 살풍을 걸러주는 역할로 선인들이 풍수의 지혜를 발휘한 것이라 하겠다. 우도의 영일동과 비

양동은 비양도를 안산(案山)으로 삼고 있다. 그렇지만 비양도는 안산으로서는 너무 낮게 드리워져 있어서 마을의 좋은 기를 흠트리게 하는 강한 살풍을 막아주기에는 너무 낮다. 그렇기 때문에 방사탑과 돌담은 예로부터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기리는 마음에서 풍수적으로 허한 부분을 막아주는 역할로서의 기능도 함께 했다고 본다.

소는 성질이 유순한 동물로 한 집안의 농사를 도맡아 지으며 누워서 음식을 먹는다. 와우형(臥牛形)은 땅을 이용하는 업과 관계가 깊으며, 소가 누운 외양간은 화려하지 않고 소박하다. 이 곳을 너무 호화롭게 꾸민다면 격식에 맞지 않는 것이다. 우도는 천혜의 관광자원으로 빼어난 자연환경을 갖고 있고 우도봉으로부터 출맥하는 기가 섬 전체를 안 듯 흐르기 때문에 그 어느 곳 하나 함부로 잘라내거나 훼손한다면 평화롭게 음식을 먹고 있는 소의 안정을 깨뜨리는 결과가 된다. 또한 외양간의 속성에 맞지 않는 화려한 색채로 무분별하게 건물을 지어대다 보면 오히려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며, 마치 인간의 정·동맥을 끊어내고 몸의 곳곳에 못을 박는 것과 같게 된다. 태고의 기운을 교란시키고 차단하다 보면 우도가 갖는 생명력을 상실하게 된다.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천년 만년 후손들이 이어갈 소중한 땅이 무분별한 개발의 희생물이 되지 않으면 좋겠다. 천진관산(天津觀山)이 그러하듯 우도의 천진동에서 바라다 보이는 성산일출봉과 한라산을 위시하여 한눈에 들어오는 지미봉, 둔지오름, 알오름, 다랑쉬오름, 높은오름, 용눈이오름, 모구리오름, 아끈다랑쉬오름, 식산봉, 대왕산, 궁대악, 유건에오름, 후곡악 등 수많은 오름군들이 안산과 조산으로 다가옴은 우도가 안고 있는 또 하나의 보배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안산과 조산들을 사람에 비교하면 관광객과 우도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 비교될 것이다. 즉, 우도는 바깥에서 보아 조망권에 들어 있는 섬이기 때문에 난개발은 자제를 해야 한다. 우도봉에서 볼 때 남서쪽은 대체로 지세가 높고, 북동쪽과 북서쪽은 지세가 낮다. 낮은 쪽은 바람이 센 곳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친환경적인 관광개발이 필요한 듯하지만, 남서쪽은 성산포나 종달리 쪽에서 바라볼 때 조망권이 확실한 곳이기 때문에 높은 건물이나 인위적인 개발은 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우도팔경이 말해주듯 천혜의 아름다움과 태고의 순수를 자아내게 해야 한다. 푸른 초지 위에 평화롭게 풀을 뜯어야 할 곳이 환락과 사치스런 장소로 둔갑하고, 경제적인 대상만 생각하여 무분별한 숙박시설과 유락시설 등 난개발 지역으로 바뀐다면 우도로서의 생명도 다한다고 본다. 본래 소는 화려한 곳에서 살 수 있는 동물이 아니다. 소 같은 우직함과 끈기로 고요한 이미지를 최대한 살리고 우도팔경의 조망권을 잘 살려서 외부인들이 그리는 꿈의 섬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와우형’의 우도는 다분히 시골적인 분위기와 천혜의 때문지 않은 평온한 아름다움을 상징화시켜 문화예술의 장으로 성산일출봉과 연계하여 기획해 나가야 한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천년 만년 후손에게 고이 물려줄 우도의 정수리인 섬머리 정상이 공적인 시설의 명분으로 깎이고 파헤쳐져 훼손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위대한 자연의 선물을 한갓 인간의 작은 실리와 편의를 미끼로 마구 파괴하는 일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며 그렇게 하여 과연 무엇을 얻을 것인지 자못 두려움과 걱정이 앞선다. 풍수는 자연철학이며 자연과학이다. 예로부터 치산치수(治山治水)를 잘 해야 태평한 세상이 온다고 했다. 옥보다도 귀한 제주도 속의 또 하나의 작은 천혜의 섬 ‘우도’는 영원히 때문지 않는 우도이길 바란다.

성산일출봉(城山日出峰)

성산일출봉은 우도의 적초안(積草案)에 해당하며, 자체적인 봉우리의 성정은 풍수에서 말하는 오체(五體)의 형상으로 화형(火形)에 속한다. 형상은 보는 방향과 각도에 따라 변화하는데, 서남쪽에서 일출봉을 상대로 안산을 삼으면 일자문성(一字文星)인 토성(土星)으로 변한다. 분화

구를 중심으로 외벽에 뽀족뽀족하게 기암들이 솟은 것이 마치 불꽃을 보는 듯하다. 따라서 성산일출봉은 해맞이 봉으로서 일품이다. 성산일출봉에 올라 천지 사방을 바라보면 선계(仙界)에 온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 동북과 남쪽으로 푸른 창해가 끝없이 펼쳐지고 동북쪽에는 우도가 자리한다. 서북쪽으로는 식산봉의 안산이 되고 왼쪽에 소수산봉과 대수산봉이 호응하여 멀리 한라산이 동쪽을 향하여 크고 작은 오름들을 안고 뻗어 있다. 성산일출봉은 귀봉사(貴峰砂)격으로 예술과 빼어난 재능을 안겨 주는 역할을 한다. 서 있는 위치에 따라 모습을 달리하는 성산일출봉은 지각이 견고하고 섭지코지를 위시하여 천의 얼굴을 하고 있다. 보는 방향과 각도에 따라 천변만화하는 기묘한 형상은 동편의 화려한 기상이요, 예술과 문장의 수기(秀氣)를 안겨 주는 훌륭한 화형(火形)의 적초안이며, 귀사(貴砂)이다. 빼어난 제주 동쪽의 지맥이 응기한 곳으로서 성산일출봉과 주변의 일대가 조화를 이루며 그 붉게 타는 듯한 찬란한 기상이 대대로 이어질 것이다.

11 형기론과 제주의 풍수

제주 곳곳의 풍수적 물형(物形)

『금낭경(錦囊經)』에 다음의 언급이 있다.

땅이 형체를 이루어 기가 돌아다녀야 만물이 생을 얻는다(땅이 형체를 갖춘 곳은 기(氣)가 능히 돌아다닐 수 있다).

土形氣行 物因以生.

또 『설심부(雪心賦)』에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다.

물은 같은 종류로 유추하고 혈은 형상에 연유하여 취할 것이다.

物以類推 穴由形取.

물형론(物形論)은 산천의 형세와 모양에 의해 그 속에 내재된 기운이 서로 상통한다는 설(說)로서 산세가 웅장하고 생동하듯 활달하면 땅 속의 기운도 왕성하다는 것이다. 산세가 평평하거나 고저기복(高低起伏)하고 좌곡우곡(左曲右曲)의 굴곡 없이 완만하게 뻗었다면 그 땅 속의 기운도 쇠약한 것으로 본다. 그 지기가 살아 움직이는 산세를 사람이나 짐승, 새 등의 모양에 비교하여 이치에 부합한 곳을 찾고, 그에 따른 길흉을 인사에 적용하여 판단하는 방법론이다. 산형을 살피기 위해서는 형기론(形氣論)과 이기론(理氣論)을 잘 조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형국론에서는 좌정(坐定)한 형국과 사(砂)의 대응을 중시한다. 예컨대, 와우형(臥牛形)이면 소가 누워 곡초를 먹는 형상이므로 상대적으로 곡초형에 속하는 안대(案對)가 필요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형기론은 오성체(五星體)로 나누어 물형을 정한다. 먼저 목성(木星)과 화성(火星)의 형국에 속하는 것은 사람의 신체 형태로서 혈을 맺는 곳이 주로 심장(心), 단전 부위(臍), 음부(陰) 등이다. 두 번째로 토성(土星)의 형국은 대체로 길짐승의 형상인데 혈을 맺는 곳이 주로 이마(額), 코(鼻), 귀(耳), 배(腹), 꼬리(尾) 등에 있다고 본다. 뿔은 감각이 둔한 곳이므로 좋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세 번째로 금성(金星)의 형국은 짐승의 형상으로 혈이 주로 날개(翼)와 벼슬(冠), 생식기(窩) 쪽에 맺는다고 보는 것이다. 네 번째로 수성체(水星體)의 형국은 대체로 뱀이나 용의 형상으로 주로 꼬리(尾)나 머리(頭) 부분, 코(鼻), 이마(額), 귀(耳), 배(腹) 등에 혈이 맺힌다고 본다. 그러나 입에는 강한 독이 있으므로 흉하다고 간주한다.

풍수의 형기론(形氣論)으로 본 제주도의 오름과 그 외 지형에 관한 형국을 대략 소개해 본다.

● 식산봉(食山峰) : 옥녀산발형(玉女散髮形) ● 우도(牛島) : 와우형(臥牛形) ● 영실(靈室) : 장군대좌형(將軍大坐形) ● 지미봉(地尾峰) : 옥토망월형(玉鞦望月形) ● 체악(體岳 : 체오름) : 쌍유형(雙乳形) ● 의항(蟻項 : 개미목) : 사치괘벽형(死稚掛壁形) ● 동거문악(東巨門岳 : 동거문이) : 목난반개형(木蘭半開形), 괘종형(掛鍾形)막리장군형(幕裡將軍形), 척지금차형(擲地金隰形), 문합괘량사형(聞蛤掛樑蛇形). ● 서거문악(西巨門岳 : 서거문이) : 반용희주형(盤龍戲珠)

형) ● 서우봉(犀牛峰) : 서우망월형(犀牛望月形) ● 함덕(咸德) : 비룡대강형(飛龍大江形) ●
 둔지봉(屯地峰) : 무공단좌형(武公端坐形), 와룡기두망海珠형(臥龍起頭望海珠形), 서우망월형
 (犀牛望月形) ● 조천(朝天) : 청조포란형(靑鳥抱卵形), 비룡팔해망복주형(飛龍八海望伏珠) ●
 조인납(助仁納) : 해하농주형(海蝦弄珠形) ● 어도봉(於道峰 : 어도오름) : 옥봉귀소형(玉鳳歸
 巢形) ● 구몰니(龜沒泥) : 황사청와형(黃蛇聽蛙形) ● 장악(獐岳 : 노루오름) : 월촉낙지형(月
 燭落地形), 탐낭출지형(貪狼出地形), 문장희필형(文章 蓰筆形), 완용농주형(畵龍弄珠形), 선인탄
 금형(仙人彈琴形), 귀룡농주형(歸龍弄珠形), 노승배불형(老僧拜佛形), 초월임정형(初月臨汀形),
 비봉포란형(飛鳳抱卵形) ● 어승봉(御乘峰 : 어승생) : 환귀소형(還歸巢形), 국마어천형(國馬御
 天形) ● 군산(軍山) : 풍취나대형(風吹羅帶形), 와우하순형(臥牛下脣形), 선인격고형(仙人擊鼓
 形), 옥녀등공형(玉女登空形), 관자형(官字形), 보검괘벽형(寶劍掛壁形) ● 무악(戊岳 : 민오름)
 : 비아부수형(飛鵝赴水形) ● 족건대비(足蹇大妃 : 조근대비) : 금차형(金隰形) ● 모슬봉(毛瑟
 峰) : 해어농주형(海魚弄珠形), 주사마적형(蛛絲馬跡形) ● 단산(簞山) : 비봉귀소형(飛鳳歸巢
 形) ● 대정남문(大靜南門) : 옥봉귀소형(玉峰歸巢形) ● 대정북문(大靜北門) : 황사포와형(黃
 蛇抱蛙形) ● 차귀도(遮歸島) : 선인기국형(仙人碁局形), 금차괘벽형(金隰掛壁形), 금차척지형
 (金隰擲地形), 상산사분문형(上山蛇糞門形) ● 산방산(山房山) : 옥촉조천형(玉燭照天形), 사치
 괘벽형(死稚掛壁形), 노승배불형(老僧拜佛形) ● 유수암(流水岩) 위쪽 : 비조탁목형(飛鳥啄木
 形), 소자형(小字形) ● 장전(長田) : 선인기국형(仙人碁局形), 목란반개형(木蘭半開形) ● 광령
 리(光令里) : 복룡형(伏龍形) ● 대정남성악(大靜南星岳) : 옥녀탄금형(玉女彈琴形) ● 무악(武
 岳) : 현조타란형(玄鳥墮卵形) ● 별진전(別陣田 : 별진왓) : 황룡토운형(黃龍吐雲形), 목란반개
 형(木蘭半開形), 서우망월형(犀牛望月形) ● 천아악(天娥岳 : 천아오름) : 천녀등공형(天女登空
 形) ● 고내악(高內岳 : 고내봉) : 맹호출림형(猛虎出林形) ● 녹하지오름 : 유어봉수형(遊魚逢
 水形), 주사마적형(蛛絲馬跡形) ● 고성(古城) 서남쪽 : 만궁형(彎弓形), 금계포란형(金鷄抱卵
 形) ● 세오름(삼형제 오름) : 삼선회주형(三仙回舟形) ● 금덕(今德) 위쪽 : 주사마적형(蛛絲
 馬跡形) ● 금덕 아래 : 옥녀탄금형(玉女彈琴形) ● 괘지(郭支) 서북쪽 : 운중반월형(雲中半月
 形) ● 조천(組天)·함덕(咸德) 사이 : 노승배불형(老僧拜佛形) ● 안덕 소병악(小竝岳) : 부귀쌍
 전지 ● 안덕 대병악(大竝岳) : 장군대좌형(將軍大坐形) ● 하귀 파군봉(破軍峰) : 육서하전형
 (六鼠下田形) ● 모슬봉(毛瑟峰) 동남쪽 : 장군대좌형(將軍大坐形), 서쪽 : 해하농주형(海蝦弄
 珠形), 주사마적형(蛛絲馬跡形) ● 대정 가시악(加時岳) : 선인무수형(仙人舞袖形) ● 대정(大
 靜) 방면 : 아독고모형(兒犢顧母形), 옥봉귀소형(玉峰歸巢形), 대정 북쪽 : 황사포와형(황사포
 와형) ● 한경면 조소악(鳥巢岳) : 옥봉귀소형(玉峰歸巢形) ● 한경면 가마오름(釜岳) : 낙타어
 보형(駱駝御寶形) ● 원수악(元水岳 : 원물오름) 남쪽 : 영웅대좌형(英雄大坐形) ● 월라산(月
 羅山) 서쪽 : 옥대패인형(玉帶佩印形) ● 군산(軍山) 북쪽 : 보검괘벽형(寶劍掛壁形) ● 군산
 서북쪽 : 비봉귀소형(飛鳳歸巢形) ● 군산 동쪽 : 선인격고형(仙人擊鼓形) ● 모슬봉(毛瑟峰)
 서북 : 황사축서형(黃蛇逐鼠形) ● 어승봉(御乘峰) : 부아규어형(浮鵝窺魚形) ● 성판악(城板
 岳) : 문장주필형(文章走筆形) ● 수망리(水望里) : 복룡농주형(伏龍弄珠形) ● 백약산(百藥山)
 남쪽 : 쌍동강서형(雙童講書形) ● 송당고악(松堂高岳) 서북쪽 아래 : 비조탁목형(飛鳥啄木形)
 ● 서거문악(西巨門岳) 아래 : 구룡쟁주형(九龍爭珠形) ● 독자봉(獨子峰) : 월후종성형(月後從
 星形) ● 모구악(母狗岳) 아래 : 서우망월형(犀牛望月形) ● 교래(橋來) 위쪽 : 사해장군형(四
 海將軍形) ● 교래(橋來) : 황홍형(黃虹形) ● 표선경(表善境) : 금계포란형(金鷄抱卵形), 황룡
 부주형(黃龍負舟形), 노서하전형(老鼠下田形) ● 달산봉(達山峰) 아래 : 금반옥대형(金盤玉帶
 形), 금구도수형(金龜倒水形) ● 대정(大靜) 가시악(加時岳) 동쪽 : 선인채연형(仙人採蓮形), 면

궁형(眠弓形) ● 토산봉(兔山峰) 북쪽 : 규녀배두형(閨女拜斗形) ● 지미봉(地尾峰) : 옥로괘벽형(玉爐掛壁形) ● 하도리(下道里) : 구사축와형(九蛇逐蛙形), 옥녀채연형(玉女採蓮形), 연화부수형(蓮花浮水形) ● 손자봉(孫子峰) 북쪽 : 옥낭괘벽형(玉囊掛壁形) ● 월랑봉(月郎峰) 아래 : 주사마적형(蛛絲馬跡形) ● 월랑봉(月郎峰) 위쪽 : 황사괘량형(黃蛇掛樑形) ● 소수산봉(小水山峰) 서쪽 : 반월형(半月形) ● 교래(橋來) 위쪽 : 선인독서형(仙人讀書形) ● 교래(橋來) 서쪽 : 목란반개형(木蘭半開形) ● 물장오리(水長兀) 아래 : 사해장군형(四海將軍形), 금계포란형(金鷄抱卵形) ● 영심기암(靈室奇巖) 아래 : 명선포지형(鳴蟬抱枝形) ● 비치악(飛雉岳) 주변 : 무녀배두형(巫女拜斗形) ● 거린오름(傑人岳) 중간 : 장군대좌형(將軍大坐形) ● 성불악(成佛岳) 아래 : 유녀배두형(遊女拜斗形) ● 신흥리 지경(新興境) : 노사출림형(老蛇出林形) ● 한동리(漢東里) 지경(地境) : 현조괘벽형(玄鳥掛壁形) ● 신흥리(新豐里) 지경 : 주사마적형(蛛絲馬跡形), 옥자형(玉子形) ● 가시악(加時岳) : 회룡고조형(回龍顧祖形), 선인기좌형(仙人起坐形) ● 표선(表善) 달산봉(達山峰) : 문장투필형(文章投筆形) ● 광령(光令) 위쪽 : 옥녀탄금형(玉女彈琴形), 운중복월형(雲中伏月形) ● 광령(光令) 아래 : 복호형(伏虎形) ● 광령(光令) : 연화도수형(蓮花倒水形) 등

지명(地名)과 풍수

한국의 풍토 산하 어디를 막론하고 땅이름에 관한 풍수지리설의 영향은 대단히 크다. 지형 자체가 어느 동물이나 물체와 비슷하여 그러한 땅이름이 저절로 생긴 곳도 많지만, 어느 곳 이름은 풍수 사상과 연결 지어 짓기도 하고, 어떤 땅이름은 그와 관련하여 고치기도 했다.

지명(地名)에는 대부분 풍수학적 의미를 담고 있다. 삼천리 방방곡곡 사찰(寺刹)이나 부귀겸전한 훌륭한 가문의 명당(明堂)을 가 보면 모두가 풍수의 길지(吉地)를 얻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답사를 통해 그러한 국반급(國班級)의 명당자리를 보면 산음발복(山蔭發福)하는 풍수의 오묘함을 실감할 수 있다. 예컨대, 제주도 서귀포시에 속한 보목동(甫木洞) 마을 앞에 문필의 기상으로 수려하게 서있는 ‘섧섬’이 있는데, 이 문필봉(文筆峰)의 정기를 안고 이 마을에서 약 80여년간 학문과 관계된 교수·교사가 근 400여 명이 배출되었다. 또한 쌍둥(雙童) 마을인 비하리(飛下里 : 날아 내리다의 의미)와 비상리(飛上里 : 날아 오르다의 의미)에 국제공항이 생겼는데, ‘비(飛)’자는 비행기가 난다는 의미인 것이다. 그리고 수만리(水滿里 : 물이 가득 찬다는 의미)라 부르는 수백 년된 마을은 댐공사로 인하여 물에 잠기게 되어 이주(移住)하게 되었으니 지명대로 수만리(水滿里 : 마을이 물로 가득참)가 되었다. 또한 강원도에 천공(穿空 : 뚫어서 난 구멍)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에 철도를 위한 터널이 마을 밑으로 지나면서 터널의 공기소통을 위해 뚫어놓은 구멍이 그 마을로 통하고 있다. 그리고 온천이 나는 지역은 대체로 지명이 ‘온(溫)’자나 ‘부(釜 : 가마솥)자와 관련이 있다. 예컨대, 온양온천(溫陽溫泉), 부곡온천(釜谷溫泉) 등이 그러하고, ‘매(埋 : 묻을 매)’자가 있는 지명에는 대체로 공동묘지가 들어서 있다. 지명에는 역사와 민속과 고사(故事) 그리고 지형이며 지표며 어떤 자연의 현상, 인간의 현상까지도 그 이름 속에 숨쉬고 있는데, 시간이 경과하면서 수많은 파괴가 이루어져 왔으며 지금도 행정 구역을 합치고 떼고 할 때마다 지명을 별반 죄책감 없이 파괴하고 하는 실정이다.

예로부터 제주민들에 의해 불리던 오름의 이름이 제각기 있다. 그 후 한자 표기에 따라 원래의 의미를 한자로 표기한 것이 있고, 일제 강점기에 일제 행정부에 의해 한자로 표기된 것이 있다. 일본에 의해 표기된 한자는 풍수의 의미가 내포된 선대의 지명을 살렸다기보다는 대개 소리나는 음(音)을 따서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한자 표기를 한 부분이 많다고 본다. 그러나 선

대의 지관들이나 마을마다 상지술(相地術)에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 풍수적 형국을 살펴 유래된 지명이 대부분이라 할 것이다. 다음은 풍수에 관련된 오름의 대략적인 지명들이다.

물형(物形)과 관련된 오름들

견월악(犬月岳), 검은오름(琴岳), 남짓은오름(南朝峰, 木啄岳), 누운오름(臥岳), 도들오름(道頭峰), 불칸디오름(火長兀·藏月伊), 가사오름(可沙岳), 봉개오름(奉蓋岳), 새미오름(紗帽岳), 열안지오름(列雁地岳), 어승생(御乘峰), 오드싱오름(梧登峰, 梧鳳岳), 왕관릉(王冠稜), 칠오름·칠오름(葛岳, 七岳), 피꼬리오름(鶯岳), 돛배오름(俎岳, 丁岳), 서우봉(犀牛峰), 알밤오름(下栗岳), 개오름(狗岳), 구두리오름(狗頭岳), 쳇망오름, 달산봉(達山峰), 매오름, 모지오름(母地岳), 병곳오름(鳳歸岳), 갑선이오름(甲蟬岳), 쇠오름·소소름(牛岳), 영아리(靈娥岳), 좌보미(左輔岳), 가세오름(袞袞峰, 加沙峰), 염통오름, 가마오름(釜岳), 새신오름(鳥巢岳), 널개오름(板浦岳), 노꼬물오름(水月峰), 한경면 당오름(堂山峰), 마종이·마중오름(馬踪岳), 저지악(楮旨岳), 이계오름(二鷄岳), 마오름(馬岳), 갯거리오름(狗尾岳), 누운오름(臥岳), 문도지오름, 한림 붉은오름(明月岳), 정월오름(正月岳), 궁대오름(弓帶岳), 독자봉(獨子峰), 통오름, 뒤굽은이(後曲岳), 모구리오름(母狗岳), 식산봉(食山峰), 유건에오름(伊近岳), 왕뫼(大王山), 거린오름(罨岳), 군산·군메오름(軍山), 넓게오름(廣蟹岳), 월라봉(月羅峰), 개오름(戌岳), 단산(簞山), 영아리오름(龍臥伊岳), 왕이메(王岳·臥牛岳), 과오름·와오름(臥牛峰), 괴오름(猫岳), 노꼬메(鹿狗岳), 누운오름(臥岳·老恩峰), 도래오름(月峰), 바굽지오름(破軍峰), 바리메(發伊岳·鉢山), 빈네오름(隰岳), 사제비오름(鳥接), 새별오름(新星岳·鳥飛岳), 삼형제오름·세오름(三兄弟峯), 알오름(卵岳), 천아오름(天娥岳), 쇠머리오름(牛頭岳), 거미오름·동검은이(東巨文岳), 괴살메(猫山), 돌오름(猪岳), 둔지오름(屯地岳), 뒤굽은이(後曲岳), 북오름(鼓岳), 비치미(飛雉岳), 샷갯오름(笠山峰), 성불오름(成佛岳), 손지오름(孫子峰), 아부오름·아오름(阿父岳), 아진오름(坐岳), 어대오름(御帶岳), 용눈이오름(龍臥岳), 윤드리오름(隱月峰), 체오름(體岳·箕岳), 거린오름(巨人岳·罨岳), 이승이오름(狸升岳), 걸세오름(桀瑞岳), 고이오름·고리오름(高伊岳), 녁시오름(魄너岳), 성널오름(城板岳), 돈두미오름(敦頭岳), 모슬개오름(摹瑟峰·彈琴峰), 보름이오름(望月峰), 각시바우오름(角首岩), 구산봉(狗山峰), 활오름(弓岳), 도라미(月羅山), 방애오름(𪛗岳), 베릿내오름(星川峰), 삼매봉(三梅峰), 쌀오름·솔오름(米岳), 오백장군오름·영실(千佛峰·靈室), 우보오름(牛步岳) 등.

12 제주의 묘지 풍수(墓地風水) 특징

명당의 개념

전통지리서인 『명산론(明山論)』에 명당이 이루어지는 조건에 대해 다음의 언급이 보인다.

물이 감아 돌면 혈을 이루고, 산이 감아 돌면 용을 이룬다. 산이 우뚝 솟아 그 가운데 하늘을 향해 의연히 서고, 안으로 사계절과 사방의 기운을 품고, 밖으로는 팔방(360도 방향, 즉 모든 방향의 바람)의 기운을 저장하여, 사방과 사계절의 기운이 응하는 곳인 혈처를 향해 산과 물의 모든 기운이 모여든다.

水歸成穴，山歸成龍。特立而峙，得天之中。內稟四氣，外藏八風，四氣所應，八方會同。

근본적으로 전통 풍수에서의 명당관(明堂觀)은 배산임수(背山臨水)의 국세를 중시하는데, 제주의 풍수 또한 전통 풍수의 원리와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제주 특유의 지세(地勢)에 적용한 것이다. 전통 풍수에서의 명당의 조건은 예를 들어 주산(主山)이 뒤에서 안정감 있게 받쳐 주어야 하고 좌우로 청룡(靑龍)과 백호(白虎)가 호응하며 감싸 안아야 하며 앞에는 물이 유유히 휘감아 가고 맞은편은 안산이 주객의 관계가 되어 여유 있게 마주 보고 있어야 생기가 모이는 명당의 국세로 본다. 명당은 양택과 음택을 막론하고 건물이나 묘(墓)가 위치한 혈판(穴板)을 중심으로 용혈사수(龍穴砂水), 즉 산, 혈자리, 주변의 산 및 모든 지형지물(地形地物), 물이 감싸고 나가는 보국(保局)안에 있는 평야를 이룬 일정한 범위를 말한다.

다시 말해 명당이라 함은 혈판 앞에 평평한 들판을 말하며 형기(形氣)의 지기(地氣)와 이기(理氣)의 천기(天氣)를 고루 얻어 나라의 임금이 마치 만조백관(滿朝百官)들의 조회(朝會)를 받듯 산과 물에게 조회를 받는 곳이다. 먼저 태조산에서 발맥(發脈)하여 뻗어 내려오는 행룡(行龍)이 높고 낮게 일어나며 꿈틀대듯 좌우로 구불구불 이어지면서 유원(悠遠)하게 과협(過峽)을 거듭하며 내려와야 한다. 또 감싸안듯 호위하고 많은 사(砂)를 거느리고 다시 소조산을 일으키며 그 중심으로 맥을 뻗어 주산(主山) 아래 있는 부모산(父母山)에 이르러 마치 어머니의 뱃속에 아이를 잉태한 듯한 형상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와 더불어 볼록하게 묶인 듯 속기(束氣)된 입수(入首)가 기운이 응집된 혈성(穴星)에 아름답게 접합되어야 비로소 명당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생기가 흐르는 길지(吉地)를 선택할 때는 무엇보다도 산수방위(山水方位)의 적합성을 가장 중요한 관건으로 삼는다. 사실 풍수의 구성은 이 세 가지의 길흉(吉凶)과 조화(調和)에 의해 성립된다고 말할 수 있으며, 모름지기 풍수의 본질은 생기(生氣)와 감응(感應)인 것이다.

『청오경(靑烏經)』에 생기(生氣)와 감응(感應)에 대한 언급이 있다.

사람이 늙어 죽으면 형체는 흩어져 형체가 있기 전의 진체(眞體)로 돌아간다. 정신은 우주의 정령계(精靈界)로 들어가고 뼈는 뿌리인 땅으로 돌아간다. 땅으로 돌아간 뼈는 좋은 기에 감응하면 그 복이 자손에게 미친다. 마치 동쪽 산에서 불꽃이 나오면 서쪽 산에 구름이 이는 것과 같이 동기감응(同氣感應)하기 때문에 뼈는 길기(吉氣)가 가득한 온혈(溫穴)에 매장되면 자손이 부귀를 얻게 되고 이에 반하면 자손이 쇠퇴하고 빈한하게 된다. 즉, 길기감응(吉氣感應)과 친

자감응(親子感應)은 풍수의 본령이며 본질이 되는 것이다.

百年幻化，離形歸真，精神入門，骨骸返根，吉氣感應，累福及人，東山吐焰，西山起雲，空吉而溫，富貴延綿，其或反是，子孫孤貧.

또 감응에 대해 『금낭경(錦囊經)』에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장(葬)이라는 것은 생기를 타는 것이다. 오행의 기가 땅 속에 흐른다. 자손은 부모에게서 받은 몸이다. 경에서도 부모의 기와 자손의 기가 서로 감응해야 귀신, 즉 초자연의 복이 자손에게 미친다고 했다. 이는 동산(銅山)이 서쪽으로 무너지면 동쪽의 영종(靈鍾)이 응해서 소리를 내는 것처럼 봄에 초목이 꽃을 피우고, 조씩이 방에서 움트는 것과도 같다. 무릇 음양의 기는 서로 응할 때 바람이 되며, 오르면 구름이 되고 내리면 비가 되며, 땅 속을 갈 때는 생기(生氣)가 된다.

葬者乘生氣也，五氣行乎地中，人受體於父母，本體得氣，遺體受蔭，經曰，氣感而應鬼福及人，是以銅山西崩，靈鐘東應，木華於春，栗芽於室，夫陰陽之氣，噫而爲風，昇而爲雲，降而爲雨，行乎地中，則爲生氣.

이처럼 전통 풍수에서는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적 관계를 중시하고 있으며 인생에 있어서 귀천(貴賤)과 강약, 빈부, 성쇠 등은 우주의 조화력을 가진 이 생기(生氣)를 많이 받는가 아니면 적게 받는가에 따라 일어나는 형상을 포착하고 있는데, 사실 풍수의 이치로 양택과 음택은 둘이 아닌 하나이며 생기가 충만한 땅에 거처를 정하면 되는 것이다.

제주의 묘지(墓地) 풍수

일반적으로 풍수라고 하면 양택(陽宅)보다 음택(陰宅)을 많이 떠올리게 된다. 이것은 예로부터 집터를 보는 양기(陽基)보다 묘지(墓地)를 보는 음택(陰宅)을 더 중시했기 때문인데, 사람이 죽어 땅에 묻히면 살은 썩어 없어지지만 유골은 오랫동안 남는다. 그 뼈에서 발하는 정기가 동기감응(同氣感應)에 의해 자손들의 화복(禍福)에 영향을 준다는 데서 더욱 음택을 소중히 여긴 것으로 본다. 효의 개념에서 출발한 묘지 풍수는 조상의 유해를 좋은 땅에 모시으로써 소응(所應)을 얻으려는 것인데, 그러한 집념이 유독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한국의 전통적인 묘지 풍수관의 특징이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한국인의 사회적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 가부장(家父長)적 중심의 사회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혈족 관계의 문화가 한국의 묘지 풍수 신앙을 한층 더 중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좋은 땅에 조상을 편안히 모시면 후손이 편안하고, 조상을 흉지(凶地)에 모시면 후손 역시 불안한 이치로 보았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경우는 기후의 특성상 바람이 많고 특히 사면이 모두 바다이므로 대개 서북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을 등지거나 피하여 묘를 썼다. 물론 풍수적 지리의 이점에 따라 방향에 관계없이 좌향(坐向)을 한 묘들도 많으나 대개 마을의 공동 묘역 등은 남동쪽으로 들어선 곳이 많다. 풍수에서 바람을 타면 기운이 흩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장풍(藏風)의 요소를 중시했다. 특히 제주도는 육지의 지형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서 오름에 의지하여 묘를 쓰고자 했으며 좌향을 중심으로 공간적으로 허한 부분을 산담 또는 오름의 상호 유기적인 관계로 보완하고자 했다. 제

주도 명당지는 대개 입도조(入道祖)의 묘역이 들어선 곳이 많다. 또한 제주의 묘지 풍수는 윤리성을 바탕으로 효와 덕을 쌓은 사람만이 좋은 길지를 얻게 된다는 관념이 강했고 그에 따른 선악의 결과로 얻어지는 소응의식(所應意識)이 깊게 자리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제주의 묘지풍수는 형기론(形氣論)을 중심으로 지리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풍수의 이치에 맞으면 평지, 산 아래, 산 중턱, 산머리 등 할 것 없이 모두 묘를 썼다.

소장(所場)별 목장(牧場) 안의 명혈처

소장(所場)별 명혈처(明穴處)

『영주명산록(瀛洲明山錄)』에 근거하여 소장(所場)별로 명혈지를 대략적으로 논하자면 다음과 같다. 1소장이 3~4곳이요, 2소장이 2~3곳이요, 3소장이 2~3곳이요, 4소장이 37~38곳이요, 5소장이 27~28곳이요, 6소장이 23~24곳이요, 7소장이 4~5곳이요, 8소장이 3~4곳이다. 소장(所場)별로 볼 때 제주목에 속한 4소장에 가장 많은 명혈지가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5소장, 다음으로 6소장 등으로 명혈지가 많다. 목장구역 내에 명혈이 많은 것은 이 지역이 한라산을 정점으로 했을 때 사방으로 돌아가면서 한라산 자락이 이어진 등성이와 주변 오름들의 지맥을 받아 기운이 응집되어 이루어진 혈처(穴處)들이며, 그 사이로 주변 하천들이 돌고 휘감으며 지기(地氣)의 경계를 분명히 하면서 내려가기 때문이다.

삼읍(三邑)의 목장 현황

1792년 삼읍 제주목(濟州牧)·정의현(旌義縣), 대정현(大靜縣)의 목장 현황은 다음과 같다.(金奉玉 『增補 제주통사』에서 재인용)

13 제주의 주요 명혈지(明穴地) 탐색

제주도는 곳곳에 동서남북으로 많은 명혈을 지니고 있어 지기(地氣)가 생동하는 곳이다. 동시에 풍수의 원형이 잘 이루어진 곳이기도 하다. 한라산을 품으로 분포된 368여 개의 오름들은 제주땅 곳곳에 좋은 지맥을 형성하여 풍수적 조화를 안겨 준다. 땅의 성정에 따라 삶의 터를 정한다면 어느 땅이든 막론하고 사용하는 자의 지혜에 따라 무한대의 지기(地氣)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이다. 진정 하늘이 숨기고 땅이 숨긴 명혈 중의 명혈도 그 지리를 쓰는 사람의 성정과 덕성에 맞아야 생기발현(生氣發現)하는 것이며, 명혈(明穴) 또한 시간의 추이(推移)에 따라 변해 간다. 즉, 세월이 가면 인심도 변하고, 땅의 성정도 변한다. 길이 뚫리고 건물이 들어서며 물길을 돌려 하천의 지류가 변하면 그에 따라 지기의 흐름도 변한다. 또한 땅은 그대로 있으나 땅 속은 계속 요동하며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정치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법도 그렇고 사상도 그러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땅의 기운이 변화하는 성정을 파악하면 그에 합당한 자리를 읽을 수 있는 것이다. 천지의 공덕이 공평하기 때문에 예전엔 외지고 척박한 땅도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발복의 땅으로 다가오고, 예전엔 사람들이 모이는 발복의 땅이었으나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척박한 곳으로도 변화한다. 그 변화한다는 이치는 천지 대자연의 법칙과 순환의 진리이다. 그 변화에 따라 생장소멸(生長消滅)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이 삼라만상(森羅萬象)의 실체이다. 제주의 오름은 그 나름대로 독특한 개성과 생기를 저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오름의 성정에 맞는 지리의 법을 이용하여 생활의 지혜로 삼는다면 그야말로 최고의 길지(吉地)로 거듭 태어나는 것이다. 지면(紙面)의 사정상 여러 명혈지는 생략하고 참고적으로 잘 알려진 몇 군데를 우선 탐색하고자 한다.

성읍(城邑) 일관현(日觀軒)

한라산에서 뻗어 내린 맥(脈)이 성읍마을로 들어오기까지의 경로는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 성판악으로 이어진 맥이 괴평이오름을 거쳐 거문오름, 붉은오름 등으로 이어지고 다시 소록산과 대륙산을 거쳐 할애비오름과 모지악까지 길게 뻗었다. 이후 오름의 맥은 없으나 대신 작은 동산을 여러 개 분출시키면서 줄기차게 달려오던 맥이 성읍마을로 들어온 것이다. 천미천은 일관현을 감싸며 용이 꿈틀거리듯 유장하게 지나고 있다.

『지리오결(地理五訣)』에서 물은 산의 혈맥에 비유된다고 하여 사람을 이롭게 하거나 사람을 해롭게 하는 귀신과 같다고 했다. 호순신(胡舜申)의 『지리신법(地理新法)』에 “무릇 물은 각기 그 좋은 방향에서 흘러 들어와 나쁜 방향으로 나감이 좋다.(欲水各自其吉方來, 凶方去)”라고 했다. 길방위에서 흉방향으로 나가니 건물의 좌향이 서북편의 영주산을 뒤로하여 남동쪽을 향하고 있다. 일관현은 남녘이 상배하듯 하고 음양이 상보하는 듯한 형국을 이루고 있다. 일관현은 성읍의 중간에 위치하여 주위 산세가 포근하게 감싸주고 좌청룡과 우백호가 입맞춤하는 형국이니 매우 좋은 곳이다. 동쪽으로는 천미천이 있어서 청룡이 꿈틀거리며 휘돌아 앉았고, 백호도 향교건물 쪽으로 머리를 튼 모습이니 쌍룡이 마치 입을 맞추는 듯하다. 또한 성읍민속마을을 다소곳하게 지켜주는 영주산을 뒤로하여 남동쪽에 자리한 일관현은 마을의 중앙에 위치하여 흘러온 맥이 일관현 앞에서 기(氣)를 뿜었다고 볼 수 있다. 신령한 기운을 가지고 마을의 낙산으로 자리한 영주산은 낙산(樂山)으로서의 의미도 크지만 마을로 들어온 맥과는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하천의 길이가 길어서 예로부터 ‘산내’라고 불리던 천미천에 의해 성읍의 동쪽으로 지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천미천은 대규모 목장의 조성으로 물길이 변경돼 때로는 물이 범람하여 농작물의 피해를 주고 있지만, 산굼부리 북쪽을 돌아서 대천동 마을 동쪽을 지나

성불오름 앞으로 이어지면서 마을 동쪽으로 흘러 마을맥을 보호해 왔다. 영주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성읍마을은 1980년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보호되어 오다가 1984년 중요민속자료 제 188호인 국가지정문화재로 다시 지정되어 본격적으로 민속마을로 관리되고 있다. 일관현은 지난 1975년부터 지방유형문화재 제7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으며 누룩나무, 동백나무, 팽나무 등 주변의 울창한 수림에 둘러싸여 있다.

대봉림 동산(조천리 소재)

내룡(來龍)이란 혈(穴) 뒤편에 있는 산세를 말하며, 용맥(龍脈)이 줄기차게 치달아 흘러 내려오다가 혈로 들어가려고 하는 곳을 말한다. 아울러 하나의 국세에 하나의 혈장에 이르기까지의 용맥을 지칭한 것이다. 묘지의 왼쪽에서 가까이 감아주는 산을 내청룡(內靑龍)이라 하고 내청룡 밖에서 감아주는 산을 외청룡(外靑龍)이라 한다. 사람의 왼팔에 비교되는데, 만약 청룡이 아름답고 기세 좋게 감싸고 돌았으면 자손들의 발복이 누대로 이어진다고 했다.

또한 혈판(穴板)의 오른쪽에서 호위하듯 가까이 감아주는 산을 내백호(內白虎)라 하고 내백호 바깥의 산을 외백호(外白虎)라 한다. 백호 또한 청룡과 더불어 두 팔을 크게 벌려 감싸안으려는 형상으로 무릇有情(有情)해야 하며 그 끝은 움크린 듯 해야 상격이라 했으며 위압하듯 제압해 들어오는 형상이면 불길하다 했다.

‘대봉림동산’은 북제주군 조천읍 조천리에 소재해 있는데 지형이 아늑한 이 곳은 풍수적 형기로 마치 닭이 알을 품고 있는 금계포란형(金鷄抱卵形)의 형국이다. 한라산을 조산(祖山)으로 삼아 힘차게 흘러 내려온 내룡(來龍)이 입맥(入脈)하여 들어가 있어 매우 힘이 있는 곳이다. 좌우로 혈을 보호하며 청룡과 백호와 보기 좋게 길게 뻗어 혈을 감싸니 자손들이 크게 번창하는 형국이다. 백호맥이 청룡맥보다 강하게 뻗어 장손(長孫)보다는 오히려 차손(次孫)이 더욱 명망을 얻을 수 있는 자리이다. 앞쪽으로 함덕을 지나 서우봉(犀牛峰)이 호응하여 조산(朝山)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안산(案山)의 부족함을 잘 보충해 주고 있다. 안산을 일명 주작(朱雀)이라고도 하는데, 혈장 앞에 보이는 산으로서 혈장을 허(虛)하지 않게 하며 당판에 모인 기(氣)가 다른 곳으로 새지 않게 보호하거나 안산 밖에서 멀리 곧게 충(沖)을 해오는 물길을 감당하여 완충하는 역할도 함께 한다. 혈장이 주인이라면 안산은 객(客)이며 책상에 비유되기도 한다. 또한 부부가 함께 마주보며 다정하게 앉은 형상으로 혈을 받쳐주는 역할을 한다. ‘대봉림동산’의 명혈지에는 사후(死後) 500여 년이란 세월 동안 실묘(失墓)되었다가 찾은 모 가문의 입도조(入島祖) 묘역이 들어서 있는데, 입도(入島) 25대까지 소응(所所應)이 뻗쳐 후손들이 번창하여 각 방면으로 눈부시게 진출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덕지답(德池沓) 수원 위쪽의 명혈(明穴)

한라산의 맥이 힘차게 흘러 내려 이호동 덕지답까지 이어진 곳으로 제주시 이호동 덕지답수원 위에 위치한 명혈지이다. 좌우로 청룡과 백호가 휘감아 합기(合氣)된 지세가 풍수적 형기(形氣)로 마치 옥잔(玉盞)을 접시에 살짝 올려 놓은 형국인 금반옥배형(金盤玉杯形)의 지세로 이름이 나 있다. 주위가 시원하게 탁 트인 게 한눈에 보아도 지세가 편안하고 매우 기운차 보인다. 뒤쪽으로 멀리 보이는 한라산을 조산(祖山)으로 삼아 굽이쳐 내려온 맥이 염통악(염통외오름)을 그 주산(主山)으로 의지해 있다. 다시 이 곳 염통악 맥이 동쪽 방향으로 한 가닥 뻗어 내리면서 노형 광석동으로 이어지면서 살짝 융기하여 속칭 ‘오도롱’ 마을을 이루며 덕지답으로 들어간 형국이다. 서쪽으로는 어승생과 열안지오름 사이로 흐르는 ‘도감내’를 타고 월산마을쪽으로 맥이 떨어져 나갔다. 이 곳 덕지답수원 위쪽은 도두봉이 멀리서 입체적 호응을 이루

며 조산(朝山)으로 다가오고 바로 일주도로 건너 맞은편에 자리한 작은 동산은 안산의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 사실 이 곳 명당에 앉아 보면 확실히 느낌이 편안하고 안락하다. 바람이 멈춘 듯하고 주변의 지세가 포근하게 보호해 주며 내려앉아 있어서 전혀 불안한 느낌이 들지 않는다. 풍수의 뼈대는 장풍득수(藏風得水)이다. 기(氣)가 모인 혈자리에 조상의 유골을 모시면 동기감응(同氣感應)의 원리에 의해 자손들에게 좋은 기(氣)가 전해진다고 보는 것이다. 이 곳엔 수백 년 동안 물이 마르지 않고 침없이 용솨음쳐 흘러나오는 생수가 있다. 신기하게도 이 용천수는 동쪽으로 흐르는 물로서 혈장을 보호하며 기운을 모은다. 이 혈자리엔 모 가문의 입도 2세의 묘역이 들어서 있다. 명당이라 함은 혈판 앞에 평평한 들판을 말하며 형기(形氣)의 지기(地氣)와 이기(理氣)의 천기(天氣)를 고루 얻고 산과 물에게 조회(朝會)를 받는 곳이다. 먼저 태조산에서 발맥하여 뻗어 내려온 행룡(行龍)이 고저기복(高低起伏)하고 꿈틀대듯 좌곡우곡하며 유원하게 과협(過峽)을 거둬하며 내려와야 한다. 또 감싸안듯 호위하고 많은 사(砂)를 거느리고 소조산을 일으키며 그 중심에 맥을 뻗어 주산(主山) 아래 있는 부모산(父母山)에 이르면 마치 어머니의 뱃속에 아이를 잉태한 듯한 형상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와 더불어 속기(束氣)된 입수(入首)가 기운이 응집된 혈성(穴星)에 아름답게 접합되어야 한다.

함박이굴

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한 일명 '함박이굴'은 주변의 지세가 평범하여 시각적으로 판단할 때 그다지 눈에 띄는 곳이 아니나 이 곳엔 형기론(形氣論)의 지세 판단으로 복호형(伏虎形)의 괴혈(怪穴)이 위치해 있다. 좌향(坐向)의 위치가 동남쪽으로 좌(坐)를 틀고 서북쪽으로 향(向)을 한 이 곳은 '고사모루' 동산이 단지 주산(主山)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사신사(四神砂), 즉 청룡, 백호, 주작, 현무의 조건이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곳이다. 다만, 왼쪽으로 청룡의 맥세(脈勢)가 휘감고 있고 '함박이굴'의 용세가 백호를 대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곳은 다행히 용세(龍勢)가 물을 만나 기운이 모이는 곳으로 수맥(水脈)이 묘지를 돌아 서북쪽을 향해 흘러가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소명당(小明堂)의 조건을 이룬다. 이 곳은 후손들이 발복하는 지세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생전(生前)에 덕을 쌓아야 진혈(眞穴)의 위치를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이 곳엔 일찍이 어느 가문의 입도조(入島祖)의 묘가 들어서 있으며 뒤를 이은 자손들이 번창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늘이 낸 자리에 비교될 수 있다.

괴혈(怪穴) 또는 교혈(巧穴)이란 말은 문자 그대로 이상한 형태로 구별하기가 어려운 것이며, 천장지비(天藏地秘)로 오로지 덕 있는 자만이 쓸 수 있는 것이다. 괴혈은 천지의 법칙에 통하고, 법안(法眼)이나 도안(道眼)이 아니면 거의 볼 수 없는 혈로서 만약 잘못 보아 괴혈로 착각하고 쓰면 그 화(禍)가 무척 크다 할 것이다. 절대로 욕심에 사로잡혀 천박하고 박덕한 사람이 수용할 수 있는 혈이 아닌 것이다.

천교혈(天巧穴)은 분지에 혈이 맺거나 구름 위로 높게 솟은 산꼭대기에 맺히는 혈을 말한다. 산이 맑고 청명한 산 이마에 맺혀서 '천교혈'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조건은 먼저 높은 고지대에 있더라도 청룡과 백호가 확연히 감싸고 지세가 평평하고 완만하여 비록 높은 산정이라 할지라도 혈장(穴場)에 오르면 반은 하늘같이 보이고 활달하고 양명하여 국세가 너그럽고 화평해야 한다.

교혈은 깊은 산에 얇게 땅이 평평하여 움집처럼 들어간 물니혈(沒泥穴)을 말한다. 이 혈은 오로지 물이 내려가는 것을 보아 찾을 수 있는 것이니 찾기 어려운 혈 중의 하나이다. 혈이 부드러워 팔풍(八風)에 노출된 듯하여 추운 듯하지만 혈에 임하면 따뜻하고 바라보면 노출된 듯하나 올라가 보면 감추어진 곳이다. 이 혈은 높은 산으로부터 평지로 혈이 맺힌 것이다.

제주향교(濟州鄉校)

제주시 용담동에 위치한 제주 향교는 조선조(朝鮮朝) 송유정책(崇儒政策)에 따라 명륜당(明倫堂), 대성전(大成殿) 등을 설치하게 되었고, 당시 고등교육의 요람인 성균관(成均館)의 축소 형태를 지니고 있다. 성인(聖人) 공자(孔子)에 대한 제사를 거행하고 유학을 가르치는 교육의 장으로 기능을 담당해왔다. 제주 향교는 1392(태조 1년), 제주성내(濟州城內) 현 제주시 북초등학교 쪽 구전매청 자리에서 학교로 창건된 후 현 오현단 부근으로 이전했다가 다시 광양으로 옮겼으나 풍수적으로 장풍(藏風)의 조건이 부족하므로 다시 남문(南門) 밖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였다. 제주 향교는 제주도 유형문화재 제2호로 보호되고 있으며, 대성전(大成殿), 명륜당(明倫堂), 계성사(啓聖祠) 등 주요 향교 건물 중에서 대성전이 한라산의 맥을 이어받은 혈자리로 알려져 있다.

제주 향교는 사라봉이 안산 역할을 하며 주객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주위의 조산들이 감싸고 있는 아늑한 명당처이다. 산천단에서 내려온 맥이 '부레리동산(浮月童山)'까지 이어져 대성전 자리는 풍수의 형기론(形氣論)으로 마치 닭이 알을 품은 형국인 '금계포란형(金鷄抱卵形)'의 지세에 해당하는 명당이다. 한라산의 맥을 이어받은 내용의 백호맥(白虎脈)은 짧은 듯하지만 왼쪽으로 감싸고 온 청룡맥(靑龍脈)이 길게 휘감아 혈을 감싸고 있다. 또한 산천단 오름과 맥이 이어져 좋은 기운이 감도는 곳이며 주변의 조산과 사(砂)들이 사방으로 포진하여 혈을 받쳐주고 있으니 마치 어여쁜 처녀가 거문고를 타는 형국인 '옥녀탄금형(玉女彈琴形)'의 사라봉이 안산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 곳은 풍수적으로 가히 교육의 장소로 적합한 학궁(學宮)터로 맥을 이어받은 곳이다.

관덕정(觀德亭)

한라산의 북록(北麓)을 타고 내려온 지맥의 한 줄기가 남문통으로 이어지고 그 뺨친 용세(龍勢)가 다시 왼쪽으로 관덕정(觀德亭)을 휘감아 돌면서 동쪽 방향으로 내려와 혈을 보호하는데, 이러한 지세의 변화로 깊은 골이 파이게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풍수지리상으로 이 곳 관덕정의 지형이 마치 주위에 도열한 휘하 장수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격인 '장군대좌형(將軍大坐形)'의 형국이라고도 본다. 관덕정이 자리한 지형은 봉긋하게 살짝 올라앉은 지세로 선인들이 수양을 통하여 덕을 쌓는 활터로 많이 이용했다. 제주도에서 권위적인 건물로 인식되는 관덕정은 제주시 삼도1동에 위치하여 조선조 1448(세종 30년)에 건립돼 국보 제478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원래는 관덕정의 위치가 주위를 관망할 수 있을 정도로 높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주변이 메워져 있어서 원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관덕정은 오랜 세월을 거쳐오면서 여러 차례 보수되고 재건되는 등 많은 우여곡절을 겪다가 1969년 제주시에 의해 완전해체되어 다시 대보수되어 지어진 것이 현재의 관덕정이다. 풍수적으로 적합한 지세에 위치한 관덕정은 해방 후 도민들의 모임장소는 물론 여러 가지 경축행사가 열렸던 곳으로 세월의 역사를 함께 안고 있는 호남제일정(湖南第一亭)으로 제주의 역사를 지켜보고 있다.

조천(朝天) 연북정(戀北亭)

풍수에 있어서 비보와 압승의 방법이 잘 나타나 있는 곳이 있다. 이 곳은 북제주군 조천읍 조천리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주도지방유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시각적으로 볼 때 풍수적으로 뚜렷한 혈세(穴勢)가 없는 평범한 지형인데 천지의 정기(精氣)가 응집된 바위에 정(亭)을 지어 발복하였다고 한다. 예로부터 제주목(濟州牧)의 출입구에 위치해 있는

곳으로 주변보다 높아서 연복정을 지었을 뿐 혈조차 맺혀 있지 않아 풍수적 길지(吉地)로 보기에는 좀 모자란 듯하다. 이 연복정은 조선 초기의 건물로 처음에는 쌍벽정(雙壁亭)이라고 이름지었다. 당시에는 조천의 포구(浦口)가 육지를 왕래하는 관문이었으므로 사신들이 나들이할 때 쉬어가던 풍류처(風流處)이기도 하다. 그러나 연복정의 이름 그대로 제주에 유배된 관료들이 한양으로부터 기쁜 소식을 기다리며 북녘에 있는 임금에 대한 사모의 충정을 보낸 곳이기도 하다.

관덕정처럼 연복정 또한 그다지 풍수적으로 명당처는 아니지만 제주목의 출입구에 위치하여 경관이 좋고 주변보다 지형이 높아 정 짓기에 알맞은 곳이었다. 이 곳의 지형은 풍수적으로 '쌍용합기격(雙龍合氣格)'으로 둘러싸인 형세로 조성되었으니 풍수에서 말하는 이른바 작국이 이루어진 곳이다. 동·서·남쪽으로 각기 서우봉, 원당봉, 샘이오름이 호응하고 있어서 허한 곳이 잘 보충된 곳이기도 하다.

선창가에는 큰 바위가 있는데 이것을 조천석(朝天石)이라 한다. 조천석에 얽힌 전설로 보아 풍수적인 격국보다는 주변의 허한 지세에 대한 보완성을 통하여 비보에 관한 풍수를 의미하며 주변의 길사(吉砂)로 인하여 발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조천석은 기운이 너무 강하여 기운을 깨트리고 억압하는 흉사(凶砂)의 형상이므로 이것을 제압하는 압승의 방법으로 기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조천석을 흙으로 메우고 그 위에 정자를 지어 풍수적 안정을 취해 발복한 이야기이다. 전설상으로는 이 지역 마을에서 부자들이 많이 배출되었고 정치가나 문학자들이 연이어 나왔다고 한다. 이것은 음택보다는 양택 풍수의 요소가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상대적 보완성에 입각한 풍수의 입체적 조형이다. 지기(地氣)가 부족할 경우 그 대신 주변의 길사(吉砂)가 상대적으로 호응하면 좋고 아울러 주변의 지형지물(地形地物)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주변 부족한 지기(地氣)를 대신하여 보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사마루동산

한라산으로부터 뻗어 내린 내룡(來龍)의 한 줄기가 어승생오름을 조산으로 의지하면서 이어진 노루생이오름(노리손이)과 검은오름을 지나오면서 상여오름, 즉 일명 염통뿔 등을 형성시키면서 이 곳 '고사마루동산'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주위에는 앞쪽으로 도두봉을 비롯하여 동쪽으로는 남조순오름(남짓은오름), 서쪽으로는 고내봉, 수산봉 등이 멀리서 호응하며 고사마루동산의 혈을 받쳐주고 있다.

괴혈로 알려진 고사마루동산은 특별히 이렇다할 혈성이 나타나지 않은 평범한 곳에 은근히 감추어진 지세인데, 높고 낮게 힘차게 달려온 산세로서 한라산의 맥을 이어받은 곳이다. 특히 괴혈은 예로부터 천지의 비밀이 숨겨진 혈로 지상에서 오랫동안 덕을 쌓은 사람만이 쓸 수 있다는 복록혈(福祿穴)로 알려져 있다. 선조들이 생전에 덕을 쌓아 후손들로 하여금 번창과 발복을 누리게 하는 것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여전히 덕을 쌓는 이치와 통한다. 제주시 노형동 고사마루동산에 위치해 있는 어느 가문의 입도조(入島祖) 선역이 이 곳 괴혈에 자리하고 있다.

괴혈의 특징은 특별히 형상적인 것은 없고 시각적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으나 실제로는 좋은 기운이 모이는 산자리이다. 일반적으로 풍수의 조건을 말할 때 청룡(靑龍), 백호(白虎),朱雀(朱雀), 현무(玄武) 등 사신사(四神砂)에만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전통적인 풍수의 이론에서도 반드시 작국(作局)만 이루어진다고 해서 혈성(穴星)이 맺히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처럼 참다운 혈이 맺힌 것은 복록(福祿)이 기이하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보호하고 신이 지켜 숨기니 이러한 명당을 아무나 찾을 수 없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명당은 그 그릇에 맞는 주인이 따로 있다는 법이다. 그것은 세상의 진리가 말해주듯이 뿌린 대로 거두고 음덕

(蔭德)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14 제주 풍수의 자연환경 접근

오름의 ‘풍수적 생명관(生命觀)’ 정립

우리가 살고 있는 제주도는 하나의 자연 생명체이다. 제주도를 생명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제주적인 풍수이며 오름의 ‘풍수적 생명관’ 정립에 초석이 된다. 오름은 제주다운 최후의 모습이며, 제주를 지켜주는 최후의 생명체이다. 다시 말해 한라산은 체(體)요, 오름은 용(用)이다. 사람의 몸에 365 혈이 있고 제주도의 오름도 368여 개다. 한라산은 몸체요, 오름은 인체의 혈이다. 산줄기는 뼈대요, 사방으로 뻗어 내려간 하천은 핏줄이다. 백록담은 두뇌요, 산록은 허리 부분이며, 성판악은 심장이요, 어승생은 위장이며 영실(靈室)은 기운을 다스리는 폐장에 비교할 수 있다. 또한 ‘아흔아홉골’은 척추에 해당되고 잇세오름은 어깨이며, 중산간은 복부와 허벅지이고, 해안선은 손과 발에 비유할 수 있다.

역에 ‘서리를 밟으면 굳은 어름의 계절이 온다.(履霜堅氷至)’라는 말이 있다. 외진 곳이라도 지리의 성정에 따라 언젠가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땅이 되는 것이다. 상전벽해(桑田碧海)라는 말도 있지만 오고 감이 일정한 것은 천지 자연의 이치이다. 지금 이 순간 손과 발인 해안의 구조선이 본형(本形)을 잃어 가고 허리가 사방으로 잘려나가며 복부와 허벅지가 파헤쳐지고 있다. 잘리고 망가진 몸은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 설령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전의 기능만큼은 돌아오지 않는다. 제주의 선민들은 오름을 제주의 생명체로 여겼다. 이제 우리가 존재하는 공동의 생명 활동과 관련하여 오름을 지키는 일에 대한 가치를 인식해야 할 것이다.

자연환경의 풍수적 보전과 관리

자연 풍수관에 대한 도민 의식의 전환

자연 풍수관을 통하여 368여 개나 되는 각자의 오름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식할 때 그 오름의 역할은 무한대의 비상을 할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오름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제주민의 삶 속에 오름이 오름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그 오름이 갖고 있는 생명의 실체를 파악할 때 오름은 최고의 가치로 다가올 것이라 확신한다. 환경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 오늘날에 있어서 청정 이미지의 제주를 잘 지키고 보전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일 것이다. 자연 풍수관이 제주에 뿌리내릴 때 제주의 자연환경과 문화환경은 제주의 미래에 더욱 의미 있는 가치를 안겨 줄 것이다.

풍수관 정립으로 난개발 억제

『노자(老子)』제3장에 ‘불견가욕(不見可欲)’이란 말이 있다. 즉, “욕심낼 만한 것을 보여주지 말라.”는 의미인데 결국 이 말은 욕심낼 것만을 끊임없이 생산하는 악순환의 고리는 자본의 파괴와 인간의 파괴, 나아가서는 자연의 파괴를 불러일으킨다는 의미이다. 그러한 인간의 욕심은 결국 자연이 본래 지니고 있는 자정능력을 잃게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노자의 ‘허(虛)’를 생각해야 한다. 자연환경의 보호는 노자가 말한 ‘허’에서 출발하여 아무리 퍼내어 써도 고갈되지 않는, 늘 여지를 남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행해야 한다. 제주도의 가장 큰 명제는 오름의 보호와 이미 개발로 파괴된 원초적인 오름의 생명력과 중산간의 생태적 환경을 복원하는 일이다.

풍수적 조화를 중시한 친환경적 개발

풍수의 근본은 자연과의 합일이다. 땅 자체를 능동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입체적인 조화성을 중시한다. 자연물 어느 것 하나 가볍게 보지 않는다. 대립과 통일의 균형을 중심으로 인간과 자연의 참여를 동일시한다. 중산간은 제주 환경의 중심점이며 구심점 역할을 한다. 풍수적으로 맥을 이어주는 중산간이 마구 파괴되고 있다. 제주의 오염되지 않은 맑은 물이 이제는 오염의 정도가 심하다. 물의 근원지인 중산간이 무분별하게 개발되며 유락업소들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땅의 넓이가 한정된 섬인데 왜 그렇게 도로가 많은지 이해가 안 된다. 도로로 인하여 마을의 지맥이 거의 끊겨나가고 있다. 도로가 인간에게 교통의 편리만 주지만 보존해야 할 지역도 여지없이 허리가 관통되는가 하면 그 주변이 아파트 지역 아니면 새로운 상업 단지로 둔갑하고 있는 현실이다. 자연 환경에 적합한 관광지를 조성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제주도의 바다도 병이 들어가고 있다. 무슨 백화 현상이니 적조 현상이니 매스컴마다 들먹인다. 지금 제주도 바다는 온전한 곳이 없다. 해안의 동네마다 무분별하게 방파제를 만들어 해류의 작용을 막고 물의 순환을 억제하는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 토지의 이용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미명 하에 바다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기혈(氣血)이 살아 움직이는 땅은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유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풍수적 지혜를 발휘하여 조화로운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풍수와 관련한 관광 명소 발굴

태조산인 백두산으로부터 유원하게 흘러온 대맥(大脈)의 기운이 바다 건너 한라산으로 다시 일어나 생동하는 영험한 땅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제주도이다. 제주도의 중심을 이루는 한라산을 정점으로 동서 방향으로 장축(長軸)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거미줄처럼 지맥이 사방으로 이어져 오름을 통한 기혈(氣血)의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 오름에서 바라보는 제주의 풍경은 신비하고 영험한 또 하나의 아름다운 장관이다. 이러한 공간미의 예술성을 풍수와 연결한다면 더욱 그 가치가 살아날 것이다. 땅을 경제적인 가치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결과만 안겨 줄 것이다. 제주의 가치인 그 특유의 아름다움과 중요성을 지닌 오름을 자연 풍수관과 연결하여 관광 상품을 창조해 낸다면 제주도는 또 다른 모습으로 모든 이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오름들에게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오름의 실체를 모를 때 오름은 그저 오름일 뿐이다. 그러나 그 오름의 실체를 알 때 그 오름은 최고의 생명력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오름에는 제주의 풍수가 그대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도는 한라산과 오름의 유기적인 작용으로 인하여 다양한 풍수의 파노라마가 전개된다. 풍수와 관련한 전설과 풍수에 얽힌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인간의 윤리와 도덕성을 발견할 수 있다. 오름을 통하여 원망성과 자연 공간미를 조망하고 풍수적 설명을 병행하여 제주의 오름을 설명한다면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제주의 자연을 통한 풍수적 관광개발은 자연의 소중함을 인식시키는 동시에 인간과 자연의 조화라는 참 가치를 느끼게 하고 유형과 무형의 관념적 생태 관광이 이루어지게 되는 기회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제주 풍수는 전통풍수지리에 바탕을 두고 제주 특유의 지리적 상황과 융합되면서 발전하여 왔다. 특히 한라산과 오름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잉태된 지모관(地母觀)이 기본 골격을 이루면서 풍수와 관련된 설화와 전설이 많이 전해져 왔다. 그 속에는 제주 풍수의 내재성과 소응의식(所應意識), 선악의 결과에 따른 인과적 풍수윤리성이 점철되어 있다. 특히 제주에 전해오는 전설적인 명혈지로 알려진 양택과 음택 '6대 명혈지'에는 오름과 더불어 살아온 제주민의 풍수적 이상향이 잘 배어 있다. 또한 금장지(禁葬地)에 나타난 윤리 의식 속엔 개인보다는 마을의 공동체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관념도 찾아볼 수 있다. 단혈과 관련한 호종단의 풍수 전설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불모적인 당시의 척박한 상황을 벗어나 정신적인 보상을 위해 현실에 중점을 두고 난세를 극복할 수 있는 뛰어난 지도자의 도래를 꿈꾸며 가상의 인물을 형상화시켜 의지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 의식이 깔려 있다.

제주 풍수의 모체인 한라산과 오름을 통하여 유기적으로 맺어진 지맥을 알 수 있다. 오름은 지맥을 이어주는 도체(導體)에 해당되므로 오름의 이해는 곧 제주 풍수를 이해하는 기본 요소가 된다. 특히 오름을 귀중한 생명체로 상징화시켜 인격과 동일시한 자연 풍수관이 잘 나타나 있다. 오름의 풍수적 산형을 통하여 입체적 공간의 조화를 중시한 제주 특유의 자연심미관(自然審美觀)을 지세의 풍수적 형국을 통해 알 수 있다. 아울러 제주에 산포된 많은 명혈지가 대부분 풍수의 형기론(形氣論)에 의해 묘사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제주 풍수의 지배적인 저류(底流)는 자연의 이치에 역류하지 않고 순응하는 자연 풍수관으로 양·음택의 관념에서 잘 나타나 있다. “오름에 나서 오름으로 돌아간다.”는 말처럼 땅을 모태로 삼는 지모관은 오름을 진산으로 삼아 마을의 안녕을 도모하고 신성시하는 관념으로 자리잡았다. 또한 풍수의 윤리성을 앞세워 선악의 귀결로 나타나는 인과적 소응(所應)을 중시한 풍수 문화가 깊게 깔려 있음을 제주 풍수에 관한 설화나 전설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육지와는 다른 기후의 특성과 풍토적인 요소로 인해 서북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을 피하기 위해 남동쪽을 선호했으며, 대개 마을의 공동 묘역이 남동쪽 내지는 장풍득수지(藏風得水地)에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방위에 관계없이 풍수의 점혈(點穴) 이치에 따라 선영의 묘를 쓴 곳도 많다.

설화에 나타난 오름의 인격화엔 제주민의 지리관(地理觀)이 잘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제주도를 하나의 생명체로 본 자연의식의 발로라 볼 수 있다. 제주의 묘지 풍수를 탐색하면서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산담(墓牆)을 통하여 표출된 생사일여관(生死一如觀), 오름의 품에 들어가 오름의 품에 묻히려는 귀소본능(歸巢本能) 의식 등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오름을 사람의 인체와 동일시하여 풍수적 사고를 접목시킨 자연 풍수관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지세의 보완성을 고려한 제주의 돌담과 초가 그리고 비보(裨補)와 관련된 돌문화의 건축문화를 연계해서 제주적인 생활풍수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그것은 제주만의 독특한 기후·지형과 맞물려 생활 문화 곳곳에 스며 있으며, 특히 사면이 바다인 지리적 한계의 허실을 보완하기 위한 비보·압승의 풍수관이 지배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흔적들을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이 가까운 예로 방사탑과 돌담 내지는 대개의 마을들이 오름을 좌(坐)로 하거나 안산으로 삼아 설촌된 점들이다. 마을에 얽힌 설촌 유래나 오름의 지명에서 자주 나타나듯이 땅을 모체로 한 자연 풍수관이 제주민들의 생활 속에 농축되어 있음을 곳곳에서 발견하게 된다. 그 속에서 오름과 맺어진 섬 특유의 문화 속에서 배태된 제주민의 의식과 생활 풍수관을 동시에 찾아볼 수 있다.

오늘날 한라산이 품고 있는 오름은 더 이상 개발과 점유의 대상이 아니라 삶을 윤택하게 살찌

우는 젓줄로 인식돼야 한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제주 특유의 자연 환경 속에서 피어낸 생활 풍수문화를 미래의 가치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오름을 하나의 자연 인격체로 중시했던 제주 선민들의 자연환경 의식을 교훈 삼아 자연환경관을 정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자연을 경외하고 중시한 제주민의 문화 속에는 무엇보다도 한라산과 오름을 하나의 존귀한 인격체로 바라본 제주 선민들의 정신이 깊게 자리하고 있다. 특히 오름을 의지한 이면에는 순리에 역행하지 않고 자연과의 합일을 중시한 제주민의 자연 풍수관(自然風水觀)이 깊게 자리했음을 더불어 알 수 있다.

【참고문헌】

제1장

- 강정식, 「濟州島 당신 본풀이의 傳承과 變異研究」, 한국정신문화원, 박사학위 논문, 2002.
김영돈, 현용준, 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상), 일조각, 1960.
문무병, 「제주도당신양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양영수, 「제주 신화에 나타난 공존과 사랑의 원리」, 『제주도연구』14, 제주학회, 1997.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설화」, 『제주도연구』6, 제주 학회, 1989.
濟州道편, 『濟州島傳説誌』, 제주도, 1985.
제주대 국어교육과, 「송당리 학술조사보고」, 『백록어문』, 백록어문학회, 1997.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현길언, 『제주도 장수설화』, 흥성사, 1981.
현길언, 『제주문화론』, 탐라목석원, 2001.
현용준 편, 『한국구비문학대계』9-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현용준, 『제주도의 신화』, 서문당, 1977.
현용준, 『제주도의 전설』, 서문당, 1977.

제3장

- 作者未詳, 『瀛州誌』.
沖庵 金淨, 『濟州風土錄』.
淸陰 金尙憲, 『南嶺錄』.
葵窓 李健, 『濟州風土記』.
太湖 李元鎮, 『耽羅志』.
心齋 金錫翼, 『耽羅紀年』.
李重煥, 『擇里志』.
秦聖麒, 『南國의 地名由來』, 濟州民俗研究所, 1975.
梁弘植·吳太用 共編, 『濟州鄉土記』.
『濟州島實記』, 濟州實跡研究所發行.
『濟州島山錄』.
〈過瀛州山勢誌〉.
〈瀛州翫形詩〉.
胡舜申(明), 『地理新法』.
蔡成禹 編纂, 『明山論』.
靑烏子, 『靑烏經』.
郭璞(晉), 『錦囊經』.
徐善繼·徐善述 合著, 『地理人子須知』.

澄陽 趙九峰, 『地理五訣』.
 李增 著, 金益洙 譯, 『南통日錄』.
 『新增東國與地勝覽』, 東國文化社, 1964.
 『高麗史節要』, 東國文化社, 1964.
 『地理正宗』.
 金鍾喆, 『오름나그네』, 도서출판 높은오름, 1995.
 金奉玉, 『제주통사』, 도서출판 제주문화, 1987.
 梁海明 譯註, 『老子』, 武漢出版社, 武漢.
 魏伯陽(後漢·東漢), 『周易參同契』.
 葛洪(晉) 顧久 譯註, 『抱朴子』, 貴州人民出版社.
 徐子平(宋), 『命理歌賦』.
 袁樹珊(民國初), 『命理探源』.
 陳素庵(清), 『子平約言』.
 韋千里, 『命學講義』, 『八字提要』.
 李虛中, 『鬼谷子』.
 王仲堯, 『易學與佛教』, 中國書店, 北京.
 劉大鈞, 『周易古經白話解』, 山東友誼出版, 山東省.
 鄭萬耕, 『易學源流』, 沈陽出版, 沈陽.
 高亨, 『周易大傳今注』, 齊魯書社, 山東省.
 孫振聲, 『易經入門』, 文化藝術出版社.
 明, 萬民英, 『白話評注本-三命通會』, 內蒙古文化出版社.
 趙京生, 『三命通會』, 中州古籍.
 徐大升(宋), 『淵海子平』.
 張楠(明), 『命理正宗』.
 (宋), 『窮通寶鑑(欄江網)』.
 任鐵樵(清), 『滴天髓闡微』.
 劉伯溫(明), 『滴天髓』.
 金奉玉, 『增補濟州通史』.
 제주도교육위원회, 『耽羅文獻集』(교육자료 29호), 신일인쇄사, 1976.
 기타 참고한 전통 고전음양지리서 「청오경(靑鳥經)」, 「금낭경(錦囊經)」, 「호순신(胡舜申)의 지리신서(地理新書)」, 「명산론(明山論)」, 「지리문정(地理門庭)」, 「감룡(+龍)」, 「착맥부(捉脈賦)」, 「동림조담(洞林照膽)」, 「옥척경(玉尺經)」, 「청낭경(靑囊經)」, 「설심부(雪心賦)」, 「옥수경(玉髓經)」, 「흑낭경(黑囊經)」, 「황낭경(黃囊經)」, 「천옥경(天玉經)」, 「선파집(仙婆集)」, 「탁옥부(琢玉斧)」, 「효사집(孝思集)」, 「정문침(頂門針)」, 「천기회원(天機會元)」, 「인자수지(人子須知)」, 「지리오결(地理五訣)」, 「지리정종(地理正宗)」, 「사마수법(司馬水法)」, 「지리대성(地理大成)」, 「진지원직(眞指原直)」, 「발미론(發微論)」, 「부혈부(附穴賦)」, 「설천기(泄天機)」, 「지보경(至寶經)」, 「의룡경(疑龍經)」, 「부촌금부(附寸金賦)」, 「심룡기(尋龍記)」, 「태엽경(太葉經)」, 「천보장법(天寶葬法)」, 「양공진신수법(楊公進神水法)」, 「구빈요지(救貧要旨)」, 「이기장법(理氣葬法)」, 「구천현녀경(九天玄女經)」, 「옥룡자답산부(玉龍子踏山賦)」, 「옥유결(玉遺訣)」, 「옥수룡격(玉髓龍格)」, 「삼재발비(三才發秘)」, 「피간노담(披肝露膽)」, 「삼정갑복지론(三鼎甲福地論)」, 「오성구결(五星口訣)」, 「사법심경(四法心鏡)」, 「평양결(平洋訣)」, 「주자답산가(朱子踏山歌)」, 「도선답산가(道洗

踏山歌), 「동국여지승람(東國與地勝覽)」, 「택리지(擇里志)」, 「청구도(靑丘圖)」, 「갈형취류(噶形取類)」, 「협죽매화(夾竹梅花)」, 「아파사단(亞婆砂斷)」, 「하야운사단(何野雲砂斷)」, 「구성전변(九星傳變)」, 「금극부(金(22)賦)」, 「만성숙장법(萬成叔葬法)」, 「최관편(催官偏)」, 「양택삼요(陽宅三要)」 등.

【사진 목차】

- <사진 1-1> 한라산의 오름군락 / 17
- <사진 1-2> 서귀본향당 / 22
- <사진 1-3> 송당본향당 / 25
- <사진 1-4> 상창본향당 / 28
- <사진 1-5> 세화본향당 / 34
- <사진 1-6> 호근본향당 / 35
- <사진 1-7> 중문본향당 / 39
- <사진 1-8> 백록담 / 45
- <사진 1-9> 영실기암 / 49
- <사진 1-10> 용진각 / 50
- <사진 1-11> 물장오리 / 53
- <사진 1-12> 아흔아홉골 / 55
- <사진 1-13> 개미목 / 59
- <사진 2-1> 겨울 한라산 전경 / 94
- <사진 2-2> 한라산 정상 / 97
- <사진 2-3> 방애오름 / 98
- <사진 2-4> 윗세오름 큰오름, 셋오름 / 99
- <사진 2-5> 장구목오름 / 100
- <사진 2-6> 큰두레왓오름 / 101
- <사진 2-7> 작은두레왓오름 / 102
- <사진 2-8> 촛대봉 / 103
- <사진 2-9> 사제비오름의 여름과 겨울 / 105
- <사진 2-10> 이스령오름 / 106
- <사진 2-11> 어스熄이오름 / 110
- <사진 2-12> 들오름 / 113
- <사진 2-13> 사라오름 / 114
- <사진 2-14> 굴오리오름 / 120
- <사진 2-15> 영실기암 오백장군 / 124
- <사진 2-16> 어리목계곡 / 127
- <사진 2-17> 선녀폭포 / 131
- <사진 2-18> 구린굴 입구 / 132
- <사진 2-19> 수행굴 내부 / 133
- <사진 2-20> 평굴 / 134
- <사진 2-21> 존자암 / 136
- <사진 2-22> 백록담 / 138
- <사진 2-23> 사라오름샘 / 139
- <사진 2-24> 어승생저수지 / 140
- <사진 2-25> 장구목 일대 / 143

- <사진 3-1> 점점이 흠어진 오름군락 / 156
- <사진 3-2> 아흔아홉골 / 179
- <사진 3-3> 방사탑과 해안가의 돌담 / 187
- <사진 3-4> 한라산 전경 / 199
- <사진 3-5> 동쪽으로 이어진 오름 / 207
- <사진 3-6> 서쪽으로 이어진 오름 / 208
- <사진 3-7> 서북으로 뻗어나간 오름 / 218
- <사진 3-8> 목형산(木形山) / 224
- <사진 3-9> 토형산(土形山) / 225
- <사진 3-10> 금형산(金形山) / 225
- <사진 3-11> 어도오름 / 227
- <사진 3-12> 별도봉 / 228
- <사진 3-13> 검은오름 / 229
- <사진 3-14> 식산봉 / 230
- <사진 3-15> 대수산봉 / 231
- <사진 3-16> 소수산봉 / 232
- <사진 3-17> 영주산 / 233
- <사진 3-18> 매오름 / 235
- <사진 3-19> 단산 / 236
- <사진 3-20> 산방산 / 238
- <사진 3-21> 군산 / 239
- <사진 3-22> 괴살메 / 240
- <사진 3-23> 송악산 / 241
- <사진 3-24> 사라악 / 242
- <사진 3-25> 과오름 / 243
- <사진 3-26> 금산 / 244
- <사진 3-27> 당오름 / 246
- <사진 3-28> 지미봉 / 247
- <사진 3-29> 방일봉 / 248
- <사진 3-30> 불래오름 / 249
- <사진 3-31> 어승생 / 251
- <사진 3-32> 수산봉 / 252
- <사진 3-33> 새신오름 / 253
- <사진 3-34> 붉은오름 / 254
- <사진 3-35> 둔지막 / 256
- <사진 3-36> 성불오름 / 257
- <사진 3-37> 비치미오름 / 258
- <사진 3-38> 좌보미오름 / 260
- <사진 3-39> 동거문오름 / 262
- <사진 3-40> 와우형(臥牛形)의 우도 / 266
- <사진 3-41> 성산일출봉 / 268

- <사진 3-42> 문필의 기상으로 이름난 ‘설섬’ / 275
<사진 3-43> 성읍 일관헌 / 285
<사진 3-44> 덕지답 전경 / 288
<사진 3-45> 함박이굴 / 290
<사진 3-46> 제주향교 대성전(大成殿) / 291
<사진 3-47> 관덕정 / 292
<사진 3-48> 조천 연복정 / 293
<사진 3-49> 고사머루동산 / 295

【그림 목차】

- <그림 3-1> 풍수도 / 152
<그림 3-2> 한라장축 / 220

【표 목차】

- <표 3-1> 1972년 삼읍의 목장 현황 / 282